

韓國戰爭

要約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발 간 사

이 책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괴군과 중공군을 맞아 싸운 한국전쟁의 내용을 독자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요약하여 편찬한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전쟁에 관한 전말은 이미 국내외에서 발간된 많은 책자와 문헌들을 통해 널리 소개되어 있으며, 당위원회에서도 총 11권으로 된 “한국전쟁사”를 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자나 문헌들은 그 주제마다의 특성이 다르거나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 순수한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전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며, 당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전쟁사” 역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배부처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손쉽게 대하거나 그 요점을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군사정책이나 군사전략 그리고 전술 등을 발전시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독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대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추려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전말을 이해하고 군사업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 제2의 한국전쟁을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1986년 11월 1일

국방부전사편찬위원장 윤 석 우

목 차

▶ 개 요	9
1. 한국전쟁의 배경...	9
2. 한국전쟁 발발...	23
3. 한국군 및 유엔군의 작전...	27
4. 한국전쟁의 의의...	34
▶ 북괴군의 전력구조	40
1. 창설경위...	40
2. 성장과정...	44
▶ 한국군의 창설과 성장	59
1. 창설경위...	59
2. 성장과정...	66
▶ 전쟁전 북괴의 대남도발	86
1. 대남교란공작...	87
2. 위장 평화공세...	95
▶ 북괴군의 남침계획	97
1. 남침계획...	97
2. 실제작전...	98

❖ 한국군의 방어계획	102
1. 방어계획...	102
2. 실제작전...	106
❖ 전쟁의 경과	109
1. 북괴군의 남침기...	110
2.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기...	115
3.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	121
4. 교착전기...	126
❖ 유엔군의 참전	134
1. 참전경위 및 규모...	134
2. 참전국의 역할...	136
3. 유엔군의 참전 주요일지...	188
❖ 중공군의 침공	193
1. 침공 동기...	193
2. 침공 규모...	195
3. 중공군의 공세...	197
4. 중공군의 철군...	202
❖ 쌍방의 작전지휘체제	203
1. 한국군 및 유엔군의 작전지휘체제...	203
2. 북괴군 및 중공군의 작전지휘체제...	207

■ 쌍방의 전투부대 편제	210
• 보병사단 편제...	210
■ 전쟁 기간 중의 주요 전투	216
• 주요 전투 일람표...	271
■ 주요 전투부대의 작전 및 전투경력	273
1. 육 군...	273
2. 해 군...	313
3. 공 군...	321
■ 대비정규전	326
1. 공비의 발생과 활동...	326
2. 공비의 조직...	327
3. 공비특별작전...	332
■ 휴전협상	336
1. 휴전협상의 배경...	336
2. 휴전협상의 과정...	338
3. 휴전 조인...	347
■ 포로의 발생과 처리	349
1. 포로의 발생...	349
2. 포로의 처리...	350

■ 전쟁 기간 중의 피해	358
■ 연 표	360
■ 참고문헌	382

개 요

1. 한국전쟁의 배경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의 상반된 한반도 정책이 빛은 비극이긴 하였으나,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외침의 역사와 반도국가로서의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에도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1)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한국은 4천 3백여 년 전 단군조선의 개국 초부터 단일민족국가로서 알려진 국가이며, 그 후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자주민족국가로서의 면모를 연면히 이어 온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오직 반도국가로서 지니는 지정학적 특수성——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때문에 항상 주변국들에게 침략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오랜 세월을 본의 아니게 전쟁의 시달림을 받아야만 하였다.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뻗어 나온 한반도는,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맥과 하천으로 국경을 이루며 중국의 만주와 소련의 연해주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황해 건너 중국 대륙과 인접하고 있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상충하는 전략적 교차점에 위치함으로써 항상 이들 3대 주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야만 하였다.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외세의 압력은 언제나 한반도에 미치고 있었다. 특히, 근세에 이르러 소련은 블라디보스톡에 해군기지를 설치(1860)하여 극동에서의 남진정책을 꾀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일본은 이튼바 명치의 왕정복고(1867)를 이룩한 다음,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시아 대륙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어 온 한반도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중국·일본·소련 간에 일어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은 누가 한반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언제나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한민족에게 비운을 가져다 준 근세사의 배경이며, 한국전쟁을 유발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2) 외침과 항쟁으로 얼룩진 과거

4천 수백 년을 이어 온 장구한 한민족의 역사는 외침과 그에 대한 항쟁의 연속이었으며, 이와 같은 역사적인 불행은 주로 인접한 주변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시대적 야욕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러한 외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사는 일찌기 고대 삼국의 형성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겨우 고대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1, 2세기(태조왕)경부터, 북부의 고구려를 상대로 시작된 중국 세력의 심한 침략적 횡포는 7세기 말엽에 신라가 당군을 만주 땅으로 축출하고 삼국을 통일(676)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고구려는 특히 중국의 통일제국인 수·당의 침략으로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고구려인 특유의 끈질긴 항쟁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598년(영양왕 9년)에는 수나라의 문제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하까지 침공하여 왔으나 고구려군에 의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격퇴되었으며, 612년(영양왕 23년)에는 문제의 아들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대한 재침을 시도하였으나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에 의하여 살수에서 섬멸되어 살아 돌아간 자가 불과 2천여 명이였다. 그 후에도, 고구려는 645년(보장왕 4년)부터 5년 동안에 3차에 걸쳐 당태종의 집요한 침공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당시의 재상 연개소문의 영도하에 굳게 뭉쳐 이들을 단호하게 물리침으로써 고구려인의 용맹성과 호국의지를 만방에 떨쳤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668~892)를 거쳐 후삼국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한 고려는 건국(918) 초부터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북진정책을 펴므로써 북방민족과의 투쟁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으며, 특히 고려시대는 우리 나라 역사상 대외적으로 북방민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므로 거란·여진·몽고의 침입이 그칠 날이 없었다.

거란의 대규모 침입만 하더라도 993년부터 1018년까지 25년 사이에 세 차례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고려인들은 서희(942~998)·강감찬(948~1031)과 같은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우국용장들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그 중에서도, 1018년 거란의 제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적장 소매압 휘하의 10만 대군을 격퇴한, 이른바 귀주대첩은 고구려의 살수대첩과 함께 우리 나라 민족사상 외세의 침입을 격퇴한 찬란한 승전보의 하나로서 길이 전해지고 있다.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을 통일하고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족의 행패는 더욱 포악해졌다. 1231년(고종 18년)부터 1264년(원종 5년)에 이르기까지, 근 30여 년 동안 고려는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고족의 침입을 받았다. 그간, 고려는 몽고군의 유린을 받으면서 한때 강화도로 천도까지 하여 가며 항전을 계속하였으나, 끝내는 몽고에 패하고 말았으며 신라 삼보의 하나인 황룡사의 구층탑이

파괴되고 한국의 세계적 보물인 팔만대장경이 잿더미가 되었다. 몽고에 패한 고려는 13세기 말(1274)부터 완전히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그 후 조선(1392)이 등장할 때까지 100여 년 동안을 계속 그들의 모진 학정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14세기 말엽에 이르러 몽고의 세력이 쇠퇴하고 조선이 등장하면서 한반도는 생기를 되찾아 번영을 누리다가 하였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잇단 사회와 당쟁으로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국방력이 약화되자, 다시 일본과 여진족의 침략을 받기에 이르렀다. 7년여에 걸친 임진왜란(1592~98)으로 국토는 또다시 초토화되었으며, 이는 그 후의 정묘(1627)와 병자(1636~37)의 두 차례에 걸친 호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한민족의 외침과 항쟁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러시아가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한반도는 청국·일본·러시아 3개국의 각축장으로 화하게 되었으며, 이 상황은 결국 청일전쟁(1894)과 노일전쟁(1904)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시모노세끼조약(1895 4)으로 청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축출하는데 성공하고, 러시아는 포츠머드조약(1905 9.)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로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의 지위는 말살되고, 일본은 이때부터 한반도를 그들의 통치하에 넣게 되었으며, 1910년 8월 22일에는 한일합방의 조인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 치하의 36년간은 완전한 압제하의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었고, 한반도는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화하였으며, 그들의 무단정치는 한국민들의 주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자주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한국민들의 거족적이며 조직적인 항일운동인 기미독립운동(1919 3 1.)이 일어났으

며, 3·1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군의 항일투쟁은 태평양전쟁이 발발(1941 12. 8.)하면서부터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광복군의 항일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미·영 양대국 수뇌들에 의한 대서양헌장이 선포되고,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점차 짙어지면서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3) 광복과 국토분단

한국민에게 암담하기만 하였던 주권 회복에 대한 꿈은 1941년 8월 14일에 천명된 대서양헌장——영토의 불확대, 빼앗은 주권의 반환——과 전쟁의 종결, 전후처리를 위한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선언,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포츠담선언으로 그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막은 한국 근대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즉,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맺게 되자, 한국민들의 자주독립에 의한 새 역사의 꿈은 마침내 그 실현을 보게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표면화하기 시작한 미·소간의 견해 차이는 한국 문제에 예기하지 않았던 암영을 던지고 있었다. 즉, 1945년 추축국이 무너지자 전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힘의 공백상태가 조성되고, 독일과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은 미·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불행의 요인은 알타회담(1945. 2. 11.)에서부터 일찌기 싹트기 시작하였다. 전후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영·소 3국 수뇌들의 모임이었던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대일참전을 약속하였고, 미·영 수뇌들은 스탈린에게 대일참전의 조건으로 극동에 있어서의 노일전쟁 이전에 누렸던 모든 권리의 회복을 약속하였던 것

이다. 이는 곧 소련에게 제정러시아 이래의 그들의 숙원이던 극동 남진정책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불안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1945년 8월 9일, 대일선전을 포고한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를 향하여 밀어닥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8월 10일, 일본은 연합국측의 무조건항복 권유를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미국은 한반도에 38도선을 설정하여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군이 진주하여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조치는 전후처리를 위한 순수한 군사적인 조치였으며, 한반도를 정치적으로 분단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내포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측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 만주와 한반도를 겨냥한 소련군의 진격은 계속되었다. 소련군은 8월 13일에는 청진에 상륙하고 22일에는 평양으로 진주하여 8월 말에는 이미 북한 전역을 장악하였으며, 그들은 38도선을 정치적인 구획선으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복선을 깔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북한지역에서 진주를 완료하자, 경의선·경원선을 비롯한 주요 남행 간선철도를 모두 폐쇄하여 38도선 이남지역으로의 교통·통신을 제한 내지는 봉쇄한 다음, 북한 전역의 공산화를 위한 정치 및 사회 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소련은 10월 14일에는 김성주를 역사적 항일투사인 김일성 장군으로 가장하여 등장시켰으며, 그 이듬해인 1946년 2월 8일에는 그가 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굳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38도선을 설정함으로써 소련군의 진주 한계를 못박기는 하였으나, 당시 미군의 진주가 늦어짐에 따라 남한에는 과도기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뒤늦게, 9월 4일에야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미 제24군단 선견부대가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그 주력이 인천에 상륙하였으며, 9월 7일에는 맥아더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 남한에 대한 군정을 선포하였고, 아놀드(A. V. Arnold) 소장이 초대 군정장관으로 임명(9. 16.)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일정한 정책의 준비도 없이 출범한 하지 중장의 군정은 시초부터 민주주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나친 자유가 부여됨으로써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남한의 혼란은 8·15광복과 더불어 조직하기 시작한 수많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좌경분자들로 구성된 건국동맹이 재빨리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남한 정계의 장악과 조선공산당의 설립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국이 이렇게 혼미를 거듭하자, 우익 진영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독주를 견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난립되어 있던 우익의 각 정당들을 합당하여 한국민주당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선 세칭 재건파로 알려진 박헌영 계열의 공산당은 그들 내부의 장안파를 제압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잠식한 끝에 이른바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여, 남한내의 사회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폭력과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이렇듯 국토 분단과 미·소의 상반된 점령 정책으로 남북간의 이질현상이 점차로 심화되는 가운데,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6.)가 개최되어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 문제와 함께 일찌기 카이로 선언 때 이미 미·영 양국 수뇌들간에 거론되었던 한국의 신탁통치 협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을 5년 이상 4대 강국(미·소·영·중)의 신탁통치하에 두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남한에 전파되자, 이를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자주독립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분노에 찬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한때 당파와 정치이념을 초월한 거족적 운동이

되는 듯도 하였으나, 소련의 지령으로 그 태도를 돌변하게 된 좌익분자들이 그 이듬해(1946 1. 2.)부터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나섬으로써, 좌·우익의 대립은 “결사 반탁”과 “절대 찬탁”의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민들의 신탁통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그 첫 회의(1946. 3. 20.)와 두 번째의 회의(1947. 5. 21.)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인사와 정당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남한측 대표의 참석을 거부하는 모순된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한반도에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당초의 목표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한 교섭으로써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국은, 영국·중국·소련에 대하여 4개국회의를 제의(1947. 8. 26.)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영국과 중국만이 이를 수락하였을 뿐 소련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당사국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총회에 제기(1947 9. 17.)하였으며, 이를 의제로 채택(1947. 9. 23.)한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토의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1947년 11월 14일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소련을 위시한 공산 진영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미국측 제안을 절대다수로 채택하였다. 이것이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의 “통한결의”이었다.

이와 같은 유엔의 통한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북한은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유엔 한국위원단의 북한지역 출입마저도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5월 31일 남한에서는 제헌국회가 소집되고 헌법이 공포(1948. 7. 7.)된 데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이렇듯, 유엔총회의 결의와 감시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소련은 그들이 조작한 이른바 김일성 체제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1948. 9. 9)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미·소 양대 세력이 상충하는 양극화된 국제 분쟁지역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파생된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이 되었다.

(4) 미·소의 상반된 대 한반도정책

소련의 대 한반도정책

소련의 대 한반도정책은 19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그들의 남진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1904년의 노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함으로써 얼마 동안 주춤하였던 소련의 남진야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며칠 앞두고 영·미 수뇌들이 소련에 대해 대일참전을 조건으로 극동에 있어서 노일전쟁 이전의 영토와 모든 권리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양극화된 대립을 이루자 소련의 세계정책은 구라파를 중심으로 하여 남으로는 발칸반도, 동으로는 아시아로 진출하여 그의 영향력을 신장하고, 서방 진영과 새로운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동구와 발칸반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소련의 세계전략은, 종전과 더불어

독일을 목표로 한 유럽 및 발칸반도에서의 공산세력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진주하여 북한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식 공산체제를 꾸준히 토착화시키고, 중공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때까지 조용히 정세를 관망하면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시기의 성숙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북한 진주는 시초부터 한반도에서 당분간 남·북한의 분단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 38도선 이북에 장차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남진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강력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시기가 성숙할 때까지 전력을 비축하려는 이른바 북한 공산기지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북한 점령 정책은 1945년 8월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식 공산정권의 토착화를 위한 김일성 중심의 체제 형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은 북한으로 진주하자, 곧 남·북간의 모든 교통 및 통신을 차단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내 민족계열의 인사를 거세한 다음,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2년 후인 1948년 2월 8일에는 최신 소련장비로 무장한 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적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와 무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9월 9일 평양에서는 북한괴뢰정권이 출현하였다. 이로써,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분열시켜 미국의 한국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유엔 결의의 수락마저도 거부한 후, 그들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괴뢰집단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소련은 이미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7. 5. 21)가 개최되었을 때부터 스티코프 소련 대표를 통하여 제기하여 온 미·소 양군의 한반도 철수 문제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미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킴으로써 남한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한 후 그들의 적화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술책이었다.

1948년 9월 12일, 북괴는 최고인민위원회의 간부회의에서 남·북한 점령군의 조속한 동시 철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여 미국과 소련측에 각각 발송함으로써 소련측 철수 주장에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소련은 이를 즉각 받아들여 북한에 주둔중인 소련군의 철수를 그 해 10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일방적인 철수계획을 발표한 다음, 미국에게도 동시 철군을 촉구하였다. 그 후,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북한으로부터 완전 철수하였다. 이에, 미국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서두르게 되었으며, 1949년 6월에는 철수가 완료되었다. 이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국부군의 패색이 짙어지고 공산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다.

1949년 10월에 이룩된 중국 대륙의 완전한 공산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진영의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 및 아시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일대 전기를 맞게 하였다. 중공의 등장으로 공산세력은 극동에서 새로운 팽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의 미·소 대립에서 소련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여기에 맞서 1950년 1월 12일, 애치슨(Acheson) 국무장관을 통하여 미국의 소위 “태평양 방위선”을 선언함으로써, 공산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고 중공의 대소 밀착을 방지하며 중공의 대미 적대의식을 경감시켜, 아시아에서 소련과 힘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오히려 소련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고무하는 역현상을 낳게 하였다. 즉, 그들이 의도한 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었으며, 중공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남진이 실현될 수 있는 호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호기를 이용하여 1948년 12월 이후 북괴군의 근대화

및 전력 보강 작업에 착수하였던 소련은 이른바 모스크바 특별전략회의(1949 3., 소련·중공·북한 대표 참석)를 개최하고, 북괴군의 남침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이 38도선 전역에서 전면남침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극동에서 형성될 국제간의 역학관계를 미국 나름대로 전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미국은 전후 극동에 등장할 세력을 통일중국과 대일참전의 대가로 많은 이권을 회복하게 될 소련, 그리고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하여 이를 거점으로 할 미국 등 3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미국은 전후처리 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위치상으로 3대국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한반도가 특정한 단일국가의 독점적인 지배하에 들어갈 경우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하에서 한반도에 대한 연합군의 공동작전과 신탁통치 문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포츠담회담 훨씬 이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미·소간의 대립적 관계는 신탁통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신탁통치안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간의 대립을 표면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신탁통치의 구상이 무산되고 통일정부의 실현이 좌절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정책적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의 미국은 극동지역에서 한국 문제로 인하여 소련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4대국(미·영·소·중) 회의에 위임하고, 이차적으로는 이를 다시 유엔에 이관하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까지나 관계국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은 한반도를 독점하려는 소련의 정략적 음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하고 한반도 문제도 언제나 이와 관련된 상황하에서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 그 주변 열강들의 이해와 역학관계를 의식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중국 대륙의 국·공간의 사태 발전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문제와 더불어 동부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하면서부터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급속한 감군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지상병력의 부족을 나타내게 된 미국은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가을 미 합동참모본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 우선을 둔 전략의 전개와 극동지역에서 소련과의 무력 충돌을 회피하려는 미 군부의 일관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를 개시하여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에 이를 완료하였다.

미군 철수 이후 날로 심화되어 가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불균형과 현저한 북괴의 남침 징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한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은 미군 철수 이후의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국군의 증강과 군사 원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군원인 육군 병력 6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장비와 소수의 해군함정을 제공하는 데 그쳤으며, 최소한의 군사고문단을 설치하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소련의 군사정책과 대조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미국의 전략공군이 소련에 비하여 그 기동력과 파

피력에 있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소련이 극동에서 국지적이거나 전면적인 침략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도 소련이나 북괴가 남한의 내부적인 혼란을 틈타 간접적으로 침투나 교란활동은 벌일 수 있을 것이나 전면적인 무력침공은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낙관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미국은 극동에 있어서 소련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조속히 대일 강화를 실현시켜 유리한 대소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일본열도를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으로 하여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 문제에 대한 불간섭과 일본열도의 확보라는 전략개념하에 설정되었던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 의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선언에 의하여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선언에서, 미국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오키나와, 류큐, 필리핀을 연결하는 “태평양 방위선”의 확보가 미국의 안전에 필수적임을 밝힘으로써, 이때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인 극동지역 방어선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 내용은 한국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도 상당한 오해를 낳게 하였으나, 미국은 이때에 태평양 방위선 외곽지역에 대한 침공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유엔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필요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을 유보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독점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경우, 한반도가 대일 침공의 기지화가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와 같이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의지가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2. 한국전쟁 발발

(1) 전쟁 발발 이전, 남·북간의 군사적 상황

조국광복과 더불어 분단된 남·북한의 정세는 여러 측면에서 상호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비호하에 실권을 장악한 공산당이 북한 사회를 철저한 공산조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1948년 9월 김일성 일인체제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부터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 사상을 주입시켜 전쟁준비를 하는 데 급급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괴는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여 비교적 튼튼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1947년부터는 1년 단위의 단기 경제계획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생산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48년부터는 2개년 경제계획에 착수하여 산업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력남침에 필요한 전쟁물자, 특히 군량미 비축에 주력하였다.

그 반면, 1945년 9월 초에 출범한 미 군정은 시초부터 뚜렷한 목표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였다. 한국 상황에 어두웠던 미 군정요원들은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유주의의 이상만을 내세워 모든 정치활동을 무절제하게 허용함으로써 공산주의 활동마저 용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회는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되어 정국의 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공산분자들의 잇단 폭동사건으로 민심의 동요가 극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혼란 또한 심각하였다. 화폐발행고는 1945년 8월에 50억 원이던 것이 1947년 말에는 334억 원으로, 28개월 만에 6.6배로 증가하였으며, 산업 분야도 극도로 위축되어 8·15 광

북 당시 남한에는 약 890여 개의 생산공장들이 산재해 있었으나, 이들은 미 군정 3년 동안 거의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물가는 1945년부터 1947년 사이에 33배나 폭등하였으며,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어 갔다.

이와 같이, 남·북간에 정치와 경제면에서 심한 이질성과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948년 말경부터 북한에서는 북괴군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때부터 북괴는 소련의 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정책에 따른 남침준비를 위하여, 전차여단과 기계화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순 소련식 공격 위주의 군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괴군이 대규모의 무력남침을 자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증강된 것은 1949년 여름이 지나서였다. 북괴군의 전력 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7월 중국 대륙으로부터 5만 명에 가까운 중공군 출신 한국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하고, 1950년 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중무기와 T-34 전차가 청진항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이와 같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남·북간 군사력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 이후의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국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의 요구에 대하여 매우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오히려 남한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사원조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1950년 초 미군 철수에 따르는 군사정책의 일환으로, 육군 병력 6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장비와 소수의 해군함정을 한국에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 약 500명으로 구성된 미군 군사고문단을 설치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한국군은 현대전 수행을 위하여 필수장비인 전차나 대전차무기조차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한국군은 1948년 말 이후 각처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많은 병력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었다.

(2) 북괴의 남침과 자유세계의 반응

북괴는 이와 같은 남·북간의 군사력 불균형 상태하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확보한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전 전선에서 전차를 선두로 일제히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괴군은 남침 개시와 더불어 대규모의 유격대를 동해안으로 상륙시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을 기도하는 한편, 유격대의 주도하에 남노당계 지하세력을 전력화하려 하였다.

불의의 돌발사태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즉시 이를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고하여, 유엔과 미국으로 하여금 북괴의 남침행위를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장면 주미 한국 대사로 하여금 미 국무성을 방문하여 긴급 군사원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북괴의 기습 남침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북괴의 이와 같은 남침은 한반도에 국한된 국지적인 사태라기보다는 소련의 대 극동정책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유엔의 기본정신에 대한 소련의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6월 25일(뉴욕 시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북괴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북괴군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괴군의 남침은 계속되어 개성·의정부·춘천·강릉 등 전 전선에서 한국군의 후퇴가 거듭되는 가운데 수도 서울이 실험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때, 소련은 북괴의 남침을 한반도의 내부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을 견제하여 한국사태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도 처음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6·25결의만으로는 북괴가 남침을 중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만일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괴가 무력남침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태가 더욱 비관적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재확인한 미국은 6월 26일 21:00(뉴욕 시간)에 북괴가 침공한 38도선 이남지역의 군사목표에 대한 미 해·공군의 작전을 명령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권고하는 두 번째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6월 27일(뉴욕 시간) 소집된 제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유엔 회원국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권고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곧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이며, 당시의 59개 유엔 회원국가 중 이 결의문을 지지한 나라는 53개국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6월 30일,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미 지상군의 투입을 명령하고 미 해·공군의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제한조치를 철폐함으로써, 미국은 명실공히 육·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자, 그 뒤를 이어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 제의가 잇달아, 도합 16개국의 전투부대와 5개국의 의료지원부대가 참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월 1일에는 미 제24사단 예하의 스미드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하여 7월 5일에는 오산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이 부대가 유엔군으로서 한국전선에 투입된 최초의 지상군 부대가 되었다.

그 후, 7월 24일에는 유엔군사령부가 구성되고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원수가 임명되었다.

3. 한국군 및 유엔군의 작전

(1) 전쟁 초기

북괴군이 남침을 개시한 지 3일 만인 6월 28일에 수도 서울이 실함되고, 7월 4일 한강 방어선이 무너진 데 이어, 7월 5일에는 오산에 배치되었던 미 스미드 특수임무부대가 평택으로 후퇴하였다. 이때부터, 한국군과 미 지상군은 평택·충주·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작전복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선 북방의 일정선에서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을 보강한 후, 유엔군의 막강한 해·공군력을 활용하여 북괴군의 배후에서 상륙작전을 실시, 조기에 전세를 만회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주일 미 제24사단을 긴급히 전선에 투입하여 한국군과 더불어 축차적인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8월 초에 이르러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확보하면서부터 전선은 고착되고 전세는 점차 유엔군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갔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전세의 역전이 확실해지자,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을 위시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군의 작전을 38도선 이북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논의된 내용은, 만일 전세가 호전될 경우 북괴군을 38도선까지만 격퇴하고 북한지역의 군사적 점령을 포기한다면 북괴에게 또다시 재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고, 9월 16일에는 낙동강 전선의 한국군 및 유엔군이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2) 38도선 돌파작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그 다음날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한 미 제8군이 9월 26일 오산 북방에서 연결을 이루었으며,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때, 지리멸렬된 북괴군은 중동부의 산악지대를 거쳐 38도선 이북으로 패주하였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 38도선까지 진출하였다. 전력이 극도로 약화된데다가 전의마저 상실한 북괴군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원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하게 된 반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북에까지 진격하여 신속히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군사적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에 관한 계획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촉진제 구실을 하였다. “만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소련에 대한 미국의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과 유엔내 우방국들의 여론에 따라,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마침내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에 관한 훈령안을 승인하였으며, 9월 27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훈령(일명, 9·27훈령)을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시달함으로써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작전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훈령에서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작전은 중공

이나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모든 작전은 한반도내에 국한시키고, 한반도 북단 중·소 접경지대에서의 작전은 한국군이 전담해야 한다는 규제조치를 가하였다.

10월 1일 동부전선의 한국군 제1군단이 38도선을 돌파하고, 10월 9일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함으로써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작전은 개시되었다. 당시, 맥아더 사령관의 작전개념은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육로로 진격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이 원산으로 상륙하여, 양군은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을 확보한 후 유엔군이 정주—홍남 선에 도달하면 그 이북의 중·소 접경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20일로 예정되었던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은 육로로 진격한 한국군 제1군단이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원산항내의 기뢰 제거에 많은 시일을 소비한 결과, 미 제10군단은 10월 26일해야 원산에 행정적 상륙을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면서부터 미국의 관심은 중·소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특히 소련의 지원하에 이루어질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었다.

중공은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하여 38도선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던 9월 하순부터 이미 미국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고 있었다. 9월 22일, 중공 외상 주은래의 “북한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 이어, 10월 3일에는 중공 주재 인도 대사 파니카(Pannikar)에게, 만일 유엔군이 38도선이북으로 진격을 계속할 경우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투입될 것이라고 중공의 공식태도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고조되고 있던 낙관적 분

위기 속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던 중공의 경고나 개입 징후를 그다지 심각하고 구체적인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파니카 인도 대사를 통한 경고는 일종의 정치적인 위협으로만 단정하고 있었다. 오히려, 미국은 10월 9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내린 또 하나의 훈령을 통하여, “설사 중공군이 침공해 온다고 하더라도 귀관의 판단에 따라 북진작전을 계속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중공군의 개입 징후가 보일 때에는 38도선 돌파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9·27훈령상의 제한조치를 백지화하였다.

미국이 중공의 개입경고나 그 능력을 경시하고 북한의 점령을 낙관하였던 것은 트루만 미국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와의 웨이크(Wake) 섬 회담(1950 10. 15.)의 분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회담에서 맥아더 원수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설사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침입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평양 선까지 도달하기 전에 유엔군의 막강한 공군력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기에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트루만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의 그와 같은 낙관적인 소신에 크게 만족하여 별다른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3) 중공군의 침공과 휴전

유엔군이 중·소의 개입을 염려하면서 38도선을 돌파하고 있을 무렵, 중공군은 이미 30만에 가까운 대병력을 북한지역으로 잠입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진을 계속중이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아무런 사전정보를 가지지 못한 채 10월 말경에는 중공군의 저지를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작전에 많은 혼선을 빚게 되었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목적이나 참전 규모 그리고 그들의

기도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국군이 북괴군의 남침시에 당한 기습과 같이, 완전한 중공군의 기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던 작전의 주도권을 이용한 북한 전역의 조속한 점령이라는 당초의 작전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11월 6일에는 미 극동공군에게 압록강상의 모든 교량의 남단을 폭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즉시 미 극동공군의 출격을 중지시키고 맥아더 사령관에게 확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작전을 권고하였으나, 그때의 상황은 결국 맥아더 원수의 독단적 조치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11월 7일 트루만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의 이러한 11.6 조치를 승인하였다.

중공군의 침입 사실이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북한 전역의 점령”이라는 유엔군의 작전목표를 재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만일 미국이 유엔군의 작전목표를 변경한다면 이는 역사상 중대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당시 미국으로서는 맥아더 원수의 과감한 작전에 의한 조기 종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그렇다고 그에 내포된 확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었으므로, 이를 속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군사적 승리를 요구하는 미국 국민들을 위시한 온 세계 자유 국민들의 절대적인 기대 속에 북한 전역의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맥아더 원수에게 작전상 결정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트루만 대통령으로서는 큰 정치적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미국의 정책당국은 그들의 정책결정을 전세의 추이가 좀더 분명해질 때까지 보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11월 24일을 기하여 이른바 “종전을 위한 총공세(To-End-The-War Offensive)”를 전개하여 북진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작전을 개시한 지 2일 만에 공세가 좌절되고, 이때부터 작전의 주도권을 중공군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1951) 1월 초에는 이들이 다시 서울 이남으로까지 침공을 계속하였다.

상황이 이렇듯 악화되자, 미국의 중공에 대한 입장은 경직되고 한국전쟁에 대한 서방제국의 태도도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서방국가들은, 한국전쟁이 중공이나 소련과의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의 나토(NATO)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당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서유럽에 공산 진영의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1950년 12월 4일 미국은 당시 서유럽 제국의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애틀리 수상과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애틀리 수상의 제의는 협상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휴전을 모색하자는 것과 유엔의 목표인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르기 위해 중공군의 공격을 38도선에서 정지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을 기하기로 한 유엔의 통한결의(1950. 10 7)는 백지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방국가들은 유엔내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제국들과 더불어 한국전쟁의 정전을 위한 일련의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미국도 이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한국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미 정책당국은 당시 한국전에 투입되었던 유엔군의 전력

만으로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하여 일정한 선을 확보 유지 하되, 만일 상황이 불리해지면 한반도로부터 유엔군의 전면철수를 단행하여 일본 영토 방위를 위한 전력을 보존하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유엔군은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가 군사적으로 불가피해지지 않은 한 자진 철수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유엔군의 과도한 손실만 피할 수 있다면 좀더 전세의 추이를 관망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 총사령관은 중공군에 대한 보복과 전쟁 종결을 위한 확전의 필요성을 내세워, 미 정책당국에 유엔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전개를 요구하였다.

그 후, 1951년 1월 초에 재개된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유엔군이 다시 서울에서 후퇴하여 수원 남쪽의 평택—삼척 선으로 후퇴하게 되자, 유엔군이 한반도의 일정선에서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할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됨으로써, 맥아더 원수의 확전 건의와 미 정책당국의 유엔군 철수론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더욱 날카롭게 표면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4월 11일 맥아더 원수가 해임되고, 그의 뒤를 이어 리지웨이 장군이 신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정체되었던 전세를 회복하고 공세로 전환한 유엔군은 일련의 재반격작전을 전개하여 5월에는 다시 38도선 이남 전역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절박했던 진퇴양난의 정책적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동안 전세의 진전과 더불어 혼미를 거듭하였던 한국전쟁 수행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1951년 5월 16일 미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전전 현상을 회복하는 선에서 휴전협상을 모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6월 23일 공산측이 휴전협상을 제의하고 미국이 이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일면 전쟁, 일면 협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리하여,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이 개최되고 그 후 만 2년여 동안 유엔군측은 공산군측과의 휴전협상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하였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전선에서는 휴전회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제한적 성격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위한 인명피해만을 가중시켰으나 커다란 전국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5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공산군의 이른바 마지막 공세를 끝으로, 7월 27일 10 00 판문점의 제159차 본회의에서 쌍방 대표가 휴전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전쟁은 북괴가 남침을 개시한 지 만 3년 1개월 만에 명분없는 휴전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4. 한국전쟁의 의의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이었으며, 온 세계가 참여하다시피 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으며, 수백만에 달하는 고귀한 인명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보장도 얻지 못한 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달라진 것이 있다면,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고, 38도선 이남에 속했던 용진반도와 개성이 휴전선 북쪽으로 넘어갔으며 38도선 이북에 속해 있던 철원·화천·간성이 휴전선 이남으로 넘어오게 된 것뿐이었다. 즉, 북괴가 서부지역에서 6·25 전보다 850평방마일의 영역을 더 차지하게 되었으며, 한국이 중동부지역에서 2,350평방마일의 영토를 수복하고, 서해의 백령도·대청

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섬을 더 점유하게 된 것뿐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세계사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남긴 전쟁이었다.

첫째로, 이 전쟁은 공산침략자에 대해 유엔이 인류사상 처음으로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자유우방 국가들은 그들의 운명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집단안전보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적화 야욕에 제동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우방 국가들에게 다같이 힘을 합쳐 싸우면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한국이 공산군의 침략을 받게 되자, 1950년 6월 27일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권고함으로써, 자유 진영 국가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결의안의 제안국인 미국도 이를 계기로 세계의 비공산국가들에게 대공방위의 세계적 연대성과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자유 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당시, 소련의 위협하에서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서방국가들도, 한국전쟁은 집단안보의 선례를 확립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하에, 유엔의 이 같은 제재조치를 지지하고 참전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치렀으며 공산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둘째로, 한국전쟁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양진영 간의 이념전쟁으로서, 군사적 차원의 전쟁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수행된 제한된 목적의 전쟁이었다. 한국전이 일어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세계가 전후의 새로운 질서확립과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였으므로, 이때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공산군은 아시아 북반부에 위치한 분단된 한반도에서 국지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세계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이러한 침략행위를 겨우 되찾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이의 응징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이 전쟁이 계기가 되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중공이나 소련을 상대로 한 전면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주도한 미국은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전쟁을 제한전의 성격으로 이끌어 가게 된 요인이 된 것이다. 이에,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의 작전은 정치적인 면에서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휴전협상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더욱 그러하였다.

1951년 11월 초, 판문점의 휴전협상에서 쌍방간에 의제 제2항(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에 관한 논란이 한창일 때, 유엔군 총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미 제8군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에게 공세작전의 중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그 후 미 제8군은 유엔군 총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1개 대대 규모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는 공세작전을 할 수 없었고, 작전은 주저항선에서의 적극적 방어와 주진지 전방 5,000야드 이내 지역에 전초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기까지 하였다.

본시, 전쟁이란 쌍방이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력수단을 이용한 폭력행위인 까닭에, 어느 한쪽이 굴복을 하거나 무력화될 때까지는 거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19세기 초 이후 국제사회에서 통념화되고 있던 '절대전'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등장과 미·소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정치적·군사적 양극화 현상은 미·소

간의 직접적 대결, 즉 전면전쟁의 경우를 제외한 전쟁의 '절대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핵 보유국들의 지역분쟁 참여에 대한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전쟁은 세계전사상 이를 예시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전쟁을 그 자체의 의의보다도 그 결과가 여타 지역에 미칠 정치적 영향을 우선시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세계전략의 정치적 차원에서 수행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확전이나 또는 한반도의 포기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일본의 방위와 나토(NATO)의 전력증강계획의 차질을 우려하여 한반도로부터 유엔군의 전면철수를 계획한 바도 있었다. 결국, 당시 미국의 세계전략개념상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작전목표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유엔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었으면서도, 유엔이 이 전쟁의 목표를 그의 통한결의(1950 10 7)와 일치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전쟁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세계사상 지니는 세계 의의는, 이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 비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상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진리나 도덕상의 가치기준은 한낱 사치로밖에 여기지 않으며,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것이 명분이 되어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무력이 우월하다는 그 자체가 행동의 기준이 되어 서슴없이 침략을 감행하는, 이러한 그들의 속성을 이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미국을 위시한 유엔 참전국들은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 이들의 본모습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호도된 행동기준은 한국전의 휴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1951년 6월 23일 소련이 휴전을 제외하였을 때,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당시의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의, “공산주의자들은 생리적으로 협상의 상대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이 휴전을 제의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음흉하고 가공할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고 이 제의를 수락하였다. 당시 서방 진영의 수뇌들은 빠르면 수일, 늦어도 수주일이면 휴전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이들은 2년여의 긴 세월을 공산측 대표들의 교활한 술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필요한 희생만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1952년 5월 초, 쌍방의 휴전협상 대표들이 전쟁포로의 교환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자유송환이나, 강제송환이나.”의 엇갈린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 있을 때, 거제도에 위치한 공산군 포로수용소에서, 그 수용소의 소장인 도드 미국 육군준장이 공산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모두가 상대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어난 일들로 평가되고 있다.

33개월이란 오랜 세월을 북한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휴전 후 본국으로 송환된 미국 공군 조종사 맥히 소령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 관하여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으며 인두가면을 쓴 야수들이었다.”고 외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유엔군 포로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한 악랄한 비인간적 수법을 온 세계 자유인들에게 고발한 바 있다.

휴전회담 유엔군측 초대 대표이던 조이 미국 해군제독은 그가 겪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는 군사적 압력이라는 절대적 논리 이외에 이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내와 논리도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결코 결정적일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그들과의 협상에서는 오직 힘만이 정의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힘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또한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는 데 과감하지 않

은 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을뿐더러 우리의 주장을 논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조이 제독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암시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 원인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있었음을 경고하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제국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원칙과 그들의 행동양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자유세계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분명히 평화공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전쟁을 통하여 인식하게 해 주었다.

북괴군의 전력구조

1. 창설경위

북괴는 1948년 2월 8일에 인민집단군 3개 사단을 기간으로, 이른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북한의 괴뢰정부 수립 일자가 1948년 9월 9일이므로, 이들은 정부 수립보다 만 7개월 앞서 그들의 군대를 먼저 창설한 것이다.

그러나, 북괴가 실질적으로 군사조직에 착수한 것은 8·15해방 직후부터였다.

1945년 8월 24일,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 제25군사령부는 비밀리에 정치사령부를 설치하여 북한내의 정치·경제·군사 문제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정치사령부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 사실 군사단체들을 해체한 후 보안대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당시, 북한내에는 해방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사실 군사단체들이 등장하여, 우익 민족진영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자위대가 있었고, 공산진영이 조직한 치안대가 있었으며, 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인 적위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반관적(半官的) 성격을 지닌 준 무장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소련군 정치사령부는 10월 12일에 포고령을 선포하여 사실 군사단체를 해산시키고, 이 단체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와 탄약 등을 압수한 후 군사조직의 모체인 보안대

를 조직하였다.

1945년 11월 초에 조직한 이 보안대가 북괴의 육군으로 발전하고, 해군과 공군도 체제를 갖추어, 북괴는 1948년 2월 8일에 조선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1) 육군의 창설

- 1945. 11.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보안대를 조직.
- 1946. 1.11. ○정규군 조직의 모체로서 다시 철도보안대를 조직(강계·양덕·원산·함흥·신포·단천·성진·상삼봉·사리원·신성천 등지에 13개 중대를 편성).
- 2. 8. ○보안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진남포에 평양학원을 설립.
- 6.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남 강서에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고, 개천에 보안훈련소, 신의주와 정주 및 강계에 각각 그 분소를 설립.
- 7.13. ○철도보안대 업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평양에 철도경비사령부를 설치.
- 8.15. ○북조선 중앙 보안간부학교와 평양학원 그리고 개천 보안훈련소에서 군관과 전사들이 배출되어 각처에 배치됨에 따라, 이들을 통합 지휘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평양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 훈련대대부의 창설과 함께 철도경비사령부를 통합하여 대대부사령부로 개칭.
사령부 직할로 3개 대대를 편성하여, 제1대대는 서부지역(해주·사리원·강계·신성천)에, 제2대대는 동북부지역(성진·길주·단천·상삼봉)에, 제3

대대는 동부지역(함흥·신포·양덕·원산)에 각각 배치.

1948. 2. 8 ○위와 같이 군사 기본조직을 완료한 이후 18개월 동안 이들 3개 대대를 사단급 부대로 증편하였으며,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언.

(2) 해군의 창설

1946. 7 ○북괴는 육군의 모체인 철도보안대를 조직한 후, 2개 대대의 수상보안대를 창설.
1개 대대는 동해안의 원산에 본부를 두고 속초·장전·서호진·신포·고저 등지에 7개 지분대(地分隊)를 설치하였으며, 다른 1개 대대는 서해안의 진남포에 본부를 두고 서해안의 주요항구와 도서의 수상 보안업무를 관장.
8. ○원산의 수상보안대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하고 동·서 해안의 수상 보안업무를 총괄.
- 12 ○수상보안대의 기구를 확장한 후, 명칭을 해안 경비대로 개칭.
기구의 확장에 따라 원산과 진남포의 수상보안대를 경비위수사령부로 개편하고, 청진에도 위수사령부를 신설.
1947. 5. ○해안경비대 교육부를 신설하여 병력을 대폭 증강.
- 6.16. ○원산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창설하여 해군 군관을 양성(해군간부학교 설치 이전에는 평양학원의 단기과정 출신 군관이 해군 간부로 임용됨에

따라 병과 기술상의 문제 야기).

1948. 2. 8.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언할 당시, 해안경비대는 해군의 체제만 갖추었을 뿐(간부학교를 인민해군군관학교로 개편하고 6,000명의 병력을 해군편제로 조직하는 등) 경비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북괴 내무성 산하의 해안경비부대로 계속 존속하면서 전력증강 노력 경주.
1949. 12. ○해군 군관과 기술병 등 편제상의 인원을 확보한 후, 내무성 소속으로부터 민족보위성 산하로 소속이 이관되어 정식으로 인민군 해군으로 발족.

(3) 공군의 창설

1945. 10.25. ○해방 직후, 중국비행학교와 일본항공학교 출신 군사 경력자 50명을 규합하여 신의주항공대를 조직.
- 북괴 공군의 실질적인 모체가 된 신의주항공대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사실 군사조직으로 발족.
11. ○소련군 정치사령부는 사실 군사단체를 해체하고 보안대를 조직함에 있어서도 신의주항공대만은 그대로 존속시켜, 장차 북괴 공군의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 아래 조종교육과 비행훈련을 승인.
12. ○소련군 공군 장교를 신의주항공대의 군사고문으로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지도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대 간부들을 민청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여 북괴의 군사조직으로 흡수.

- 1946 5. ○신의주항공대 기구가 방대해지자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이동.
- 6 ○항공대가 평양으로 이동한 후, 평양학원의 항공중대로 개편되었으며, 본부를 평양 비행장에 설치.
- 그 후, 항공중대가 항공과로 개편되면서 비행대대로 승격.
1948. 2. 8. ○조선인민군 창설 당시, 이 비행대대는 북괴 공군의 체제만 갖추고 평양학원의 일부로 존속.
1949. 1. ○비행대대를 비행연대로 증편하고 평양학원에서 독립시켜 민족보위성 산하의 인민군 공군으로 발족.

2 성장과정

(1) 지휘기구

북괴의 군사업무는 표면상 최초로 창설된 군사기구인 북조선철도경비대사령부에서 관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조종하여 북괴군을 육성하였다.

소련군 정치사령부는 북괴의 군사업무 전반을 장악하여 북한 괴뢰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사실상의 군 지휘부로 활동하다가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북괴의 민족보위성으로 그들의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구사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침략전쟁을 겨냥한 군비확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배후에서 조종함으로써, 마치 북괴 스스로가 군사적 발전을

기한 것처럼 되어 있으며, 그 지휘기구도 자체 역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946. 7.1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북조선철도경비대사령부를 설치하여 군사업무를 관장.
- 8.1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주도하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사령부를 설치하여 철도경비대사령부를 통합하고 전군의 군사업무를 관장.
- 1947. 5.17 ○1947년 2월 21일에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건한 후, 군사조직도 대폭 확대하여 5월 17일부로 육·해·공군을 통합한 인민집단군 총사령부 발족. 사령부 산하에 3개 보병사단과 1개 경비연대, 1개 비행대대를 예속.
- 1948. 2. 8. ○병력과 장비를 다시 대폭 증강하여 정규군으로 면모를 갖춘 후, 정식으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고,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를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로 개칭.
- 9. 9. ○정부 수립과 동시에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개칭하고 이를 정부의 기구로 개편하여 군사업무를 관장. 민족보위성 산하에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의 각군 총사령부를 설치하여 각군의 업무를 관장.

(2) 전력의 증강

전쟁 전의 전력증강

육 군 조선인민군을 창설할 당시 3개 보병사단을 기간으로 발

족한 북괴 육군은 1950년 5월 말까지 꾸준히 기존부대를 증강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여, 전쟁 직전에는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 그리고 5개 경비여단과 2개 독립연대 등의 규모로 전력을 강화하였다.

이 부대들의 증·창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사단 ○개천보안간부훈련소(제1소) 병력을 기간으로 신의주와 정주, 강계 분소(分所)의 병력을 통합하여 1947년 5월에 인민집단군 제1보병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후 1948년 2월 8일에 인민군 제1사단으로 개칭.
- 사단사령부와 포병연대는 개천에 위치하고 3개 보병연대(제1·제2·제3연대)는 각각 신의주와 재령, 강계 지역에 위치.
- 제2사단 ○나남보안간부훈련소(제2소) 병력을 기간으로 회령과 강덕 지역의 병력을 통합하여 1947년 5월에 인민집단군 제2보병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후 1948년 2월 8일에 인민군 제2사단으로 개칭.
- 사단사령부를 나남에 설치하고 있던 중 1949년 초 동북의용군이 나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함흥으로 이동하였으며, 예하의 3개 보병연대(제4·제5·제6연대)와 1개 포병연대는 회령·평양·나남·강덕 지역에 각각 위치.
- 제3사단 ○원산보안간부훈련소(제3소) 병력을 기간으로 평강과 덕원, 흥남 지역의 병력을 통합하여 1947년 5월에 인민집단군 제3독립혼성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후 1948년 9월에 사단으로 승

격하여 3개 보병연대(제7·제8·제9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써 사단을 편성.

- 사단사령부와 포병연대는 원산에 위치하고 보병연대는 화천·철원·북계·양양 지역에서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

제4사단

- 1948년 10월 15일에 총사령부 직할의 3개 보병대대와 6개 직속 독립부대를 기간으로 제4독립혼성여단이 창설되었으며, 그 후 1949년 말 인민군 제4사단으로 승격되었고, 사단사령부는 평남 대동군 유사리에 위치.

제5사단

- 중공군 제164사단 소속 동북의용군 10,000명이 열차편으로 1949년 8월 23일 나남에 도착하여 인민군 제5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사단 예하에 제10·제11·제12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편성하여 인민군 편제의 부대를 창건. 사단사령부는 나남에 위치.

제6사단

- 중공군 제166사단 소속 동북의용군 10,000명이 1949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의주 경유 안주로 이동하여 10월 말에 인민군 제6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사단 예하에 제13·제14·제15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편성. 사단사령부는 신의주에 위치.

제7사단

- 중공군 제20사단내의 동북의용군과 중국 각지에 산재해 있던 한국인 출신 중공의용군 등 약 10,000명이 북한으로 이동, 1950년 5월 초 원산에 도착하여 인민군 제7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이때 포병 출신 병력이 부족하여 인민군 제1사단 포병 1개 대대를 편입. 사단사령부는 원산

- 에 위치.
- 제10사단 ○북괴의 민족보위성이 발족한 후 각도에 민청훈련소를 개설하여 청장년들을 규합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해 오다가, 1950년 3월에 숙천의 제2민청훈련소를 기간으로 평남 지역의 병력을 집결시켜 인민군 제10사단을 창설.
- 제13사단 ○1950년 3월에 신의주에 위치한 제1민청훈련소를 기간으로 평북 지역의 병력을 집결시켜 인민군 제13사단을 창설.
- 제15사단 ○회령에 위치한 제3민청훈련소를 기간으로 함북 지역의 병력을 집결시켜 1950년 3월에 인민군 제15사단을 창설.
- 제105전차여단 ○1947년 5월 인민집단군을 창설할 당시, 소련군 전차사단의 지원하에 인민집단군 제115전차연대를 창설하고 자질이 우수한 병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1949년 초 소련군 전차사단이 철수하면서 인계한 150대의 전차와 300명의 기술요원을 인수하여, 평양 사동 1리에서 정식으로 인민군 제115전차연대로 발족. 이 연대는 그 후 다시 증편되어 1949년 5월 16일에 제105전차여단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예하에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와 제108교도연대를 편성. 그 이후에도 계속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여 1950년 4월 말에는 T-34형 전차 242대와 자주포(76.2밀리 포 장비) 154대 및 기타 장비 등을 보강.
- 38경비 제1여 ○민족보위성 산하의 정규군과는 별도로 38도선

- 단 경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성 산하에 38경비여단을 창설(개전 직후 사단으로 개편되어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됨).
이에 따라 1948년 9월에 진남포의 보안대대가 철원으로 이동하여 2개 대대를 신설한 다음, 1949년 5월에 다시 4개 대대를 증설하여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경비임무를 담당할 38경비 제1여단을 창설. 여단사령부는 간성에 위치.
- 38경비 제3여단 ○1948년 1월, 사리원의 경비대를 기간으로 각지의 경비대를 통합하여 보안 제3여단을 창설. 그 후 1948년 9월에, 보안 제3여단을 38경비 제3여단으로 개편하고 여단사령부를 사리원에서 황해도 죽천으로 이동.
- 38경비 제7여단 ○38도선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해도 시변리에 본부를 둔 38경비 제7여단을 창설(창설일자 미상). 당시의 북괴군 경비여단 병력은 편제상 8,312명으로 되어 있으나, 38경비 제7여단은 4,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
- 철도경비 제5여단 ○북괴가 최초로 창설한 철도보안대가 보안간부 훈련소로 흡수되어 인민집단군 병력으로 개편되자, 순수한 철도경비를 목적으로 1947년 7월에 다시 철도보안대대를 신설. 그 후, 1948년 9월에는 철도보안여단으로 증편되었으며, 1949년 1월에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개편. 여단 예하에 4개 대대를 두고 평양에 위치한 여단사령부의 지휘하에 철도경비임무를 수행.

- 한·만국경경비대 ○38경비여단을 창설할 무렵인 1948년 9월에 한·만국경경비대 3개 대대를 창설.
그 후, 동 경비대는 7개 대대로 증편되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7개 위수지구에 1개 대대씩 배치되어 위수사령부의 지휘하에 국경선을 경비.
- 2개 독립연대 ○북괴는 인민군을 창건하여 군사체제를 정비한 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개 독립연대를 신설.
비정규전부대로 제766부대를 창설하여 유격대로 육성하였으며, 사이드카부대로 제12연대를 창설(창설일자 미상).
이와는 별도로 1949년 초에 대남공작대를 신설하여 강동정치학원에서 6개월간의 유격훈련과 첩보훈련을 이수시킨 후, 전쟁 직전까지 2,000여 명의 대남 공작대원을 남파.

해 군 북괴 해군은 1949년 12월에 3개 기지(청진·원산·진남포)와 해군군관학교, 해군기술훈련소를 기간으로 하여 발족한 후, 전쟁 발발 직전까지 위수사령부와 육전대를 증설하여 4,700명의 병력으로 증강되었다.

이 부대들의 증·창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 12. ○해군 총사령부 산하에 3개 위수사령부를 신설.
제1위수사령부 : 청진 기지.
제2위수사령부 : 원산 기지.
제3위수사령부 : 진남포 기지.
○소련의 군사원조로 35척(5,560톤)의 소형 함정

을 도입하여 최초로 해군 함정을 보유.

1950. 5. ○해군기지를 경비할 목적으로 3개 위수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육전대를 창설.
6. ○남침 직전에 제2위수사령부(원산) 직속 육전대를 대폭 증강하여 남해여단으로 증편.
- 남침시의 동해안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새로운 육전대인 제549부대를 창설.
- 서부전선의 제3위수사령부(진남포) 직속 육전대를 남침 직전에 인민군 제4사단에 편입시켜 지상군 작전에 가담.

공 군 북괴 공군은 1949년 1월에 1개 비행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인민군 공군으로 발족한 후, 전쟁 발발 직전까지 계속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여 사단규모로 강화되었다.

그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 3. ○IL-10기와 YAK-9기 등 프로펠러식 전투기 30대를 도입.
10. ○40명의 열성당원을 선발하여 소련에 조종교육차 파견.
12. ○병력을 대폭 증강하여 비행연대를 항공사단으로 증편하고, 그 예하에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 교도연대, 공병대대를 편성.
- 사단사령부를 평양에 두고 38도선 부근에 비행장을 신설하여 습격기연대를 평강 기지에 배치하고 추격기연대를 신막 기지에 배치.
1950. 4. ○소련에서 IL-10기와 YAK-9기 등 약 60대를 새로 도입.

1950. 6.18. ○남침을 1주일 앞두고 다시 소련에서 Il-10기 60대를 도입. 이 비행기는 소련군 조종사들이 북한에서 직접 인도.
- 전쟁 발발 직전까지 증강된 북괴 공군의 전력은, 조종사 200명과 정비사 400명을 포함하여 약 2,000명의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항공기는 188대의 전투기와 기타 연습기를 포함하여 211대를 보유.
- 비행장으로 신의주·안주·온정리·신막·평강·평양·선덕·연포·청진 기지와 기타 10여 개의 기지를 확보.

전쟁 기간 중의 전력증강

육군 북괴 육군의 남침 당시의 전력은 2개 군단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 그리고 5개 경비여단과 2개 독립연대이었다. 북괴는 그 후 낙동강 전선에서 5개 사단을 다시 창설하고,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분산되었던 부대들을 재정비하여, 휴전시에는 8개 군단 18개 보병사단과 7개 보병여단 및 1개 기계화사령부와 1개 고사포사단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개전 초기의 191,680명에서 262,000명으로 증강되었다.

그 증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차여단과 경비여단의 사단 승격 ○1950년 7월 초에 제105전차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그 예하에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 등 3개 전차연대와 1개 기계화연대를 예속.
- 1950년 7월 초에 3개 38경비여단을 사단으로 승격.
- 38경비 제1여단을 제8사단으로 승격.

- 38경비 제3여단을 제9사단으로 승격.
- 38경비 제7여단을 제7사단으로 승격.
- 사단 단대호의 변경 ○남침 당시 춘천 정면으로 침공하였던 제7사단의 단대호를 제12사단으로 변경(38경비 제7여단이 제7사단으로 승격).
- 지상군의 전력 증강 ○낙동강 전선에서 작전을 전개중이던 1950년 8월과 9월 사이에 5개 보병사단(제18·제19·제31·제32·제37사단)과 5개 보병여단(제23·제24·제25·제26·제27여단) 그리고 1개 기계화사단(제17기계화사단)을 창설하여 지상군을 증강.
- 지상군의 재편성 및 재건 ○북괴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총퇴각한 후 한·만 국경선 부근에 집결하여, 중공군의 침공기인 19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상군부대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퇴각기에 와해된 부대들을 재건.
 - 기존 18개 사단을 재편성.
 - 9개 보병사단(제27·제36·제38·제41·제42·제43·제45·제46·제47사단) 창설(이 중 제27사단은 제27여단이 승격된 것임).
 - 3개 보병여단(제63·제69·제77여단) 창설.
 - 신편부대의 창설과 더불어 6개 군단(제3·제4·제5·제6·제7·제8군단)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제1군단 및 제2군단을 합하여 8개 군단으로 증강(이 부대들은 부대규모에 상응하는 병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
- 부대의 정비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기에 접어든 시기인 1950년 3월부터 1952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북괴군은 일부 부대를 통폐합하여 8개 군

시기 부대	개전당시	1950 7	1950 8	1950 12	1952 7	휴전당시
사 단 급 이 하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7 사 단	제 12 사 단 으로 개칭	제 12 사 단	제 12 사 단	제 12 사 단	제 12 사 단
	제 10 사 단	제 10 사 단	제 10 사 단	제 10 사 단	제 10 사 단	제 10 사 단
	제 13 사 단	제 13 사 단	제 13 사 단	제 13 사 단	제 13 사 단	제 13 사 단
	제 15 사 단	제 15 사 단	제 15 사 단	제 15 사 단	제 15 사 단	제 15 사 단
	제 105 전 차 여 단	제 105 전차사 단으로 승격	제 105 전 차 사 단	제 105 전 차 사 단	해 체	
	38 경 비 제 1 여 단	제 8 사 단 격	제 8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38 경 비 제 3 여 단	제 9 사 단 으로 승격	제 9 사 단	제 9 사 단	제 9 사 단	제 9 사 단
	38 경 비 제 7 여 단	제 7 사 단 격	제 7 사 단	제 7 사 단	제 7 사 단	제 7 사 단
	철도경비 여 단	철도경비 단	철도경비 단	불 명		
	한·만 국 경 경비 대	한·만 국 경 경비 대	한·만 국 경 경비 대	불 명		
	독립 제 766 부 대	독립 제 766 부 대	제 5 사 단 에 통합			
	독립 제 12 연 대	독립 제 12 연 대	독립 제 12 연 대	불 명		
			제 18 사 단 설	제 18 사 단	해 체	
			제 19 사 단 설	제 19 사 단	해 체	
			제 31 사 단 설	제 31 사 단	해 체	
			제 32 사 단 설	제 32 사 단	해 체	
			제 37 사 단 설	제 37 사 단	제 37 사 단	제 37 사 단
			제 23 여 단 설	제 23 여 단	제 23 여 단	제 23 여 단
		제 24 여 단 설	제 24 여 단	제 24 여 단	제 24 여 단	
		제 25 여 단 설	제 25 여 단	제 25 여 단	제 25 여 단	
		제 26 여 단 설	제 26 여 단	제 26 여 단	제 26 여 단	
		제 27 여 단 설	제 27 사 단 으로 승격	제 27 사 단	제 27 사 단	

부대	시기	개전당시	1950. 7	1950. 8.	1951. 12	1952. 7	휴전당시
사 단 급 이 하				제17기계 화사단 창설	제17기계 화사단	해체	
				제36사단 창설	제36사단 창설	해체	
				제38사단 창설	제38사단 창설	해체	
				제41사단 창설	제41사단 창설	해체	
				제42사단 창설	제42사단 창설	해체	
				제43사단 창설	제43사단 창설	해체	
				제45사단 창설	제45사단 창설	제45사단	제45사단
				제46사단 창설	제46사단 창설	제46사단	제46사단
				제47사단 창설	제47사단 창설	제47사단	
					제63여단 창설	해체	
					제69여단 창설	해체	
					제77여단 창설	해체	
						제20여단 창설	제20여단
						제21여단 창설	제21여단
					제22여단 창설	제22여단	
					기계화사령 부(8개전차 연대 통합)	기계화사령 부(8개전차 연대 통합)	
					제105전차 연대 신편	고사포단	
총 전 력	2개군단	2개군단	2개군단	8개군단	8개군단	8개군단	
	10개보병사	13개보병사	18개보병사 1개전차사	27개보병사	18개보병사	18개보병사	
	1개전차여단	1개전차사	1개기계화사단	1개전차사	1개기계화사령부	1개기계화사령부	
	5개경비단	2개경비단	5개보병단 2개경비단	1개기계화사단	(8개전차연대)	1개고사포사단	
	2개독립대	2개독립대	1개독립대	7개보병여단		7개보병여단	

해 군 북괴의 해군은 남침 직전에 남해여단을 창설하고, 육전대인 제549부대 병력을 원산으로 집결시켜 동해안의 상륙작전에 대비하는 등, 4,700명의 병력을 운용하였으나, 전쟁이 개시된 직후에 제해권을 상실함으로써 휴전시까지 전력은 계속 감소되었다.

휴전 직전의 북괴 해군은 소형 발동선 24척밖에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모든 함정이 파괴되었으며, 병력도 개전 초의 4,700명에서 4,442명으로 감소되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였다.

공 군 북괴 공군은 개전 직후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포 및 여의도 지역과 수원 비행장 등을 폭격하고 주요 보급로를 파괴하는 등 일시 우세한 공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7일부터 유엔 공군이 참전하게 되자 개전 3일 만에 제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유엔 공군이 북한 지역의 공군기지를 공격하자 그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어 극히 제한된 작전임무만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0월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자 그들은 동년 11월에 만주 기지로 이동하여 공군력의 증강을 도모하였다.

그 후, 병력과 장비를 계속 증강한 북괴 공군은 개전 초기에 1개 항공사단이었던 부대규모를 전쟁 말기에는 6개 항공사단 규모로 증강하고, 병력도 2,000명 수준에서 19,000명 수준으로 증가시켰으며, 항공기도 211대에서 489대로 증강하였다.

그 증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IG-15 전투기 ○북괴 공군은 만주에서 조종 훈련을 실시하며
 의 도입과 공군력의 증강을 도모하던 중, 1950년 12월에
 항공사령부 설 소련의 원조로 MIG-15 전투기 20대를 포함한
 치 다수의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자, 항공사단을

- 항공사령부로 승격시키고 그 예하에 2개 항공사단을 편성.
- 이때 북괴 공군의 전력은 MIG-15 전투기 20대를 포함하여 총 340대를 보유.
- 기지복귀와 전력증강 ○전선의 교착기인 1951년 12월에 공군기지를 만주 동북부 지역으로부터 평양으로 이동.
- 그 후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여 45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어, 2개 항공사단을 신편하여 4개 항공사단으로 증강.
- 폭격기사단 창설 ○휴전회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군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1953년 2월에는 IL-28 제트 폭격기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폭격기사단을 창설.
- 항공사단 증편 ○1953년 7월에 다시 1개 항공사단을 신편.
- 북괴 공군의 전력은 휴전시까지 5개 항공사단과 1개 폭격기사단으로 증강되었으며, 항공기도 MIG-15 전투기 255대, YAK 전투기 102대, IL-10 전투기 47대, IL-28 폭격기 42대 등 489대로 증강.

한국군의 전력구조

1. 창설 경위

한국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군으로 정식 발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군사조직의 기초를 다진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미군정 당시부터였다.

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 제24군사령부는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군정 시행을 선포한 후, 우선적으로 국립경찰을 창설(10월 21일)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한국군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당시, 남한에는 일제의 구질서가 무너지면서 치안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각종 정당·사회단체와 사설 군사단체들이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므로, 경찰병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치안유지가 어려웠으며, 미군은 38도선 경비임무를 담당하여 이에 병력을 전용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미 군정당국은 사회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예비병력의 확보와 장차 한국의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의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군사조직에 착수한 것이다. 미 군정당국은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로 군정청 산하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여 국방계획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본국 정부에 50,000명 수준의 한국군 창설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소련과 정치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외교상 저해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이 건의안을 미·소 공동위원회의 회담이 끝날 때까지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미 군정당국은

다시 25,000명선의 준 군사적인 경찰예비대(Police Constabulary) 조직안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한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창설의 근거가 되었다.

이른바, 뱀부(BAMBOO) 계획이라고 하는 이 경찰예비대 창설 계획안을 토대로 창군 준비에 착수한 국방사령부는 우선 언어의 소통과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5일에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여 간부요원을 육성하는 한편, 모병활동을 개시하여 1946년 1월 14일에 남조선 국방경비대(정식 명칭은 조선경찰예비대였으나, 한국측에서는 남조선 국방경비대라고 칭하였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월 15일부터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태릉)에서 입대식을 거행한 제1연대 A중대의 창설을 효시로, 각도에 1개 중대씩 전국 8개도에 8개의 정보병중대를 창설하였다.

국방사령부는 육군의 창설과 아울러 해군과 공군의 창군 준비에도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발전하였다.

(1) 육군의 창설

- | | | |
|-------|-------|-------------------------------------|
| 1945. | 11 13 | ○미 군정청 산하에 국방사령부 설치. |
| | 12 5 | ○언어의 소통과 군 간부의 육성을 목적으로 군사영어학교 설립. |
| 1946. | 1.14 | ○국방사령부 산하에 남조선 국방경비대 창설. |
| | 1 15 |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설치. |
| | | ○전국 8개도에 각연대의 모체인 정보병중대(중화기 제외) 창설. |
| | | ○경기도 양주에 제1연대 A중대 창설. |
| | 1.19. | ○경남 부산에 제5연대 A중대 창설. |
| | 2 7 | ○충북 청주에 제7연대 A중대 창설. |

- 2.15. ○전남 광산에 제4연대 A중대 창설.
- 2.18. ○경북 대구에 제6연대 A중대 창설.
- 2.26. ○전북 이리에 제3연대 A중대 창설.
- 2.28. ○충남 대전에 제2연대 A중대 창설.
- 4. 1. ○강원도 춘천에 제8연대 A중대 창설.
- 3.29.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고 국방부 산하에 육군부와 해군부 설치.
- 5. 1. ○경비대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군사영어학교를 폐교하고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설립.
- 6.14.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하고, 대한민국 육군으로 발족할 때까지 6개기 1,237명의 장교 양성.
- 6.15.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하고,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조선경비대로 개칭.
- 9.11. ○각 연대의 체제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창군 당시 임명하였던 미군 지휘관을 고문관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한국군이 지휘권을 인수.
- 11.16. ○제주도(濟州島)가 도(道)로 승격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제9연대 A중대 창설.
- 12.17. ○통위부에 참모총장제를 신설하여,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 업무 관장.
- 1947. 4. 8. ○조선경비대에 총참모장제 신설.
- 7. ○각종 병과학교(통신·자동차·헌병 등)를 설치하여 병과기술요원 양성.
- 12. 1. ○각 연대의 편성이 완료되자 3개 경비여단을 창설.
○제1·제7·제8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에 제1여단 창설.

- 제2·제3·제4연대를 기간으로 충남 대전에 제2여단 창설.
- 제5·제6·제9연대를 기간으로 경남 부산에 제3여단 창설.
- 1948 1 7 ○수도를 경비하기 위하여 각연대의 일부 병력과 새로운 보충 병력으로 서울에서 제7여단 창설.
- 2 21 ○경기도 수색에 육군 보병학교를 설립.
- 5 ○2개 여단을 더 창설할 목적으로 6개 연대를 신규 창설.
 - 강원 강릉에 제10연대 창설.
 - 경기 수원에 제11연대 창설.
 - 전북 군산에 제12연대 창설.
 - 충남 온양에 제13연대 창설.
 - 전남 여수에 제14연대 창설.
 - 경남 마산에 제15연대 창설.
- 6.14 ○충북 충주에 제4여단 창설(동년 11월 20일 제4여단을 제6여단으로 개칭).
- 6 15 ○전남 광주에 제5여단 창설.
- 6 ○여단의 창설과 더불어 각병과별 지원부대(공병·통신·병기·병참·의무)를 통위부 직할로 창설(대대규모).
- 8 15 ○정부 수립과 동시에 통위부를 국방부로 개칭하고, 6개 여단을 기간으로 한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 발족.

(2) 해군의 창설

- 1945 11 1 ○해방 직후, 해사관계 민간단체로 조직되었던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가 미 군정청에 해안경비대 조직안을 건의.

- 11.11 ○미 군정당국은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 해방병단(海防兵團)의 결성을 승인.
- 11.14. ○경남 진해에 해방병단 본부를 설치.
- 1946. 1.17. ○해방병단 산하에 해군병학교를 설립하고 기관과와 통신과를 설치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에 착수.
- 1.18 ○해안경비업무가 군정청 교통국 해사과로부터 국방사령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방병단도 국방사령부 산하기구로 편입.
- 2. 1 ○진해 기지에 조함창 설치.
- 3.29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고 국방부 산하에 육군부와 함께 해군부 설치.
- 4.15. ○해안 경비임무가 신장됨에 따라 인천에 기지 설치.
- 6.15.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하면서, 해방병단을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
 -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 설치.
 - 해군병학교를 조선해안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
- 8.10. ○인천기지에 김포 파견대를 설치하여 김포지구 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 경비임무 수행.
- 8.18. ○목포에 기지를 신설하고 기지사령부 설치.
- 8.22 ○목호에 기지를 신설하고 기지사령부 설치.
- 9.12. ○미군 해군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된 15명의 고문단 파견.
 - 진해에 특설기지사령부 설치.
 - 각 기지의 부대편성을 정비하고, 최초로 무선

통신체계 구비.

- 9 15 ○일본과 필리핀으로부터 18척의 각종 선박 도입.
- 9 24. ○부산에 기지를 신설하고 기지사령부 설치.
1947. 1 6. ○군산에 기지를 신설하고 기지사령부 설치.
- 2 8. ○포항에 기지를 신설하고 기지사령부 설치.
- 5 7 ○진해통제부사령부를 신설한 후, 각 기지사령부를 경비부사령부로 개칭.
- 1948 5.24 ○해안경비대의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조선해안 경비대에 총참모장제 신설.
-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발족하기 직전까지 총병력 3,800명과 각종 선박 105척으로 증강.
- 8 15. ○정부 수립과 동시에 통위부를 국방부로 개칭하고, 조선해안경비대가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

(3) 공군의 창설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은 미 군정당국의 공군 창설 지연정책으로 말미암아 1948년에 이르러서야 그 태동을 보게 되었다.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를 설치할 당시, 남한에 소재한 500여 명의 항공관계 유경험 인사들이 공군부의 창설을 희망하였으나 미 군정당국은 “경비대에는 공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육군부와 해군부만을 창설하였다.

그 이후 공군이 창설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8. 4 1. ○공군 장교 출신 인사 7명이 장차 항공부대의 창설을 전제로 하여 조선경비대보병학교에 입교.

- 5.14. ○창설요원 7명이 소위로 임관.
- 5.15.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수색에서 통위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를 창설.
- 6.23. ○항공부대를 통위부 직할에서 조선경비대 산하로 예속 변경.
- 7.12. ○조선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여 육군에서 복무중인 항공학교 출신 장교를 통합하고, 105명의 유경험 민간인을 선발하여 항공병 육성에 착수.
- 7.27. ○조선경비대 산하 항공부대를 항공기지부대로 명칭을 개칭하고, 주둔지를 수색에서 김포로 이동.
- 8.15.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항공기지부대도 육군항공기지부대로 개칭.
- 9. 4. ○정부 수립 후, 미군으로부터 L-4형 연락기 10대를 인수.
- 9.13. ○육군항공기지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하고 기구를 확장.
- 9.15. ○태극 마크를 표지한 L-4형 연락기 10대가 서울 상공에서 최초로 편대비행을 실시.
- 11.~12.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에서 공군의 능력을 인정받아 L-5형 연락기 10대를 미군으로부터 2차에 걸쳐 인수.
- 1949. 1.14. ○공군 장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항공사관학교 설립.
- 6.28. ○육군본부에 항공국 설치.
- 9. 5. ○육군항공사령부 산하 항공기지부대에 신병교육대 창설.

10. 1.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독립하여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항공기로 대한민국 공군이 정식 발족.

2. 성장 과정

(1) 지휘기구

대한민국의 국방기구와 한국군의 지휘기구는 미 군정청 산하에 최초로 설치되었던 국방사령부로부터 출발하여,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국방부로 발족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다.

1945. 11.13. ○미 군정청 산하에 국방사령부 설치.
○국방사령관은 미 군정장관의 지도하에 군무국과 경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군무국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설치하여 육·해군에 관한 업무를 처리.
- 1946 1.14 ○국방사령부 산하에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설치.
1.15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육군의 업무 관장.
1.18.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국방사령부로 편입하여 해군의 업무 관장.
3.29.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고 직제를 개편하여, 국방사령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던 경무국(경찰업무 전담)을 분리시키는 한편,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의 업무만을 전담.
6.15.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하고 남조선 국방경비

대를 조선경비대로, 해방병단을 조선해안경비대로 각각 개칭.

- 조선경비대사령부와 조선해안경비대사령부 설치.
- 9.11. ○경비대 지휘권을 한국군이 인수하고, 미군 지휘관은 고문관으로 지위를 변경.
- 12.17. ○통위부에 참모총장제를 신설하여 통위부장의 지도하에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 업무를 관장.
- 1947. 4. 8. ○조선경비대에 총참모장제를 신설하여 통위부 참모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육군의 업무를 관장.
- 1948. 6.24. ○조선해안경비대에 총참모장제를 신설하여 통위부 참모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해군의 업무를 관장.
-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통위부를 국방부로 개칭하고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각각 발족.
- 11.30. ○국방부 산하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설치.
○공군은 육군의 일부로서, 육군항공기지부대로 존속하다가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으로 정식 발족.
- 12. 7. ○국방부의 참모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총참모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체제를 정비.
○육군 총참모장은 6개 여단과 1개 항공기지부대를 기간으로 한 육군과 공군의 업무를 관장.
○해군 총참모장은 진해특설기지와 동·서 해안의 6개 기지를 기간으로 한 해군의 업무를 관장.

(2) 전력의 증강

전쟁 전의 전력증강

육 군 대한민국 육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보병 6개 여단을 기간으로 발족한 후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여 전쟁 발발 직전에는 보병 8개 사단과 2개 독립연대 그리고 3개 특수부대와 기타 예비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부대들의 증·창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제1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제1사단으로 승격. ○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 수행. |
| 제2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제2사단으로 승격. ○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를 청주·대전·운양 지역에 전개. |
| 제3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제3사단으로 승격. ○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 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임무 수행. |
| 제5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6월 15일 전남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제5사단으로 |

승격.

-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 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임무 수행.
-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충북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제6사단으로 승격.
-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 수행.
- 제7사단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제7사단으로 승격.
-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 수행.
- 제8사단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제8사단을 창설.
-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 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와 태백산 지역 공비토벌작전 임무 수행.
- 수도경비사령부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
-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 경비임무 수행.
-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웅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 1950년 3월 1일 웅진지구 전투사령부를 육본 직할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

- 독립제17연대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제 17연대는 창설 직후 제7여단에 예속되었다가 1949년 6월 20일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 변경.
- 1950년 3월 1일 수도경비사령부를 개편하면서 제17연대는 육군본부 직할 독립연대로 예속이 전환되어 용진지구 작전임무를 전담 수행.
- 독립기갑연대 ○1948년 12월 10일 서울 서빙고에서 창설된 기 갑연대는 최초에 독립수색단의 임무를 수행하 다가 1949년 6월 20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 할 당시 동 사령부에 예속.
- 1949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로부터 독립 하여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연대로 예속 전환.
- 독립제1대대 ○1948년 11월 25일 육군본부 직할로 육군수색학 교를 창설하여 북괴의 대남공작대를 소탕하기 위한 유격부대로 육성.
- 1949년 6월 20일 육군수색학교를 독립제1대대 로 개칭하고, 전후방의 북괴공작대를 토벌하기 위한 특수임무 수행.
- 영등포학원 ○1949년 2월 25일 월남 청장년 367명을 기간으 로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에 호림부대를 창설.
- 1949년 8월 13일 호림부대를 대유격전부대로 육성한 후, 영등포학원으로 개칭하여 강원도 설악산과 영덕 지구의 대유격작전에 투입.
- 육군보국대대 ○1949년 8월 15일 북괴군 귀순장병 600명을 기 간으로 육군보국대대를 창설.
- 1950년 2월에 제3사단에 배속하여 경남지구 공 비토벌과 대민 심리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중 전쟁이 발발하자 제1군단에 편입.

- 호국군부대 ○1948년 11월 20일 육군의 정규군과는 별도로 향토방위의 성격을 지닌 호국군부대를 창설.
- 전국에 10개 호국군연대를 창설하여 4개 호국군여단(제101·제102·제103·제106여단)을 편성한 후 호국군 사관후보생과 향토예비군을 양성하였으나, 1949년 8월 6일 청년방위대가 발족함으로써 인하여 호국군과 호국군 여단사령부를 해체.
- 청년방위대 ○1949년 8월 6일에 공포한 병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호국군부대를 해체하고,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한 청년방위대를 창설.
- 육군본부 교도국을 청년방위국으로 개칭하고,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전국 각도에 사단급 수준의 청년방위대를 편성.
- 1950년 4월 말까지 각도의 부대편성을 완료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던 중, 전쟁이 발발하자 간부들은 대부분 현역으로 입대하고 청년방위대원들은 육군의 보충병으로 충당되어 전쟁 수행에 기여.

해 군 한국 해군은 정부 수립 당시 1개 특설기지와 6개 해안기지를 모체로 발족한 후, 전쟁 발발 직전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2개 특무정대와 4개 해상방위정대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해군본부 산하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여 해군기지의 경비와 상륙전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발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특무정대 ○1947년 10월 15일 부산기지에 충무공·구월산·

강릉·광주 정 등 4척의 경비정으로 편성하였던 경비정대를 제1특무정대로 개편하여 해안경비 임무 수행.

- 제2특무정대 ○1947년 12월 9일 여수기지에 김천·고원·강계·가평·금강산 정 등 5척의 경비정으로 편성하였던 경비정대를 제2특무정대로 개편하여 해안경비 임무 수행.
- 제1정대 ○1949년 2월 14일 인천기지에 경비정 7척(302·307·313·501·502·503·513정)으로 제1정대를 편성하여 서해의 해상방위 임무 수행.
- 제2정대 ○1949년 2월 14일 부산기지에 경비정 7척(304·305·306·506·509·510·516정)으로 제2정대를 편성하여 동해의 해상방위 임무 수행.
- 제3정대 ○1949년 2월 14일 목포기지에 경비정 6척(301·303·309·310·505·514정)으로 제3정대를 편성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해역의 해상방위 임무 수행.
- 훈련정대 ○1949년 2월 14일 진해특설기지에 경비정 8척(105·308·504·507·512·515·518·701정)으로 훈련정대를 편성하여 여수와 진해 앞 해상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해상방위 임무수행.
- 해상감시초소 설치 ○목호와 포항 경비부를 중심으로 하여 주문진·삼척·죽변·강구·감포 지역에 해상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북괴군 유격대의 침투작전에 대비.
- 해병대 창설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 해병대사령부를 창설.
○1949년 5월 5일 해병령의 공포와 동시에 해병

대사령부가 해군본부 산하기구로 편입되고 해군기지 경비임무 수행.

- 1949년 8월 26일 진해의 해병대대가 진주로 이동하여 진주 지역의 공비를 소탕한 후, 동년 12월 27일 제주도로 이동.
- 1949년 12월 28일 제주도로 이동한 해병대사령부는 병력을 증강하여 제주읍부대와 모슬포부대로 증편하고 제주도 일원의 공비토벌작전 전개.
- 제주도에서 공비토벌작전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계속 병력을 보강한 해병대는 전쟁 발발 직전까지 총병력 1,166명으로 증가.

공군 미군정당국의 공군 육성 지연정책으로 1949년 10월 1일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 공군으로 뒤늦게 발족한 공군은 그 이후에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여, 전쟁 발발 당시에도 자족적인 전투력을 갖추지 못한 채 체제의 정비만을 기하는 정도에 그쳤다.

- | | |
|-------------------|---|
| 공군 항공기지
사령부 설치 | ○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 공군으로 발족한 후, 김포에 공군항공기지사령부 설치. |
| 비행단 | ○ 대구에서 창설한 비행부대를 공군비행단으로 개편하여 3개 비행중대와 1개 정비중대로 체제를 정비. |
| 기지부대 | ○ 1949년 12월 9일, 수원·군산·광주·대구·제주 등 5개 지구에 항공기지부대를 창설. |
| 교육훈련 | ○ 연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실시. |
| 항공기 | ○ 1948년에 미군으로부터 연락기 및 연습기 20대를 인수한 후, 작전과 훈련 중에 일부가 파손 |

되어 L-4형 연락기 8대와 L-5형 연락기 4대 등 12대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50년 5월에 전국민의 헌금으로 T-6 연습기 10대를 구입하여 개전 직전에는 22대의 연락기 및 연습기를 보유.

병력 ○공군이 발족할 당시 총병력 1,600명에서 전쟁 발발 직전까지 1,897명으로 소폭 증가.

전쟁 기간 중의 전력증강

육 군 대한민국 육군은 전쟁 발발 당시 8개 보병사단과 2개 독립연대가 있었으나, 이 부대들이 전차와 공군력으로 증강된 북괴군 10개 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보병사단의 경우, 3개 연대를 보유한 사단은 4개 사단뿐이었고 나머지 4개 사단은 2개 연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병력도 편제 병력의 80%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이었다. 그리고, 장비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보유 수준이 낮았을 뿐 아니라 특히 북괴군의 T-34형 전차를 파괴하기에는 성능이 미약한 57밀리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만을 장비함으로써 대전차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 전쟁 초기에는 북괴군의 우세한 전력에 밀려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극한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급속한 병력과 장비의 증강을 도모하고 우방국의 지원을 얻어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으며, 그 후 낙동강 전선에서의 반격작전과 북진작전 그리고 38도선 부근의 교착전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하여 휴전이 성립될 무렵에는 전 전선의 절반 이상을 국군이 전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8개 사단에 불과하였던 육군의 전력은 전쟁 말기에는 18개 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94,000명에서 550,000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그 증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군단 창설** ○1950년 7월 5일 평택에서 제1군단 창설.
○서부전선에서 후퇴한 5개사단[제1·제2·제3(-)·제5·제7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통합하여 수도·제1·제2사단으로 재편성한 후, 이 3개사단을 기간으로 제1군단을 창설.
○제3(-)·제5·제7사단은 해편되어 그 병력은 제1군단으로 흡수되고 지휘부만 후방으로 이동.
○제6·제8사단과 제3사단 제23연대는 육군본부 직할로 작전임무 수행.
- 제2군단 창설** ○1950년 7월 15일 함창에서 제2군단 창설.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제6·제8사단과 제3사단 제23연대를 제2군단에 배속.
- 지휘체제 정비** ○1950년 7월 24일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지휘체제 정비.
○제1군단 예하의 3개사단(수도·제1·제2사단)을 2개사단(수도·제8사단)으로 조정 감축하고, 제2사단을 해체하여 제1사단과 제8사단을 보강.
○제2군단 예하의 3개사단[제3(-)·제6·제8사단]을 2개사단(제1·제6사단)으로 조정 감축하고, 제3사단(-)을 육본 직할로 배속 전환.
○지휘체제의 정비와 함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제1군단 예하의 제1사단을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하고, 제2군단 예하의 제8사단을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
- 5개사단 증편** ○1950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개전 초 해편되었던 3개사단(제2·제5·제7사단)을 재

- 창설하고, 2개 사단(제9·제11사단)을 신규 창설.
- 제3군단 창설 ○ 1950년 10월 16일 신편된 제9·제11사단을 기반으로 제3군단을 창설.
- 1950년 11월 말 기준, 육군의 규모는 3개 군단 10개 사단으로 증편되었으며, 병력 수준도 250,000명으로 증강.
- 지휘체계 재정비 ○ 부대가 증강됨에 따라 지상군의 지휘체계를 정비.
- 제1군단 : 수도·제3사단.
제2군단 : 제6·제7·제8사단.
제3군단 : 제9·제11사단.
육본 직할 : 제2·제5사단.
제1사단 : 미제1군단에 배속.
- 주요장비개선 ○ 3.5인치 로켓포 장비(1950년 8월)
- 105밀리 M-3형 야포를 105밀리 M-2형으로 교체(1950년 9월).
- 4.2인치 중박격포 장비(1950년 12월).
- 일부 부대의 예·배속 변경 ○ 1950년 12월 16일, 육본 직할부대인 제2·제5사단을 제3군단에 배속하고, 제3군단 예하의 제9·제11사단을 육본 직할로 배속 전환.
- 제2군단사령부 해체 ○ 중공군의 침공 초기 청천강 부근에서 심한 손실을 입은 제2군단을 38도선으로 철수시킨 후 해편하고, 1950년 1월 10일 동 군단사령부를 해체.
- 제3군단사령부 해체 ○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1951년 5월) 당시 심한 손실을 입은 제3군단을 해체하고, 그 예하의 제3사단은 제1군단으로, 제9사단은 미 제10군단으로 각각 배속 전환.

- 지원부대 증강 ○ 1951년 9월 4개 155밀리 야포대대 창설.
○ 1951년 9월부터 1952년 초까지 M-36 전차를 주 장비로 한 7개 전차중대 창설.
○ 1952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2개 야전포병단 창설.
- 제2군단사령부 재창설 ○ 지리산 지역에서 공비특별작전을 종료하고 전선으로 복귀한 백 야전사령부(수도사단·제8사단)를 모체로 1952년 4월 5일 제2군단사령부를 재창설.
- 제3군단사령부 재창설 ○ 지상군부대가 증강됨에 따라 1953년 5월 1일부로 제3군단사령부를 재창설.
- 8개 사단 증편 ○ 1952년 10월 말 한·미간에 한국 지상군 병력수준을 250,000명에서 463,0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고, 1952년 11월부터 휴전시까지 8개 사단(제12·제15·제20·제21·제22·제25·제26·제27사단)을 창설.
- 제12사단 -1952년 11월 8일 강원도 양양에서 제12사단 창설.
사단사령부를 양양훈련단에서 창설한 후,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여 제37·제51·제52연대를 기간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강원도 인제 지역의 전선으로 진출.
- 제15사단 -1952년 11월 8일 강원도 양양에서 제15사단 창설.
제38·제39·제50연대를 기간으로 부대를 편성한 후, 제1군단에 배속되어 동해안 전선으로 진출.
- 제20사단 -1953년 1월 1일 강원도 양양에서 제20사단 창설.

- 제60·제61·제62연대를 기간으로 부대를 편성한 후, 강원도 현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미 제10군단의 예비로 교육훈련 실시.
- 제21사단 -1953년 1월 15일 강원도 양양에서 제21사단 창설.
제63·제64·제65연대를 기간으로 부대를 편성한 후, 간성으로 이동하여 제1군단의 예비로서 교육훈련 실시.
- 제22사단 -1953년 4월 21일 강원도 양양에서 제22사단 창설.
제67·제68·제69연대를 기간으로 부대를 편성한 후, 사창리로 이동하여 미 제9군단의 예비로서 교육훈련 실시.
- 제25사단 -1953년 4월 21일 강원도 양양에서 제25사단 창설.
제70·제71·제72연대를 기간으로 부대를 편성한 후, 육본 직할로 양양군 강현리에서 교육훈련 실시.
- 제26사단 -1953년 6월 18일 충남 논산에서 제73·제74·제75연대를 기간으로 제26사단 창설.
- 제27사단 -1953년 6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교육총본부 산하의 장교 106명과 사병 1,175명을 모체로 제27사단 창설.
- 휴전 당시의
지상군 규모 ○휴전 당시 한국 육군은 3개 군단 18개 보병사단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병부대의 신규 창설에 따라 포병과 공병·기갑·통신·수송 등의 지원부대도 증강되어, 총병력은 550,000명(카추샤 제외) 수준으로 증강.

한국 육군 주요부대의 증·창설 내역

시기 부대	개전당시	1950. 7	1950. 11	1951. 12	1953. 1	휴전당시
군 단 급		제 1 군 단 창설	제 1 군 단	제 1 군 단	제 1 군 단	제 1 군 단
		제 2 군 단 창설	제 2 군 단	해 체	재 창 설	제 2 군 단
			제 3 군 단 창설	해 체		제 3 군 단 창설(53 5 1)
사 단 급 이 하	수도경비 사령부	수도사단 개칭	수도사단	수도사단	수도사단	수도사단
	제 1 사 단	제 1 사 단	제 1 사 단	제 1 사 단	제 1 사 단	제 1 사 단
	제 2 사 단	해 편	재 창 설	제 2 사 단	제 2 사 단	제 2 사 단
	제 3 사 단	1 개 연 대 해 편	제 23 연 대 모 체 로 재 편	제 3 사 단	제 3 사 단	제 3 사 단
	제 5 사 단	해 편	재 창 설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5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6 사 단
	제 7 사 단	해 편	재 창 설	제 7 사 단	제 7 사 단	제 7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제 8 사 단
	독립제 17 연대	독립제 17 연대	제 2 사 단 에 합			
	독립기갑 연대	독립기갑 연대	수도사단 에 통 합			
	창방위 연대	해 체				
		제 3 사 단 23 연 대 임 무 수	제 3 사 단 귀			
			제 9 사 단 창 설	제 9 사 단	제 9 사 단	제 9 사 단
			제 11 사 단 창 설	제 11 사 단	제 11 사 단	제 11 사 단
				4 개 중 포 대 창 설	8 개 대 로 강 으로 개 편	사 단 포 병 으로 개 편
				7 개 전 차 대 창 설	7 개 전 차 대	3 개 전 차 대 로 중 강
				국 민 방 위 군 창 설 (50 12 11)	제 12 사 단 창 설	제 12 사 단
				국 민 방 위 군 해 체 (51 4 30)	제 15 사 단 창 설	제 15 사 단
					제 20 사 단 창 설	제 20 사 단

시기 부대	개전당시	1950 7	1950. 11	1951 12	1953. 1	휴전당시
사 단 급 이 하					제 21 사 단 참	제 21 사 단
					12개야전포 병 단 창 설	사 단 포 병 으로 개 편
						제 22 사 단 창 설 (53 4 21)
						제 25 사 단 창 설 (53 4 21)
						제 26 사 단 창 설 (53 6 18)
						제 27 사 단 창 설 (53 6 18)
						12개사단포 병단(4개대 대 기 준) 3개군단포병 단 창 설 (53 2 ~14)
총 전 력	8 개 사 단 2 개 독 립 연 대 청 방 위 년 대	2 개 군 단 4 개 사 단 3 개 독 립 연 대	3 개 군 단 10 개 사 단	1 개 군 단 10 개 사 단 기 타 지 원 대	2 개 군 단 14 개 사 단 12 개 야 전 포 병 단	3 개 군 단 18 개 사 단 12 개 사 단 포 병 단 3개군단포 병 단 3개전차대 대

해 군 한국 해군은 전쟁 발발 당시 28척의 어뢰정을 주함정으로 한 3개 해상방위정대와 1개 훈련정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함정들은 37밀리 포와 기관총을 장비하였을 뿐, 함포와 어뢰 및 통신장비 등 해군의 기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PC 형 구잠함(701함) 1척을 구입하여 1950년 4월부터 진해기지에서 정비중에 있었으나 이때까지 함대를 편성하지 못하였고, 또 국민의 헌금으로 미국에서 PC 함 3척(702·703·704함)을 구입하여 귀국중에 있었으나 하와이에 기항중 6.25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쟁에 임한 한국 해군은 작전임무를 수행해 가며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하여 전쟁 말기에는 6개 전대를

기간으로 한 1개 함대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개전 초의 7,700명에서 12,000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그 증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PC-701 함 전 | ○개전 당시 한국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던 PC-701함이 6월 25일 진해기지를 출항하여 동남해상에서 북괴 무장수송선을 격침. |
| 제1함대 창설 | ○1950년 8월 16일 서해의 제1정대를 모체로 제1함대 창설.
1950년 12월 9일 동해의 제2정대를 제1함대에 통합.
1951년 1월 5일 남해의 제3정대를 제1함대에 통합. |
| 제 1 소해 정대 창설 | ○1950년 10월 23일 제1함대 예하에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여 동·서해안의 소해작전 임무 수행. |
| 서해전대 창설 | ○1950년 12월 제1함대 예하에 PC함 3척(702·703·704함)으로 서해전대를 창설하여, 서해안 도서 봉쇄작전·소해작전·적정수집·유격대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
○서해전대의 창설을 계기로 기존 4개정대를 전대로 개칭. |
| PT편대 창설 | ○1952년 2월 제1함대 예하에 PT정(쾌속정) 4척으로 PT 편대를 창설하여 동·서해안에서 북괴군 육상시설을 파괴하는 기습작전 실시. |
| 함대사령부 설치 | ○1952년 8월 1일 해상작전을 능률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진해에 함대사령부를 설치. |
| 제1함대 증편 | ○1952년 8월 함대사령부의 발족과 더불어 제1함대 예하에 6개 전대(서해·동해·남해·호송·소해· |

수송전대)를 증편.

○ 1950년 10월부터 1952년 8월까지 도입한 함정 (PF 함 4척, PC 함 4척, YMS 정 23척, 기타 JMS 정, PCS 정, LSSL 정, PT 정, FS 정, LST 등)을 통합하여 제1함대를 증강.

휴전 당시의 해군 전력 ○ 한국 해군은 개전 초 4개 정대의 경비정 28척과 소형 보조함 43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꾸준히 함정을 도입하여 휴전 당시에는 제1함대 산하에 서해전대·동해전대·남해전대·호송전대·소해전대·수송전대 등 6개 전대와 1개 PT편대로 구성된 59척의 전투함 및 경비정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병력도 7,775명에서 12,042명으로 증강.

해병대 해병대는 창설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개 대대 규모의 병력과 60밀리 박격포 4문, 81밀리 박격포 2문, LMG 경기관총 6정 등의 장비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으나, 전쟁 기간 중에 급진적으로 성장하여 휴전 당시에는 사단규모의 병력으로 성장하였다.

그 성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병 제1연대 창설 ○ 1950년 9월 1일 제주도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기간으로 해병 제1연대 창설.

독립제5대대 창설 ○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서남해안에서 활동중이던 김성은부대를 독립제5대대로 개칭.

해병 제1연대 증편 ○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해병대는 1950년 9월 26일 수색에서 독립제5대대를 해병 제1연대에 통합하여 제1연대를 4개 대대로 증편.

- 부대 개편 ○1950년 12월 20일 진해에서 제5대대를 독립시켜 해병대사령부 산하에 해병 제1연대와 독립 제5대대로 부대를 개편.
- 도서부대 창설 ○1951년 2월에 3개 독립중대(제41·제42·제43중대)를 기간으로 도서부대를 창설.
○이 도서부대는 북한지역 연안 도서에서 해안 봉쇄와 대안 정찰 등의 작전임무 수행.
- 해병 제1연대 전투단 창설 ○1952년 10월 1일 해병 제1연대와 지원부대를 통합하여 해병 제1연대 전투단을 창설.
○이 전투단은 제1연대(3개 대대), 독립제5대대, 포병대대, 전차중대, 공병중대, 수색소대, 수송중대, 의무중대, 병기수리소대, 차량수리소대, 통신수리 및 정비대로 구성.
- 도서부대 증편 ○1951년 2월에 도서부대를 창설한 후, 이 부대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전쟁 말기에는 연대규모로 증강.
○이 도서부대는 4개 대대(제6·제7·제8·제9대대), 75밀리 무반동총소대, 보급 및 수리 중대, 의무중대로 구성.
- 휴전 당시의 해병대 전력 ○휴전 당시 한국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1개 전투단과 1개 도서부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병력은 개전 초의 1,166명에서 22,174명으로 증강.

공 군 한국 공군은 전쟁 발발 당시 소규모의 비행단 체제를 갖추고 연락기와 연습기 등 소형 항공기 2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 말기에는 독립작전능력을 구비한 1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으로 성장하였다.

그 성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투기 도입 ○1950년 7월 2일 미 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
- 정찰비행대 창설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하여 기존 연습기와 연락기 7대(T-6 2대, L-4 3대, L-5 2대)로 정찰 비행대 창설.
- 비행단 발족 ○1950년 7월 6일 F-51 전투기 10대를 기간으로 하여 비행단 발족.
- 정찰비행전대 창설 ○1950년 10월 17일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개칭하고 L-4 11대, L-5 2대, L-19 1대 등으로 증편.
- 비행단 전력증강 ○1951년 6월 30일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추가로 인수하여 전력을 증강.
- 정찰비행전대의 임무전환 ○1951년 5월에 육군항공대가 창설됨에 따라 공군의 정찰비행전대는 지상군 지원임무를 종료하고 사천 비행장으로 집결하여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실시.
- 제1전투비행단 창설 ○병력과 장비가 증강됨에 따라 1951년 8월 1일부로 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증편하고, 그 예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제101기지전대·제30보급전대·제201의무전대를 편성.
- 정찰비행전대의 명칭 변경 ○1951년 8월 1일 정찰비행전대를 제2정찰비행전대로 개칭.
- 단독출격작전 실시 ○한국 공군은 1951년 10월까지 단독작전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유엔공군의 일부로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제1전투비행단 창설을 계기로 하여 1951년 11월부터 미 제5공군의 계획에

- 따른 단독 출격작전 실시.
- 제 15 교육비행 전대 창설 ○ 1952년 6월 18일 제2정찰비행전대를 해체하고 조종사 훈련 업무를 전담할 제15교육비행전대 창설.
- 제1전투비행단 증편 ○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 제15교육비행전대를 통합.
- 제 10 전투비행 단 창설 ○ 전투기 보유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1953년 2월 15일에 제1전투비행단 예하의 제10전투비행전대를 독립시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
- 제10전투비행단은 강릉기지에 위치하여 작전임무를 전담 수행.
- 제1훈련비행단 창설 ○ 제10전투비행단이 독립하게 되자 1953년 2월 15일에 제1전투비행단을 개편하여 제1훈련비행단으로 발족.
- 휴전 당시의 공군전력 ○ 경비행기 22대로 전쟁에 임하였던 한국 공군은 전쟁 말기에 1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 등 2개 비행단으로 성장하여 F-51 전투기 80대를 포함한 1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병력도 1,800명에서 11,000명 수준으로 증강.

전쟁 전, 북괴의 대남도발

전쟁 전, 북괴의 대남도발은 남노당의 세력확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반대, 그리고 남한내의 교란활동을 목적으로, 민심교란, 선동과 폭동, 국가 주요 시설의 파괴, 군 내부의 반란 획책 등 유형·무형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미 남한에 부식되어 있던 남노당 세력과 북괴가 밀파한 대남 공작요원 그리고 북괴가 남파한 게릴라부대 등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배타적인 공산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던 반면, 남한에서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허용되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치가 없었으므로, 1945년 9월에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으며, 1946년 11월에는 이 조직이 남노당으로 변신하여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온갖 수단으로 교란공작을 자행하였다.

이들은 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 5. 24.)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전면파업(1946 9 24.), 대구폭동사건(1946. 10 1.) 등을 일으켜 한국 내부의 교란을 꾀하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꾸준히 그들의 세포조직을 강화하고 지역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앞두고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대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들은 종래의 비폭력적 투쟁에서 폭력적 투쟁으로 전환하여 각종 만행을 자행하였다.

전쟁 전, 북괴가 남한에 대하여 일으킨 주요 사건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남교란공작

(1) 5·10선거 반대 투쟁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통일안을 가결하고, 유엔 한국위원단을 구성하여 1948년 3월까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괴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동 위원단의 북한 출입이 거절되어 남·북한 동시 총선거에 의한 한국 통일정부 수립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자유선거의 실시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10일 정부 수립을 위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북괴는 이 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남노당과 좌익계열을 동원하여 동년 2월 7일부터 5월 24일 간에 살인, 방화, 파괴, 폭동 등을 일으켰다. 이들은 이 기간 중에 22개소의 경찰관서를 습격하였으며, 방화 388개소, 철도 파괴 155건, 통신시설 파괴 1,089건 등을 자행하였고, 인명 피해는 328명의 사망자와 6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북괴의 갖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5월 10일을 기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5월 31일에는 제헌국회를 탄생시켰다.

(2) 폭동 및 반란 사건

제주도 폭동사건

이 사건은 남노당의 지령을 받은 공산분자들이 1948년 4월 3일

을 기하여 제주도 전역에서 일제히 폭동을 일으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낳게 한 사건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치안력이 취약한 점을 기회로, 남노당은 일찍부터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도민의 거의 80%가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된 상태였다. 이들은 인민해방군사령부와 남노당 제주도 지구당의 지휘하에 있었으며, 일본군이 철수할 때 한라산에 묻어 두었던 무기를 찾아 내어 500여 명에 달하는 폭도를 무장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력이 강화된 폭도들은,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연대내에 침투하여 암약중이던 남노당 군부당책인 문상길 중위와 공모하여, 5월 10일의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일원에 걸쳐 일제히 무장폭동을 일으켜 12개 경찰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양민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무장폭동이 일어나자, 제9연대가 소탕작전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제9연대만으로는 이들의 소탕이 어렵게 되어, 육군본부는 수원에 주둔중인 제11연대를 제주도로 이동시켜 이들을 소탕하게 하였다.

이 작전 중 제11연대에서는 공산분자들에 의하여 연대장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월 3일에 일어난 폭동사건은 7월 중순에야 소탕작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0월에 이르러 이들은 또다시 10월 러시아 혁명 기념일을 기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이때 출동한 제9·제10·제2연대의 본격적인 토벌작전으로 7개월 만인 1949년 5월 15일에 소탕되었다.

이 폭동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도내 400개 부락 중 250개의 부락

이 파괴되었으며, 12,250호의 가옥과 면사무소 5개소, 관공서 34개소, 우체국 1개소가 소실되었다. 이때의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60명, 중상자가 90명에 달하였으며, 1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여수·순천 반란사건

이 사건은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내의 일부 공산분자가 일으킨 무장 반란사건이다.

남노당은 1948년 10월 중순, 여수에 주둔중이던 제14연대가 제주도 폭동 진압작전에 출동한다는 첩보를 사전에 탐지하고, 제14연대내의 남노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에게 이 부대가 출동하기 전에 기회를 포착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지령하였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반란군의 지휘자격인 김지희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이에 동조한 1,000여 명의 반란군들은 날이 밝기 전에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우익 인사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과 약탈, 방화를 자행하였으며,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였다.

그들은 급격히 불어난 그들의 동조자 3,000여 명과 합세하여, 한 집단은 광양—남원—전주 방향으로, 또 다른 집단은 벌교—광주—이리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부대는 5개 연대(제3·제4·제6·제12·제15연대)에 이르렀다. 이 반란군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8일 만인 10월 27일 진압부대에 의하여 일단 진압되었으나, 반란군 중 1,000여 명은 백운산 방면으로 도피하여 그 후 그 곳에서 게릴라부대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이 진압작전에서 363명의 폭도가 사살되고 2,116명이 체포되었으며, 진압부대에서는 61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부상하였다.

대구 반란사건

이 사건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내의 일부 공산분자가 3차에 걸쳐 일으킨 반란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부대의 주력이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틈을 타서 일어난 것이다.

남노당은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내의 남노당 군부조직책임 박종진 상사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박종진 상사 외 2명은 부대의 주력이 출동한 틈을 이용하여 1948년 11월 2일 대구에 위치한 연대 주둔지내에서 병사들을 선동하여 반란(제1차)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연대 헌병대와 미군의 도움으로 조기에 진압되었다.

이때, 일부의 반란군은 김천 방면으로 도주하여 김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의 일부 병력과 합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팔공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경 13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10명이 사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육군본부는 일단 제6연대의 병력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리산 일대에 출동중이던 연대 예하부대들에 대해 원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함양 방면에 파견되었던 연대 하사관 교육대와 2개 중대의 병력 340명이 12월 6일 대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들 병력의 차량대열이 대구 근교(월배)에 이르렀을 무렵, 이동백 상사 외 42명의 좌익분자들이 이동차량을 정차시키고, 이동중인 병력들에게 그들의 반란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면서 반란(제2차)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연대본부의 잔류 병력과 경찰대에 의하여 진압되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팔공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또한, 포항에 주둔하고 있던 제4중대에서도, 팔공산으로 도피하였던 광종진 상사의 지령을 받아, 재무대 선임하사관을 주동으로 약 20명의 좌익분자들이 1949년 1월 3일 반란(제3차)을 일으켰으나 중대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실패하였으며, 이들은 포항 서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일어난 제6연대내의 반란사건은, 연대예하의 각 부대가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반란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또 이들의 조직력이 미약하고 부대원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2개 대대 월북사건

이 사건은 1949년 5월 5일 공산주의자였던 제8연대 제1대대장(소령 표무선)과 제2대대장(소령 강태무)이 대대 병력을 이끌고 38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이다.

제8연대의 제1·제2대대장은 공산주의에 오염된 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전군적으로 단행되고 있었던 숙군작업으로 미구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북괴가 남파한 간첩과 접선하여 월북할 것을 계획하였다.

제1대대장은 1949년 5월 5일 야간훈련을 빙자하여 대대 병력 456명을 인솔하고, 당시 주둔지였던 춘천을 출발하여 모진교(일명, 38교)를 건너 월북하였으며, 제2대대장은 5월 4일 대대병력 294명을 인솔하고 상남을 출발하여 5월 5일 미명에 38도선을 넘어 월북하였다.

이때, 대대원들은 대대장의 지시로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가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병들의 일부가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북괴군이 그들을 포위한 다음이었다. 그러나, 월북중인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병사들은 과감하게 포위망을 뚫고 원대로 탈출함으로써, 양개 대대 750명 중 368명만이 그들에게 강제

로 남치되었다.

이와 같이, 남노당은 그들의 세포조직을 이용하여 전군 규모의 반란을 일으켜 한국군 조직의 와해를 획책하였으나, 사회와 군 내부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의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이들은 대부분이 한국군의 소탕작전에 의하여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으며, 뒤이어 단행된 전군적인 숙군으로 이들의 조직은 그 뿌리를 잃게 되었다.

(3) 게릴라부대의 남파

북괴는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한국내에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하조직마저 와해되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와해된 지하조직을 재건하고 한국군의 전력을 후방지역에 고착시킬 목적으로, 평양 교외에 강동 정치학원을 설치하여 3~6개월간에 걸친 게릴라훈련과 정치공작훈련을 실시한 다음, 38도선 부근에 위치한 양양 인민유격대 훈련소에서 남파 전의 재훈련을 실시하여,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 간에 10차에 걸쳐 2,400여 명의 게릴라요원을 남파시켰다.

남파된 게릴라요원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한국내의 현지 공비와 합류한 다음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경찰대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1950년 3월 경에는 그 주력의 대부분을 포착, 섬멸하였으나 그 일부(약 460명)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잔존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4) 38도선에서의 무력도발

북괴는 전면 남침을 앞두고 한국군의 전투력과 대응태세 및 경비상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1949년 4월부터 전쟁 직전까지 웅진—개성—춘천 지역 일대에서 제한된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870여 회에 달하는 도전적인 사격을 한국군 진지에 가하였다. 이들이 일으킨 지역별 도발사건은 다음과 같다.

웅진지역

웅진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예하 1개 중대가 철수하게 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지역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한국군 제12연대의 1개 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 3개 중대(400명)를 웅진지역에 파견하였다. 한국군과 경찰대가 웅진지역에 배치되자, 북괴군은 한국군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웅진지역에 대한 북괴군의 제1차 침공(1949. 5 21.~6 29.)은 북괴군의 38경비대인 제3여단이 1949년 5월 21일 문정면에 위치한 국사봉의 한국군 제12연대 진지를 공격한 것이었다. 이에 제12연대는 제3대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 후, 북괴군은 5월 26일에 다시 국사봉에서 비파리에 이르는 약 8km에 걸친 정면에서 한국군 경계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300여 명의 북괴군 병력은 38도선 5km 남쪽에 위치한 서경리까지 침공하여 우익단체요원을 학살하고 주민들의 가재를 약탈하였으며 500여 호의 가옥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북괴군의 침공으로 한국군(제12·제13(-)·제18연대)은 5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북괴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38도선 부근에 위치한 두락산과 작산을 탈환하고 38도선 이북

700m 지점에 위치한 은파산까지 진출하였다.

그 후, 북괴는 제1차 공격의 실패를 만회하고 용진지역을 점령하여 그들의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제2차(1949. 8. 4.~8. 8.)와 제3차(1949. 10. 14.~1949. 11. 15.) 침공을 감행하였으나, 한국군의 반격으로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무위로 끝이 났으며 38도선은 원상 회복되었다.

개성지역

한국군 제11연대는 1948년 11월에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 경비지역을 인수하고 진지구축작업에 들어갔다.

북괴는 한국군의 진지구축작업 방해와 전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송악산과 백천 일대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개성의 송악산 일대에 배치된 북괴군은, 전형적인 황적실로 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한국군 제11연대의 진지를 감제하는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여 놓고 있었다.

한국군 제11연대는 경계지역을 인수하고, 북괴군의 진지에 가까운 292고지와 유엔고지, 그리고 비둘기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북괴군 제1사단 제30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약 1,000명)는 1949년 5월 3일 이러한 진지구축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격을 감행하여 이들 3개 고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5월 4일 피탈된 3개 고지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5월 8일에 이를 탈환하였다.

북괴군은 이러한 침공(1949. 5. 3~5. 4)에 뒤이어 백천을 침공(1949. 5. 17.~5. 19)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송악산의 한국군 진지에 대한 사격(1949. 7. 20.~7. 25)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도발을 자행하였으나, 한국군 제11연대는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며,

위치적으로 불리한 488고지 하단의 등대고지와 292고지 및 비둘기 고지 등도 이를 끝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춘천지역

북괴군의 38도선 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 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한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제8연대(-)는 8월 20일 600고지를 각각 탈환하여,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2. 위장 평화공세

북괴는 1948년 8월 25일 소련이 제시한 위장 평화공세에 호응하여 1949년 3월 이에 대한 지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 달 후에는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동년 6월 25일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유령단체를 통하여 주한미군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철수, 게릴라 토벌에 참가한 한국군의 해체, 북괴 헌법의 채택 등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정치선전에 불과한 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북괴는 1950년 6월에 접어들어서는 남침 준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련의 위장된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북괴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인사가 다수 낙선되고 무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되자, 이를 호기로

판단하고 1950년 6월 7일 '평화적 조국통일 호소문'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이 호소문의 내용은 해방 제5주년 기념일에 최고입법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8월 5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남·북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회의를 해주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위원단은 북괴 대표 3명과 개성 서북방 여현역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괴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 후 북괴가 취한 개전 직전의 위장 평화공세는 북괴가 억류중인 조만식 선생과 한국 경찰에 감금되어 있는 남노당 공작책인 김상용·이주하를 38도선에서 교환하자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 역시 한국이 이를 수락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을 때는, 그들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괴는 이와 같은 위장 평화공세를 꾸준히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침을 위한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공격부대를 전방으로 추진시키며 남침을 위한 공격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북괴군의 남침계획

1. 남침계획

북괴군의 남침계획은 1950년 6월 25일을 기하여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동년 8월 13일까지는 부산을 점령하여 남한 전지역을 공산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남침 시기를 1950년 6월 하순으로 결정한 것은, 1948년 12월 그들과 소련간에 체결된 모스크바 군사비밀협정——북괴군 장비의 현대화 보장——에 따라, 북괴군이 남한 침공에 필요한 무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18개월로 판단하여, 이 계획이 종료되는 1950년 6월 하순을 남침의 적기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50일간의 단기작전으로 남한 전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련의 속도전 개념과 모택동의 유격전법에 기초를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쉽사리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그들이 서울을 조기에 포위·합락시키고 한국군의 주력을 한강선 이북에서 무력화시킨다면, 심리적으로 한국군이나 남한 주민들에게 극도의 사기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남한내에 잠복해 있던 남노당 지하세력과 그들의 동조세력들이 남한 전역에서 일제히 호응, 봉기하여 극도의 사회혼란을 조성시켜 한국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둘째는, 한국군의 주력이 무력화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그

들의 진격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하여질 것이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50일이라는 단기간내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기간내에는 무난히 부산까지 진출하여 남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개전 50여 일 후인 8월 15일은 조국 광복 5주년이 되는 뜻있는 기념일이므로 이날을 기하여 남한을 완전 적화한다는 정치적인 심리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부산을 최종목표로 하여 선정된 북괴군의 공격축선은 경부 간선도로, 중앙 간선도로(춘천—원주—대구), 동해안 간선도로와 호남 우회도로(전주—광주—순천—진주)의 4개 축선이였다.

각 축선에 투입된 전투부대의 기동계획은 제1군단이 제105전차여단으로 증강된 4개 사단으로 주공을 담당, 2개사단(제3·제4사단)은 의정부—서울 축선으로, 2개 사단(제1·제6사단)은 문산—서울 축선으로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한 후 경부 축선을 따라 남진하도록 하였으며, 제2군단이 1개 독립전차연대로 증강된 3개 사단으로 조공을 담당, 2개 사단(제2·제7사단)은 춘천—가평—수원 축선을 따라 서울 동측방에서 서울을 우회공격하여 서울 북방의 한국군 주력을 포위·격멸하도록 하였고, 제766유격대와 제549육전대의 지원을 받는 제5사단은 동해안 축선을 따라 포항 방면으로 남진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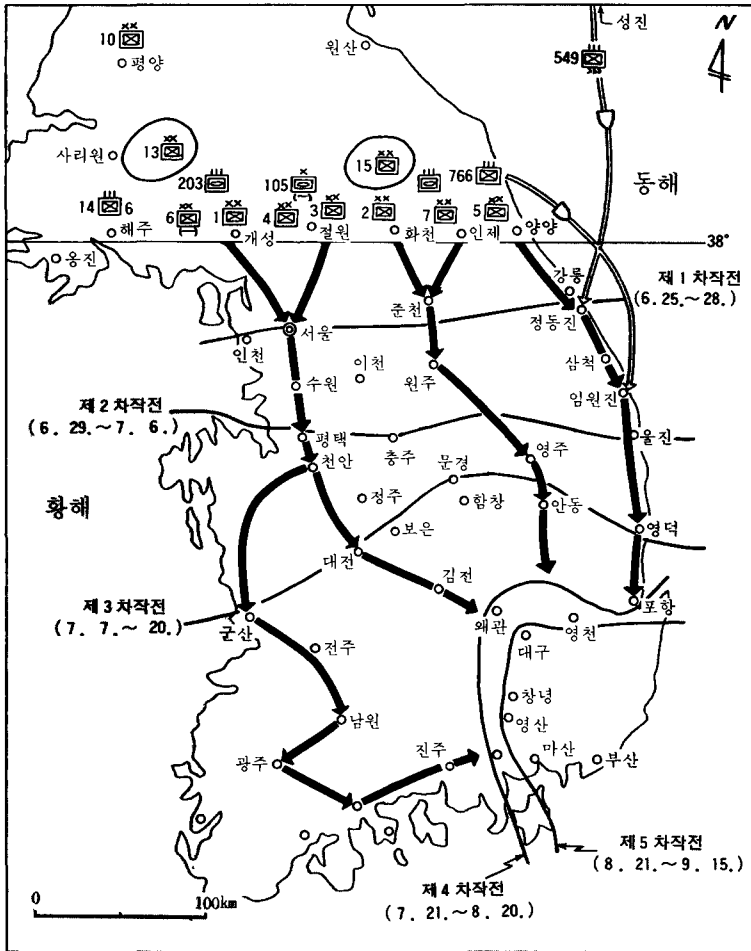
2. 실제작전

북괴군이 이와 같이 계획하고 실시하였던 실제작전의 경과를 다음과 같다.

북괴군은 그들의 계획대로 6월 25일 미명에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홍천—강릉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그 후, 북괴군은 연이어 7월 3일 한강을

북괴군의 기동계획



도하하고 주공을 경부 축선으로 지향하여 7월 6일에는 평택—충주 북방—울진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전주—대전—문경—영덕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개전 57일 만인 8월 20일에는 진동—왜관—의성—포항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으나, 개전 50여 일 만에는 부산을 점령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빗나갔으며, 9월 15일에는 함안—다부동—포항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실시된 한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그들은 끝내 부산을 점령하지 못한 채 9월 16일을 고비로 전세가 역전되어 북으로 패퇴의 길을 치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괴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전방의 방어태세가 불비하고 장비마저 부실하였던 한국군에게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 초기에는 그들이 노린 기습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며 계획대로 전황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북괴군이 평택—충주 북방—울진 선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한국군의 저항이 완강하였으며, 한국군의 전력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신속히 전선에 투입되었는가 하면, 유엔군이 공중우세권을 장악하는 등 점차 조직적으로 저항하였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진출이 낙동강 선에 이르게 된 무렵에는, 그들은 그 동안의 작전에서 입은 피해가 누적되고 병참선이 신장되어 보급이 부진하였으며, 그 위에 유엔 공군력에 의해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심한 제한을 받는 등, 전력의 저하요인이 가중되어 지속적인 공격력을 유지하는 데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북괴군은 그들의 최종목표인 부산을 점령하려고 낙동강 전선에서 무리한 총공세를 감행함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북괴가 그들이 감행한 남침작전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개전 초기에 서울을 포위하여 한국군의 주력을 조기에 격멸하지 못하였으며, 남한 지역내에 봉기하리라고 예상하였던 그들의 동조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강력한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되어 유엔군이 상상외로 신속히 한국에 전개되었으며, 그들이 초전 이후 공중·해상의 우세권을 상실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군과 유엔군의 점증되는 저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용한 예비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데도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다.

반면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그 동안 조직적인 후퇴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꾸준한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선방어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북괴군의 마지막 총공세를 지탱해냄으로써, 북괴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우세한 공중력과 해상력을 바탕으로 9월 16일에는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지상군의 총반격작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한국군의 방어계획

1. 방어계획

(1) 방어지역 편성 경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전승국으로서 남한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8일 미 제24군단(제6·제7·제40사단)을 남한에 진주시켰다. 이에, 미 제24군단은 남한 지역에 대한 점령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미 제7사단으로 하여금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과의 경계선인 38도선 일대(웅진—개성—의정부—춘천—강릉)의 경비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미 제7사단은 38도선상의 남북을 연하는 간선도로변 요소 요소에 38도선 이북 지역의 소련군과 대치되는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남북간을 내왕하는 인원과 물자 등을 통제하였다.

이때는 경비초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다른 방어시설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군정이 종료되자, 미국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약 16,000명의 미군을 1948년 9월 15일부터 1949년 1월 15일 간에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제5연대전투단이 동년 6월 29일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남한 지역에는 500여 명의 미국 군사고문단만이 남게 되었다.

이때, 한국군은 수도경비사령부를 포함한 8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자, 육군본부는 미 제7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38도선 경비 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보병 4개 사단(제1·제6·제7·제8사단)과 1개 연대(제17연대)를 38도선 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단들은 제2사단이 대전에, 제3사단이 대구에, 제5사단이 광주에 위치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으며, 수도경비사령부는 서울에 위치하여 수도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웅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300여 km가 되는 방어정면 중, 38도선 경비 임무를 인수하게 된 부대들이 담당한 각 부대별 정면은 제17연대가 45 km, 제1사단이 94 km, 제7사단이 47 km, 제6사단이 84 km, 제8사단이 30 km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대 중 일부 부대(제6·제8사단의 일부 부대)는 개전시까지도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동원되어 있었다.

그 후, 육군본부는 북괴의 무력이 증강되고 이들의 남침 징후가 농후하여짐에 따라, 그때까지 각 사단 단위별로 발전시키고 있던 방어계획을 1949년 8월부터 1950년 초에 걸쳐 이를 조정하여, 최초로 통합된 방어개념을 정립하고 방어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때 정립된 방어개념은 방어의지를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예비진지지대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는 경계지대에서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그 후는 상황 진전에 따라 주방어지대에서 결전을 시도하며, 주방어지대의 방어에 실패할 경우 예비진지지대를 확보하도록 하여, 그 곳에 별도의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감행하게 함으로써 상실된 방어의지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하에, 이때 설정된 일반적인 방어선은 주문진 남방—춘천 북방—마차산(587고지)—임진강 일대를 연하는 선이었다.

육군본부는 이러한 개념에 따라 성안된 내용을 1950년 3월 2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로 각 부대에 시달하였다.

(2) 방어개념

당시의 38도선 방어개념은 다음과 같다.

- 전방방어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4개 사단과 1개 연대로써 이를 수행하며, 전방방어의 중점은 의정부 정면에 둔다.
- 북괴군의 공격은 일단 경계지대에서 이를 저지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상황의 진전에 따라 주방어지대로 철수하여 이를 저지, 격퇴시킨다.
- 개성 이서 지역에 위치한 부대(제1사단 제12연대의 1개 대대)와 웅진 지역에 위치한 부대(제17연대)는 초전 이후 의명 철수하여 주방어지대의 방어부대를 증원한다.
- 예비진지는 군 예비대의 역습을 위하여 필히 확보하도록 하며, 방어진지 전방에는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북괴군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 주방어지대가 유린되었을 경우에는 후방에 위치한 부대(제2·제3·제5사단)와 수도경비사령부를 전방으로 투입하여 위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역습을 실시하여 이를 회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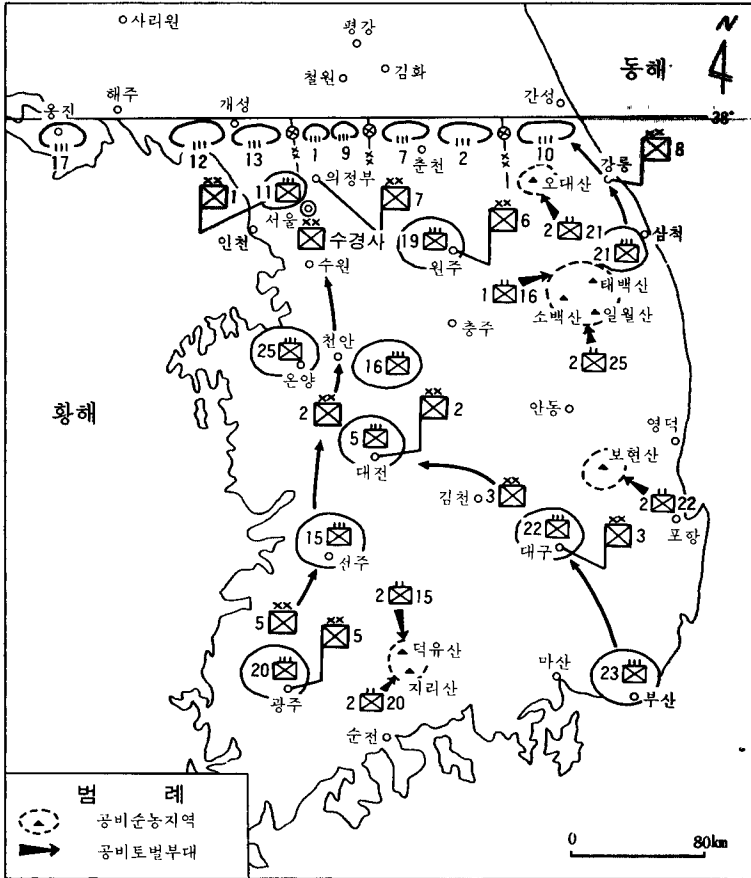
(3) 방어배치 및 임무

당시의 방어배치 및 각부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전방부대

- 제17연대(웅진반도)는 우전방 제1사단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공격부대의 서측방을 위협하고, 의명 유격전을

전쟁전 한국군의 부대배치



실시하여 해주 일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제1사단(백천—개성—고랑포)은 방어중점을 문산 정면에 두고, 우전방 제7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일대에 화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제7사단(감악산—만세교—적목리)은 방어중점을 의정부 정면에 두고, 북괴군의 주공을 진전에서 격멸할 준비를 한다.

- 제6사단(적목리—춘천 북방—진혹동)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북괴군을 진전에서 격멸할 준비를 하며, 공격부대의 동측방을 위협하여 제7사단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8사단(진혹동—양양 남쪽 동해안)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북괴군을 진전에서 격멸할 준비를 하며, 동해안으로의 상륙을 기도하는 북괴군을 해안선에서 격멸하도록 준비한다.

군 예비

- 수도경비사령부는 김포—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을 방어하며, 의명 제1사단과 제7사단 지역에 투입될 준비를 한다.
- 제2사단은 의명 제7사단 지역에 투입될 준비를 하며, 의정부—춘천 간을 방어나다.
- 제3사단은 의명 제1사단 지역에 투입될 준비를 하며, 동 사단의 좌측방 일대를 방호한다.
- 제5사단은 의명 제7사단 지역에 투입될 준비를 하며, 동 사단의 좌측방 일대를 방호한다.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각 사단은 자체 방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단 자체계획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계진지·주진지·예비진지의 한계가 모호하고, 주진지지대의 편성개념이 불분명하였다. 게다가, 개전 당시까지도 한국군은 조직적인 방어훈련이나 방어진지의 준비가 없었다.

2. 실제작전

이러한 가운데, 북괴군으로부터 기습적인 남침을 받게 된 한국

군은 전방지역방어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없었으며, 그 후의 작전 또한 임기응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17연대는 북괴군 제6사단 예하 제14연대의 공격을 받아 1일 8시간 만에 웅진반도를 유린당하고,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제1사단은 1개 전차연대와 1개 기계화연대로 증강된 북괴군 2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문산—고랑포에 이르는 계획된 방어지역을 1일 15시간 만에 유린당하였다. 그 후, 제1사단은 주진지로부터 20 km 후방에 위치한 금천—봉일천 일대에서 이들과 대치하였으나, 그 곳에서 다시 1일 21시간을 지탱한 후 김포반도로 철수하였다.

제7사단은 2개 전차연대로 증강된 북괴군 2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동두천—포천에 이르는 계획된 방어지역을 18시간 만에, 의정부를 15시간 만에 유린당하고, 그 후 주진지대로부터 30 km 후방에 위치한 창동—미아리 선에서 타부대와 같이 북괴군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1일 13시간 정도를 지탱한 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였다.

제6사단은 1개 독립전차연대로 증강된 북괴군 2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북한강 계곡—자은리에 이르는 계획된 방어지역을 1일 12시간 만에 유린당하고, 그 후 주진지대로부터 27 km 후방에 위치한 소양강 남안—큰말고개 선에서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북괴군의 진출을 1일 20시간 동안 저지한 다음 충주로 철수하였다.

제8사단은 북괴군 제766부대와 제549부대의 지원을 받는 제5사단의 공격을 받아 주문진 일대의 저지진지를 3시간 만에 유린당하고, 그로부터 20 km 후방에 위치한 역곡천을 연하는 계획된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북괴군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2일 7시간을 지탱한 후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전쟁이 발발하자 군 예비인 수도경비사령부와 제2·제3·제5사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축차적으로 전방 작전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2개 연대(제3·제18연대)를 6월 25일 14:00와 17:00에 각각 제7사단에 배속하였다. 제7사단은 이들 부대 중 1개 연대(제3연대)를 탄장, 송우리, 창동, 미아리 일대에서 저지부대로 운용하였으며, 1개 연대(제18연대)를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덕정—봉암리 방향으로 역습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 역습부대는 덕정까지 진출한 후 전세의 악화로 진출이 중지되었으며, 의정부가 실함(6. 26 13:00)되자 6월 27일 03:00에 삼송리 일대로 철수하였다.

제2사단은 6월 26일 03:00에 육군본부의 역습명령에 따라 1개 대대(제5연대 제2대대)를 축석령 일대로 진출시켰으나, 그 곳에서 북괴군의 압력을 받게 되자, 사단은 이 대대를 축석령 일대에서 저지부대로 운용한 다음, 6월 26일 13:00에 의정부가 실함됨에 따라 사단의 주력과 합류시켜 제5연대(-), 제16연대(-), 제25연대(-)를 백석천, 창동, 미아리 방어선에서 운용하였다.

제5사단은 6월 27일 07:00에 창동 방어선의 중심 보강을 위하여 2개 연대[제15연대(-)와 제20연대(-)]를 미아리 방어선에서 운용하였다. 그리고, 2개 대대(제15연대 제3대대, 제20연대 제3대대)를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제1사단에 배속시켰다.

이와 같이, 한국군은 개전 3개월 전에 전방 방어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훈련이나 세부적인 방어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를 실시할 수가 없었으며, 진요한 예비대의 운용조차도 그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휘체제나 운용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한강선 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전쟁의 경과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의 기습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 그 동안, 쟁방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치른 한국전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전되었다.

그 첫째 단계는 북괴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 선까지 이르렀던 북괴군의 남침기(1950. 6. 25.~9 15)이며, 둘째 단계는 한국 한국전쟁 기간 중 단계별 전선의 변동상황

단 계	진 출 선	진출기간	소요일수
I 북괴군 남침기	38도선 ↓	1950 6 25 }	82 일간 (2개월 21일간)
	함안-왜관-포항	1950 9 15	
II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	낙동강 선 ↓	1950. 9 15 }	71 일간 (2개월 10일간)
	정거동-초산-혜산진-청진	1950. 11 25	
III 중공군 침공 및 유엔군 재반격기	압록강 선 ↓	1950. 11 25 }	210 일간 (6개월 28일간)
	평택-제천-삼척 ↓	1951 6 23	
	문산-화천-간성		
IV 교착전기	38도선 ↓	1951 6 23 }	764 일간 (25개월 4일간)
	판문점-철원-남강	1953 7 27	

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하였던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기(1950 9. 15.~11. 25.)이고, 세째 단계는 중공군의 개입과 더불어 단행된 공산군의 대공세로 유엔군이 평택—제천—삼척 선(37도선)까지 후퇴한 다음 재반격작전으로 38도선을 회복하게 된,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1950. 11. 25.~51. 6. 23.)이며, 네째 단계는 휴전회담의 진행과 더불어 쌍방이 38도선 부근에서 대진상태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교착전기(1951. 6. 23 ~ 53 7. 27.)이다

1. 북괴군의 남침기 (1950. 6. 25.~9. 15.)

북괴군은 1950년 6월 25일 04:00를 기하여 전 전선에서 일제히 38도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북괴의 남침작전은 작전개시 50일 이내에 부산을 점령하고,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북괴군의 전력은 10개 보병사단, 1개 전차여단, 3개 독립연대, 5개 경비여단 등 지상군 191,680명과 해군 4,700명, 공군 2,000명이었으며, 총병력은 198,380명이었다. 북괴군은 지상군을 2개의 군단으로 편성하여 주공인 제1군단(5개 사단과 1개 전차여단으로 구성)은 서부지역의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주력을 지향하게 하고 일부는 계성—개성—문산—서울 방향으로 공격하게 하였으며, 조공인 제2군단(4개 보병사단과 3개 독립연대 및 1개 전차연대로 구성)은 중동부 및 동부 지역에서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주력을 지향하게 하고, 일부는 인제—홍천, 양양—강릉 방향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당시, 한국군의 전력은 8개 보병사단, 2개 독립연대 등 96,140명

의 지상군과 해군 7,715명, 공군 1,897명이었으며, 총병력은 105,752명이었다. 한국군은 이중 전방지역인 개성, 포천, 춘천, 강릉 및 용진 지역에 4개 사단 및 1개 여단을 배치하여 전방방어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외의 부대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일원에 전개시켜 공비토벌과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괴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된 한국군은 우선 전방 방어병력만으로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후방 주둔 사단을 긴급히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북괴군의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38도선이 돌파당하고 6월 28일에는 서울과 춘천 그리고 강릉이 실함되었다.

당시의 한국군은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작전대비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전투부대는 인원과 장비 면에서 완전한 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방어태세에 있어서도 1개 사단이 평균 60여 km에 달하는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교육훈련면에서도 거의 75% 이상이 대대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북괴가 남침한 당일은 일요일로서 부대원의 1/3 정도가 외출중에 있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후방지역에 위치한 예비대의 운용은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북괴가 남침 초기 공격의 주수단으로 운용하였던 전차에 대한 대비태세는 57밀리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한국군은 병력이 2배, 장비가 3.2배에 달하는 전력을 보유한 북괴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의 북괴군의 공격은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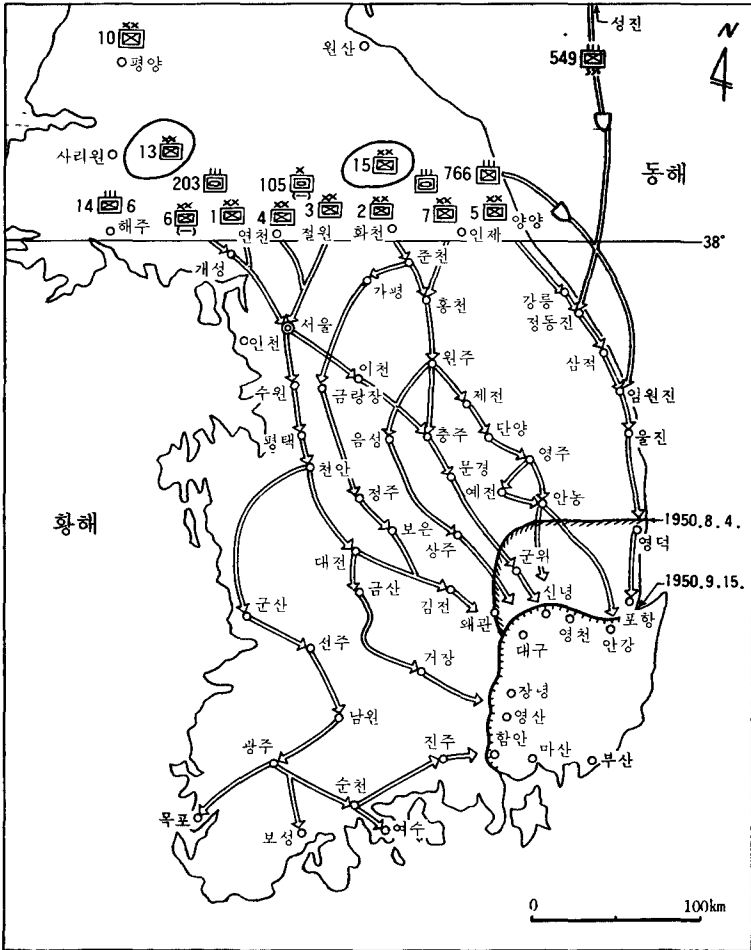
그 후, 한국군은 한강 이북 지역에서 철수한 병력과 그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병력을 통합하여 임시로 편성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하에서 한강방어작전을 수행하여 7일간을 그 곳에서

지탱한 후, 7월 4일 한강선을 돌파당하게 되어 평택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중부전선에서는 7월 2일에 원주가 실패되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7월 4일 삼척이 실패된 후 지연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미 제24보병사단의 선두부대가 평택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한국군은 7월 4일에 평택—제천—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유엔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미 지상군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전선을, 한국군은 그 이동 지역인 중부와 동부 지역의 전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군 및 유엔군은 여전히 상대적인 전투력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한 채, 북괴군의 계속적인 압력에 밀려 차령산맥—금강—소백산맥 선에서도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부득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8월 1일에는 낙동강 선인 마산—왜관—영덕을 연하는 선까지 물러나게 되었다.

한국군 및 유엔군은 이러한 지연작전을 거듭하는 동안 남한 국토의 거의 90%를 상실하였으나, 그 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미 제8군사령부도 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었으며, 유엔군이 해상과 공중우세권도 확보하는 등, 한국전을 수행하기 위한 유엔군의 작전지휘체제와 작전기반이 갖추어졌다. 그 동안 한국군도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재편성되어 전쟁 직전의 병력수준으로 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전투경험도 축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의 해·공군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해군이 한국 작전지역에 도착하였고, 미 지상군은 3개 사단 2개 연대 규모로 증강되었다. 이와 반면에, 북괴군은 그간의 계속된 공세행동으로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게 되어 사단의 전투력은 50~60% 수준으로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보충이 뒤따르지 못하였으며, 병참선은 300

북괴군 남침시의 진출선 1950. 6. 25. ~ 9. 15.



여 km로 신장되고 유엔 공군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되는 등 전력의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괴군의 공세작전이 거의 한계점에 이를 무렵,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을 마산—남지—왜관—낙정

리—영덕에 이르는 240 km에 달하는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하고 비교적 조밀하게 압축된 방어진역에서 전세 만회를 위한 방어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이 중 왜관 북측으로부터 영덕까지에 이르는 128 km를 담당하였으며, 미군은 왜관으로부터 마산까지에 이르는 112 km를 담당하여 사수개념의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은 한국군과 유엔군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으며, 반격작전을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였다. 이 선은 일명, 부산 교두보 또는 위커 라인이라고도 불리었다.

낙동강 선까지 진출한 북괴군은 마지막 남은 총력을 기울여 8월 5일부터 낙동강 도하공격을 개시하여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8월공세(1950. 8. 5.~20)와 9월공세(1950. 8. 31~9. 15.)를 감행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 하였으나 함안—창녕—왜관—영천—포항 선까지밖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 공격은 한반도의 최남단에서 포위망을 압축하여 일격에 부산까지를 점령하기 위한 북괴군의 마지막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북괴군은 많은 손실을 입게 된 반면, 이에 대한 후속지원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9월 중순경 그들의 전력은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반면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계속된 전력의 보충과 증원부대의 도착으로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작전의 주도권은 한국군 및 유엔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습공격으로 개시된 북괴군의 남침공격은 일일 평균 10 km의 속도로 낙동강 선까지 진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곳에서부터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대구마저도 점령하지 못한 채 공세가 꺾이고 말았으며, 공격개시 82일 만인 9월 15일 이후에는 한국군 및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그들의 기도가 좌절되고 말았다.

2. 유엔군의 반격 및 복진기 (1950. 9. 15.~11. 25.)

한국군과 유엔군은 9월 중순 이후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자, 1950년 9월 15일 시행된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을 단행하였다. 당시, 북괴군은 13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사단 그리고 2개 기갑여단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8, 9월 사이에 신편된 5개 보병사단과 5개 보병여단을 후방지역에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경인지방은 인천경비여단과 제9사단의 일부 부대 그리고 제18사단이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북괴군의 총병력은 낙동강 선에 투입된 70,000명을 포함하여 100,0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으며,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사단은 그 전투력이 3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은 낙동강 방어작전 중에도 계속 증강되어 한국군 2개 군단 6개 사단, 미군 2개 군단 4개 사단과 1개 연대전투단, 영국군 1개 보병여단이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미군 1개 군단(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보병사단, 한국 육군 제17연대, 한국 해병 제1연대)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들의 병력은 낙동강 전선에 157,000명, 인천 상륙작전에 75,000명 그리고 그 외 지원부대를 합하여 도합 320,000여 명에 달하였다.

인천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은 9월 15일 기습적인 인천상륙에 성공하여, 그 익일에는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경인가도로 진출하여 경미한 북괴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9월 18일에는 김포를 점령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한강 선에 이르게 되어 그 곳에서 도하작전을 전개하여 서울 탈환작전을 개시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에 뒤이어 9월 16일 미 제8군도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총반격작전에 나선 한국군과 유엔군은 초기에 북괴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약 1주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9월 22일~23일에는 북괴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북괴군은 9월 23일 이후 전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서부지역에서는 유엔군이 경부축선과 호남 우회로를 따라 진격하였으며, 한국군은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중앙선 축선과 동해안로를 따라 진격하였다. 이때의 진격로는 북괴군이 남침한 경로와 유사한 반대 방향이었다. 주공인 미 제1군단은 낙동리—상주—보은—청주—천안을 거쳐 진격을 개시한 지 3일 만인 9월 26일 22:00에 오산 북방에서 인천상륙부대인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연결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27일에는 인천상륙부대가 서울을 탈환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한편, 동해안으로 북상한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반격을 개시한 지 14일 만인 9월 30일에 강릉을 지나 38도선에 도달하였으며, 한국군 제2군단도 이날 원주를 점령하고 38도선으로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하고 9월 16일 낙동강 선에서 반격작전을 개시한 지 12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15일 만에 38도선을 회복하였다. 즉,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이 실함된 지 90일 만에 이를 수복하고, 97일 만에 38도선을 회복하였다. 이 무렵의 북괴군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신속한 기동작전으로 그들의 퇴로가 차단된 채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어, 23,600여 명이 포로가 되는 등 전투조직은 거의 와해된 상태이었다.

그리고,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이들의 일부 부대와 패잔병들은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 산악지역으로 도피하여 그 후 그 곳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이들이 입은 손실은 한국군이

후퇴작전시에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 후, 38도선 이남 지역을 회복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쟁 재발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괴군을 완전히 격멸할 목적하에, 10월 1일부터 10월 11일 간에 군단별로 각각 38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총진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의 기동계획은 미 제1군단(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한국군 제1사단, 영연방 제27여단)이 주공으로서 서부지역의 개성—사리원—황주를 경유하여 평양을 목표로 진격하고, 한국군 제1군단은 중동부전선 및 동해안 지역에서 원산 방향으로 공격하며, 한국군 제2군단은 중부에서 철원—평강—양덕을 경유하여 청천강 선으로 진격하고, 미 제10군단(미 해병 제1사단, 미 제3사단, 미 제7사단, 한국 해병 제1연대)은 원산에 상륙한 다음 그 일부를 서진시켜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북괴군은 서해안방어사령부와 전선사령부가 38도선 북방에 방어선을 설정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면서 그들의 철수부대를 수습하고 있었고, 평양과 원산에는 평양방어사령부와 원산방어사령부를 두어 후방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전력은 빈약하여 조직적인 방어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한국군 및 유엔군의 진격은 순조롭게 진전되어 동부의 한국군 제1군단은 10월 10일에 원산, 10월 17일에 함흥을 점령하였으며, 서부의 미 제1군단은 10월 19일에 평양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중부의 한국군 제2군단은 10월 18일 양덕을 점령한 후 평양 탈환작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천·강동으로 서진하였다가 다시 북상하여 10월 23일에는 청천강 선(회천)까지 도달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의 원산 상륙계획은 그 시행이 지연되어 원산 외항에서 상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천강 선에 도달한 한국군 및 유엔군은 10월 24일에는 그 곳에

서 한·만 국경선을 향한 총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당시의 북괴군 전력으로는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가 없을 것이며, 북진을 단행하였을시 우려하였던 소련이나 중공의 개입 징후가 그때까지도 포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북진시 설정한 군사적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25일 한국군과 유엔군이 박천·운산·온정리·회천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불의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한 기습이었다. 그리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에 관한 아무런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운산, 온정리, 회천 방면으로부터 대부대를 투입하여 한국군 및 유엔군 공격 부대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은밀히 밀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0월 26일에는 한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의 선두부대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였으며,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24사단이 11월 1일에 신의주 남방 27 km 지점인 정거동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일단 공세가 좌절된 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11월 7일에는 청천강 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군과 유엔군을 뒤따라 공격하던 중공군도 일단 공격을 멈추고 청천강 북쪽 적유령산맥으로 이동해 감으로써 일단 접적이 단절된 채 전선은 소강상태가 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러한 중공군의 참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자, 공산군 지역에 대한 공중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후방으로부터 1개 군단(제9군단)을 청천강 선에 추가로 투입하여 미 제8군의 전력을 보강한 다음 11월 24일을 기하여 다시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때까지도,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규모와 그들의 기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당시에 출현한 중공군을 제한된 병력으로 국지적인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한 달 이내에 북괴군을 격멸하고 한·만 국경선을 점령하여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것을 전제로 한 공세이었으며,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라고도 불리었다. 이때,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제1군단이 청진 및 무산 방향으로 진격중이었고, 미 제10군단은 10월 26일부터 원산과 이원에 상륙하였으며, 그 중 미 제7사단은 11월 21일에 압록강변 혜산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 해병 제1사단은 장진호 부근에서 무평리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을 지은 다음 만포진—강계—회천을 잇는 중공으로부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북괴군과 중공군을 지대내에서 포위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병력을 약 70,0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판단과는 달리, 11월 24일 재공격을 개시한 미 제8군은 다음날 정주—운산—구장동—덕천—영원 선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때 또다시 대대적인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동부의 미 제10군단은 11월 27일에야 그들 부대들이 이미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 놓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한국전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민의 염원이던 남북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총반격작전을 단행하여 1일 평균 20 km 정도의 속도로 북진을 계속하여 38일 만에 청천강 선까지 진출하였으며, 그 후 정거동—구성—초산—장진호—혜산진—합수—청진 선까지 진출하여 전국토의 약 90%를 확보하였으나, 예기치 못하였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만 국경선을 목전에 둔 채 반격작전을 개시한 지 71일 만에 철수작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3.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

(1950. 11. 25.~51. 6. 23.)

한국군 및 유엔군은, 중공군의 본격적인 개입이 확인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전황이 급전직하로 불리하게 전개되자, 1950년 11월 24일 개시하였던 공격을 중단하고 수세로 전환하여 전면적인 철수 작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하에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10월 중순부터 압록강을 넘어 북한 지역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10월 하순까지 중공군 제13병단 이하 6개 군단 18개 사단이 북한 지역으로 잠입하여 적유령산맥 남단 일대에 전개(1개 군은 장진호 북방으로 전개)한 후 10월 25일 제1차 공격을 실시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을 청천강 남쪽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제9병단 이하의 12개 사단이 북한 지역으로 잠입하여 개마고원 및 장진호 부근에 전제한 후, 11월 25일 제2차 공격을 실시하여 유엔군 전선을 동서로 양단시킨 다음 이를 각개격파할 계획이었다.

이때, 북괴군은 재편성중인 제1군단을 서부전선에, 제3·제4·제5군단을 동부전선에 전개시켜 중공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군단은 한국군 및 유엔군의 후방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북괴군 제6·제7·제8군단은 한·만 국경선 일원에서 신편중에 있었다.

당시, 공산군의 병력은 42만 명이었으며, 그 중 중공군이 약 30만 명, 북괴군이 약 12만 명이었다. 이들은 형식상 만주·봉천에 설치된 중공·북괴합동사령부와 북한의 강계에 설치된 북괴·중공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서 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

어서는 중공군 위주로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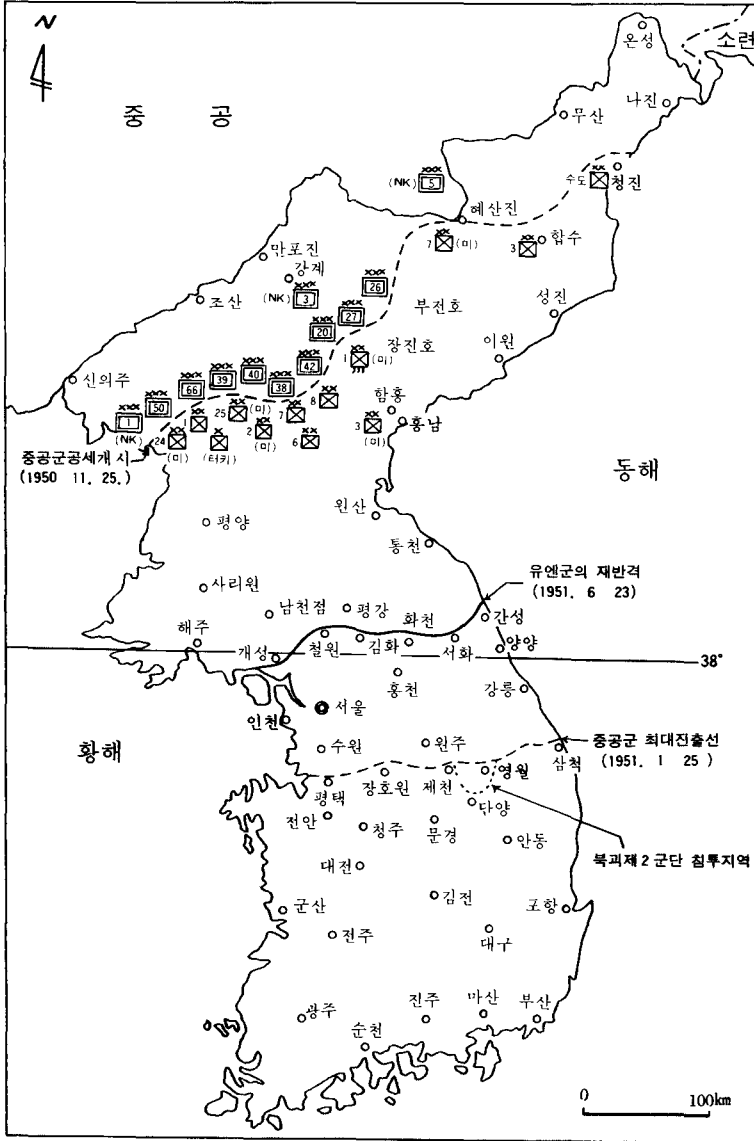
한편, 철수작전으로 전환하게 된 한국군 및 유엔군의 총전력은 한국군이 10개 사단 223,900여 명, 미군이 7개 사단(+)에 178,400여 명, 영국 등 기타 유엔군이 20,700여 명 등 모두 423,0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서부전선 청천강 선에는 3개 군단 6개 사단(+)이, 동부전선에는 2개 군단 5개 사단이 전개되어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일단 공세가 꺾인 한국군 및 유엔군은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려 겨를도 없이 11월 30일을 고비로 철수가 가속화되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후퇴하게 되었으며,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홍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일~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그 후, 미 제10군단은 부산에서 예비가 되었으며, 한국군 제1군단은 동부전선의 38도선 방어에 투입되었다.

이때, 유엔군은 한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한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원주—삼척 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 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하고 이 계획된 방어선에서 축차적으로 중공군의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개념으로 중공군과의 작전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38도선상의 방어편성은 약 220 km의 방어정면 중 미군이 서부(문산과 포천 정면)의 45 km를 담당하였고 한국군이 잔여 175 km에 달하는 중부와 동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한국군 사단의 방어정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 재반격시의 진출선



면은 평균 22 km에 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대부분의 병력을 경의선과 중부의 성천—양덕—곡산—철원 축선으로 투입하여 12월 하순에는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미군사단과의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계획대로 진출하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북괴군 제3·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지향시키고,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조공을 지향시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을 중공군의 제3차공세 또는 신정공세라고 칭하였다. 공산군은 이러한 공격에 앞서 북괴군 제2군단의 부대들을 12월 20일경, 양구—인제 지역에서 흥천, 현리—평창 방면으로 사전 침투시켜 유엔군의 측후방을 교란 및 위협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작전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중이던 한국군 및 유엔군은 전방으로부터의 압력과 측후방으로부터의 위협으로 격전을 치르면서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빼앗기고 1월 7일에는 평택—삼척 선으로 후퇴하여 그 곳에 신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신정공세로 남침을 계속하여 1월 8일에는 수원—여주—강릉 선까지 진출하게 된 중공군도 그 동안에 입은 전력의 손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수세로 전환하였다. 그 동안,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청천강 선으로부터 1일 평균 10

km의 속도로 남진할 수 있었으며, 공격개시 38일 만에 수원—강릉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 선이 그들 능력으로는 최대한의 진출선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한국군 및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은 지역의 확보보다는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 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공군의 반격(제4차 공세: 1951. 2. 11.~2. 18.)에 부딪쳐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이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은 3월 15일,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이의 여세를 몰아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다시 회복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캔사스 선으로 불리는 임진강—영평천—화천 저수지—남애리를 연하는 요지를 점령하고, 중부지역에서는 와이오밍 선으로 불리는 철원—금화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중공군의 다섯 번째의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가 시작되었다. 이 공세는 중공군의 참전 이후 최대병력이 동원된 마지막 공세이기도 하였다. 당시 중공군의 가용 병력은 4개 병단 16개 군 51개 사단 규모이었다. 중공군은 이 병력과 북괴군을 총동원하여 4월(4. 22.~30.)과 5월(5. 16~22) 두 차례에 걸쳐, 4월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 5월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전력을 집중시켜 인해전술로 총공세를 취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도 사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였으며, 무제한적인 화력을 운용하여 이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이들의 공세는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중공군의 춘계공세는 쌍방간 서울공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던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국군

몇 유엔군은 이러한 대규모적인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곧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5월 말에는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15일에는 문산—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도 그 북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유엔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세는 유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전의 원상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으며, 중공군이 수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춘계공세 이래 연이은 치명적인 손실로 인하여 급격한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공격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때부터 전선은 고착화되었으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게 되었다.

4. 교착전기

(1951. 6. 23.~53. 7. 27.)

한국전쟁이 개시된 이후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일진일퇴를 거듭한 격동의 1년이 지나고, 쌍방은 다시 형성된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임진강구—연천—철원—김화—산양리—장평리—서화—간성)에서 상호 대치하게 되었으며, 전투는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유엔과 미국 측에서 수차례 걸친 휴전 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던 공산측이,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를 통하여 휴전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산군측이 휴전협상에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전쟁지속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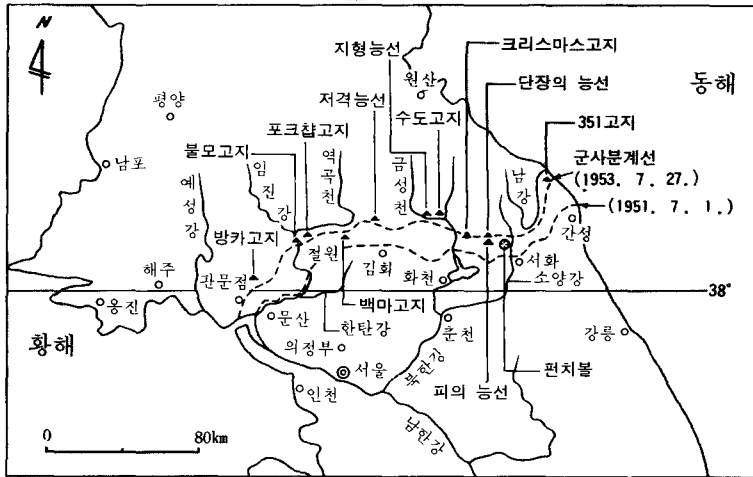
이때, 한국군 및 유엔군의 지상전력은 554,0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군이 10개 사단 273,000여 명, 미군이 7개 사단(+) 253,000여 명, 기타 14개국의 유엔군이 28,000여 명이었다. 이 중 한국군 8개 사단과 미군 4개 사단(유엔군 배속)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는 후방에 예비로 있었다. 공산군의 지상전력은 459,2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확인된 중공군이 5개 병단 14개 군 40개 사단 248,100여 명, 북괴군이 7개 군단 23개 사단과 2개 여단 등 211,100여 명이었으며, 그 외 제2전선부대로 7,500여 명의 북괴군 게릴라가 남한 지역에서 활동중이었다. 이 중 중공군 약 17개 사단이 중서부전선에서, 북괴군 9개 사단이 동부전선에서 유엔군과 대치중에 있었다.

당시, 중공군은 6개 군과 2개 사단 규모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었으나 미 제8군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 유엔군측과 공산군측 쌍방은 협상이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휴전회담 기간 중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투는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한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전선은 1951년 8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격렬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개성에서는 양측의 대표가 겨우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협의중에 있었다. 유엔군측은 당시 쌍방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교착전선의 주요전투지역 1951. 6. 23~1953. 7. 27.



주장하고, 공산군측은 38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쌍방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로 인하여 회담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공산군측이 회담장소인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유엔군측이 비무장지대를 폭격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면서 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공산군측은 이 회담을 이용하여 시간을 획득하고 그 사이에 전력을 정비할 속셈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휴전 당시의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안을 관철시키기로 하고, 휴전회담 개시 당시의 방어선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10월 말까지 계속된 이 공격에서, 한국군 및 유엔군은 당시의 대치선에서 평균 10 km를 전진하여, 서부전선에서는 관문점—역곡천까지, 중부전선에서는 금성 남방까지, 동부전선에서는 고성 남쪽까지 전선을 밀어올렸다. 이 전투는 약 3개월간에 걸쳐 10 km의

중심지대내에서 치러졌으며, 좁은 공간내에서 밀도 높은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쌍방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편치볼 부근의 전투에서는 쌍방간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쌍방간의 방어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어진지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던 까닭에, 이 기간 중의 전투가 종전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진지전 형태의 격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공산군측은 이와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전선에서 다소나마 물러서게 되자, 10월 25일 휴전회담을 재개하여 유엔군측 안을 수락하고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 외의 의제도 3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쌍방은 1951년 11월 27일 당시의 접촉선(임진강구—판문점—산명리—금성—송정—가마우골—신대리—남강)을 임시휴전선으로 책정하였다.

임시휴전선의 설정으로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고, 곧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쌍방이 그 후 30일 이내에 합의하기로 한 기타 의제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쌍방간에 합의되었던 임시휴전선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1952년 전반기까지는 쌍방이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전선은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휴전회담이 종료될 때까지 제한된 국지전 형태의 전초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군 및 유엔군은, 휴전회담이 포로교환협상의 부진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결국에는 결렬 상태에 이르자,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선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전세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지적인 고지쟁탈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공산군 역시 이러한 전술로 맞섰다.

이러한 국지전 형태의 치열한 고지쟁탈전은 휴전회담이 종결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모고지 전투,

포크참 고지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수고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피의 능선 전투, 펀치볼 전투, 351고지 전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전투가 이 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들 전투는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 특유의 별칭들이 의미하듯이 지역을 수없이 빼앗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쌍방간에는 전쟁 초년도의 격동기에 못지않은 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고지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4월부터 휴전회담이 재개되었으며 6월 8일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18개월이나 끌어 오던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휴전협상의 모든 의제가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10:00에는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이날 22:00를 기하여 모든 적대행위가 종식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중에 진행되었던 휴전회담은 회담이 개시된 지 24개월 17일 만에 타결이 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으나, 쌍방이 대진상태하에서 제한된 범위의 포격전, 수색정찰전, 고지쟁탈전 등 상호의 의지를 시험하는 국부적인 공방전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하였으며 전선의 변화는 종심 20 km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중, 휴전회담이 개시된 초반에 실시되었던 약 3개월간에 걸친 유엔군의 공세와 휴전 직전 약 1개월간 중공군이 실시한 중동부전선의 금성 돌출부에 대한 공세를 제외하면, 휴전회담 기간 중의 전투는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된 전선에서의 전투이었다.

이렇게 하여 휴전으로 끝난 한국전쟁은 그 중 최초 1년간이 전선의 변화가 심한 격동기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기이었다. 격동기 1년간에는 공산군이 3차례나 38도선을 넘나들었다. 그 첫번째는 북괴군이 낙동강까지, 두 번째는

중공군이 평택—삼척 선까지, 세 번째는 중공군이 서울 북방 구파발—강릉 선까지 진출하였으나 번번이 한국군 및 유엔군에게 격퇴당하였다.

즉, 최초의 북괴군의 남침은 한국군 및 유엔군이 97일만에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하고 청천강 이북까지 진출하였으며, 두 번째의 북괴군 및 중공군의 남침은 약 90일 만에 이들을 격퇴시키고 38도선을 회복하였으며, 세 번째의 북괴군 및 중공군의 남침은 약 39일 만에 다시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축출하여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공산군이 38도선 이남에서 머문 기간은 226일 간이었고,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에서 머문 기간은 76일간이었다.

이외 격동기의 일부 기간과 교착기는 38도선 부근에서 상호 대치 상태에 있었다.

한국전쟁의 단계별 전력규모

단계 및 시기	북괴군 및 공산군	한국군 및 유엔군
I (1950.6.25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군 보병사단 10 <li style="padding-left: 20px;">전차여단 1 <li style="padding-left: 20px;">독립연대 3 <li style="padding-left: 20px;">(육전대 포함) <li style="padding-left: 20px;">경비여단 5 <li style="padding-left: 20px;">병 력 191,680명 • 해 군 위수사령부 3 <li style="padding-left: 20px;">어뢰정 30척 <li style="padding-left: 20px;">병 력 4,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군 보병사단 8 <li style="padding-left: 20px;">독립연대 2 <li style="padding-left: 20px;">해병부대 1 <li style="padding-left: 20px;">병 력 96,140명 • 해 군 정 대 3 <li style="padding-left: 20px;">합 정 71척 <li style="padding-left: 20px;">-소해정 26 <li style="padding-left: 20px;">-구잠함 1 <li style="padding-left: 20px;">-상륙정 1 <li style="padding-left: 20px;">-보조선 43 <li style="padding-left: 20px;">병 력 7,715명

단계 및 시기	북괴군 및 공산군	한국군 및 유엔군
I (1950 6 25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군 항공사단 1 항 공 기 211대 병 력 2,000명 *총병력 198,3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군 비 행 단 1 항 공 기 22대 병 력 1,897명 *총병력 105,752명
II (1950 9 15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괴군 보병사단 18 전차사단 1 보병여단 5 기갑여단 2 기타부대 *총병력 10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군 보병사단 6 해병연대 1 • 미국군 보병사단 5 해병사단 1 보병연대전투단 1 • 영국군 보병여단 1 *총병력 320,000명
III (1950 11 28 ~5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괴군 보병사단 27 (신편 및 재편성중) 전차사단 1 기계화사단 1 보병여단 7 병 력 120,000명 • 중공군 보병사단 30 (9개 군) 병 력 300,000명 *총병력 42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군 보병사단 10 병 력 223,950명 • 미국군 보병사단 6 해병사단 1 연대전투단 2 병 력 178,464명 • 영국군 보병여단 2 터키군 보병여단 1 기타 유엔군 보병대대 5 병 력 20,760명 *총병력 423,174명
IV (1951.7 1. ~53.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괴군 보병사단 21 전차사단 1 기갑사단 1 보병여단 2 기타부대 병 력 211,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군 보병사단 10 병 력 273,266명 • 미국군 보병사단 6 해병사단 1 연대전투단 2 병 력 253,250명

단계 및 시기	북괴군 및 공산군	한국군 및 유엔군
<p>IV (1951 7.1 ~1953.7.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군 보병사단 40 (14개 군) 병력 248, 100명 (미확인 7개 군 20개 사단 미포함) *총병력 459, 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군 보병여단 2 • 터키군 보병여단 1 • 캐나다군 보병여단 1 • 기타 유엔군 보병대대 9 포병대대 1 병력 28, 061명 *총병력 554, 57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군 북괴군 보병사단 18 보병여단 7 전차연대 7(+) 병력 262, 200명 • 공군 보병사단 57~60 병력 818, 700명 • 해군 북괴군 발동선 24척 병력 4, 442명 • 공군 북괴군 6개 사단 항공기 489대 병력 19, 350명 • 북괴군 총병력 285, 992명 *총병력 1, 080, 9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군 한국군 보병사단 18 554, 267명 해병연대전투단 1 22, 174명 병력 576, 441명 (590, 911명) 유엔군 보병사단 8 해병사단 1 연대 및 여단 3 보병대대 8 병력 미군 302, 483명 기타 유엔군 39, 145명 • 해군 한국군 1개 합대 59척 병력 12, 042명 • 공군 한국군 1개 전투비행단 항공기 110대 병력 11, 461명 • 한국군 총병력 599, 944명 *총병력 932, 539명

유엔군의 참전

1. 참전경위 및 규모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근 5년 동안 전쟁재발의 방지와 세계인류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을 창설하고 새로운 전후 질서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의 대립은 심화되어, 1946년 이란 및 터키 사태, 1947년~49년 그리스 사태, 1948년~49년 베를린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산권의 세력확장 전략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소련은 북괴에 군비를 제공하고 고문관을 파견하는 등 전쟁 준비를 서두르게 하여 북괴로 하여금 1950년 6월 25일 남한에 대한 침공을 단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서간의 이념 대립은 극동지역에서 비로소 무력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남한에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명목상이나마 국군이 창설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하게 되었으며, 그 후 한국이 제외된 알류산 열도—일본 본토—오끼나와—필리핀을 연하는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설정되는 등 남한 지역에는 사실상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괴와 소련은 이와 같은 허점을 노려, 전쟁을 단기전화할 경우 미국이 쉽사리 한국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한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적화야욕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남한을 무력침공하였다.

이러한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 침략행위는 평화를 갈망하던 세계의 자유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으며, 유엔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게 되었다. 유엔은 북괴의 남침이 개시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괴의 남침을 '국제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북괴에게 "침공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에게는 북괴에 대한 지원을 삼가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여 전 회원국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괴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의 계획대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8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이 북괴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이리하여,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유엔의 결의가 세계의 자유우방국가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유우방국들은 그들의 전투부대나 의료지원부대(시설) 또는 물자를 서둘러 한국에 지원하였다.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는 모두 16개국(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이디오피아)이었으며, 의료지원부대 또는 시설을 파견한 나라는 5개국(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이었고, 그 외 물자를 지원한 나라는 20개국(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칠레·코스타리카·쿠바·에쿠아도르·엘살바도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레바논·리베리아·멕시코·니카라과·파키스탄·파나마·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베네수엘라)이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들 유엔군의 규모는 지상군이 1개 군, 3개 군단, 9개 사단, 3개 여단, 8개 보병대대와 그 지원부대들이었으며, 이들의 총병력은 341,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해군은 2개의 기동함대, 공군은 3개 군의 전력이 동원되었다.

2. 참전국의 역할

(1) 참전 16개국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의 참전 규모와 그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미 국 —————

미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이며, 유엔군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상군·해군·공군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을 수행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사령부를 통하여 모든 유엔군의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고 한국전쟁을 시종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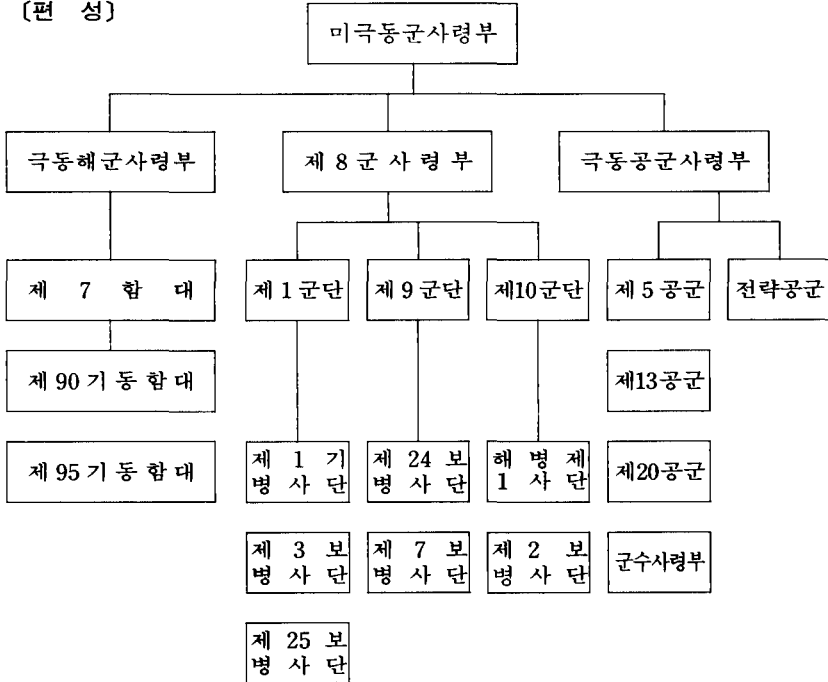
미국의 해·공군은 유엔의 '대 북괴 침략중지 요청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1950년 6월 27일부터 미 극동해군과 공군이 한국에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상군은 7월 1일 주일 미 제24보병사단의 일부인 스미드 특수임무부대(대대규모)가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하였다.

전쟁기간 중 미 지상군으로서는 3개 군단(미 제1·제9·제10군단), 8개 육군사단(미 제24·제25·제2·제7·제3·제40·제45보병사단 및 제1기병사단), 1개 해병사단(제1해병사단), 그리고 2개 연대전투단(제5보병연대·제187공수연대) 및 이들의 지원부대들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의 병력은 302,000여 명에 달하였다.

미국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해군 및 제7함대의 전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제90·제95기동함대를 주축으로 작전상황에 따

라 해상작전 또는 지상군작전을 지원하였고, 해군항공부대는 공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미 공군은 미 극동공군이 주축이 되었으며,

[편 성]



- 지상군부대 중에서 제1기병사단은 1951. 12. 7. , 제24사단은 1952. 1.에 철수하였으며, 그 대신 제40사단(1952. 1. 11.)과 제45사단(1952. 12. 1.)이 파견되었다. 그 후, 제24사단은 1953년 7월 3일에 재차 파병되었다.
- 지상군부대에는 표에 표시된 부대 외에 제5연대전투단,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 참전하였다.
- 해군의 기동조직은 작전임무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 극동공군 중 제5공군이 한국전쟁 수행의 중심세력이었다.

이들은 제5공군(일본 주둔), 제20공군(오끼나와 주둔), 제13공군(필리핀 주둔), 군수사령부(일본 주둔)로 구성되어, 전쟁기간 중 최대로 20개 비행단, 77개 비행대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미 극동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는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 구성군사령부인 미 제8군사령부, 미 극동해군사령부 그리고 미 극동공군사령부의 지휘조직을 이용하여 한국군과 16개국에서 파견된 각 군을 지휘 및 작전통제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의 편성은 앞 페이지의 표와 같고,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주요전투]

•1950. 7. 5 오산 전투

이 전투는 미 지상군부대 중에서 최초로 한국에 도착한, 미 제24사단 스미드 특수임무부대(대대규모)가 당시로서는 최전방인 오산 북방 죽미령에 전개하여, 서울과 수원을 점령하고 남진하는 북괴군 제4사단(전차 1개 연대 배속)과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스미드 특수임무부대는 후속하는 미군부대를 전개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획득하기 위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근 40%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6시간 만에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북괴군도 많은 손실을 입었다.

•1950. 7 18 ~20 대전 전투

이 전투는 오산 전투 이후 경부축선을 따라 지연전을 전개하여 오던 미 제24사단이 대전에서 북괴군 2개 사단(제3·제4사단)과 치른 방어전투이다. 제24사단은 이 전투에서 대전 후방의 도로를 차단당한 가운데 북괴의 포위공격을 받아 당시 전투병력의 근 30%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은 이 전투

에서 3.5인치 로켓포를 최초로 사용하여 그때까지 파괴하지 못하였던 북괴군의 전차(T-34)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괴군은 이 전투에서 보병의 손실은 경미하였던 반면 포병과 기갑부대는 많은 손실을 입었다.

·1950 8 6~19 영산 전투(일명, 낙동강 돌출부 전투)

이 전투는 낙동강 선 방어작전기에 창녕과 영산 서측 낙동강 선에 배치된 미 제24사단이 북괴군 제4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당시 제24사단은 대전 전투에서 입은 손실을 보충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낙동강 선 방어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때 역시 북괴군 제4사단이 협천 방면에서 낙동강을 기습적으로 도하하여 제24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산까지 진출함으로써, 유엔군 으로서는 낙동강 방어선의 일대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은 예비인 미 제2사단 제9연대와 미 제25사단 제27연대 및 미 해병 제1여단을 축차적으로 이 지역에 투입하여 북괴군을 낙동강 서측으로 격퇴시켰다. 이 전투에서의 손실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북괴군 제4사단은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 후 낙동강 전선에는 다시 투입되지 못하였다.

·1950 9. 15 인천 상륙작전

이 작전은 한국전쟁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유일하게 실시한 대규모 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은 북괴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미 제10군단(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사단, 한국군 해병 제1연대, 한국군 제17연대)이 인천으로 상륙한 후, 서울로 진격하여 북괴군의 후방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 광역 포위작전이다.

한국전쟁이 개시된 이후 근 3개월간에 걸쳐 지연전을 전개중이던 유엔군은 후퇴기간 중 북괴군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낙동강 전선에서 북괴군의 전력의 더 이상 공격

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1950년 9월 15일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이 작전에서 미 제10군단은 완전한 기습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상륙부대는 공격 다음날에 인천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9월 27일에는 서울을 점령하였다. 이 작전과 더불어 실시된 낙동강 전선에서의 반격작전도 순조롭게 진전되어 이들 부대와도 오산 부근에서 연결을 이룸으로써, 남침한 북괴군의 전력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다. 이 작전은 개전 이후 그때까지 수세 일변도였던 한국군 및 유엔군의 입장을 공세적으로 전환시키게 된 획기적인 작전이었다.

•1950. 10. 9.~19. 평양 탈환작전

이 작전은 미 제1군단(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한국군 제1사단, 영 제27여단)이 유엔군의 북진계획에 따라 1950년 10월 9일 개성—고랑포 일대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괴의 38도선방어부대와 평양방어부대를 격파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한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 제10군단은 38도선을 돌파한 후 사리원—황주, 시변리—수안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진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천·사리원·혹교리·시변리·울리·대동리에서 북괴군과의 국지적인 전투를 치른 후, 한국군 제1사단이 북괴 내각청사를 점령하고,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역 일원을 공격하여 이를 탈환하였다.

•1950. 11 26.~12 1. 군우리 전투(평양 북방 80 km)

이 전투는 미 제2사단이 북진중 군우리 일대에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유엔군의 총공세(크리스마스 공세)작전에 따라 군우리에서 온정리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하던 중 중공군의 제2차 대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우인접부대가 돌파를 당하고, 중공군이 청천강상 교통의 요지인 군우리로 주력

을 지향하자, 사단은 군우리를 점령하고 그 곳에서 2일간에 걸친 치열한 방어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로, 미 제8군의 좌인접부대들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중공군의 일부 부대가 남으로 우회 침투하여 제2사단의 철수로가 될 군우리—개천을 잇는 협로를 차단하게 됨으로써 미 제2사단은 이를 돌파하는데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하였다. 그 후 미군은 그 곳을 태형(笞刑)의 계곡이라고 불렀다.

•1950. 11. 27.~12 11 장진호 전투

이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북진중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된 후 그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하여 실시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 제1사단은 유엔군의 총공세(크리스마스 공세)작전에 따라 장진호 서단 유담리에서 서쪽으로 진격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을 이룬 다음, 중공군을 지대내에서 포위·격멸할 계획으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격 직후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頓挫되었으며, 그때는 이미 중공군의 대부대(후에 7개 사단으로 밝혀졌다)가 장진호—함흥 간의 교통로를 차단하고 미 해병 제1사단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사단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무렵 한·만 국경선으로 진출중이던 전 유엔군도 이와 같은 중공군의 역공세에 직면하여 이때부터 후퇴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해병 제1사단도 함흥으로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이때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는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1951 2. 13.~16 지평리 전투(원주 서북방 30km)

이 전투는 중공군의 공세로 후퇴작전을 계속중이던 유엔군이 그

들의 공세를 평택—삼척 선에서 저지하고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남한강—지평리—횡성 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지평리를 점령한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중공군 제39군(3개 사단)의 역공격을 받아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이때, 중공군은 중부전선인 횡성—원주 축선에 주공을 두고 대공세(2월공세)를 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좌우 인접부대가 뒤로 밀리게 됨에 따라 지평리가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23연대는 그 곳에서 전면 방어태세를 갖추고 3일간이나 계속된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유엔군이 전선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1. 5. 16.~19. 800고지 전투(일명, 벙커 고지 전투, 홍천 북쪽)

이 전투는 1951년 5월에 실시된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 기간 중 미 제2사단 제38연대 K중대가 홍천 북방 800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이 밤마다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인해전술로 근접전투를 감행하였으나, 이 중대는 사전에 견고하게 구축한 방어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여 저항하고, 중공군이 고지를 점령할 경우에는 진내사격과 역습을 실시하여 이들을 물리침으로써 이 고지를 사수하였다.

이 때, 중공군은 현리—하진부리에 이르는 대돌파구를 형성하였으나 이 부대가 800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은 홍천을 지킬 수 있었고 중공군의 돌파를 그 곳에서 저지할 수 있었다.

•1952. 6. 6~29. 불모고지 전투(266고지, 연천 서북방 15 km)

이 전투는 휴전회담 기간 중 교착전기에 전개된 고지쟁탈전의 대표적인 전투이다. 당시, 대광리 전방 역곡천 남쪽에 주저항선을 설치하고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던 미 제45사단은 당시의 방어선을

개선할 목적으로 쌍방의 방어선 중간에 위치한 266고지를 기습적으로 점령하여 소대규모의 강력한 전초진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치중이던 중공군이 이 전초진지에 대하여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쌍방간 빼앗고 빼앗기는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이 공방전에서 쌍방간에 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를 전개하는 동안, 이 고지는 포격과 폭격으로 대머리처럼 벗겨져 그 후 이 고지는 불모고지라 불리게 되었다. 이 고지의 쟁탈전은 그 이후에도 이 지역을 담당한 부대들에 의하여 반복되었으나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다.

휴전 후, 미 해·공군은 곧 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상군은 1954년 1월부터 철수를 개시하여 다음해 3월까지 7개 사단이 철수하고, 잔여부대는 계속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영 국 —————

영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한 국가이며,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지상군과 해군을 한국전에 파견하였다. 영국은 1950년 6월 29일에 영국 극동해군의 일부 함정을 대한해역으로 전개시켜 참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상군은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참전하였다.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 1척·순양함 1척·구축함 3척·프리깃함 2척·보조선 1척·병원선 1척·보조근무선 8척 등으로 소형함대를 구성하여 미 극동해군사령관·제7함대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주로 서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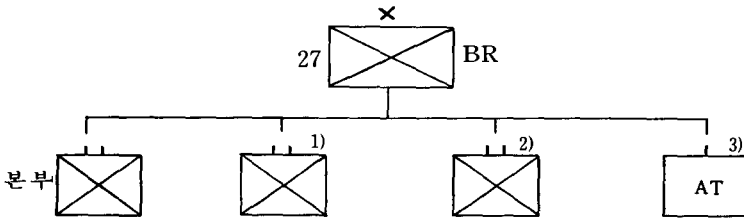
영국이 전쟁기간 중 한국에 파병한 지상군은 2개 여단(중강) 규모이었다. 이 중, 제27여단은 1950년 8월 28일 부산에 도착하여 낙동강 방어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제29여단은 1950년 11월 18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최초 미군군단 및 사단에 배속되어 작

전을 수행하였으며, 1951년 7월 28일 이후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연방국가(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의 부대와 연합하여 영연방 제1사단을 구성하고 사단단위로 작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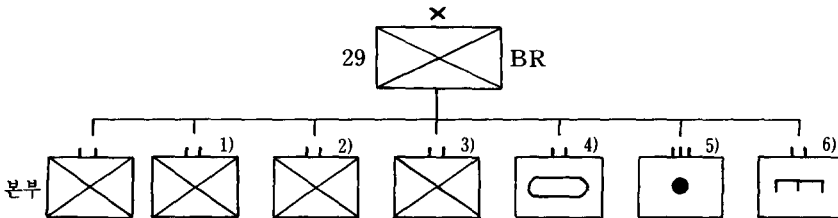
영연방 제1사단은 미군사단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사단이었다. 이외에, 1950년 9월 초부터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 해군해병 1개 특공대(대대감편규모)가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지상군의 총병력은 14,198명이었다.

영국군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 1) The middlesex Regiment 제1대대
- 2)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 제1대대
- 3) 대전차포중대(후에 합류되었다)



- 1)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 제1대대
- 2) The Gloucestershire Regiment 제1대대

- 3) The Royal Ulster Rifles 제1대대
- 4) 8th Royal Irish Hussars 전차대대
- 5) 45th Field Regiment, Royal Artillery
- 6) 55th Field Squadron, Royal Engineers

[주요전투]

•1950. 10. 29.~30. 정주 전투

이 전투는 영연방 제27여단이 한·만 국경선을 향한 유엔군의 북진작전시 정주에서 퇴각하는 북괴군(T-34전차로 증강)과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이 여단은 평양을 점령한 후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유엔군 선두부대로 북진작전에 참가하여 청천강을 도하하였으며, 정주 전방에서 전차를 동반한 북괴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물리치고 정주를 점령하였다.

이 여단은 정주를 점령한 후 그 곳에서 예비가 되었으며, 이 전투의 결과로 제24사단은 그 곳을 초월하여 정거동까지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

•1950. 11. 4.~6. 박천 전투

이 전투는 영국군이 중공군과 치른 최초의 전투이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10월 25일부터 대공세를 취하자 정주에서 예비임무를 수행중이던 영 제27여단은 박천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정거동과 구성 방향으로 북진중 철수하게 된 타 유엔군(미 제24단·미 제1기병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으며, 그 후 박천 동측방에서 철수부대를 뒤따르던 중공군과 맞서 싸웠다.

이 전투에서 이 여단은 그들을 지원하던 포병대대의 진지가 중공군에게 유린되고 청천강으로 이르는 철수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역습으로 이를 격퇴하고 박천 지구를 계속 확보하였다.

이 전투는 중공군의 공세를 맞아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투이다.

•1951 1. 2 ~3. 고양 전투(의정부 서북방 10 km)

이 전투는 영 제29여단이 중공군의 신정공세기 중공군과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여단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중 중공군의 공세로 인하여 38도선까지 후퇴하여 그 곳에서 방어선을 편성할 당시, 미 제1군단의 예비로 고양(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여단은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시작되자, 전방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어, 철수부대에 뒤따라 접근하는 중공군과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이 여단은 제파식으로 공격하는 중공군에 대항하여 수차에 걸친 치열한 근접전과 역습을 실시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곳 방어선을 만 24시간 동안 지탱함으로써 유엔군 전방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1951 4 22.~25 적성(설마리) 전투

이 전투는 영 제29여단이 적성 일대에서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던 중,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1951. 4. 22.~30)를 맞아 중공군 제63군(제187·제188·제189사단)과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여단은 이 전투에서 대규모적인 중공군의 파상공세를 3일간이나 지탱하여 인접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최우 인접부대가 안전하게 철수하여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여단은 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여단병력의 약 1/4이 희생되었다. 이 여단 중에도 중공군 2개 사단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받고 고립방어를 전개하고 있던 글로스터 대대는 철수과정에서 39명밖에 포위망을 탈출하지 못하는 고전을 겪었다. 글로스터 대대의 이 전투는 한국전쟁사상 대대규모로서는 그 임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1951. 4. 23.~24. 가평 전투

이 전투는 영연방 제27여단이 가평 북방 7km 지점에 위치한 죽둔리에서 중공군의 제1차공세시 중공군과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이 여단은, 중공군이 전방의 한국군 제6사단 전투지역인 사창리를 돌파하고 가평 방향으로 진출하여 경춘가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죽둔리 방향으로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이를 저지·격퇴하였다. 그러나, 이 3일간에 치른 격전에서 이 여단은 많은 인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는, 앞서 치른 적성 전투에서와 같이, 중공군의 주력이 이 여단 정면으로 지향된 전투로서, 영국군이 이를 지연 또는 저지함으로써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휴전 후, 영국 해군은 1955년 3월에 철수를 완료하고, 지상군은 1954~57년 사이에 철수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엔 참전국 중에서 세 번째로 전투부대를 한국전에 파병한 국가이며,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하였다. 이 나라는 1950년 7월 1일에 해·공군을 우선 파견하였으며, 지상군은 9월 27일에 파견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은 전쟁 발발 6일째인 7월 1일에 당시 영연방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홍콩에서 머물고 있던 프리깃함 2척이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 통제하에 작전임무를 개시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은 항공모함 1척·구축함 2척·프리깃함 1척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해상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연

참전 함정 수는 항공모함 1척·구축함 4척·프리깃함 4척 등 모두 9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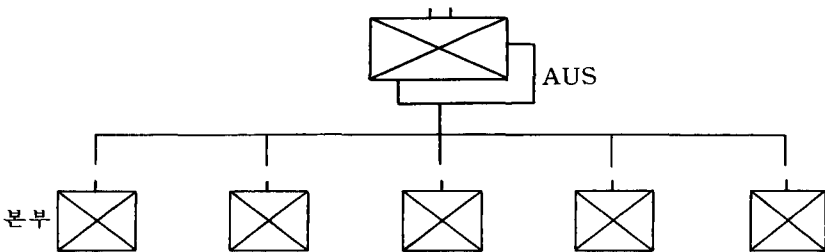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당시 영연방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주둔중이던 제77전투비행대대가 미 제5공군의 작전통제하에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그 후 1개 수송기편대가 추가로 참전하였다.

지상군은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연대 중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새로이 편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1950년 9월 27일 부산에 도착하여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지상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52년 4월 9일에는 본국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제1대대'가 부산에 도착한 후 영연방 제1사단 제28여단에 배속되었으며, 이 대대는 1953년 3월 21일에 새로이 파견된 '오스트레일리아 제2대대'와 교대하고 복귀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은 최초로 1개 대대가 참전하였으며, 1952년 4월 이후에 2개 대대 병력이 참전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0. 10. 22. 영유리 전투(평양 북방 40 km)

이 전투는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영 제27여단의 일부로 영유리 부근에서 북괴군 제239연대를 격파하고, 숙천에 공수낙하한 미 제187공수연대와 연결작전을 이룬 전투이다.

이 대대는 미 제1군단이 평양을 점령한 후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신안주—정주로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이때, 평양 점령에 때를 맞추어 숙천과 순천 지역에 공수작전을 전개하였던 미 제187공수연대가, 영유리—어파리에 배치된 북괴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황이 위급하게 되자, 이를 구출하기 위한 임무를 받게 되었다.

이 대대는 영 제27여단의 일부로서 영유리에 도착하여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북괴군 방어진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공수연대와 연결을 이루었으며, 대대는 이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획득한 반면 희생자는 극소수였다. 이 대대는 그 후 영국군여단과 더불어 계획된 북진을 실시하였다.

•1950 11. 4 ~6. 박천 전투

이 전투는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중공군과 최초로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유엔군의 총공격계획에 따라 영연방 제27여단의 일부로서 1950년 10월 30일 청천강 북방 정주까지 진출하였으나, 중공군의 공세로 박천까지 후퇴한 후 그곳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할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이 대대는 11월 5일 중공군이 이 여단의 우측방을 돌파하여 박천 후방에 위치한 지원포대 지역을 점령하고 박천—신안주 간의 병참선을 차단하자, 지원포대의 구출 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공격작전을 개시하여 포대 지역을 회복하고 병참선을 다시 확보하였다.

이 전투는 중공군의 제1차공세시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투이었다.

•1951. 4. 23 ~24 가평·죽둔리 전투

이 전투는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가 가평 7 km 북쪽 죽둔리에
서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맞아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영연방 제27여단의 일부로서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개시되
자, 중공군에게 돌파되어 사창리—화악산—가평 방향으로 철수하
는 한국군 제6사단의 철수를 죽둔리 지역에서 엄호하는 한편, 그
를 후속중이던 중공군 제60사단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
서, 이 대대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이 실시되었으나 이를 효과적으
로 저지하여 죽둔리를 고수하였다. 그 결과 이 대대는 가평으로
진출하여 경춘가도를 차단하려던 중공군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1. 10. 3.~8. 마량산 전투(317고지)

이 전투는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휴전선의 설정이 논의되고 있을
무렵, 유엔군측에서 휴전선이 설정되기 전에 유리한 방어선을 확
보할 목적으로 실시한 코멘도 작전 기간 중, 오스트레일리아 제3
대대가 전곡 부근 방어선에서 10 km 북쪽의 마량산을 공격·점령한
작전이었다. 이 대대는 3일간 계속된 공격작전에서 중공군의 완강
한 저항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량산을 점령하였다. 이 코멘도작전
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철원—연천—서울에 이르는 도로망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휴전 후,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1953년 10월, 해군은 1954년 2
월, 지상군은 1956년 3월에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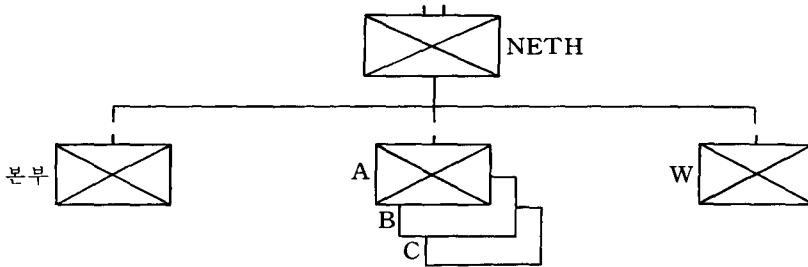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한국에 네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지상
군과 해군을 파견하였다. 네덜란드 해군은 1950년 7월 16일 인도

네시아에 정박중이던 구축함 1척을 한국 해역으로 진출시켜 영국 극동함대 지휘하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상군은 636명으로 구성된 보병 1개 대대가 1950년 11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여 11월 말에 전방으로 이동,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네덜란드 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 네덜란드 대대는 최초 2개 중대 편성이었으며, 1951년 5월 25일에 C중대가 도착함으로써 완전편성대대가 되었다.

[주요전투]

• 1951 2. 12 ~ 13. 황성 전투

이 전투는 네덜란드 대대가 황성에서 전방부대(미군·한국군)의 철수 엄호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1951년 2월 12일 황성에서 홍천으로 진격중이던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의 2월공세에 부딪쳐 철수하게 되자, 황성에서 이들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이때의 철수상황은 네덜란드 대대로서는 피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야간이 되자, 한국군으로 가장한 중공군이 대대의 동측 후방으로 침투

하여 대대본부에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대장이 전사하고 대대 지휘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선임자인 화기중대장이 대대장의 지휘권을 승계하고 부대를 능동적으로 지휘 통제하여 침투한 중공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13일 날이 밝을 무렵에 원주로 철수하였다.

•1951. 5 30.~31. 인제 전투

이 전투는 네덜란드 대대가 인제 동측 2km 지점인 548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중, 북괴군의 공격을 받고 치른 방어전투이다. 북괴군은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가 실패한 다음 반격을 단행한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인제를 점령할 목적으로 감제고지인 548고지를 공격하였다. 네덜란드 대대는 사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였으나 한때 고지 정상을 피탈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대대 예비중대를 투입하고 공격부대에 협공을 가하여 다시 548고지를 탈환하였으며, 이로써 차후작전의 길목이 되는 인제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51. 7. 15.~31. 대우산 전투

이 전투는 네덜란드 대대가 미 제2사단의 일부로서 중동부지역 대암산(1038고지)—도솔산(1148고지) 부근 전선에 투입되어, 방어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대우산(1179고지)을 점령하기 위하여, 조공부대로서 그 남쪽의 대머리산(1120고지)을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대대는 7월 15일에 이 전선을 인수하고, 정찰전을 전개하면서 대우산 공격을 위한 준비를 갖춘 후, 7월 27일에 대머리산을 정면에서 공격하여 진지 일각을 점령하였으나, 방어부대의 완강한 저항과 예비부대의 역습을 받아 공격이頓挫되었다. 이때 주공인 우인접의 미군은 이날부터 4회에 걸친 공격으로 29일 대우산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에 따라 그간 화력으로 주공을

지원하고 있던 이 대대도 공격을 재개하여 30일 야간에 대머리산을 점령하고 대우산의 방어진지를 확보하였다.

•1952. 2. 18 별고지 전투(평강 남방 10 km)

이 전투는 네덜란드 대대가 쌍방 대전기에 포로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전초진지를 공격한 전투이다. 네덜란드 대대는 연대로부터 주저항선 1 km 전방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하여 포로를 획득하고 방어시설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1개 중대를 선정하여 항공기·포병·전차포 등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별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중대는 공격 도중 목표 직전에서 일시 공격이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이 중대를 수행한 대대장의 독려와 적절한 지휘 조치로 그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중대는 목표 고지를 점령한 후 병커·수류탄·지뢰·탄약 등을 폭파하고 약간의 장비를 노획하여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서, 이 대대는 적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는 하였으나 포로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휴전 후, 네덜란드 지상군은 1954년 12월에, 해군은 1955년 1월에 철수하였다.

캐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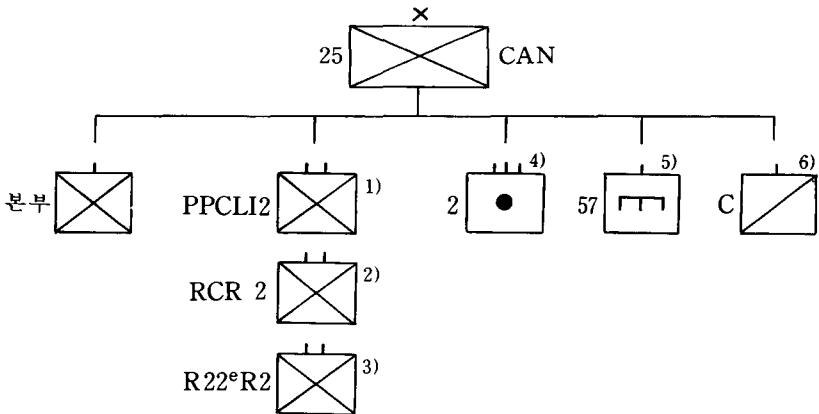
캐나다는 한국전에 다섯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지상군·해군·공군을 모두 파견하였다. 캐나다 해군은 1950년 7월 5일 구축함 3척을 한국 해역으로 출동시켜, 7월 30일부터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캐나다 공군은 제426항공수송대대를 파견하여 1950년 7월 26일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캐나다는 이 외에도 조종사 22명을 미 극동공군에 파견하여 유엔 공군기를 조종하게 하였다. 캐나다 지상군

은 한국전에 파병하기 위하여 캐나다 제25여단을 새로 창설하였으며, 이하의 PPCLI 제2대대가 제1차로 1950년 12월 18일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주력은 다음해 5월 초에 도착하였다. 캐나다군 제25여단은 편성 당시에는 전 병력이 동시에 파견될 계획이었으나, 유엔군의 북진으로 전황이 호전됨에 따라 1개 대대만 먼저 파병하게 되었으며, 그 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주력이 이동하게 된 것이었다.

최초로 파병된 PPCLI 제2대대는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주력이 도착한 다음에는 그들 여단으로 복귀하였다. 캐나다 제25여단은 미군 군단 또는 사단에 배속되어 작전하였으며, 1951년 7월 28일부터는 영연방 제1사단에 편입되어 휴전이 될 때까지 주로 임진강(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점 부근)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여단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1) Princess Patricia's Light Infantry 제2대대

- 2) The Royal Canadian Regiment 제2대대
- 3) Royal 22^eRegiment 제2대대
- 4) Royal Canadian Horse Artillery 제2연대
- 5) Royal Canadian Engineers 제57중대
- 6) Lord Strathcona's Horse C중대

[주요전투]

•1951. 4 23 ~25 가평 전투

이 전투는 PPCLI 제2대대가, 가평 북방 7 km에 위치한 가평천 남단 667고지에서, 중공군 제20군 예하부대와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대대는 당시 영연방 제27여단의 일부로서 이 곳에 배치되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맞아 전방지역인 사창리에서 후퇴하는 한국군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이들을 뒤따라 가평으로 진출하려는 중공군을 저지하게 되었다. 이때, 이 대대는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으나, 끝까지 그 고지를 고수함으로써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가평 북쪽에서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51 5. 30 자일리 전투(운천 북방 2 km)

이 전투는 캐나다 제25여단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여단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를 저지한 후 실시된 재반격작전에 참가하여 운천으로 이동한 후, 그 북방에 위치한 자일리와 동측방의 각결봉(467고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여단은 이 공격에서 자일리와 각결봉의 일부를 점령하였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과 역습으로 공격에 실패한 후 운천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이 여단은 이 전투 후 예비임무로 전환되어 포천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1952 10 23. 고왕산 전투(355고지)

이 전투는 캐나다 제25여단이 임진강 북방 고왕산 지역을 방어

하고 있던 중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여단은 고왕산에서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실시된 급습을 받고 고왕산 서측방의 무명고지를 한때 피탈당하였으나 역습으로 이를 탈환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이 공격에서, 중공군은 공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목표 고지 바로 하단에 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엄체호를 비밀리에 구축해 놓은 다음, 그 안에 돌격부대가 은신해 있다가 공격준비사격의 연신과 동시에 급습을 감행하여 무명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1953. 5. 2. 나부리 전투(전곡 서북방 18 km)

이 전투는 캐나다 제25여단이 임진강과 사미천의 합류지점 부근인 나부리의 무명고지(97고지)에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여단은, 이날 밤 방어선의 돌출부인 97고지의 방어중대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진지의 일각을 피탈당하면서 진내전을 벌이게 되자, VI 신관을 이용한 진내사격으로 중대를 지원하여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그러나, 캐나다 여단은 이날 2시간 계속된 이 전투에서 적지 않은 인명의 희생을 치렀다.

이때, 중공군은 치밀한 계획하에 먼저 이날 저녁 목표 부근에서 활동중이던 캐나다 여단의 2개 정찰대를 습격하여 무력화시킨 다음, 목표에 은밀히 접근하여 철조망 등 방어 시설물을 제거하고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은 수류탄 투척으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캐나다군을 기만하면서 진내로 돌입하여 완전한 기습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 전투는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캐나다군에게 불명예를 안겨 준 전투이었다.

휴전 후, 캐나다 공군은 1953년 7월에, 해군은 1955년 9월에, 그리고 지상군은 1957년 6월에 철수하였다.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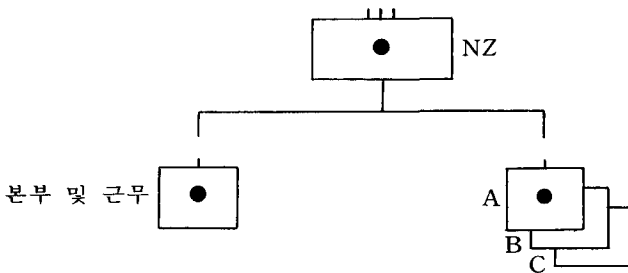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한국전에 지상군과 해군을 파병하였다. 뉴질랜드 해군은 1950년 7월 3일에 프리깃함 2척을 한국 해역으로 출동시켜 7월 30일부터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뉴질랜드 지상군은 한국 파병을 위해 제16포병연대가 새로이 편성되어 1950년 12월 3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 부대는 단대호는 연대이나, 병력의 규모나 장비면에 있어서는 한국군의 포병대대와 유사하였다.

이 부대는 다음해 1월 21일부터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여단작전을 지원하였으며, 1951년 7월 28일에는 영연방 제1사단 사단포병의 일부가 되어 영연방 제28여단(제27여단과 동일 부대)을 직접 지원하였다.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편성과 이들이 지원한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 1951 2 21.~4. 18 재반격작전 지원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1951년 중공군의 신정공세 후 실시된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기간 중 영연방 제27여단의 알바니 선 진격작전(여주 북방 주암리—홍천 남방 양덕원리)과 캔사스 선 진격작전(양덕원리—사창리 백운산)을 지원하였다.

•1951. 4. 23.~25. 가평 전투 지원

이 연대는 사창리에서 한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던 중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맞게 되자, 이 사단의 철수를 지원하면서 가평으로 이동하여 영연방 제27여단과 합류하였다. 이 연대는 그 곳에서 사창리를 돌파하고 가평으로 진출하려던 중공군과 영연방 제27사단이 벌인 ‘가평 전투’를 지원하여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1951 10 3.~8 코만도 작전 지원

이 연대는 전곡 서측 15 km 지점 세골에서 영연방 제1사단이 실시한 코만도 작전시 영연방 제28여단의 고왕산·마량산 공격작전을 지원하였다. 이 연대는 6 일간의 이 전투에서 72,000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이래 단일작전으로서는 가장 많은 포탄을 사격하였다.

•1952 10. 23. 고왕산 전투 지원

이 연대는 이날 캐나다 제25여단이 고왕산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벌인 방어전투를 지원하였다. 이날 이 연대는 사단의 다른 포병과 함께 이 전투를 지원하였으며, 이때 발사한 포탄의 수는 12,000여 발이었으며, 반면 중공군도 이 고지에 4,000여 발을 사격하였다.

•1953. 5 2 ~ 28 후크 고지 전투 지원

이 연대는 1953년 5월 2일 사미천 서안의 후크 고지(고랑포 북쪽 5 km)에서 캐나다 여단이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벌인 방어전투와 5월 28일 같은 지역에서 영연방 제29여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벌인 방어전투를 지원하였다.

이 양전투에서 캐나다군이나 영국군 공히 중공군에게 고지를 피탈당하였으나 포병지원사격의 도움으로 역습에 성공하여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이 고지에 10,000발의 포탄을 사격하였으며, 영연방사단은 24,000발을 사격하였다. 이 중 4,500발은 뉴질랜드 포병연대가 사격한 것이었다.

휴전 후, 뉴질랜드 해군은 1954년 3월에, 지상군은 1955년 11월에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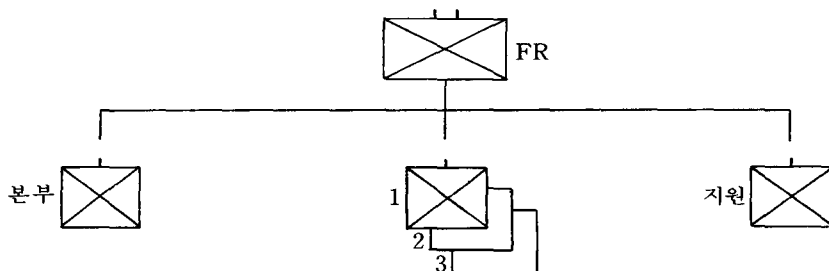
프랑스

프랑스는 한국전에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하였다. 프랑스 해군은 그들의 극동함대 소속 구축함 1척을 1950년 7월 29일 한국 해역에 진출시켜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프랑스 지상군은 한국전 파병을 위해 '유엔군 산하 프랑스 지상군대대'(약칭, 프랑스 대대)가 새로이 편성되어 1950년 11월 2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제1중대가 주로 해병대 출신이었으며, 제2중대가 대부분 수도방위보병부대 출신이었고, 제3중대가 낙하산병과 외인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중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대대는 약 2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후, 12월 11일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프랑스 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프랑스 대대는 기본 편성 외에 400명으로 구성된 보충대를 동반하였다.

〔주요전투〕

•1951. 1. 31 ~ 2. 2. 쌍터널 부근 전투(원주 서북방 25 km)

이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원주—양평 간 중앙선 철로상의 쌍터널 부근에서 중공군 제125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시 미 제23연대의 제1대대 및 제2대대 정찰대가 원주로부터 지평리로 정찰을 실시하던 중, 그 중간에 있는 쌍터널 부근에서 공산군의 공격에 조우하여 포위를 당하게 되자,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함께 이 공산군을 격멸하고 정찰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1월 31일 교전지점으로 진출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미군 대대와 협조하여 쌍터널 부근으로 진출하였으나 공산군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이었으므로 접촉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정찰대를 구출한 뒤 야간전투에 대비하여 그 곳에서 사주방어를 실시하였다. 다음날 여명에 중공군 제125사단 예하 2개 연대가 그 곳을 공격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이 전투에서 1개 중대진지가 돌파되고 대대본부까지도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하였으나, 대대본

부중대가 대대본부를 고수하고, 돌파당한 중대는 대대 공병소대의 지원을 받아 진지를 회복하는 등 선전분투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당시 이 대대와 함께 그 곳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 대대도 격전을 치렀다. 그러나, 그 얼마 후 미 제23연대의 주력이 그 곳으로 진출하자 중공군은 후퇴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이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많은 인명의 손실을 입혔으며 유엔군 공격제대의 진로를 개척하였다.

·1951 2 13 ~15 지평리 전투

이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미 제23연대의 일부로 지평리에서 중공군과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대대는 연대와 더불어 쌍터널 전투를 마치고 2월 3일 지평리로 이동한 후 지평리를 중심으로 편성된 전면방어진지의 서측을 방어하였다. 2월 11일, 중공군의 2월공세에 밀려 이 연대의 좌우측 인접부대가 철수를 하게 됨으로써 지평리는 돌출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공군이 좌우측 후방으로 진출하게 되어 지평리는 포위상태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지형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진지고수 명령을 받게 된 미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는 철수를 하지 않은 채 그 곳에서 3일간에 걸친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중공군은 2월 15일 후방으로부터 미군 증원부대가 지평리에 도착하자 포위망을 풀고 후퇴하였다. 미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는 이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에 대하여 치명적인 손실을 가하였으며, 이 전투의 결과로 지평리—여주 방향으로 진출하여 유엔군 전선을 양분하려던 중공군의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1951 9. 13 ~10 13 단장의 능선 전투(894-931-851고지 ; 양구 북방 22 km)

이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미 제23연대와 함께 북괴군(제6·제12사

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는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최되고 있었으나 공산군측이 고의적으로 회담을 지연시켜 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을 회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당시의 방어선을 보다 유리한 지역에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전투이다.

프랑스 대대는 사단의 지원하에 미 제23연대와 함께 9월 13일부터 단장의 능선 공격작전에 나섰다. 북괴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0월 5일부터는 사단의 전부대가 투입되어 이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때, 단장의 능선 서측 문등리 계곡에서는 미 제38연대가 제72전차대대의 충격력을 이용하면서 공격하였고, 미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는 능선의 동측 사태리 계곡에서 기동한 제23전차중대를 주축으로 한 특수임무부대와 보전 협동으로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제9연대는 문등리 계곡 서측에서 병행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공산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프랑스 대대는 많은 인명의 희생을 치렀으며 공산군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9일 후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1952 10 6~10 화살머리고지 전투(281고지 ; 철원 서북방 15 km)

이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대전기에 철원 서북방 281고지를 방어 중 중공군 제113사단 제338연대와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매일 야간에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대대·중대규모의 부대를 파상적으로 투입하여 281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이 대대는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근접전투를 벌이며 진지를 고수하였다. 같은 기간에 우인점 백마고지에서도 한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 대대는 많은 인명의 손실을 입으면서 이 고지를 끝까지 확보함으로써 중공군의 의지를 꺾을 수 있었으며, 우인점의 백마고지 방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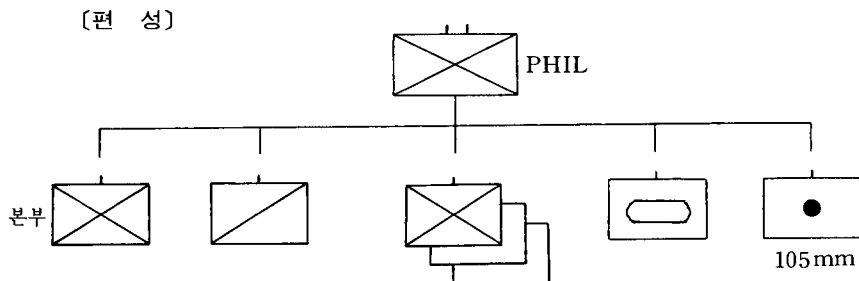
휴전 후, 프랑스군은 1953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間に 소규모 잔류부대만을 남긴 채 대부분의 부대가 철수하였다. 잔류부대는 1965년 6월에 철수하였다.

필리핀 —————

필리핀은 한국전에 지상군 1개 대대전투단을 파견하였다. 이 나라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독립국가로 출발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들 육군의 제10대대를 기간으로 제10대대전투단을 편성하여 1950년 9월 20일 부산에 도착시켰다.

이 대대전투단은 10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후 미군 사단에 배속되어 유엔군의 반격작전 및 후퇴작전 기간 중 주로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재반격작전이 시작된 후인 1951년 3월부터는 전방작전에 투입되었다. 제10대대전투단은 1951년 9월에 제2진인 제20대대전투단과 교대 후 귀국하였으며, 제20대대전투단은 1952년 6월에 제3진인 제19대대전투단과 교대하였고, 제19대대전투단은 1953년 4월에 제4진인 제14대대전투단과 교대하였다.

필리핀 대대전투단의 편성과 그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주요전투〕

• 1950 11 1 ~ 27 개성—평양 주보급로 경계 작전

필리핀 대대전투단은 1950년 9월 부산에 도착하여 밀양—사천—왜관 부근에서 후방지역 경계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평양으로 이동하여 그 곳으로부터 개성에 이르는 유엔군의 병참선 경계 작전을 수행하였다.

필리핀 대대전투단은 이 개성—평양 주보급로 경계작전 기간 중 11월 6일 미우리(신계 남쪽 5 km) 부근에서 북괴군과 교전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또 11월 12일에는 신막과 신계 간의 보급로를 차단한 북괴군 게릴라를 공격하여 은점리 부근에서 이들을 격퇴하였다.

• 1951 4 22 ~ 23 울동 전투(연천 북방 5 km)

이 전투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이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연천 북방 울동에서 중공군 제34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4월 22일 야간에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맞이하여 우인접부대가 돌파되고, 대대의 우측중대와 중앙중대의 일부진지가 돌파되어 대대본부지역까지 중공군이 침투하였으나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여 우인접부대의 철수를 성공적으로 엄호하였다.

이 제10대대전투단은 그 후 유엔군사령부의 철수명령에 따라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 1952 5 18 ~ 6 21 아스널·이리 고지 전초전(연천 북방 20 km)

이 전투는 필리핀 제19대대전투단이 미 제45사단에 배속되어 티본 고지 남단 아스널·이리 고지에서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중, 중공군 제117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 또는 연대 단위로 이 양고지를 과상공격하였으나, 필리핀대대도

사단의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백병전으로 맞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방어하였다.

•1953. 7. 15.~18. 백석산—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이 전투는 필리핀 제14대대전투단이 백석산에서 미 제45사단의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를 지원하고 그 부근 전초진지를 점령하여 중공군과 벌인 전투이다. 미 제45사단 제180연대는 중공군이 휴전을 며칠 앞두고 실시한 '7·13공세'로 7월 15일 크리스마스 전초고지를 상실하자 곧 예비중대로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때, 필리핀 대대는 이 중대의 역습을 지원하여 크리스마스 고지를 회복하고 중공군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그 후, 대대는 동 고지의 우측방 1.3 km 되는 지점에 전초진지를 편성하여 방어하고 있던 중, 7월 18일 야간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이를 격퇴하였으며, 휴전이 될 때까지 이 전선을 고수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로 크리스마스 고지(남쪽 1090고지 부근)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속하게 되었다.

휴전 후, 필리핀 대대는 1955년 5월에 철수하였다.

터 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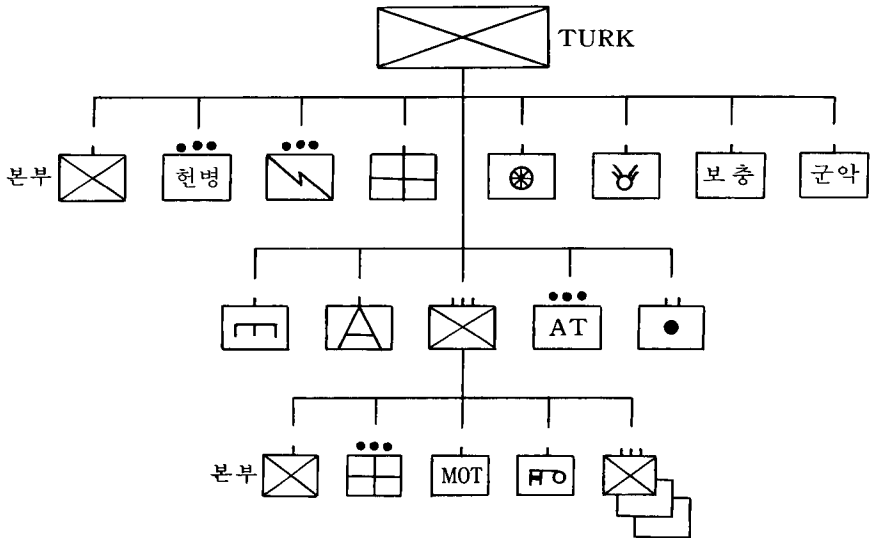
터키는 한국전에 지상군 1개 여단을 파견하였다. 터키는 당시의 제28사단 제241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파한 터키 제1여단을 편성하였다. 이 여단은 3개 보병대대와 1개 105밀리 곡사포대대 그리고 그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터키 제1여단은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후,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대구—대전 간, 개성—문산—시변리 간의 후방지역 경계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 후 11월 하순부터는 전방지역작전에 참가하였다. 이 여단은 1년 후인 1951년 11월에 제2여단과 교대하였으

며, 제2여단은 1952년 8월에 제3여단과 교대하였다.

터키여단의 편성과 그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0. 11 26.~30. 군우리 전투

이 전투는 터키 여단이 군우리 부근에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당시 청천강 선에서 한·만 국경선을 향하여 총공세를 펴던 한국군 및 유엔군이 11월 25일부터 중공군의 공세로 한국군 제2군단 작전지역인 덕천—영원 선이 돌파될 위협을 받게 되자, 예비로 있던 터키 여단은 군우리로부터 덕천으로 진격하였다. 이 여단은 진

격을 계속하던 중, 중공군의 공세에 부딪쳐 중도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중공군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여단은 협곡의 불리한 지형에서 중공군의 포위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 여단은 이때(11월 28일)부터 2 일간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13 km의 협곡을 벗어나 군우리로 철수하였다. 여단은 또다시 군우리—순천 계곡에서, 이미 그 곳을 점령하고 있던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며 12월 1일에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터키 여단은 이 전투에서 많은 병력과 장비를 손실하였다. 그러나, 이 여단이 군우리—덕천 계곡에서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3일간이나 지연시킴으로써 군우리 서측방 유엔군부대의 철수세가 조기에 차단당하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1951 1. 25.~27. 금량장 및 151고지 전투(수원 동방 20 km)

이 전투는 터키 여단이 중공군 제50군 예하 제149사단 제447연대 및 제150사단 제448연대와 치른 전투이다. 터키 여단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평택—제천 선에서 저지하고 재반격작전을 실시할 때, 안성—송전 선에 전개하여 1월 25일부터 금량장 및 151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당시 중공군도 그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결전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터키 여단은 각종 지원화력과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중공군의 진지를 맹타한 후, 그들이 믿는 '알라'를 외치면서 돌격을 실시하여 금량장과 그 서측 151고지를 점령하고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터키 여단은 약간의 손실을 입은 반면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군우리 전투에서 패배한 터키군의 명예를 회복한 전투이었다.

·1951. 4. 22.~23 장승천 전투(연천 동북방 5 km)

이 전투는 터키 여단이 연천 동북방 장승천 전방에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터키 여단은 금량장 전투 후 계속 반격작전에 참여하여 1951년 4월 22일 연천 북방 장승천 부근에까지 진출하였으나, 이날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맞게 되었다. 이 여단은 이날 밤 중공군 2개 연대의 공격을 받아 여단의 양측방이 돌파되고 후방지역의 포병대대진지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전방대대가 포병의 철수를 엄호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며 지연전을 전개하여 약 10 km 남쪽인 한탄강까지 철수하였다.

·1953 5. 28 ~29 네바다 전초전(고랑포 서북방 10 km)

이 전투는 터키 여단이 휴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중공군 제120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중공군은 대진기간 중 터키 여단이 확보하고 있던 네바다 전초를, 1953년 5월 28일 야간에 2개 연대를 교대로 투입하여 공격하였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여단은 다섯 번이나 베가스 고지를 피탈당하였으나 역습으로 다섯 번 다 그 곳을 되찾았다. 그러나, 네바다 전초 중에서 카슨 전초는 상실하였으며, 엘코 전초는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여단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격전을 치렀으나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사단이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네바다 고지에서의 철수를 승인함에 따라, 여단은 이 전초에서 철수하였다.

이로써, 대진기에 많은 피를 흘리며 유지했던 동 고지군이 휴전선 북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휴전 후, 터키 여단은 1개 중대를 제외한 전 부대가 1954년 여름에 철수하였다.

잔류부대인 1개 중대는 1966년에 의장대 1개 분대만 남기고 철수하였으며, 의장대는 1971년 6월에 철수하였다.

타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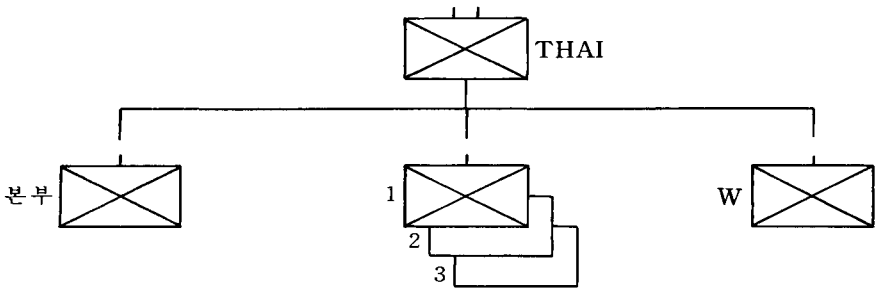
타이는 한국전에 지상군·해군·공군을 모두 파견하였다. 타이는 지상군 1개 대대와 프리킥함 2척·수송선 1척으로 편성된 해군을 1950년 11월 7일 부산에 도착시켰으며, 이 중 타이 대대는 미 제8군의 작전통제하에, 타이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작전을 실시하였다.

타이 공군은 그보다 11개월 후에 파병이 결정되어 1개 수송기편대가 1951년 6월 23일 일본에 도착한 후 한국전에 대한 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타이 대대는 약 4개월간 유엔군의 전선 후방에서 병참선 경계 및 대 게릴라 작전을 수행한 후, 1951년 3월부터 전방지역작전에 투입되었다.

타이 대대의 편성과 그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1. 7. 31.~9. 7. 연천 지역 방어

타이 대대는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7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연천 북방 울동 지역을 방어하였다. 이 기간 중 이 대

대는 주저항선 전방에 전초를 운용하면서 적의 전초진지에 대한 정찰전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8월 18일에 실시한 정찰에서는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부대를 발견하고 이를 기습하여 전과를 올렸다. 이 대대는 9월 7일에 예비임무로 전환하였다.

•1952 11. 1 ~11. 포크 찰 고지 전투(234고지 ; 연천 서북방 20 km)

이 전투는 타이 대대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연천 서북방 주저항선을 방어중, 중공군 제113사단 예하 2개 연대와 치른 전투이다. 중공군은 1952년 11월 1일, 11월 7일, 11월 10일 야간에 공격준비사격으로 포크찰 고지의 방어시설물을 파괴한 다음, 중대·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3회에 걸쳐 234고지를 공격하였다. 타이 대대도 연대 및 사단의 지원화력을 이용하여 중공군 공격제대의 진출을 차단하면서, 돌격하는 중공군을 백병전으로 물리쳐 세 번 다 이 전초고지를 지탱하였다. 이 전투에서 타이 대대는 경미한 손실을 입은 반면 중공군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다. 이 전투를 통하여, 타이 대대는 그 용감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며, 중공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유엔군에게 심어 주게 되었다.

•1953. 7. 14.~27. 김화 351고지 전투(김화 서북방 10 km)

이 전투는 타이 대대가 평강과 김화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351고지에서 중공군 제16병단(제46·제47·제48사단) 예하부대와 치른 전투이다. 타이 대대는 1953년 7월 13일에 미 제2사단의 일부로서 사단의 전초진지인 351고지에 투입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을 사단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근접전을 치르면서 이들을 격퇴하고,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로 평강—김화 축선상의 주요지형인 351고지가 휴전선 남쪽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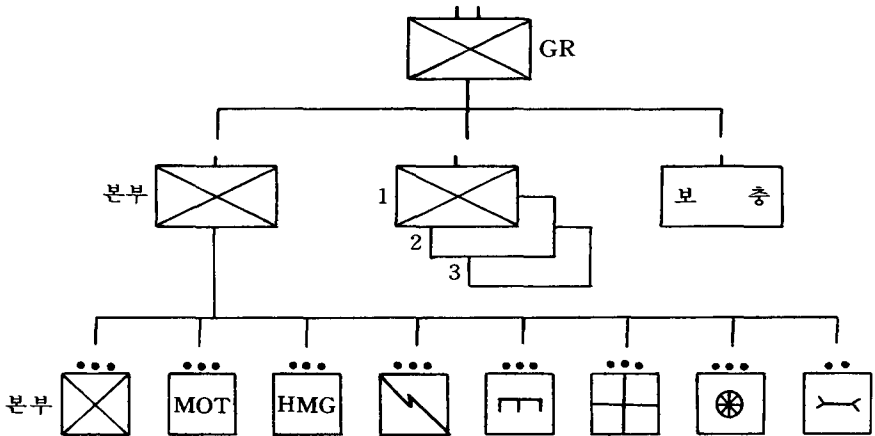
휴전 후, 타이 해군은 1955년 1월에, 공군은 1964년 11월에 철수하였으며, 지상군은 1개 중대를 잔류시키고 1954년에 철수하였다. 일부 잔류부대는 1972년 6월에 철수하였다.

그리스

그리스는 한국전에 지상군과 공군을 파견하였다. 그리스는 한국전 참전을 목적으로 특별히 편성한 공군의 제13수송기편대를 일선 기지로 파견하여 1950년 12월 1일부터 한국전을 지원하게 하였다. 지상군은 최초 여단급부대의 파병이 결정되었으나, 파병 준비 당시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한국전의 사태가 호전됨에 따라 규모가 1개 대대로 축소되었다. 이 대대는 1950년 12월 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 대대는 미군 사단에 배속되어 전방지역에서 예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1년 1월 25일 이천 지역에서 중공군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각처에서 많은 격전을 치렀다.

그리스 대대의 편성과 그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1. 1. 29 ~ 30. 이천 381고지 전투

이 전투는 그리스 대대가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중공군 제 112사단 제334연대와 치른 전투이며, 그리스 대대가 최초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1951년 1월 25일부터 실시된 반격작전에서 이천을 점령하고 북상 도중 381고지 일대에서 그 진방의 중공군 방어선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1월 29일 야간에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공군은 이 대대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인 381고지를 3차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그리스 대대는 조명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포병지원사격으로 공격부대를 제압하는 한편, 근접전투를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381고지를 방어하였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 대대는 적은 손실로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의 결과로, 그리스 대대의 전투력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장병들은 중공군과의 전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951. 10. 3 ~ 5. 연천 313고지 전투(스카치 고지 ; 연천 북방 15 km)

이 전투는 그리스 대대가 연천 북방 313고지에서 중공군 제141사단 및 제140사단 예하부대와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당시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적인 공격작전(코멘도 작전)에 참가하여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313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대대는 10월 3일과 10월 4일의 2회에 걸친 공격에서 돌격부대가 목표지역까지 도달하였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과 증원부대의 지원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자 일단 철수한 후, 10월 5일 항공폭격과 포격의 지원하에 재차 공격을 실시하여 동 고지를 점령하였다.

•1952 9 29.~30. 노리 고지 전투

이 전투는 임진강 만곡부 노리 고지(연천 서방 12 km)에서 그리스 대대가 중공군 제116사단 제348연대와 치른 전투이다. 당시, 이 대대는 소노리 고지에서 약 500 m 거리를 두고 대노리고지의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던 중, 9월 29일 여명에 대노리 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공격으로 이 고지를 상실당한 중공군은 그리스 대대가 진지를 강화할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역습을 개시하여 4 시간 동안 5 차례나 역습을 가하였다. 그리스 대대는 이를 끈기 있게 물리쳤으나 다섯 번째로 행한 그들의 역습시에는 유엔군 항공기의 오폭으로 이 대대가 피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그 곳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그 후, 그리스 대대는 부대를 정비한 다음 다시 공격을 실시하여 대노리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또다시 중공군의 역습을 받아 격전을 치르고 있던 중 철수명령에 따라 그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그 이후 이 전선은 한국군 제1사단에게 인계되었으며 이 고지의 쟁탈전은 계속되었다.

•1953 7 20.~26 북정령 전투(김화 동북방 10 km)

이 전투는 그리스 대대가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북정령 남쪽 승암고개의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던 중, 중공군 제130사단 예하 부대와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7월 20일 이 곳 주저항선 방어 임무를 인수한 이후, 중공군이 '7·13공세'의 여세를 몰아 휴전을 앞두고 그들의 영역을 넓히려는 기도하에 7월 26일까지 계속한 마지막 공세를 격퇴하고 7월 27일 휴전을 맞이하였다. 당시, 미군 연대장은 휴전을 앞두고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하에 이 전투에 앞서 그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종용하였으나, 그리스 대대는 철수가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화력을 요청하면서 그 방어선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그 결과 승암고개가 휴전선 남쪽에 남아 있게 되었다.

휴전 후, 그리스 공군은 1955년 5월에, 지상군은 1955년 12월에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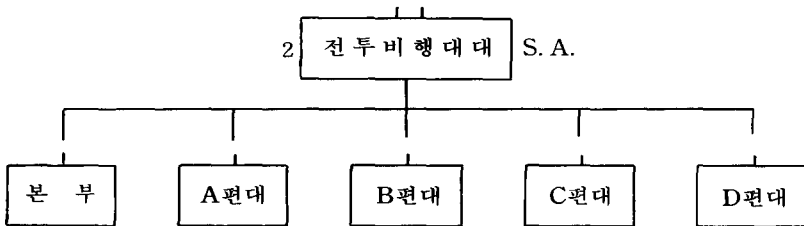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전에 공군을 파견하였다. 이 나라는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의 비행요원 255명(장교 49명, 사병 206명)을 1950년 11월 5일 일본에 도착시켰으며, 다음날 미 공군으로부터 전투기(무스탕) 16대를 인수하였다.

이 공군부대는 1950년 11월 16일 부산 수영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11월 19일부터 미 공군과 합동으로 청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출격에 참가하였다. 그 후, 이 대대는 지상군 전선의 유동에 따라 평양·수원·진해·여의도·횡성 등의 기지로 이동하면서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고 적 후방지역 차단작전과 적 산업시설 파괴작전에 참가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편 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투비행대대는 1953년 3월에 F-86(세이버) 전투기로 기종 전환을 하였다.

[주요전투]

•1950 11 2.~12 2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총공세 작전 지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투비행대대는 이 기간 중 평양 기지에서 청천강 북방으로 출격하여 한·만 국경선 지대의 공중초계와 적 후방 차단공격을 실시하였다.

•1951 8 18 ~12 31. 교살(Strangle)작전

휴전회담이 개최되면서 전선이 교착되자, 공산군은 이를 이용하여 진지를 강화하고 군수물자와 병력을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공군(해·공군 항공전력)은 북한내의 군수 시설과 교통 요지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1951년 8월 18일부터 개시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부대는 이 작전에 참여하여 북한 지역의 서부와 중부 지역 일대의 철도와 교량 그리고 남하하는 공산군의 차량 등을 폭격하였다.

•1952 2 25 ~6 15 차단(Saturate)작전

1952년 초 유엔군은, 교살작전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이 전선에 병력과 보급물자를 꾸준히 이동시켜 그들의 공격전력이 강화되어 가자, 공산군의 군수품과 병력 수송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의 철로 및 교량에 대하여 주야로 폭격을 강화하고 공중초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공군은 군우리—회천, 순천—신성천, 신안주—남지동, 평양—사리원—남천점 등 4개 지역을 중요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도 이 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정주—군우리 상공에서는 MIG-15기와 공중전을 전개하여 쌍방이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때의 공중전은 이 대대가 한국전에서 겪은 두 번째의 공중전이었다.

•1952. 6. 23 ~ 8. 31. 강압(Pressure)작전

유엔군이 1951년 8월부터 교살작전과 차단작전을 실시하였음에도 공산군의 전력이 증강되자, 유엔 공군은 제1차로 제공권 유지에 작전목표를 두되, 북한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시설·군수공장·군 주둔지·보급품 집적소 등에 공격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도 이 작전에 참여하여 부전호 발전소, 장진호 발전소, 평양·길주의 텅스텐 광산, 함흥의 화학공장 등을 폭격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대대는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총 12,405회의 출격을 실시하였다.

휴전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대대는 F-86 전투기를 미군 폭격여단에 인계하고 1953년 10월에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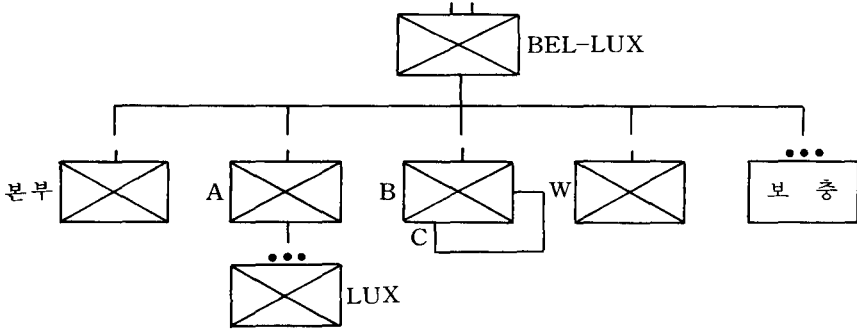
벨기에·룩셈부르크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에 지상군을 파견하였다. 이들 나라는 1950년 7월 22일에 양국이 통합된 1개 보병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벨기에는 8월 25일부터 지원병을 모집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였고, 룩셈부르크는 1개 소대를 편성하여 10월 1일 벨기에 대대 A 중대에 편입시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를 구성하였다. 이 대대는 1951년 1월 3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 대대는 1951년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대구—김천 간의 병참선 경계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3월 6일 수원으로 이동하여 미 제3사단에 배속된 후 한강 선으로 진출하면서 전방작전에 참가하였다.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1 4. 22.~25. 금굴산 전투(전곡 서방 6 km)

이 전투는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가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기간 중 중공군 제188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미 제3사단의 영연방 제29여단에 배속되어 임진강 북방의 돌출된 금굴산을 방어하고 있던 중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지역이 중공군에게 점령당할 경우에는 전곡—연천—철원 축선의 도로가 차단되어 그 축선상으로 철수하는 부대가 포위될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대대는 우인접부대들이 전곡 방향으로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진지를 고수하여야만 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이 사단병력을 투입하여 금굴산을 공격하는 한편 대대 철수로상의 요지인 금굴산 남쪽 임진강상의 교량을 점령하여 대대가 포위상태에 들게 되었으나, 끝내 그 진지를 고수하

였다.

그러는 동안, 우인접부대들의 철수가 완료되고 이 대대는 철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 대대는, 도보제대와 차량제대로 나뉘어 유엔 공군이 진지 주변을 엄호하는 가운데, 차량대열은 미군 전차의 호위하에 점령당한 교량을 강습 돌파하고, 도보부대는 금굴산 동측의 임진강을 도설하여 전곡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그 후, 이 대대는 동두천 서측 5 km 지점인 봉암리에 투입되어 영 제29여단 전방부대의 철수를 지원한 다음 후위부대로서 의정부 쪽으로 철수하였다.

• 1951. 10 11 ~ 13 학당리 전투(388고지)

이 전투는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가 중공군 제78사단 예하부대와 치른 전투이다. 당시, 대대는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철원과 평강 사이의 학당리 388고지에서 연대의 전초임무를 수행하던 중, 11일 야간에 실시된 2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12일 야간에는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 공격을 격퇴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 후 미 제65연대 제2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예비로 전환되었다.

• 1953. 2. 26. ~ 4. 21. 김화 잣골 전투

이 전투는 이 대대가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김화 서북방 5 km 지점인 잣골에서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공군 제70사단 예하부대와 치른 전투이다.

기간 중, 이 대대는 수차에 걸친 전초진지와 주진지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김화 북방을 방어하였다. 이 기간 중 4월 18일과 19일에는 연대규모의 중공군이 주저항선과 전초진지를 동시에 공격하였으나, 이 대대는 사단 및 군단 포병의 지원하에 이

를 격퇴하였다.

휴전 후,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는 1955년 6월에 철수하였다.

콜롬비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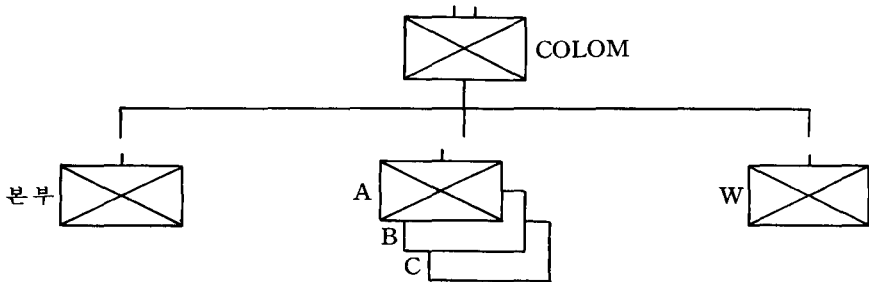
콜롬비아는 한국전에 지상군과 해군을 파병하였다.

콜롬비아 해군은 프리깃함 1척을 1951년 5월 8일에 한국 해역에 파견하여 미 해군의 작전통제하에서 해상작전을 실시하게 하였다. 지상군은 콜롬비아 보병 제1대대라는 이름으로 1개 보병대대가 편성되어 1951년 6월 15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 부대가 지상군 으로서는 한국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부대이다.

이 대대는 1951년 8월 1일에 화천으로 이동하여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전방지역작전에 참가하였다.

콜롬비아 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1. 10. 13.~21. 금성 진격전

이 전투는 콜롬비아 대대가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금성 진격 전에 참전하여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119사단 및 제200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이 대대는 전방대대로 운용되어 10월 13일에는 흑운토령 전방 570고지와 10월 21일에는 금성 남방의 회고개를 공격하여 사단의 금성 진격에 기여하였다. 이 대대는 이 두 지역의 공격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으나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 후, 이 대대는 회고개에서 중공군과 대치하다가 11월 15일에 예비임무로 전환되었다.

•1952. 6 21. 김화 400고지 전투

이 전투는 이 대대가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와수리에서 예비임무를 수행중 적의 전초진지인 400고지를 기습한 전투이다. 이날 이 대대 A 중대의 1개 소대 규모로 편성된 정찰대는 우군 전초진지 500 m 북방에 위치한 공산군의 전초진지를 여명에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그들의 방어시설을 파괴한 후 복귀하였다.

•1953 3. 10. 180고지 전투(연천 서북방 20 km)

이 전투는 이 대대가 연천 서북방 마거리에서 예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주저항선 전방 500 m 지점의 공산군 전초진지를 공격한 전투이다. 콜롬비아 대대 A 중대는 이날 여명에 강력하게 편성된 중공군의 전초고지인 180고지에 은밀히 접근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뒤이어 벌어진 진내전에서 이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그 고지를 점령하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A 중대는 180고지를 점령한 후, 그들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철수하였다.

•1953. 3. 23.~25. 불모고지 전투

이 전투는 콜롬비아 대대가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180고지 전

투를 치른 다음, 연천 북방 덕은동의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인수받은 후, 전초진지인 불모고지(275고지)에서 중공군 제141사단 제423연대와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불모고지에 배치된 A중대가 계속된 공산군의 폭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자, A중대와 B중대를 교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3월 23일 야간에 A중대와 B중대가 교대를 하고 있는 사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부대교대간 경계가 취약한 틈을 이용하여 진전까지 접근하였으며, 콜롬비아 대대는 진내로 진입한 중공군과 백병전까지 치렀으나 중과부적으로 그 고지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뒤이어, 연대와 사단이 예비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피해만 가중되어, 이 고지 탈환작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결과로 후에 불모고지는 휴전선 북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휴전 후, 콜롬비아 지상군은 1954년 10월, 해군은 1955년 10월에 철수하였다.

이디오피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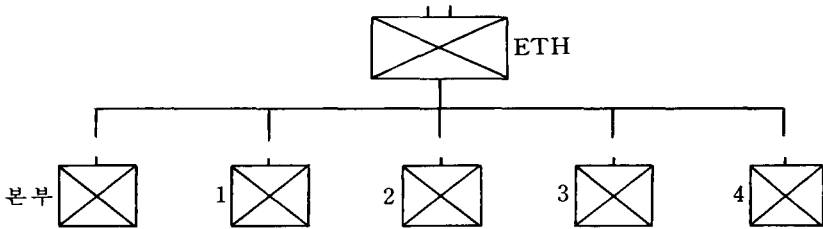
이디오피아는 한국전에 지상군을 파병하였다. 이디오피아는 보병 1개 대대의 파한을 결정하고, 1950년 8월에 당시 보유한 10개 보병대대로부터 차출된 병력으로 1개 대대를 새로이 편성하여 1951년 4월까지 영국군 교관의 지도하에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의 이디오피아군은 황실근위대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야전전투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영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마친 이 대대는 '카그뉴 대대'라고 명명된 후 1951년 5월 6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 대대는 7월 11일 가평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에 배속된 후 적근산 전투에서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 대대는 1952년 3월과 1953년 4월에 2차례 부대교대를 실시하였으며, 계속 미 제7사단에

배속 운용되었다.

이디오피아 대대의 편성과 이들이 치른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편 성]



[주요전투]

•1951. 9. 21 ~ 22. 적근산 삼현 전투(700·602고지)

이 전투는 이디오피아 대대가 대진 초기에 적근산 동측에서 주 저항선을 방어하고 있던 중, 대치중이던 중공군 제200사단의 전초진지인 700고지와 602고지를 공격한 전투이다. 이 대대는 첫날의 공격에서 700고지는 점령하였으나 602고지는 탈취하지 못하였으며, 두 번째의 공격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602고지를 점령한 후 이 두 고지에 구축해 놓은 방어시설물을 파괴하고 복귀하였다.

•1952. 10 21.~25. 삼각고지 부근 전투(598고지)

이 전투는 전 전선에서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이 대대가 김화 북쪽 삼각고지 부근에서 중공군 제45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10월 14일부터 실시한 김화 북쪽 고지쟁탈전에서 삼각고지—상감령 일대를 점령한 미 제7사단의 삼각고

지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10월 21일부터 삼각고지 서측 지역과 그 후방에 배치되어 동 고지의 방어력을 보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삼각고지에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의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 후, 삼각고지를 피탈당한 중공군이 10월 23일 야간에 2개 연대 병력을 투입하여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이 고지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대대는 이 전투에서 중공군 대대 규모의 공격을 격퇴하여 사단이 삼각고지를 방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대대는 10월 25일 이 전투지역을 한국군 제2사단에 인계하였다.

•1953. 5. 19.~20. 요크·앵클 고지 전투(연천 서북방)

이 전투는 대대가 대진 말기에 연천 북방 천덕산(477고지) 전방의 주저항선을 방어하던 중, 그 전초고지인 요크·앵클 고지에서 중공군 제23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이 대대는 5월 19일과 20일 야간에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양개 전초고지와 주진지 일부에 대한 공격을 받고 한때 전초고지 일각이 피탈되었으나, 포병지원 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백병전으로 적을 격퇴하여 진지를 회복하였다.

휴전 후 이디오피아 대대는 단계적으로 철수를 실시하여 1965년 1월에 철수를 완료하였다.

(2) 의료지원국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의료지원부대 및 시설을 지원한 국가의 지원 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

스웨덴은 최초로 의료지원부대를 한국에 파견한 국가이다. 이 나라는 의사 10명, 간호원 30명, 기타 기술행정요원을 포함한 160명으로 구성된 적십자병원을 조직하여 1950년 9월 28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 병원은 미 제8군사령부의 통제하에 부산에서 병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초기에는 200병상이던 것이 점차로 확장되어 나중에는 450병상이 되었다.

이 병원은 전쟁기간 중 부상군인의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전선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는 민간인 환자의 진료와 한국 의료진에 대한 의료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병원은 휴전 후에도 계속 임무를 수행한 후 1957년 4월에 귀국하였다.

인 도 —————

인도는 1950년 11월 20일에 의사 14명, 행정관 1명, 보급관 1명, 위생병 329명으로 구성된 제60야전병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 병원은 인도 공수사단 편제상의 부대로서 공수훈련을 받은 장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공수작전 지원능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제60야전병원은 2개 제대로 나뉘어, 본대는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영국군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분전대는 대구에 주둔하면서 한국 육군병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민간인에 대한 진료도 실시하였다. 이 병원은 1951년 7월 28일에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됨에 따라 이 사단의 야전병원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인도 야전병원의 1개 공수의무분대는 1951년 3월 23일 부산에서 실시된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공수작전에 참가하여 이

부대에 대한 의무지원을 제공하였다.

휴전 후, 제60야전병원은 한국에 파견된 인도군의 포로송환관리단에 통합되어 이들을 지원하였으며, 1954년 이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덴마크 —————

덴마크는 1951년 3월 7일에 의사, 간호원, 그리고 의료종사원으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병원선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 병원선은 최초에는 부산항에 위치하면서 수시로 전방을 이동하여 환자진료를 실시하였으나, 1952년 가을부터는 인천항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였다.

부산항에 입항한 후 2회에 걸쳐 승무원의 교대와 의약품의 수령을 위하여 본국까지 왕래하였으며, 이 병원선이 승무원의 교대차 본국으로 귀환시에는 벨기에·이디오피아·프랑스·그리스·네덜란드·터키·영국 등에 기항하면서 해당국의 전사상자 및 송환된 포로를 후송하였다.

이 병원선은 휴전 후인 1953년 8월 16일에 복귀하였다.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1951년 6월 22일에 의무 및 행정 요원 83명으로 구성된 60 병상 규모의 이동외과병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 후, 병력이 추가로 보충되어 이 병원의 근무인원은 106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병원은 미 제8군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미 제1군단 지역인 서울 북방(19 km)에 위치하여, 미 제1군단 예하 각 사단에 대한 의무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병원은 그 밖에도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 한국 민간인을 진료하였으며, 휴전 후에는 귀국시까지 주로 민간인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 병원요원은 6개월 단위로 교대되었으나, 100여 명이나 연장근무를 자원하였으며 연 근무인원은 623명이었다.

이 병원은 1954년 10월 18일에 귀국하였다.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1951년 11월 16일에 제68적십자병원을 파견하였다. 이 병원은 군의관 6명, 행정관 2명, 군목 1명, 약제사 1명, 간호원 6명, 위생병 50명 등 6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5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병원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여 유엔군 장병에 대한 진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민간인에 대한 진료도 실시하였다. 휴전 후에는 민간인 진료 및 구호업무를 실시하였다.

이 병원은 1952년 8월에 근무교대가 있었으며 연 근무인원은 128명이었다. 이 병원은 1955년 1월 2일에 귀국하였다.

유엔군 참전규모

·전투부대 파견국(참전 16개국)

국명	지상군	해군	공군
미국	보병사단 7 해병사단 1 연대전투단 2 병력 302,483명	극동해군 미 제7함대	극동공군
영국	보병여단 2 해병특공대 1 병력 14,198명	함정 17척(함공모함 1척포함)	
오스트레일리아	보병대대 2 병력 2,282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프리카릿함 1척	전투비행대대 1 수송기 편대 1
네덜란드	보병대대 1 병력 819명	구축함 1척	
캐나다	보병여단 1 병력 6,146명	구축함 3척	수송기대대 1

국명	지상군	해군	공군
뉴질랜드	포병대대 1 병력 1,389명	프리깃함 1척	
프랑스	보병대대 1 병력 1,119명 (1,185)	구축함 1척	
필리핀	보병대대 1 병력 1,496명		
터키	보병여단 1 병력 5,455명		
타이	보병대대 1 병력 1,294명 (2,274)	프리깃함 7척 수송선 1척	수송기편대 1
그리스	보병대대 1 병력 1,263명		수송기편대 1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투비행대대 1,255명
벨기에	보병대대 1 병력 900명		
룩셈부르크	보병소대 1 병력 44명 (48)		
콜롬비아	보병대대 1 병력 1,068명	프리깃함 1척	
이디오피아	보병대대 1 병력 1,271명		

- 지상군 총병력 : 341,628명 (1953. 7. 31. 기준)
- 이 표의 병력은 유엔 지상군이 최대병력 수준을 유지한 전쟁 말기 (1953. 7. 31)를 기준한 것이다. 단, ()내의 병력은 전쟁 말기가 아닌 다른 때 최대수준을 유지한 병력을 의미한다.
- 지상군 총병력에는 덴마크 의료지원 요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지상군부대는 1951 7 28 부로 영연방 제1사단을 창설하고 이에 통합되었다.

· 의료지원부대 및 시설 파견국(의료지원국)

국 명	지원부대 및 시설	근무인원
스 웨 덴	적십자병원	154명 (162)
인 도	제60야전병원	70명 (333)
덴 마 아 크	병원선	100명
노 르 웨 이	이동외과병원	105명 (109)
이 탈 리 아	제68적십자병원	7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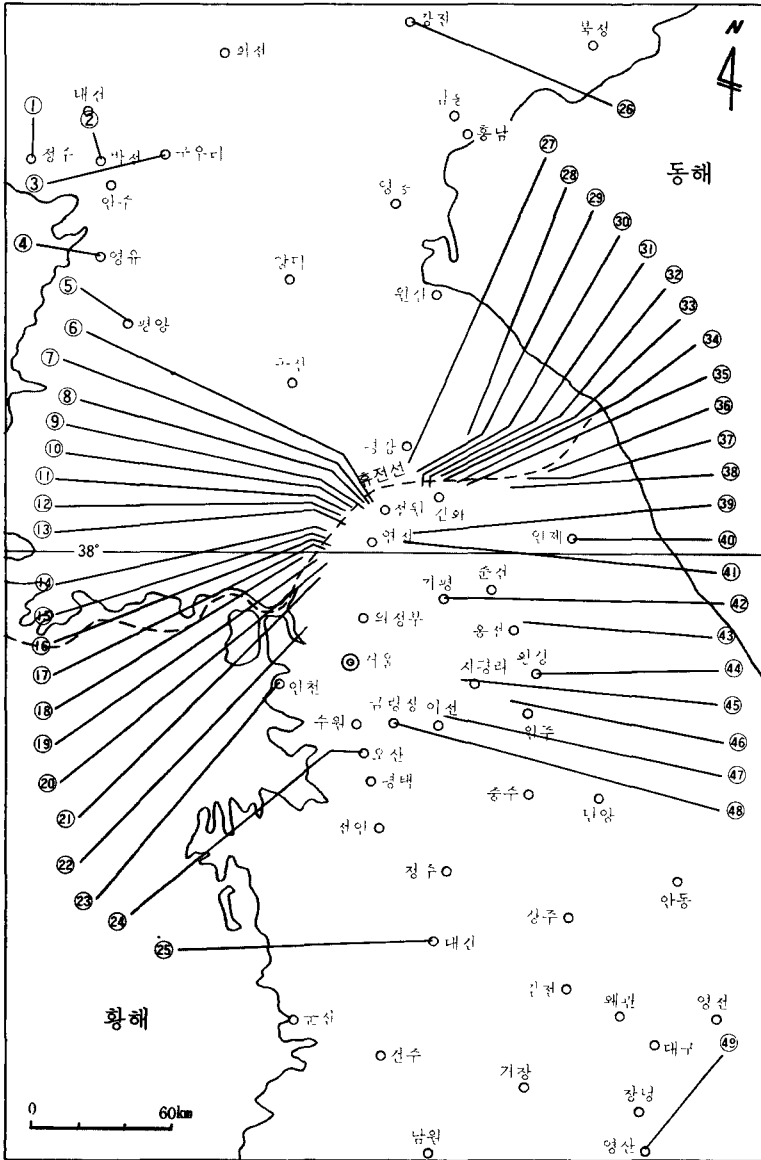
3. 유엔군의 참전 주요일지

1950. 6. 25. ○전쟁 발발.
2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괴의 침략정지 요청안 결의.
27. ○미국 해군·공군 참전.
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한(對韓) 군사지원 권고 결의.
29. ○영국 해군 참전.
7. 1. ○미국 지상군 참전.
-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공군 참전.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
14. ○미 제8군사령부, 대구에 지휘소 개소.
- 한국 국군의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
16. ○네덜란드 해군 참전.
24. ○유엔군사령부 창설(일본 동경).

- 26. ○캐나다 공군 참전.
- 29. ○프랑스 해군 참전.
- 30. ○캐나다 해군 참전.
○뉴질랜드 해군 참전.
- 8. 28. ○영국 지상군 참전.
- 9. 20. ○필리핀 지상군 참전.
- 27.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 참전.
- 28. ○스웨덴 적십자병원 파견.
- 10. 7. ○유엔 총회, 통한 결의.
- 17. ○터키 지상군 참전.
- 11. 7. ○타이 지상군·해군 참전.
- 16.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
- 20. ○인도 야전병원 파견.
- 23. ○네덜란드 지상군 참전.
- 29. ○프랑스 지상군 참전.
- 12. 1. ○그리스 공군 참전.
- 9. ○그리스 지상군 참전.
- 18. ○캐나다 지상군 참전.
- 27. ○미 제8군 사령관 교대(신임 리지웨이 대장, 구임 워커 중장 사망).
- 31. ○뉴질랜드 지상군 참전.
- 1951. 1. 31. ○벨기에 지상군 참전.
○룩셈부르크 지상군 참전.
- 3. 7. ○덴마크 적십자병원선 파견.
- 4. 11. ○유엔군사령관 교대(신임 리지웨이 대장, 구임 맥아더 원수).
- 13. ○미 제8군사령관 교대(신임 밴플리트 중장, 구임 리지웨이 대장).

- 5. 6. ○이디오피아 지상군 참전.
- 8. ○콜롬비아 해군 참전.
- 6. 15. ○콜롬비아 지상군 참전.
- 22.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파견.
- 23. ○타이 공군 참전.
- 7. 10. ○휴전회담 개시.
- 11. 10. ○이탈리아 적십자병원 파견.
- 1952. 5. 12. ○유엔군사령관 교대(신임 클라크 대장, 구임 리지웨이 대장).
- 1953. 2. 11. ○미 제8군사령관 교대(신임 테일러 대장, 구임 밴플리트 대장).
- 7. 27. ○휴전 조인.

한국전쟁참전 유엔군의 주요전투



- ① 정주전투
- ② 박천전투
- ③ 군우리전투
- ④ 영유전투
- ⑤ 평양탈환작전
- ⑥ 화살머리고지전투
- ⑦ 요크, 안클고지전투
- ⑧ 아시널, 이리고지전투
- ⑨ 연천북방 313고지전투
- ⑩ 포크참고지전투
- ⑪ 불모고지전투
- ⑫ 연천부근 180고지전투
- ⑬ 울동전투
- ⑭ 노리고지전투
- ⑮ 마량산전투
- ⑯ 고왕산전투
- ⑰ 나부리전투
- ⑱ 네바다전초전
- ⑲ 후크고지전투
- ⑳ 금굴산전투
- ㉑ 적성(설마리)전투
- ㉒ 고양전투
- ㉓ 인천상륙작전
- ㉔ 오산전투
- ㉕ 대전전투
- ㉖ 장진호전투
- ㉗ 학당리 388고지전투
- ㉘ 금성진격전
- ㉙ 별고지전투
- ㉚ 김화351고지전투
- ㉛ 잣골전투
- ㉜ 김화400고지전투
- ㉝ 삼각고지전투
- ㉞ 북정령전투
- ㉟ 적근산삼현전투
- ㊱ 대우산전투
- ㊲ 단장의 능선전투
- ㊳ 백석산, 크리스마스고지전투
- ㊴ 자일리전투
- ㊵ 인제전투
- ㊶ 장승천전투
- ㊷ 가평(죽둔리)전투
- ㊸ 홍천 800고지전투
- ㊹ 횡성전투
- ㊺ 지평리전투
- ㊻ 쌍터널전투
- ㊼ 이천381고지전투
- ㊽ 금량장전투
- ㊾ 영산전투

중공군의 침공

1. 침공 동기

중공은 8년간의 항일투쟁과 4년간의 국공내전을 치른 후에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는 월맹·북괴에 이어 세 번째로 공산화가 된 나라이다.

중공은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이미 7개월 전에 북괴와의 사이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여 군사 및 경제면의 유대관계를 확고히 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괴의 전세가 불리하게 진전되어 감에 따라, 중공이 이에 개입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공과 북괴 사이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전쟁과 그 처리에 임하였다.

당시, 중공으로서는 신생국가로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한국전에 적극적인 무력개입을 감행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 첫째는, 자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선린관계를 맺어왔으며, 중공정권 수립 후에도 북괴와는 이념을 같이하는 국가로서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북괴가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패배를 할 경우,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가 한반도를 통일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자국의 동

북방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중공은 북한지역을 지정학적인 완충지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주변국가에 대하여 선린 또는 종속관계를 맺어 온 이른바 중화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련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원조를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중공은 오랜 내전 끝에 수립된 신생국가로서 민생문제의 개선과 대만의 해방이 최우선 정책과제이었으나, 자력으로서서는 이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한국전 참전의 대가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의도에서 참전하게 된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그들이 계획하고 사주한 전쟁이 패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그들로서는 세계대전의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중공측에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해서라도 중공군의 참전을 종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에 중공의 참전과 소련의 경제 및 군사 원조는 상호 조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사회적 면에서 국가의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당시 중공은 공산정부를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대만이 미국의 지원하에 본토 수복을 추진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지지 또는 지원하는 반공 및 반혁명 세력이 잔존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군 내부에서도 수많은 국부군 출신과 이질적인 인적 요소들로 인하여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었으며, 파벌이 형성되는 등 반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정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공군은 이와 같은 내부적인 불안정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해소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외지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네째는, 이외에도 중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패배 일로에 있

는 북괴 공산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당시 동남아 일원에서 움트고 있던 공산주의 활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자국의 위치를 부각시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한편, 유엔 대표권의 문제에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속셈으로 참전을 하게 된 것이다.

2. 침공 규모

1950년 10월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당시, 중공의 지상군은 5개 야전군 예하에 20~22개 병단, 71~75개 군, 210~245개 사단으로 총병력은 2,438,0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5개 야전군 예하의 5개 병단, 25~27개 군, 75~81개 사단이 항미원조지원군(抗美援朝志願軍)이란 이름 아래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항미원조지원군은 한국전의 전황이 북괴에 불리하게 진전되기 시작한 1950년 9월에 편성되었으며, 이들은 1950년 10월부터 휴전 후 철군할 때까지 대체로 다섯 차례에 걸쳐 압록강을 도하하여 북한 지역에 진입하였다.

최초로 한국전쟁에 투입된 중공군은 제4야전군 예하 제13병단 6개 군 18개 사단으로서 이들은 1950년 10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압록강을 도하하였으며, 총병력은 180,000명이었다. 이때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하고 있을 때이었다.

두 번째는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 3개 군 12개 사단 약 120,000명이 11월 초순에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이때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청천강—장진—풍산—길주까지 북진하여 있을 때이었다.

세 번째는 1951년 2월~3월에 제2야전군 예하 제3병단 3개 군 9개 사단과 제1야전군 예하 제19병단 3개 군 9개 사단 그리고 제13

병단 제47군 3개 사단 등 모두 21개 사단이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이때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평택—삼척 선까지 후퇴하였다가 재반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이었다.

네 번째는 1951년 6월에 화북야전군 예하 제20병단 2개 군 6개 사단과 제13병단의 1개 군 3개 사단 등 9개 사단이 입한하였으며, 최초로 입한한 제13병단의 1개 군(제66군)은 복귀하였다. 이때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재반격작전으로 중공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고 문산—철원—김화—간성을 연하는 선에서 상호 대치하고 있을 때이었다.

다섯 번째는 1952년 9월부터 1953년 1월 간에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 4개 군 12개 사단, 화북야전군 예하 제20병단 1개 군 3개 사단 그리고 제13병단 1개 군 3개 사단 등 18개 사단이 진입하였고, 최초로 진입한 제13병단의 1개 군(제42군)과 두 번째로 진입한 제9병단 3개 군(제20·제26·제27군)이 철수하였다. 이때는 휴전회담이 진행중이었으며, 쌍방은 상호 대진상태하에서 고지쟁탈전을 치르고 있을 때이었다.

1953년 1월에 진입한 부대를 마지막으로 중공군은 더 이상 북한 지역에 병력을 증강시키지 않았다. 그 밖에, 휴전 후 교체기에 진입한 1개 군까지 합하여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으로 이동된 중공군의 총규모는 25~27개 군 75~81개 사단, 약 100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손실 보충과 교대를 위한 병력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미 제8군 사령부는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손실을 전투손실 967,000명과 비전투손실 267,000명을 합하여 1,234,000명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당시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실제 병력은 그들의 춘계공세가 끝난 1951년 6월부터 휴전시까지 가장 많은 병력이 북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때의 병력 규모는 평균 18~21개 군 54~63개 사단이었다.

3. 중공군의 공세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제1단계로 한국군 및 유엔군의 한·만 국경선까지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며, 제2단계로 총반격작전을 실시하여 북한 지역을 회복하였고, 제3단계로 38도선 이남으로 남침을 감행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다는 계획하에, 5차에 걸친 대공세를 취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북한 지역을 거의 회복하고 한때 서울 이남 수원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제1차공세

중공군의 제1차공세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북진을 단행하여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을 도하하고, 동부전선에서는 함흥·홍남을 점령한 다음 장진호와 청진 방향으로 총공세를 펴고 있던 1950년 10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중공군은 이때 제1차로 압록강을 도하한 제13병단 6개 군 중, 5개 군을 적유령산맥 남단에 전개시키고 1개 군을 장진호 북쪽에 전개시켜, 동부에서는 한국군 및 유엔군의 전진을 저지 및 견제하였으며, 서부에서는 운산—회천 방향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한국군 및 유엔군을 청천강 이남으로 격퇴시켰다.

그 후 11월 7일경부터, 이들은 당시의 접촉선상에 경계부대만을 잔류시키고 다시 은밀히 적유령산맥 남단으로 이동하여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선에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일시적인 소강상태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중공군의 제1차공세는 완전히 기습적인 공세행동이었

다. 당시 한국군 및 유엔군은 중공의 개입을 우려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 중공군의 참전에 대한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시기적으로도 그때는 이미 중공군의 참전은 때가 늦은 것으로 판단하여 총공세를 펴던 것이다. 당시, 중공군은 야간만을 이용하여 은밀히 기동하고, 주간에는 철저히 기도를 비너하여 유엔군의 항공정찰이나 정보망에 노출되지 않았다.

제2차공세

중공군의 제2차공세는 제1차공세를 취한 지 한 달이 지난 1950년 11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이날은 한국군 및 유엔군이 제1차공세 후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시기를 이용하여, 서부전선에 1개 군단을 증강시키고 동부전선에 계획대로 1개 군단을 원산에 상륙시켜 전선의 전력을 증강하여, 중공군의 조직적인 공격이 실시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지으려는 계획하에 한·만 국경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이른바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취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서부에서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다시 청천강을 도하하여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동부에서는 일부 선두부대가 이미 압록강 선에 도달하였고, 다른 부대들도 국경선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때, 중공군은 제1차로 북한에 진입한 제13병단 18개 사단이 적유령산맥 남단 지역 일대에서, 제2차로 입한한 제9병단 12개 사단이 장진호 및 개마고원 일원에서 전투대형을 갖추고 한국군 및 유엔군을 동서로 양분하여, 서부에서는 청천강 선에서, 동부에서는 장진호—함흥 선에서 포위하여 격멸한 다음 남진할 계획하에 대공세를 취하였던 것이다.

한국군 및 유엔군의 크리스마스공세에 맞서 취하여진 중공군의 제2차 대공세는 그들의 계획대로 진전되어 갔다.

그 후 한국군 및 유엔군은 후퇴작전으로 전환하여, 서부전선부

대는 12월 중순에 38도선까지 후퇴하게 되었으며 동부전선부대는 흥남에 집결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 간에 해상을 통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공군의 제2차공세도 완전히 기습적인 것이었다. 유엔군측에서는 크리스마스공세를 취할 때까지도, 중공군의 제1차공세는 압록강상의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병력은 의용군으로 구성된 단지 몇 개 사단에 불과한 병력일 것이고, 중공이 주력을 투입하여 한국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데 반하여, 실제로는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춘 30개 사단, 30만 명이 북한 지역에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3차공세

중공군의 제3차공세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38도선 부근으로 철수하여, 임진강 하구—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인 1950년 12월 31일에 실시되었다. 이 공세는 1951년 1월 1일을 전후하여 실시되었다는 뜻에서 일명 신정공세라고도 불리었다.

이때,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를 수개의 방어선에서 축차적으로 약화시킨 다음 공세로 이전한다는 방어개념하에 제1방어선을 38도선을 연하는 선에, 제2방어선을 수원—양평—주문진을 연하는 선에, 그리고 제3방어선을 평택—삼척을 연하는 선에 설정하고 제1방어선과 제3방어선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하였다.

중공군의 신정공세는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도착한 제13병단 6개 군과 그 동안 전투력이 회복된 북괴군에 의하여 감행되었다. 제9병단은 제2차공세시 한국군 및 유엔군에게 입은 심한 손실로 인하여 함흥 부근에서 재편성중에 있었다. 중공군은 최초 북괴군의 남침 경로와 유사한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화천—춘천—홍천 축선에 조공을 지향하여 대공세를 취하였

다. 이때, 중공군은 개성—화천 지역에서, 북괴군은 화천 이동 지역에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공세로, 유엔군은 1952년 1월 4일 재차 서울에서 철수하여 평택—제천—삼척 선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 선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1950년 10월공세 이후 계속된 공격 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신장된 병참선으로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여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군 및 유엔군은 기습적인 중공군의 대공세를 맞게 된 충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전력을 재정비하여 조직적인 지연전을 펴 나감으로써 전세를 회복하고 반격의 여력을 축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군 및 유엔군은 1월 25일에는 다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4차공세

중공군의 제4차공세는 한국군 및 유엔군이 1월 25일 재반격작전을 단행하여 김포—한강 남안—남한산—양평—지평리—횡성—하진부리 선까지 진출한 다음,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우선 중부전선의 홍천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진행중이던 2월 11일에 개시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일부 군으로 하여금 한강을 이용하여 서울을 방어하게 하면서 주력을 중부전선 홍천 부근으로 이동시켜 북괴군과 합세하여 지평리·원주 방향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취하였다. 이러한 2월공세에 투입된 중공군의 전력은 신정공세시와 같은 규모로 강력한 것이었으며, 게다가 신정공세시에는 광정면에 걸쳐 공세를 취하였지만 2월공세시에는 한 지점으로 공세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 공세로, 중공군은 중부전선에서 양평—원주—제천—평창에

이르는 대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었으나, 한국군 및 유엔군의 강력한 화력과 조직적인 저항으로 2월 18일경에는 그 공세가 꺾이었으며, 한국군 및 유엔군은 다시 반격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제5차공세

중공군의 제5차공세는 유엔군이 재반격작전을 계속하여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말에는 38도선을 재차 회복하여, 임진강—영평천—화천 저수지—남애리를 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철원—김화 지역으로 공격을 계속중이던 1951년 4월 22일에 개시되었다. 이 공세는 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춘계공세라고도 불리었다.

중공군의 제5차공세는 중공군이 취한 공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대가 동원된 공세이었다. 이때에 투입된 부대는 제4차공세까지 참여한 제13병단 6개 군, 제2차공세 후 장진호 부근에서 재편성을 실시한 제9병단 3개 군, 그리고 1951년 초 제3차로 진입한 제3병단 3개 군과 제19병단 3개 군 그리고 제13병단 1개 군 등 총 4개 병단 16개 군 약 51개 사단 규모이었다.

중공군은 이 부대들을 서부와 동부에 각각 1개 공격집단씩으로 편성하여, 4월(4. 22.~30.)에는 서부전선에 주력을 집중시켜 대공세를 전개하여 서울 북방 구파발—홍천 선까지 진출하였으며, 5월(5. 16.~22.)에는 동부전선에 주력을 집중시켜 또 한 차례의 대공세를 전개하여 홍천—하진부리—강릉에 이르는 대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춘계공세는, 중공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공산군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며 유엔군의 전쟁의지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며, 만약 이러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휴전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하에 실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반드시 고수한다는 한국군 및 유엔군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그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채 서울 북방에서 공격이 저지되고 말았다.

한국군 및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를 서울 북방에서 저지하게 되자, 곧 이어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6월 중순에는 38도선을 세 번째로 확보하고 임진강구—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중공군도 그 북방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끝난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그들로서는 마지막 대공세가 되었다.

중공군의 제1차공세로부터 제5차공세까지의 총체적인 손실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중공군은 춘계공세시의 손실이 16만 명에 달하였으며, 뒤따른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시에도 43,000여 명이나 손실을 입음으로써, 이때의 손실만도 200,000여 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심대한 손실로 인하여 중공군은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공군은 그 후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시된 휴전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교착진지상의 대진상태에서 유엔군과 제한된 범위내의 국지적인 전투를 지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맞게 되었다.

4. 중공군의 철군

휴전 당시 중공군의 북한 지역 주둔부대는 5개 야전군 이하의 5개 병단 19~20개 군 약 57~60개 사단 규모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부대는 1956년 1월까지 축차적으로 철수하였으며, 나머지 5개 군은 1957년 11월에 철군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총사령부는 1958년 10월에 철수하였다.

쌍방의 작전지휘체제

한국전쟁 중 북괴군과 한국군의 작전지휘체제는, 최초에는 쌍방이 독자적인 단일 지휘체제로 시작하였으나, 한국을 유엔군이, 북괴를 중공군이 각각 지원하고 나선 이후에는 쌍방 공히 독특한 연합 작전지휘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한국군과 유엔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서, 북괴군과 중공군은 중공·북괴 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서 각각 전쟁을 수행하였다.

1. 한국군 및 유엔군의 작전지휘체제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명시 그대로 국방부 장관 이하의 육·해·공군 각군 총참모장이 각각 자군을 지휘하는 작전지휘체제하에 있었으나, 6월 30일 정부가 육군 총참모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총사령관이 육·해·공군 3군을 통할 지휘하는 전시 작전지휘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때, 육군 총참모장(육·해·공군 총사령관이 겸직)은 한강 방어선에 배치된 6개 사단(훈성편성)과 그리고 중동부전선에서 방어임무를 수행중이던 2개 사단 등 8개 사단(감편)의 전투부대와 그 지원부대를 지휘하여 지상작전을 수행하였다. 해군 총참모장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서해안·동해안·남해안에 전개된 제1정대·제2정대·제3정대와 훈련정대 및 2개 대대 규모의 해병대와 그 지원부대를 지휘하여 해상 및 도서 작전을 실시하였다. 공군 총참모장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1개의 소규모 비행단과 수원·대전·대구·군산·

사천에 전개된 기지부대 및 그 지원부대를 지휘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이 이에 나서게 되었으며, 6월 26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행위정지 요청안을 가결하여 북괴에 통고하였고, 북괴가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하자, 6월 28일에는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 회원국에 통고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 결의안에 의해,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군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또 다른 국가들이 참전과 지원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유엔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휘체제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7일 유엔 통합군 사령부 설치안을 가결하여 미국이 임명하는 통합군사령관이 한국에 파견되는 모든 유엔군을 통합지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유엔군의 지휘체제를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미 극동군사령관이던 맥아더 원수를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여 유엔군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우선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 사령관인 미 제8군사령관·미 극동해군사령관·미 극동공군사령관을 통하여 유엔 지상군·해군·공군을 지휘하는 유엔군의 지휘체제를 수립하였으며, 7월 24일에는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및 참모요원의 대부분은 미 극동군사령부 요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한 예로서 맥아더 원수는 극동군사령관·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3개 직책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처럼, 유엔군이 구성되고 전 유엔군의 지휘체제가 단일화됨에 따라, 1950년 7월 14일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유엔군사령관은 그의 예하 지휘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게 되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한국 정부가 대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루어졌으며, 일명 대전협정이라고도 불리어졌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실질적으로 유엔군의 참전 초기부터 연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대전협정이 이루어진 7월 14일에 제도적으로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그 후, 유엔군사령관은 한국 육·해·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그의 각 구성군 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한국 육군은 미 제8군사령관, 한국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관, 그리고 한국 공군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각각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 중, 한국 육군의 작전통제권은 7월 17일에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미 제8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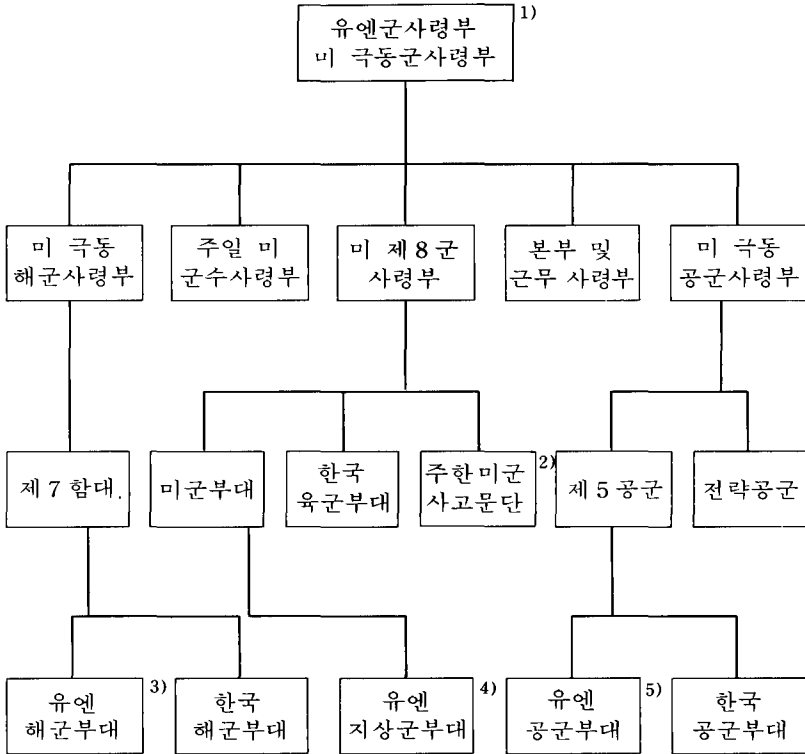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부는 7월 13일에 일본 동경으로부터 한국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7월 14일에 유엔으로부터 유엔기를 인수하여 이날부터 유엔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하여 2가지 방법으로 작전을 통제하였다. 그 중 한 방법은 통상적인 경우로서, 미 제8군사령관이 한국 육군 총참모장에게 한국 육군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통제사항을 요청하여 육군 총참모장이 이를 한국군 지휘계통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한국군이 미군의 군단이나 사단에 배속 운용될 경우로서, 이때는 미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전통제가 이루어졌다. 이 2가지 방법은 어느 것이든 한국전쟁 기간 중 지휘체제상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은 작전지휘체제는 전쟁 기간 계속 유지되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전쟁 발발 1년 후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상태를 이루고 휴전회담이 태동되고 있을 때인, 1951년 7월 1일 당시의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제이다. 이때, 한국의 육군부대는 미 제8군사령관, 해군부대는 미 제7함대사령관, 공군부대는 미 제5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유엔군 지휘체제

1951. 7. 1



- 1) 유엔군사령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도 겸하였다.
- 2) 주한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지원 및 미 제8군과 한국 육군간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 3) 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터키·콜롬비아 해군.
- 4) 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이디오피아 지상군.
- 5)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타이·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2. 북괴군 및 중공군의 작전지휘체제

북괴는 전쟁 개시 이전의 그 준비과정에서 사실상 전시 작전지휘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전쟁의 징후를 감추기 위하여 전쟁 당일까지는 민족보위성의 총참모장이 육군의 2개 군단과 해·공군 및 기타 사령부를 통하여 각급부대를 지휘하는 평상시의 지휘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그 익일(6월 26일)부터 전시 체제로 전환하였다.

6월 26일, 북괴(최고인민회의)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인민과 주권기관,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군사기관들은 이 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 전쟁 수행에 관한 절대권을 부여하였다. 또, 이 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하여, 군 통수권은 물론 사회안전성 산하의 각급부대와 철도경비대 등 준 군사기관까지 모두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군정권과 군령권을 군사위원회 및 인민군 최고사령부에 집중시키는 법적 조치를 단행함과 아울러,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은 북한공산당 총서기 및 당 정치국원·내각수상·군사위원회 위원장·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요 직위를 독점하였다.

북괴군 최고사령관이 된 김일성은 민족보위성 예하의 모든 참모 및 지휘기구를 장악하고 전선사령부라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여 군 작전지휘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였다. 당시, 전선사령관은 전방의 2개 군단(제1·제2군단)을 통하여 9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을 지휘하여 전방작전을 지휘하였다. 해군사령관은 최고사령관의 통제하에, 청진·원산·남포에 3개의 위수사령부를 두고 각 사령부에 함정을 배치하여 해상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개 연대 규모의 육전대도 지휘하였다. 공군사령관은 평양·연포·선덕·신막·평양

일대에 전개한 항공사단을 운용하여 공중작전을 수행하였다.

북괴는 이러한 지휘체제로 남침작전과 북으로의 후퇴작전을 지휘하였으나, 중공군이 항미원조지원군이란 이름으로 1950년 10월 12일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작전지휘체제가 변화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은 북괴군의 공격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그들의 전쟁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8월 26일 중·소간의 비밀협상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9월 2일 북괴·중공간의 군사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 중공군의 참전에 따른 지휘체제가 합의되어 북괴군과 중공군은 중공·북괴 합동사령부와 북괴·중공 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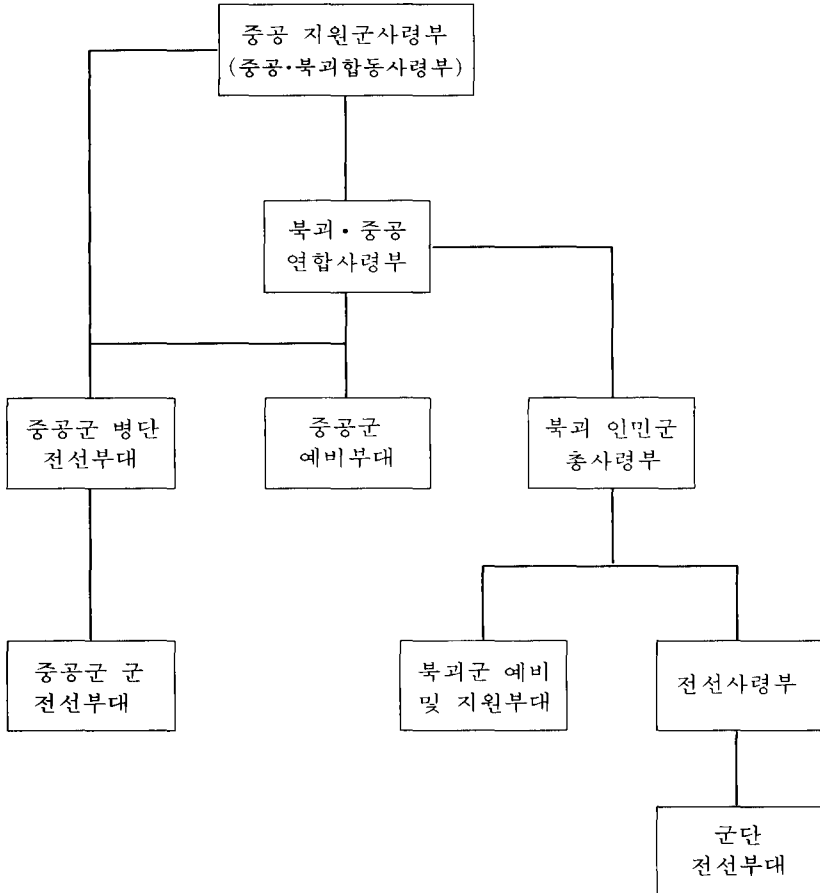
중공·북괴 합동사령부(Joint CCF-NKA Headquarters)는 만주의 심양에 설치된 중공 지원군사령부(일명, 중공 의용군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중공군 부사령관이며 중공 지원군사령관인 팡덕회가 사령관이 되었다. 북괴·중공 연합사령부(NKA-CCF Combined Headquarters)는 중공·북괴 합동사령부의 예하 지휘체대로서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여 북한내에 설치되었다.

합동사령부는 전쟁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과 후방지원을 담당하며, 한국내의 모든 군사작전은 연합사령관이 통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사실상 김일성은 명목상의 지휘관에 불과하였으며, 실질적인 작전통제는 심양의 중공 지원군사령관이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의 개입에 따라 구성된 북괴와 중공간의 연합 작전 지휘체제는 전쟁기간 중 일부 지휘관의 교체와 통제부대규모의 변화는 있었으나 휴전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1951년 7월 1일 당시의 공산군 지휘체제이다. 이때는, 중공 지원군사령관이 중공군의 전선부대를 직접 지휘하였고, 북괴·중공 연합사령부는 중공군 예비부대를 직접 작전통제하면서 북괴군 전선부대에 대한 지휘는 전선사령관을 통하여 지휘하였다.

공산군 지휘체제

1951. 7 1



쌍방의 전투부대 편제

한국전쟁에는 북괴군과 중공군 그리고 한국군과 미국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여 모든 전투를 치렀다.

한국전에 참전한 각국 군의 규모——최고수준 기준——는 북괴군이 25개 사단, 중공군이 57~60개 사단, 한국군이 18개 사단, 유엔군이 8개 사단, 미국군이 7개 사단, 기타 국군 1개 사단이었다.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이들 각국 군 사단의 편제는 그 병력과 장비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보병사단 편제

보병사단 병력 비교

구 분	장 교	사 병	계	비 고
북 괴 군	1, 102명	10, 990명	12, 092명	
중 공 군	1, 849명	14, 429명	16, 278명	
한 국 군	650명	9, 911명	10, 561명	준위 25명은 장교에 포함.
미 국 군	1, 113명	17, 067명	18, 180명	준위 109명은 장교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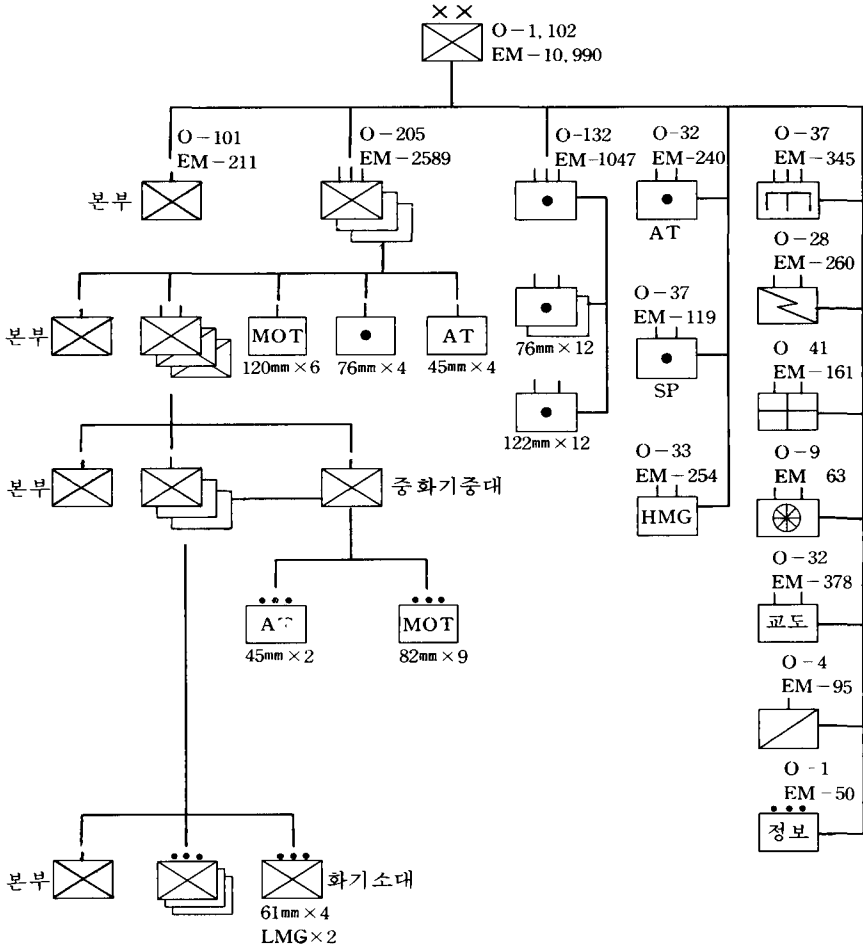
보병사단 장비 비교

장비별 / 군별	북괴군	중공군	한국군	미국군
60밀리 박격포			81문	81문
61밀리 박격포	108문	3문		
76밀리 자주포	16문			
76밀리 평사포	36문			
81밀리 박격포			54문	39문
82밀리 박격포	89문	99문		
4.2인치 박격포				36문
105밀리 곡사포			15문	54문
75밀리 포		12문		
76.2밀리 자주포		12문		
120밀리 박격포	18문	12문		
122밀리 박격포	12문			
155밀리 박격포				18문
차량	422대	369대	608대	2,670대
전차				135대

- 북괴군 및 중공군 보병사단 편제에는 전차가 없으며, 이들 사단은 기갑부대 또는 기계화부대의 전차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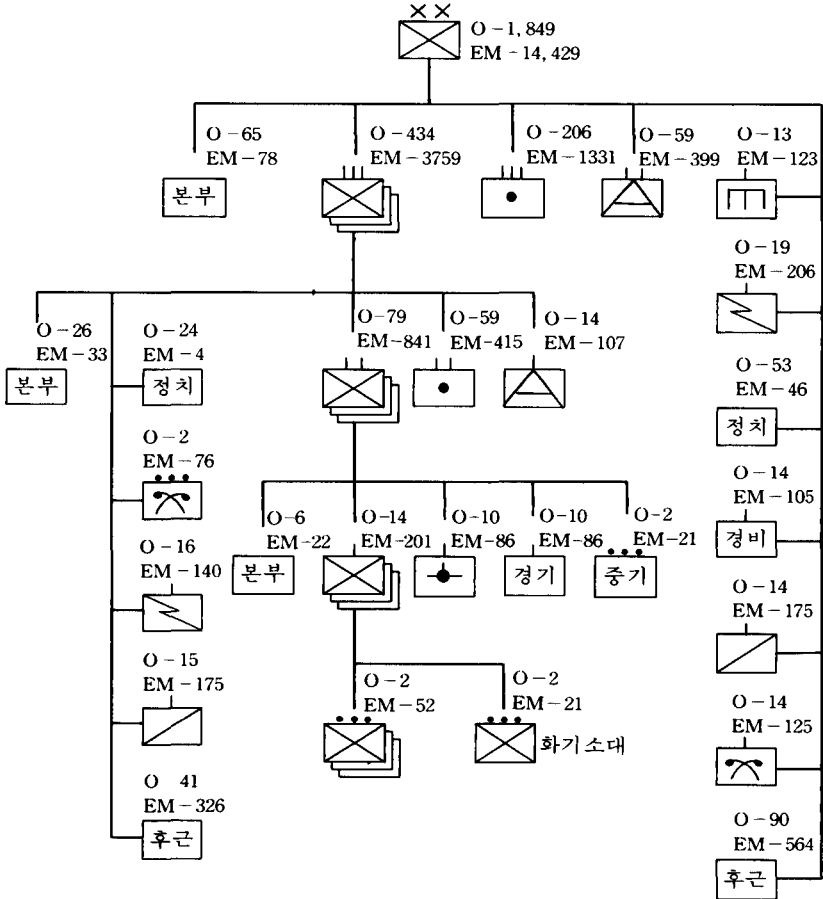
북괴군 보병사단 편제표

1950. 6.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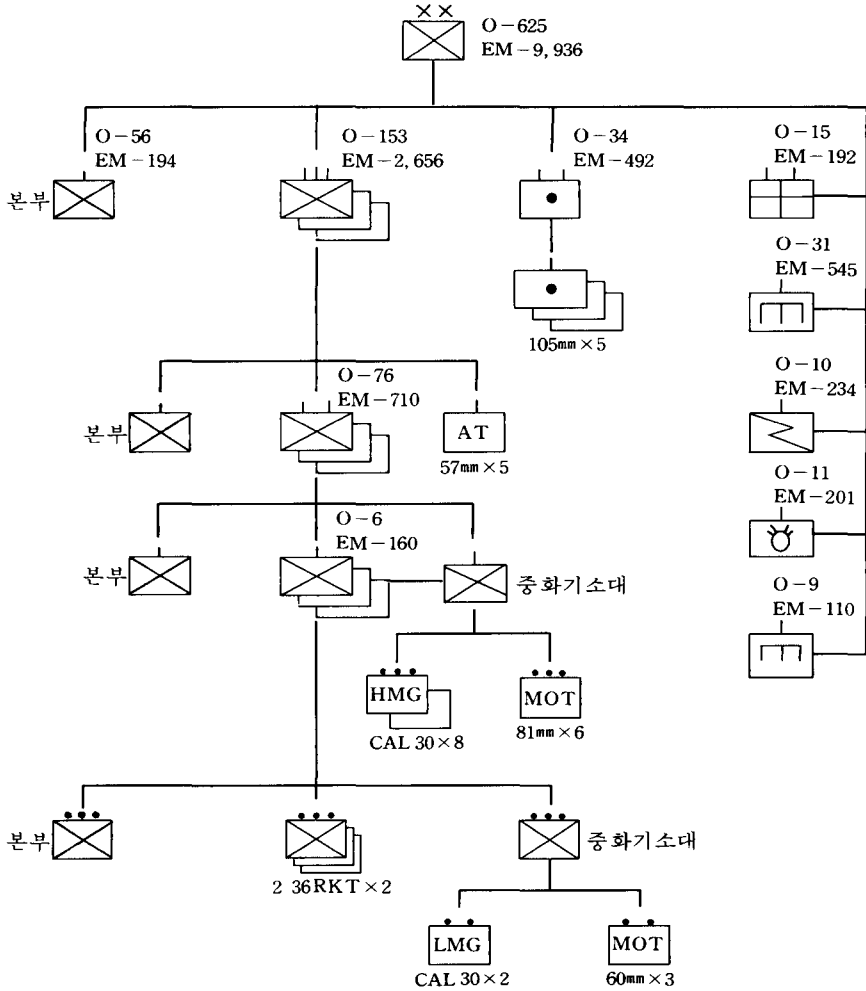
중공군 보병사단 편제표

1956. 6.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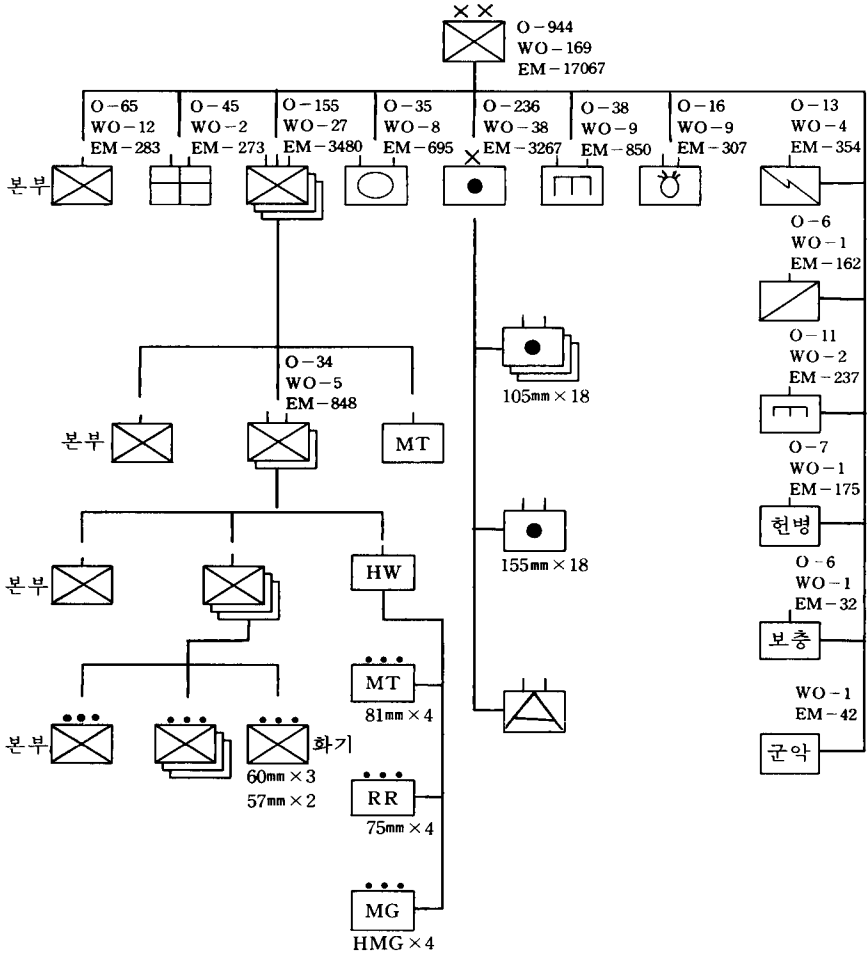
한국군 보병사단 편제표

1950. 6. 25. 기준



미국 육군 보병사단 편제표

1953. 11. 8. 기준



전쟁 기간 중의 주요 전투

1. 의정부 전투 (1950. 6. 25.~26.)

의정부 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의정부 정면의 38도선 방어 임무를 수행중이던 국군 제7사단이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축석령 일대에서 제105전차여단으로 증강된 북괴군 제1군단(제3·제4사단)의 침공을 받아 2일간에 걸쳐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6월 25일 새벽에 북괴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초전에 38도선상의 방어진지가 돌파되어 포천과 동두천으로 철수한 후, 그 곳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북괴군의 침공을 저지하였으나 다시 북괴군 전차부대에 밀려 재차 의정부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국군 제2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의 증원을 받아 반격을 가하였으나 실패하고 26일 오후에는 창동 전선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북괴군에게 점령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군은 총력을 경주하여 수도 방어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북괴군은 의정부에서 일단 공격을 멈춘 채 서울 침공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2. 문산 전투 (1950. 6. 25.~28.)

문산 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청담·연백·개성·고랑포·적성 일대에서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1사단이, 개전 이후

배속된 국군 2개 연대와 더불어 개성·문산·파평산·봉일천 일대에서 T-34형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된 북괴군 2개 사단(제1·제6사단)과 4일 동안에 걸쳐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과 곡룡천의 천연장애물을 이용하여 북괴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6월 28일 서울이 실패되어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부득이 행주·이산포 나무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시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철수시기를 놓치는데다 도하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병력이 분산되고 모든 공용화기와 장비를 유기하는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전투로, 국군은 한강 방어선의 구축에 많은 곤란을 겪었으며 북괴군은 한수 이북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3. 춘천·홍천 전투(1950. 6. 25.~30.)

춘천·홍천 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동부전선의 춘천과 홍천 북방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제6사단이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된 북괴군 제2사단과 제7사단의 공격을 받고 춘천·어른리·현리·말고개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과 말고개의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6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하여 북괴군 2개 사단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북괴군 제2군단은 춘천·홍천 축선으로의 진출이 지연되었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수도권을 포위하기 위하여 2개 사단을 춘천—홍천—이천—수원 축선으로 우회기동시키려던 당초의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은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4. 강릉 전투(1950. 6. 25.~28.)

강릉 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동부전선의 강릉 일원에서 38도선 방어와 해안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8사단이 양양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는 북괴군 제5사단과 정동진·임원진 등 해안으로 상륙하여 남으로부터 협공을 기도하는 북괴군 제766부대와 제549부대(육전대) 등 2개 사단 규모의 북괴군과 맞서 4일 동안에 걸쳐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전후방에서 침공하는 북괴군과 천마봉·모전리 등지에서 점전을 벌인 후 27일에 일단 대관령으로 철수하여 전투력을 수습한 다음, 강릉 탈환을 위한 반격작전을 수행하던 중,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천으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부대는 전무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23연대가 울진으로 북상할 때까지 북괴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남하하였다.

5. 웅진 전투(1950. 6. 25.~26.)

웅진 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웅진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독립제17연대가 T-34형 전차 10여 대로 증강된 북괴군 제6사단 제14연대와 제3경비여단 등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에 맞서 웅진·강령 일대에서 2일 동안에 걸쳐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독립제17연대는 초전에 밀려드는 북괴군에 맞서 45 km에 달하는 광정면에 부대를 전개한 상태로 지연전을 전개하던 중, 개성과 문산 지역의 국군부대들이 후방으로 물러남에 따라 적중예 고립된데다 작전지역이 양단됨으로써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하여 해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용진반도에 위치한 국군 독립제17연대는 작전계획상 적의 전면 공격을 받을 경우, 해상으로 철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곧 해군의 LST가 지원되어, 연대주력은 이 LST를 이용하고 제2대대(+)는 기관선과 목선을 이용하여 부포항과 사관리에서 각각 해상 철수를 실시, 27~28일 사이에 인천을 경유하여 수원으로 집결한 후, 군 예비가 되었다.

6. 미아리 전투(1950. 6. 27.~28.)

미아리 전투는 의정부 방어선이 붕괴되고 이어서 창동 전선마저 돌파되었을 때, 국군 3개 사단(제2·제5·제7사단)의 잔존부대가 미아리 일대에서 제105전차여단으로 증강된 북괴군 제1군단(제3·제4사단)의 서울 침공을 1일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3개 사단은 서울의 최후 방어선인 미아리 전선을 지키기 위하여, 전방에서 철수한 병력과 후방에서 증원된 병력을 통합, 미아리와 월곡동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 27일 해질 무렵에 북괴군 선두부대가 T-34형 전차 10여 대를 앞세우고 미아리 정면으로 침공하자 이들을 일단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후 야반에 전개된 두 번째의 교전에서 북괴군 전차부대의 진출을 막지 못하여 이들 전차대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 시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 곳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부대들은 그 후 흥릉 방면으로 우회한 또 다른 북괴군 전차대가 시내로 돌입한데다 특히 한강대교가 폭파되었다는 상황을 통보받고 분산된 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부분적인 저항만을 받으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고, 국군은 주요 장비와 대부분의 공용화기까지 유기한 채 한강 남쪽으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7. 한강 전투(1950. 6. 28.~7. 3.)

한강 전투는 한국전쟁 초기에 수도 서울이 실함되었을 때, 국군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수도·제2·제7사단)이 전차 1개 사단으로 증강된 북괴군 제1군단 소속 3개 사단(제3·제4·제6사단)과 한강을 연하는 선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제7사단을 노량진 방면에 배치하고 수도사단을 여의도 비행장을 포함한 영등포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제2사단을 비롯한 제3사단과 제5사단의 일부 혼성병력을 전방부대에 보강하여 한강 남안을 연하는 선에서 6일 동안의 방어전을 치른 후,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북괴군 제4사단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한강철교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킨 후 영등포 지역으로 침공하였으며, 북괴군 제6사단은 김포 비행장을 경유, 인천으로 침공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전략적 후퇴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게 되었고, 북괴군은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의외로 시간이 지연되어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려던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8. 오산 전투(1950. 7. 5.)

오산 전투는, 한국전쟁 초기에 한강 방어선이 붕괴되고 한국군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한국에 최초로 파병된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소속의 스미드 특수임무부대가 남하중인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된 북괴군 제4사단 소속 2개 연대와 오산 북방 죽미령 일대에서 교전을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스미드 특수임무부대는 밀려드는 북괴군의 보·전 부대를 맞아 보·포 협동으로 치열한 단독전투를 치렀으나, 적의 전차부대를 막지 못하여 6시간 동안의 방어전투를 치른 후 안성을 경유하여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로, 쌍방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북괴군은 미군의 참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미군은 북괴군의 전투능력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9. 동락리 전투(1950. 7. 5.~10.)

동락리 전투는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서부전선의 국군부대들이 평택과 안성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을 때, 원주에서 충주로 남하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3번도로 축선(이천—장호원—충주 축선)을 따라 남진중인 북괴군 제15사단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하던 중, 음성 북방의 동락리에서 북괴군 선두부대인 제48연대를 기습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남침을 지연시킨 공세적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장호원으로 향해 전진하던 중, 북괴군 제15사단이 이미 장호원을 통과하여 음성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음성 북쪽의 소여리와 용산리 일대에 매복하고 있다가, 동락리로 집결중인 북괴군 제48연대를 기습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개전 이후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북괴군은 음성 진출이 1주일간이나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군은 진천—음성—충주로 이어지는 저지선을 형성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10. 단양 전투(1950. 7. 5.~10.)

단양 전투는 한국군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8사단이 북괴군 제8사단과 원주 남방의 단양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단양 북쪽의 남한강 남안에 2개 연대(제10·제21연대) 병력을 배치하여 북괴군 제8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는 한편, 제10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구만리 국민학교에 위치한 적의 사단전방지휘소를 기습하도록 하여 이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으며, 상진리 지역에서 도하를 시도하는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양방과 장현리 지역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배후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들을 격퇴한 후 죽령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이 6일간이나 방어선을 지탱함으로써, 서부전선의 국군부대들은 소백산맥 일대에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으며, 북괴군은 단양을 점령하기 위하여 충주 방면에 투입되었던 제12사단을 이 곳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전력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11. 진천 전투(1950. 7. 6.~10.)

진천 전투는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국군과 유엔군이 금강과 소백산맥 일대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려고 할 때,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단(-), 그리고 독립제17연대가 청주 북방의 진천지역에서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북괴군 제2사단의 남침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수도사단은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에 진천 북

쪽의 중산리를 점령하여 진천을 확보하였으나 북괴군의 전차에 밀려 진천을 상실하게 되자, 군단에서 증원된 제2사단 제16연대와 제20연대 그리고 독립제17연대를 통합하여 진천 남쪽의 봉화산과 문안산 일대에 저지진지를 급편하고 5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방어기간 중 저지진지가 돌파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등, 격렬한 공방전을 벌이게 됨으로써 쌍방간에 상당한 피해를 내었다. 이때, 북괴군은 국군을 경시하고 저돌적인 공격을 감행하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국군은 이 무렵 전투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데다, 진천 좌우측방의 공백지대로 남하한 북괴군으로부터 배후의 위협을 받게 되자 결전을 회피하고 청주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제2사단은 대전 지역으로 직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5일간이나 지연되어 작전상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은 소백산맥에 연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12. 이화령 전투(1950. 7. 13.~15.)

이화령 전투는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문경 북방의 이화령 일대에서 북괴군 제1사단의 침공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2연대는 이화령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조령 정면을 담당한 제19연대와 함께 문경 지역을 방어하던 중, 북괴군 제1사단이 연풍에서 이화령으로 침공하자 일단 이를 저지한 후, 7월 14일 미명에 기습적으로 반격을 가하여 북괴군을 연풍 지역으로 격퇴하였으며, 이 공격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그 후, 제2연대는 다시 이화령으로 철수하여 진지를 고수하고 있던 중, 주흘산 동측방의 제19연대 진지가 돌파되어 북괴군이 문경

으로 침입하자 부득이 철수하여 문경 남쪽의 남호리 일대에 저지 진지를 편성한 후 영강 선으로 침공하는 북괴군을 저지하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국군은 북괴군 제2군단의 주력이 상주 정면으로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북괴군은 국군의 전투력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3. 대전 전투(1950. 7. 14.~20.)

대전 전투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소백산맥과 금강 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미 제24사단이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괴군 2개 사단(제3·제4사단)과 맞서 금강 선으로부터 대전 지역까지의 사이에서 치른 지연전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대평리와 공주 지역에 각각 1개 연대의 병력을 배치하여 금강에 연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괴군 2개 사단의 침공을 4일 동안 저지하다가 방어선이 돌파되어 대전 외곽지역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다시 논산과 금산 지역으로 우회한 북괴군 제4사단으로부터 배후의 공격을 받고 부대가 분산되어 3일 동안의 고전을 치른 끝에 영동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24사단장이 북괴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미군은 북괴군의 전투력을 재평가하여 새로운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북괴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유기적인 전선을 형성하기 전에 대구 지역으로 남하하기 위하여 경부축선상으로 그들의 전투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14. 영덕 전투(1950. 7. 16.~29.)

영덕 전투는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중부전선의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의 영

덕 지역에서 북괴군 제5사단의 침공을 맞아 2주일 동안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최초로 제23연대 1개 연대 병력으로 영덕 지역을 방어하다 실패하여 북괴군 제5사단에게 영덕을 피탈당하자, 미 제159포병대대와 강구 해상에 위치한 미 순양함 쥬노호의 함포 지원하에 탈환작전을 전개하여 영덕을 탈환하였다. 그 후 북괴군 제5사단의 재공격을 받고 9일간의 공방전을 전개하던 중, 제22연대와 1개 독립대대 그리고 강원도 경찰대대가 증원되자 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영덕 남쪽의 181고지와 207고지에서 14일 동안 북괴군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포항 진출이 2주일 이상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형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15. 화령장 전투(1950. 7. 17.~25.)

화령장 전투는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독립제17연대와 제1사단이 화령장 일대에서 북괴군 제15사단을 기습하여 이들의 남하를 지연시킨 공세적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독립제17연대는 북괴군 제15사단이 속리산 동쪽의 문장대 계곡으로 남하하여 상주 정면으로 침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령장 북쪽의 금곡리와 동비령 일대에서 매복을 실시, 그들의 선두부대인 제48연대를 기습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 후, 국군 제1사단이 독립제17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화령장 북쪽에서 북괴군의 진출을 3일 동안 저지한 다음 함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북괴군은 상주 지역의 진출이 지연되어, 문경 지역에

서 후퇴중이던 국군 제2군단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던 당초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은 낙동강 전선으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16. 영강 전투(1950. 7. 17.~30.)

영강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국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이 함창 북방의 영강 선 일대에서 북괴군 제2군단의 침공을 2주일 동안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및 유엔군의 금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서부전선의 미군부대들이 대전—영동—김천 축선으로 철수하고 있을 무렵에, 북괴군 제2군단이 미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함창—상주—김천 축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국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이 영강 선에서 이들과 맞서 2주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쌍방 공히 과반수의 병력 손실을 보게 되었으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북괴군은 유엔군 증원부대가 도착됨에 따라 결정적인 공격의 시기를 놓치고 그 후의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17. 안동 전투(1950. 7. 29.~8. 1.)

안동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연대가 안동 지역에서 북괴군 제12사단과 제8사단 소속 일부 병력의 침공을 4일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제18포병대대와 제50포병대대의 지원하에 안동 북쪽의 천등산과 연곡동 일대에서 북괴군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던 중, 북괴군 제8사단 소속 연대규모의 병력이 서측방의 풍산 지역으로 침공하자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를 증원받아 풍산 지역을 방어하도록 대비하면서 이들의 침공을 계속 저지하였으며, 다시 동측방에서 북괴군 유격대가 배후로 침투하자 특수임무부대를 급파하여 이를 저지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4일간의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안동 지역 진출이 지연됨에 따라 동해안 전선의 766부대를 안동 지역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8사단은 8월 1일 철수명령을 받고 안동교를 폭파한 후 의성 지역으로 철수하여 낙동강 방어선에 참여하였다.

18. 의성 전투(1950. 8. 3.~13.)

의성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한 직후,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8연대가 영천 북방의 의성 지역에서 북괴군 제8사단과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11일 동안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의성 북쪽의 향로봉(326고지)과 토곡동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여 북괴군 제8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던 중 향로봉 진지가 돌파되어, 군단에서 조치한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의 증원을 받아 향로봉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나, 다시 북괴군 제12사단이 동측방의 보현산 지역으로 침공하자 배후의 위협을 받게 되어 보현산으로 철수하였다.

이 교전기간 중 쌍방은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 야간전투와 백병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동부전선의 진출이 지연되어 왜관 북방에

위치하고 있던 그들 제15사단을 청송 지역으로 이동시켜 전투력을 보강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보현산과 기계 지역 정면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19. 다부동 전투(1950. 8. 3.~9. 22.)

다부동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직후부터 반격으로 전환할 때까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대구 북방의 왜관과 다부동 일대에서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괴군 제2군단(제3·제13·제15사단)의 8월공세와 9월공세를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유학산과 다부동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북괴군 3개 사단(제3·제13·제15사단)과 25일 동안의 교전을 전개하여 북괴군의 8월공세를 저지한 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신녕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진지를 인수한 미 제1기병사단은 다부동과 지천, 도덕산 일대에서 북괴군 2개 사단(제3·제13사단)과 23일 동안의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북괴군의 9월공세를 저지하고 대구 북방의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낙동강 전선의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공세 이전의 계기를 포착하여 다른 유엔군부대들과 함께 반격작전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20. 마산 전투(1950. 8. 3.~13.)

마산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 미 제25사단을 주축으로 한 킨 특수임무부대가 마산 서측방에서 북괴군 제6사단과 11일 동안에 걸쳐 전개한 공세적 방

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5사단은 북괴군 제6사단이 남해안 통로의 하동과 진주 지역에서 유엔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마산 서측방으로 침공하자, 미 제8군사령관의 명에 의거 킨 특수임무부대(미 제25사단, 미 제5연대전투단, 국군민부대, 국군해병대대, 미 제87전차대대)를 편성하여 진주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킨 특수임무부대는 진주고개와 사천 지역을 확보하여 낙동강으로부터 남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격을 전개하였으나, 북괴군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여 이에 성공하지 못하고 11일간의 공방전을 전개하던 중, 낙동강 전선의 돌출부를 비롯한 의성과 포항 지역의 상황이 위급하여졌으므로 공격을 중지하고, 진동리—서북산—십이당산—중암리 일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북괴군 제6사단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으며, 킨 특수임무부대는 부대를 해체하여 미 제25사단은 마산 지역 방어에 임하고, 기타 배속부대들은 배속을 해제하여 타지역으로 증원차 출동하게 되었다.

21. 영산 전투(1950. 8. 5.~19.)

영산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에 연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 미 제24사단과 그 증원부대가 영산 지역에서 북괴군 제4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북괴군 제4사단이 현풍과 남지 지역(낙동강 돌출부)으로부터 기습적으로 낙동강을 도하하여 낙동강 동안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산 지역으로 침입하자, 이들의 밀양 지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 제8군의 조치로 증원된 부대(미 제2사단 제9연대, 미 제25사단 제27연대, 미 해병 제1여단)들과 함께

그 곳에서 공방전을 전개하여 북괴군을 강 서쪽으로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제4사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서게 되었으며, 그 후 아군의 공세 이전시까지 다시 낙동강 전선에 나타나지 않았다.

22. 안강·포항 전투(1950. 8. 9.~9. 22.)

안강·포항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고 있을 때,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제3사단)이 기계·안강·영덕·포항 일대에서 유격대(766부대)로 증강된 북괴군 2개 사단(제5·제12사단)의 침공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군단은 북괴군 제12사단이 청송—죽장—기계—안강 축선으로 침공하여 포항을 점령하자, 동해안의 기지와 월포 부근에 위치한 국군 제3사단을 해상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국군 수도사단과 독립제17연대 그리고 미 브래드릭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하여 역포위작전을 전개한 끝에 이들을 비학산 방면으로 격퇴하였다.

그러나, 다시 북괴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이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포항과 경주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자 미 제8군에서 증원된 잭슨 특수임무부대와 함께 형산강 일대에서 이들의 침공을 저지한 후,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기계와 홍해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2개 사단은 낙동강 전선의 동부지역 돌파작전에 실패하게 되었고, 국군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 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괴군을 추격하여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23. 신녕 전투(1950. 8. 30.~9. 15.)

신녕 전투는 북괴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공세(9월공세)를 취하여 국군 제8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천 동측방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영천 북방의 신녕 지역을 방어중이던 국군 제6사단이 북괴군 제8사단의 침공을 저지하여 이들의 영천 지역 진출을 막아 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신녕 북쪽의 조림산과 화산동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북괴군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던 중, 10여 대의 전차로 증강된 북괴군 제8사단이 공격을 가해 오자 17일 동안의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으며, 이 교전에서 사단특공대는 새로 지급된 3.5인치 로켓포로 북괴군 전차 8대를 파괴하여 전차 중심의 돌파작전을 시도하던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때, 북괴군 제8사단은 유엔 공군의 활발한 활동에 제압되어 주로 야간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국군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제15사단은 영천 지역에서 고립된 채 각개격파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24. 영천 전투(1950. 9. 2.~12.)

영천 전투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괴군의 9월공세가 개시되어 보현산 방어선이 붕괴되고, 이어서 기룡산 저지선마저 돌파되어 북괴군이 영천까지 침공하였을 때, 국군 제2군단(제7·제8사단)이 그곳에서 북괴군 제15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영천을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2군단은 기룡산 저지선에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을 영천 동남쪽의 금호강변에 배치하여 영천 지역으로 침공한 북괴군 제15사단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한 후, 국군 제7사단과 증원된 2개 연대(제6사단 제19연대, 제1사단 제11연대)를 투입하여 3일 동안의 교전을 전개한 끝에 영천을 탈환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영천 동북방의 자천과 372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제15사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서게 되었으며, 국군 제2군단은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25. 인천 상륙작전(1950. 9. 15.~16.)

인천 상륙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괴군의 8·9월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전개한 작전으로서, 이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성된 유엔 해군 제7합동상륙기동부대가 261척의 대함대를 동원하여 미 제10군단(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1해병연대, 국군 제17연대)을 인천으로 상륙시킨 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의 제90공격부대(TF-90)는 인천을 방어하는 북괴 인천경비여단과 제18사단 및 제31사단을 격파하고 공격 당일 월미도와 인천시가를, 다음날에는 인천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여 서울로 진격할 발판을 구축한 다음 작전지휘권을 미 제10군단장에게 인계하였다.

이 전투는 협소한 수로와 103m에 달하는 간만의 차 그리고 상륙 해안의 악조건 등의 전술적인 제약과 통상 5~6개월이 소요되는 상륙작전준비를 불과 1개월내에 완료해야 하였던 시간 제약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유엔군이 총반격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26. 서울 탈환작전 (1950. 9. 18.~28.)

서울 탈환작전은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미 제10군단이 9월 18일부터 서울로 진격하여 11일 동안의 진격전을 전개한 끝에, 서울 외곽지역과 시가지에서 북괴군 4개 사단(제9·제18사단, 제25여단, 독립제78연대)을 격퇴하고 서울을 탈환한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배속, 국군 해병 제1연대)과 미 제7사단(배속, 국군 독립제17연대)을 최우익으로 전개시켜 행주와 마포, 신사리에서 한강을 도하한 후, 연희고지와 망우리, 구의동 일대의 북괴군 저지진지를 공격하는 한편, 시가지로 돌입하여 삼각지와 남대문, 회현동 일대의 잔적을 격멸하고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였으며, 28일에는 전 시가지를 장악하여 수도 서울이 피탈된 지 90일 만에 이를 완전히 수복하였다.

이 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북괴군은 산악지대의 소로를 이용하여 총퇴각하게 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은 이들을 추격하며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27. 원산 탈환작전 (1950. 10. 10.)

원산 탈환작전은 북진 당시, 맨 먼저 38도선을 돌파하여 동부전선으로 진격한 국군 제1군단이 원산에서 북괴군 제12사단을 주축으로 한 경비여단과 육전대 등 20,000명에 가까운 패잔병 집단을 격퇴하고 원산을 탈환한 공격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국군 제1군단은 국군 제3사단으로 하여금 동측방

에서 해안선을 따라 진격하도록 하고, 국군 수도사단은 신고산을 넘어 서측방으로 돌입하게 하여, 단 하루 만에 원산을 탈환하고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로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북괴군의 퇴로를 봉쇄하게 되었으며, 동해의 양항인 영흥만을 장악하게 되었고, 아울러 평원선이나 원라선으로 이어지는 전과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28. 금천 전투(1950. 10. 12.~14.)

금천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평원선으로 향해 진격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미 제1군단 예하의 미 제1기병사단이 개성 북방의 금천 지역에서 북괴군 3개 사단(제19·제27·제43사단)의 혼성병력을 맞아 이를 격퇴하고 북으로의 진로를 개척한 공격전투이다.

북진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은 금천—사리원—평양 축선으로 진격하던 중, 금천 지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동반한 북괴군 3개 사단 혼성병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전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2개 연대 병력으로 금천을 포위하는 한편 1개 연대를 금천 북쪽의 간포리로 진출시켜 북괴군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한 후, 집중공격을 가하여 이들을 격멸하였다.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빠져나간 북괴군을 간포리의 매복부대가 재차 기습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교전으로 말미암아 미 제1군단의 평양 탈환작전이 3일간이나 지연되어 평양 일대의 북괴군부대들이 청천강 북쪽으로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말았다.

29. 평양 탈환작전(1950. 10. 17.~19.)

평양 탈환작전은 북진 당시, 서부전선으로 진격한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중부전선으로 진출한 국군 제7사단 제8연대와 함께 평양을 포위공격하여 북괴군 제17사단과 제32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8,000여 명의 혼성부대를 격퇴하고 평양을 탈환한 공격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국군 제1사단은 평양 동측방으로 진입하고 미 제1기병사단은 남쪽에서 흑교리로 진격하였으며 국군 제8연대는 북쪽으로 진입하여 3면에서 포위공격을 가하여 평양을 탈환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은 맨 먼저 평양시내로 돌입하여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저항하는 북괴군을 격멸한 다음 북괴의 주요관서와 미립 비행장 그리고 평양 비행장 등 주요시설들을 조기에 점령함으로써 평양 탈환작전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이 작전으로, 북괴군은 평양에서 후퇴하여 청천강 북쪽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한·만 국경선으로 향한 진격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30. 숙천·순천 공수작전(1950. 10. 20.~22.)

숙천·순천 공수작전은 미 제1군단이 평양을 탈환한 직후, 유엔 군사령관의 명에 의하여, 평양에서 빠져나간 북괴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북괴군측에 억류되어 있던 유엔군 포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실시된 공수작전이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 제8군의 예비로 서울 근교에서 대기중이던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 소속 장병 4,220명이 10월 20일 12:00에 C-119 수송기 편으로 김포 비행장을 이륙하여 평양 북

방 56km 지점의 숙천과 순천 지역에 투하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북괴군의 주력이 아직 숙천과 순천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수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기대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북괴군의 철수를 엄호중이던 북괴군 제239연대 소속 병력의 일부만을 격멸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심리적 효과는 대단하여, 북괴군 패잔병 부대들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 수뇌부 요인들까지도 강계 지역 북방으로 도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1. 희천 전투(1950. 10. 23.)

희천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한·만 국경선으로 향한 진격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희천 지역에서 북괴군 제18사단 소속의 1개 연대 병력을 격퇴하고 희천을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제7연대는 1개 연대 규모의 북괴군 혼성부대를 3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격퇴하고 다수의 포로를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T-34형 전차 20대와 화차 6량분의 보급품을 노획하는 등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제2군단의 목표이자 만포선상의 요지인 희천을 탈환하였으며, 아울러 강계—만포진 축선과 온정리—초산 축선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32. 초산 전투(1950. 10. 23.~26.)

초산 전투는 한·만 국경선으로 향한 진격작전이 개시된 후,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희천으로부터 초산으로 전진하던 중, 초산

천 연변에서 북괴군 제8사단 소속의 혼성부대를 격퇴하고 압록강 연안의 초산을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제7연대는 10월 26일 고장을 출발하여 초산으로 향하던 중 초산천 연변에서 저항하던 북괴군 연대규모의 혼성병력을 2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격퇴시킨 후, 초산으로 돌입하여 압록강 변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한·만 국경선에 도달한 최선봉부대가 되었다.

이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지 41일 만에 국경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국경선에 위치한 압록강 변의 초산을 확보하여, 전국민들에게 큰 감격을 안겨주었다.

33. 온정리 전투(1950. 10. 25.~28.)

온정리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한·만 국경선을 향하여 진격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압록강 연안의 벽동을 목표로 전진하던 중, 온정리 북방의 동림산 일대에서 중공 제40군의 반격을 받아, 국군 제6사단 제2연대와 제19연대 그리고 제8사단 제10연대가 온정리 일대에서 이들 중공군과 4일 동안을 대결하게 된 방어전투이다.

최초에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양수동 일대에서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온정리로 밀리게 되자, 희천에 위치한 제6사단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가 증원차 출동하여 제2연대를 구출하고 이들 중공군을 격퇴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에 봉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방어에도 실패한 채 청천강 북안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국군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었다.

34. 운산 전투(1950. 10. 25.~11. 1.)

운산 전투는 중공군이 한국에 침입하여 최초로 전선에 출현하였을 때,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구룡강 연안의 운산 지역 일대에서 중공 제39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1주일 동안에 걸쳐서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최초에 국군 제1사단이 청천강을 건너 한·만 국경선의 수풍 발전소를 목표로 진격작전을 전개하던 중 운산 북쪽에서 중공 제39군과 조우하여 교전을 벌이다가 뒤로 밀리게 되자, 미 제1기병사단이 증원차 출동하여 국군 제1사단과 함께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한·미 양사단은 1주일 동안 중공군의 침입을 저지하며 그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으나 결국에는 방어에 실패하고 대부분의 장비를 잃은 채 영변과 용산동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 제8기병연대는 운산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과반수의 병력을 손실하였다.

이 전투로, 미 제8군은 진격작전을 중지하고 청천강 연안으로 병력을 철수시켜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중공군은 전과를 확대하여 구장동—영변—용산동 선까지 침입하게 되었다.

35. 정주 전투(1950. 10. 29.~30.)

정주 전투는 미 제1군단이 청천강을 도하하여 신의주와 수풍 발전소를 목표로 진격전을 전개할 당시, 신의주 정면으로 전진한 영연방 제27여단이 정주 지역에서 북괴군 제17기갑사단 소속의 보·전 협동부대를 격퇴하고 정주를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영연방 제27여단 소속의 호주군대대는 대대장을 비롯하여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단 소

속의 영국군 아길 대대와 함께 북괴군 보·전 협동부대를 공격하여 정주를 탈환하였으며, 많은 포로와 노획품 등을 획득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정주를 탈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에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부딪혀 미 제1군단의 국경선 진출은 이 곳에서 좌절되었다.

36. 비호산 전투(1950. 11. 2.~4.)

비호산 전투는 중공군이 한국에 침입하여 온정리와 운산에서 초전에 승리한 후, 청천강 부근까지 침공하였을 때, 군우리로 집결한 국군 제7사단이 군우리 동측방의 비호산에서 중공 제38군의 공격을 격퇴하여 중공군의 기세를 꺾어 놓은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미 제1군단 포병들의 지원하에 3일 동안의 격전을 치른 끝에 중공군 2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특히 진내전까지 벌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여 미 제8군의 동측방을 방호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 제7사단은 유엔군이 청천강 북안에서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미 제8군의 공세 이전을 위한 다음 단계의 작전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37. 혜산진 전투(1950. 11. 21.)

혜산진 전투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서부전선에서 미 제8군과 제1차전을 치른 후 청천강 부근에서 상호 대치하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소속의 미 제17연대가 진격을 계속하여 갑산과 혜산진에서 북괴군 제42사단과 제126사단 소속의 패잔병 집단을 격퇴하고 혜산진을 탈환한 공격전투이

다.

이 전투에서, 미 제17연대는 전진 도중, 험준한 산악지대를 돌파하여야 하는 지형적인 악조건과 적설로 뒤덮인 협곡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고난을 극복하며 계속 진격한 끝에 북괴군 연대규모의 패잔병 집단을 격멸하고 혜산진을 탈환하였다.

이 전투로, 미 제17연대가 유엔군부대로서는 최초로 국경선에 도달한 부대가 되었으며, 유엔군사령관의 축하 전문이 타전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한국전쟁이 곧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게 되었다.

38. 영원 전투(1950. 11. 25.~27.)

영원 전투는 중공군이 침입하여 청천강 일대에서 미 제8군과 결전을 벌이게 되었을 때, 미 제8군의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8사단이 묘향산 동측방의 영원 지역에서 중공 제42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3일 동안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당시, 국군 제8사단은 미 제8군의 최중공세에 참가하여 영원에서 회천으로 진격하던 중 중공군의 반격이 개시되자, 영원 북방의 양감령과 고성산 일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중공 제42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때, 동남방의 맹산 지역이 돌파되어 방어에 실패하고 가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중공군의 인해공격으로 말미암아 3개 연대가 크게 분산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특히 미 제8군의 동측방을 방호하는 데 실패하여 전세를 크게 그르치고 말았다.

이 전투의 결과, 중공군은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청천강 남쪽으로 침입하고, 미 제8군은 우측방으로부터 포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39. 덕천 전투(1950. 11. 25.~27.)

덕천 전투는 중공군이 한국에 침입하여 청천강 부근에서 미 제8군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을 때, 덕천 지역 정면을 담당한 국군 제7사단이 중공 제38군과 맞서 3일 동안에 걸쳐서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7사단은 미 제8군의 최종공세 때 미 제8군의 일원으로 덕천 지역에서 회천으로 향해 진격하던 중 중공군의 반격이 개시되자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덕천 북방의 묘향산 일대에서 중공 제38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이때, 배후에서 기습을 받게 되어 방어에 실패하고 북창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산악지 전투와 야간전투의 미숙으로 고전을 겪었으며, 특히 후방의 지휘소는 중공군의 기습을 받게 됨으로써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철수명령도 제대로 하달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을 입고 물러서게 되었다.

그 결과, 중공군은 묘향산 일원을 장악하게 되었고, 미 제8군은 동측방으로부터 배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40. 와원 전투(1950. 11. 27.~30.)

와원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일대에서 중공군과 맞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덕천 지역의 국군 제7사단 전선이 돌파되어 미 제8군의 동측방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군우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터키여단이 증원차 덕천으로 향하다가 그 중간지점인 와원에서 중공 제38군과 조우하여 이들의 침공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터키여단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최초로 중공군과 대결하게 된

이 전투에서, 터기여단 장병들은 그들의 4배가 넘는 중공군과 맞서 격전을 치르는 사이에 1/3의 병력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원에서 신립리로, 다시 신립리에서 봉명리로 축차적인 철수를 해 가며 지연전을 전개한 끝에 중공 제38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 전투의 결과로, 중공군은 군우리 진출이 5일간이나 지연되어 작전상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미 제8군은 청천강 이북의 군 주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얻게 되었다.

41. 장진호 전투(1950. 11. 27.~12. 11.)

장진호 전투는 미 제8군이 서부전선에서 중공 제13병단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 예속되어 있던 미 제1해병사단이 서부전선부대와 접촉을 유지하려고 장진호 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 제9병단의 공격을 받고, 7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이 포위망을 형성한 장진호 계곡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2주일 동안에 걸쳐 치른 철수작전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혹심한 추위를 무릅쓰고 유담리로부터 진흥리까지 40km가 넘는 협곡지대에 겹겹이 에워싸인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유엔 공군의 항공 근접지원하에 과감한 돌파작전을 전개하여 함흥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의 함흥 지역 진출이 2주일간이나 지연됨으로써, 동북지방으로 진격하였던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이 홍남으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으며, 곧 이어 개시된 홍남 철수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42. 군우리 전투(1950. 11. 29.~12. 1.)

군우리 전투는 미 제8군이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패하여 철수하게 되었을 때, 엄호부대로 군우리에 남아 있던 미 제2사단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중, 군우리—순천 간의 협곡지대(태형의 계곡)에서 중공 제42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2일 동안에 걸쳐 전개한 철수작전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정확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태형의 계곡으로 들어섰다가, 먼저 그 곳을 점령하고 있던 중공군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진퇴유곡에 빠지게 되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장비의 손실을 입은 채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미 제2사단은 한국전쟁에 참 이후 최대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미 제8군의 주력은 철수가 가능하였으며, 다음 단계의 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었다.

43. 흥남 철수작전(1950. 12. 5.~24.)

흥남 철수작전은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중공군에게 패하여 38도선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미 제3·제7·제1해병 사단)과 국군 제1군단(수도·제3사단)이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하여 38도선 남방으로 병력을 재전개시킨 철수작전이다.

이 작전은,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계곡에서 철수작전을 전개하여 중공 제9병단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흥남 지역으로 집결한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이 함흥 외곽지대에 타원형의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해병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해상철수를

개시하여 12월 24일 마지막 철수부대가 승선할 때까지 근 20일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철수작전에서, 한·미 양군은 105,000명의 병력과 17,000대의 차량, 91,000명의 피난민과 350,000톤의 화물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작전의 결과로, 국군과 유엔군은 전투력을 보존하여 다음 단계의 작전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공 제9병단은 장진호로부터 함흥 지역 외곽지대에 이르는 사이 연속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그 후 5개월 동안 전선에 나타나지 못하였다.

44. 원주 전투(1951. 1. 6.~12.)

원주 전투는 중공군의 침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북위 37도선까지 후퇴하고 있을 때,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이 원주 남쪽의 관설리와 서곡리, 흥동리 일대에서 우군 철수부대를 엄호한 후, 원주를 공격하여 북괴군 3개 사단(제2·제9·제31사단)의 혼성병력을 격퇴하고 원주를 탈환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배속, 프랑스대대, 네덜란드대대)은 미 제37포병대대의 지원하에 북괴군 3개 사단과 1주일간의 공방전을 전개하여 원주를 탈환하였으며, 북괴군은 많은 손실을 입었다. 미 제2사단은 그 곳에서 영주와 안동 지역으로 침투하려는 북괴군 유격부대의 후방지역 침투를 봉쇄하였으며, 원주—제천 축선과 원주—충주 축선의 주요도로를 확보하여 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이 전열을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시련기에, 미 제2사단이 원주 지역에서 북괴군의 남침을 저지하여 공산군으로 하여금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음으로써, 아군은 공세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북괴군과 중공군은 이 전투를 고비

로 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일단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45. 수리산 전투(1951. 2. 1.~2.)

수리산 전투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1951년 1월 25일부터 재반격작전을 전개하여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미 제25사단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이 수원 서북방의 수리산을 공격하여 중공 제50군 예하의 제149사단을 격퇴하고 수리산으로 진출한 공격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은 미 제999포병대대와 미 제89전차대대의 지원하에 수리산을 양익포위하여 중공 제149사단의 거점을 공격한 끝에 완강히 저항하는 증강된 연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목표를 탈취하였으며, 목표 탈취 직후 개시된 중공군의 역습도 물리쳤다.

이 전투의 결과로, 중공군은 수원 지역에서 물러나 안양 북방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한강 선으로의 진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46. 횡성 전투(1951. 2. 5.~12.)

횡성 전투는 한강 이남으로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이 재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다시 한강 연안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미 제10군단 통제하의 국군 제8사단이 횡성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홍천 방면으로 진격하던 중 중공군의 2월공세(1951. 2)에 부딪치게 되자, 횡성 북쪽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중공 제40군과 제66군의 침공을 저지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고 원주 지역으로 철수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정확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홍천으로 향하여 진격하던 중 대삼아치와 성지산 부근에서 중공군

6개 사단의 반격을 받아 부대가 포위되자, 오음산·창봉리·증안리 일대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군 제8사단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원주 방향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때 18km에 달하는 광정면에 전개되어 있던 국군 제8사단의 병력은 각개행동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국군 제8사단은 원주 남쪽의 주천리로 물러나 일단 부대를 수습한 다음 다시 대구로 이동하여 재편성을 실시한 후, 후방의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게 되었으며, 중공군은 횡성 남쪽의 원주와 지평리로 진출하여 2월공세를 계속하였으나 지평리에서 이들의 공세는 저지되었다.

47. 지평리 전투(1951. 2. 13.~16.)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의 1951년 2월공세 당시에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배속된 프랑스대대와 함께 원주 북방의 지평리에서 중공 제39군 예하 3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막아 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는 좌우인접부대가 중공군의 공격에 밀려 철수하게 됨에 따라 중공 제39군의 사면포위하에 놓이게 되었으나, 지평리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병력을 전면방어태세로 배치하여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고립상태에서 4일 동안이나 막아 내었으며, 그 후 미 제5기병연대가 후방으로부터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그 곳까지 진출함으로써 전선의 연결이 이루어져 중공군의 2월공세를 막아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2월공세에 실패하였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전세를 만

회할 수 있게 되어 재반격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48. 사창리 전투(1951. 4. 22.~24.)

사창리 전투는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1951 4.) 당시, 국군 제6사단이 가평 북방의 사창리와 화악산 일대에서 중공 제20군 예하 3개 사단(제58·제59·제60사단)과 제40군 예하 제120사단 등 4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3일 동안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6사단은 이 전투가 개시되기에 앞서, 미 제9군단의 작전 계획에 따라 사창리 북방의 와이오밍 선으로 진격을 계속하던 중, 중공군의 반격(제1차 춘계공세)을 받게 되자 사창리 부근의 명월리와 광덕리 일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그 곳에서, 국군 제6사단은 급편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방어에 실패하고 사창리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병력과 야포와 각종 차량 등이 협소한 사창리 계곡으로 밀려들게 됨에 따라 큰 혼란이 야기되고 지휘 체계가 와해되었다.

그 후, 국군 제6사단은 일부 수습된 병력을 화악산과 석용산에 배치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고 가평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국군 제6사단은 큰 타격을 입고 가평에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으며, 중공 제20군은 가평과 청평 간의 주요 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평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49. 적성 전투(1951. 4. 22.~25.)

적성 전투는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때, 영연방 제29여단과

동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 대대가 임진강 연안(적성—도감포)에서 중공군 제65군의 공격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임진강을 도하하여 감악산을 점령한 후, 다시 동두천 방면으로 진출하여 연천과 철원 지역에서 철수중인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으나, 영연방 제29여단은 감악산 서쪽의 설마리 계곡과 235고지에서 중공 제65군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며, 그 동안 미 제1군단의 주력은 안전하게 철수하여 서울 북방에 견고한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 전투로, 영연방 제29여단의 글로스터 대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으나 미 제1군단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여,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서울 북방에서 저지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50. 가평 전투(1951. 4. 23.~25.)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에 감행된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시에 사창리 지역의 국군 제6사단 전선이 돌파되어 이 지역으로 침공한 중공 제20군이 가평 방면으로 돌파구를 확대하고 있을 때, 영연방 제27여단이 가평천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이들의 침공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영연방 제27여단은 뉴질랜드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호주군 대대와 캐나다군 대대, 영국군 미들섹스 대대 등 3개 대대 병력으로 3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하여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한편,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경춘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 제20군은 제1차 춘계공세시에 가평 지역 남쪽의 북한강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은 노내임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

었다.

51. 현리 전투(1951. 5. 16.~22.)

현리 전투는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 당시, 인제 남방 가로리에서 가리봉 간을 방어중이던 국군 제3군단(제3·제9사단)이 중공군 2개 군(제1·제27군)과 북괴군 3개 사단(제6·제12·제32사단)의 공격을 받고 방어에 실패한 후 하진부리 부근까지 후퇴하게 된 철수작전이다.

이 전투에서, 북괴군과 중공군은 국군 제3군단 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서측방으로 투입하여 군단의 주보급로인 오마치고개를 점령함으로써, 퇴로를 차단당한 국군 제3군단은 전방의 압력에 밀려 현리에서 분산된 채 산악지대를 따라 60 km를 후퇴한 후 하진부리 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국군 제3군단은 지휘체계가 와해되고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주요장비를 거의 파기 또는 유기하게 되었으며, 북괴군과 중공군은 속사리와 강릉 지역에 이르는 큰 돌파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52. 벙커고지 전투(1951. 5. 16.~19.)

벙커고지 전투는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 당시,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흥천 북방의 벙커고지(778고지) 일대에서 중공 제12군의 침공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38연대는 벙커고지 일대에 중포화력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벙커고지 동쪽의 속사리와 강릉 선까지 돌파구를 형성한 중공군이 흥천 방면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이 전투중, 미 제38연대 K중대는 벵커고지를 피탈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때에는 전병력이 벵커에 들어가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고지 위의 중공군을 화력으로 격퇴하면서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끝내 홍천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한 채 공세가 꺾이었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한 후 곧 반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53. 용문산 전투(1951. 5. 18.~21.)

용문산 전투는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1951 5)시, 양평 북방의 용문산을 방어중이던 국군 제6사단이 중공 제63군 예하 3개 사단(제187·제188·제189사단)의 침공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용문산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는 한편, 경계부대를 용문산 전방의 홍천강과 청평강 남안으로 추진 배치하여 방어에 임하고 있던 중, 중공 제63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경계부대인 제2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경계지대내에서 중공군을 타격하게 하였다.

그 후, 이 사단은 중공군의 전투력이 약화된 기회를 포착하여 주저항선상의 사단 주력으로 반격을 가해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 교전에서 경계부대인 제2연대는 353고지와 427고지에서 전면 방어태세로 3일간을 지탱하면서 중공군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고 주저항선을 기만하여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 제63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가평 북방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6사단은 공세로 이전하여 이들을 추격, 가평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60km를 진출하는 동안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54. 대관령 전투(1951. 5. 22.~25.)

대관령 전투는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가 개시된 후 현리 지역의 작전에 실패한 국군 제3군단이 하진부리와 속사리 부근으로 후퇴하고 있을 때, 설악산을 방어중이던 국군 수도사단이 급거 강릉 지역으로 남하하여 대관령 일대에서 북괴군 제12사단과 중공 제27군의 진출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수도사단은 국군 제3군단 전선이 돌파된 직후 설악산에서 오대산으로 남하하여 북괴군의 강릉 지역 진출을 저지하고 있던 중, 국군 제3군단 지역 돌파구가 평창과 정선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자 급거 대관령으로 이동하여 그 곳으로 진출중이던 중공군 제27군 소속 2개 연대 규모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뒤이어 실시된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 북괴군의 공격을 5일 동안의 교전 끝에 격퇴하고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제12사단과 중공 제27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오대산 방면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국군 수도사단은 곧 이어서 개시된 반격작전에서 오대산을 탈환한 후 향로봉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55. 도솔산 전투(1951. 6. 4.~19.)

도솔산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후 캔사스 선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국군 해병 제1연대가 양구 북방의 도솔산에서 북괴군 제12사단 소속의 1개 연대 병력을 격퇴하고 도솔산을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해병 제1연대는 포병화력으로 증강된 4,200명의 북괴군이 도솔산 일대에 구축해 놓은 강력한 진지를 돌파하는

동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16일간의 끈질긴 공격 끝에 1개 연대 규모 이상의 북괴군을 격멸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대암산과 도솔산에서 물러나 가칠봉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국군 해병 제1연대는 펀치볼 남쪽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56. 향로봉 전투(1951. 8. 18.~24.)

향로봉 전투는 한국전쟁이 교착전 단계로 접어든 직후에,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이 향로봉 북쪽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24고지와 884고지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북괴군 제13사단과 제45사단을 격퇴하고 남강 선으로 진출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양사단은 155밀리 야포 사격에도 견딜 만큼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해 놓고 저항하는 북괴군을 공격하는 동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까지 받아 가며 1주일 동안의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그 진지에 배치된 북괴군을 격멸하고 924고지와 88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큰 타격을 입고 남강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향로봉 일대의 주요 고지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57. 피의 능선 전투(1951. 8. 18.~9. 7.)

피의 능선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진출한 후,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양구 북방의 피의 능선(983고지—940고지—773고지)을 공격하여 북괴군 제12사단과 제27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

이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북괴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피해를 봄으로써 피의 능선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한·미 양군은 3주일 동안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편치불 북쪽 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한·미 양군은 피의 능선을 장악하여 백석산과 대우산 간의 측방도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58. 편치불 전투(1951. 8. 31.~9. 20.)

편치불 전투는 한국전쟁이 교착전 단계로 접어든 직후에,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해병 제1연대가 양구 북방의 해안분지(편치불)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전리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북괴군 제1사단을 격퇴하고 헤이스 선으로 진출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한·미 해병들은 지형상으로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북괴군의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는 동안, 적의 탄막사격과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으나, 사단포병과 미 제1해병비행단의 항공 근접지원하에 3주 동안의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끝에 북괴군 제1사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동부전선의 요지인 해안분지에서 물러나 간무봉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한·미 해병은 해안분지 북쪽으로 진격하여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되었다.

59. 가칠봉 전투(1951. 9. 4.~10. 14.)

가칠봉 전투는 전선이 교착된 후, 국군과 유엔군이 주저항선 전

방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국군 제5사단이 양구 북방의 가칠봉을 공격하여 북괴군 제27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은 제26포병대대의 지원하에 가칠봉을 공격하여 북괴군 제27사단을 격퇴하고 초전에 목표를 탈취하였으나, 그 후 북괴군의 역습을 받게 되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40여 일 동안의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쌍방 공허막대한 인명의 손실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5사단은 지속적인 공방전을 전개하여 가칠봉을 확보한 후 군단의 통제선인 헤이스 선으로 진출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가칠봉에서 쌍두령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편치불 북서쪽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60. 단장의 능선 전투(1951. 9. 13.~10. 13.)

단장의 능선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프랑스대대가 양구 북방의 단장의 능선(894고지—931고지—851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북괴군 2개 사단(제6·제12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공격중 북괴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격전을 치르게 되었으나, 30만 발에 달하는 포사격지원과 항공 근접지원을 받아 가며 1개월 동안에 걸친 끈질긴 공격 끝에 북괴군을 격퇴하고 단장의 능선을 확보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 2개 사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지혜산 방면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미 제2사단은 가칠봉과 백석산 사이에 국군측으로 돌출되어 있던 전선을 조정하게 되었다.

61. 백석산 전투(1951. 9. 24.~10. 1.)

백석산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백석산에 배치되어 있던 북괴군 2개 사단(제32·제12사단)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개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국군 제16포병대대와 미 제96포병대대 A 포대의 지원하에 백석산을 공격하여 그 곳에 배치되어 있던 북괴군 제32사단을 격퇴하고 그 주봉인 1142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적의 역습을 받게 되어 4일 동안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백석산을 다시 북괴군에게 빼앗기고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게 되자, 국군 제8사단이 임무를 교대하여 재공격을 감행, 2일 동안의 격전을 치른 끝에 백석산 일대의 북괴군을 격멸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북괴군은 어은산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백석산을 확보하여 보다 유리한 지역에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62. 월비산 전투(1951. 10. 12.~15.)

월비산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국군 수도사단이 간성 북방의 월비산을 공격하여 북괴군 제19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탈취한 공격전투이다.

이 월비산은 건봉산에서 동해안으로 뻗어 내린 돌출부이자 남강을 건너 고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요지이었으므로, 북괴군측에서도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저항을 시도하여 쌍방간에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국군 수도사단이

우세한 화력지원하에 4일 동안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전 전선의 최북단(서부전선보다 80km 북쪽)에 위치한 월비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북괴군은 남강 북쪽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63. 949고지 전투(1951. 11. 17.~18.)

949고지 전투는 1951년의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전 전선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 백석산 서쪽에 형성되어 있던 전선을 949고지까지 밀어올리기 위하여,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의 협조된 작전으로 추진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9군단 통제하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0군단 통제하의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가 제6사단장의 지휘하에 백석산 서쪽의 북한강 연안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949고지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중공 제68군 소속의 제202사단과 제204사단의 진지를 돌파하고 공격개시 2일 만에 949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어은산 북쪽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국군은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조정하여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64. 크리스마스고지 전투(1951. 12. 25.~52. 2. 13.)

크리스마스고지 전투는, 휴전회담에서 군사분계선 문제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조인되어(1951. 11. 27) 1개월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타의제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을 때, 어은산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중공 제204사단이 백석산 북쪽에 돌출되어 있는 국군 제7사단의 전초진지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후 2회에

걸쳐 교전을 벌이게 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크리스마스 휴무일을 이용한 중공 제204사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전초진지(크리스마스고지)에서 3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후 이들을 격퇴하였으며, 그 후 1952년 2월에 또 한 차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 역시 3일간의 교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이 전초진지의 방어에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더 이상의 전선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전선에는 휴무가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65. 사천강 전투(1952. 4. 1.~11. 1.)

사천강 전투는 195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초진지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판문점으로부터 임진강 하구까지의 11km에 달하는 주저항선을 방어하던 국군 해병 제1연대(미 제1해병사단의 좌일선연대)가 주저항선 전방의 8개 전초진지에서 중공군 2개 사단(제194·제195사단)과 대결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해병 제1연대는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으로 말미암아 8개 전초 가운데 원거리 전초(주저항선 전방 3km) 4개를 상실한 후, 근거리 전초(주저항선 전방 1km) 4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던 중, 이들의 재공격을 받게 되자 진내사격을 유도하여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고 있는 국군 해병연대의 전초선을 돌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군 해병연대는 휴전시까지 사천강 동안의 전초와 주저항선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66. 불모고지 전투(1952. 6. 26.~8. 1.)

불모고지 전투는 연천 북방의 천덕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 제45사단이 방어중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모고지를 포함한 주저항선 전방의 11개 전초진지를 점령한 후 중공 제39군 소속의 3개 사단의 역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전초진지 중의 하나인 불모고지에서 미 제45사단과 미 제2사단이 차례로 이들의 역습을 저지해 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45사단은 최초 중공군 제115사단의 공격을 받고 3일 동안의 교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으며, 그 후 중공군 제116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자 진지를 교대한 미 제2사단이 2주일 동안의 교전 끝에 재차 이들을 격퇴하고 불모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과 중공군은 백병전까지 벌이는 격전을 치렀을 뿐 아니라 그위에 치열한 화력전이 전개되었으므로 쌍방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미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67.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1952. 7. 7.~10. 14.)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는, 휴전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쌍방간에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금성천 북쪽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확보하고 있던 국군 수도사단이 중공 제12군의 공격을 받고 3개월여에 걸쳐 치르게 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수도사단은 미 제5포병단의 화력지원하에 중공 제12군 산하의 제34사단과 제35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는

동안, 다섯 차례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빼앗기고 빼앗는 공방전을 치렀으며 끝까지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쌍방은 수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었으나 전투는 교전 이전의 원점에서 종결되고 말았다.

이 전투는 당시 진행중이던 휴전협상을 각기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지적인 쌍방의 대결이었으며, 결과는 유엔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68. 351고지 전투 (1952. 7. 10~11. 10.)

351고지 전투는 중부전선에서 진지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인 1952년 가을에, 동해안의 351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5사단이 북괴군 제9사단의 공격을 받아 두 차례의 격전을 치르게 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은 포병화력으로 증강된 북괴군 제9사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초전에 351고지를 피탈당한 후, 역습을 가하여 일시 진지를 회복하였으나 그 후 북괴군의 제2차 공격에서 351고지를 다시 피탈당하였다.

그 후 사단은 4차에 걸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339고지와 208고지를 연하는 선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하여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게 되었으며, 북괴군은 월비산 동측방 전선을 강화하게 되었다.

69. 고양대 전투 (1952. 9. 6.~12. 13.)

고양대 전투는 1952년 가을과 겨울철에, 중부전선에서 진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연천 북방의 임진강 북안에 방어진지

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이 고양대 일대의 전초진지(니키고지, 테시고지, 노리고지, 베티고지)에서 중공 제47군과 접전한 방어 전투이다.

가을철에 시작되어 겨울철까지 이어진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초전에 니키고지와 테시고지를 상실하고 그 직후방의 베티고지와 노리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중, 중공 제47군이 재차 공격을 감행하자, 국군 제1사단은 156,000여 발의 포격지원과 117회의 항공 근접지원을 받아 가며 끈질긴 공방전을 벌인 끝에 베티고지와 노리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에 제압당하여 공격을 중지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계속하여 고양대 방어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70. 854·812고지 전투(1952. 9. 21.~53. 6. 17.)

854·812고지 전투는 전선이 교착된 후 대진상태에서 진지전을 벌이고 있을 때, 국군 제8사단과 제12사단이 중동부전선의 서화리 계곡을 감제하는 854고지와 812고지에서 2차에 걸친 북괴군 제45사단의 공격을 받고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1952년 9월에 북괴군 제45사단으로부터 854고지와 812고지에 대한 공격을 받고 일시 854고지를 이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3일 동안의 교전 끝에 진지를 회복한 후, 미 제45사단에 진지를 인계하고 사창리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 국군 제12사단이 미 제45사단으로부터 다시 진지를 인수하였다.

국군 제12사단은 1953년 6월에 재차 북괴군 제45사단의 공격을 받고, 7개 포병대대의 화력지원과 유엔 공군의 항공 근접지원 그

리고 미 해군 전함 미조리호의 함포지원까지 받으면서 3주 동안의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854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812고지는 탈환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결짓게 되었다.

이 전투로, 쌍방간에 많은 피해를 내었으나, 전선에는 큰 변동 없이 국군이 812고지 주봉만을 상실한 상태에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었다.

71. 백마고지 전투(1952. 10. 6.~14.)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사상 가장 치열하게 진지전이 전개되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395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공 제38군의 공격을 받고 9일 동안에 걸쳐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 제39군 소속 3개 사단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아 이를 물리치는 동안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제1포병단의 화력지원과 유엔 공군의 항공 근접지원하에 완강히 대항하여 중공군 만여 명을 격멸하고 백마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 제9사단은 철의 삼각지의 좌변 일각인 철원 지역을 계속 장악하게 되었으며, 중공 제38군은 그들 제23군과 교대한 후 후방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72. 저격능선 전투(1952. 10. 14.~11. 24.)

저격능선 전투는 1952년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북괴군과 중공군이 대대적인 진지전을 전개하자, 국군과 유엔군측에서도 전투력의 위세를 보이기 위하여 국군 제2사단으로 하여금 김화 북방의 저격능선을 탈취하도록 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중공 제15군을 공격하여 초전에 목표를 점령한 후, 중공군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하여 42일 동안이나 그 고지에서 버티었다. 이 기간 중에 중공 제15군은 2개 연대 병력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국군 제2사단은 1개 연대 병력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겨울이 다가올 때까지 끈질기게 대결한 이 전투에서, 국군은 끝까지 저격능선을 확보하였으며, 중공군은 저격능선 직전방에서 대치한 채 공격을 중지하고 수색전으로 전환하였다.

73. 네바다 전초 전투(1953. 3. 28.~30.)

네바다 전초 전투는 1953년 3월에, 판문점 동북방의 네바다 전초지역(베가스 전초, 레노 전초, 카슨 전초)을 방어중이던 미 제1해병사단 제5해병연대가 전초진지로 침공한 중공 제120사단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5해병연대는 3월 26일 밤에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베가스 전초와 레노 전초를 상실한 후, 미 제7해병연대 1개 대대와 포병 및 공군의 지원하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미군 해병연대는 레노 전초 탈환을 일단 보류하고, 베가스 전초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목표를 탈취하였으며, 그 후 중공군이 3일 동안에 걸친 재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끝까지 베가스 전초를 확보하고 중공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 전투로, 중공군 제120사단은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미 제1해병사단 제5해병연대는 터키여단과 교대하고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74. M-1고지 전투(1953. 6. 10.~23.)

M-1고지 전투는 휴전 조인을 1개월 앞두고 북괴군과 중공군이 마지막 공세를 취하였을 때, 중동부전선의 선우고지(938고지)와 크리스마스고지를 방어중이던 국군 제20사단이 크리스마스고지 우측방의 전초진지(M-1고지)로 공격을 가해 온 중공군 제33사단을 물리친 방어전투이다.

6월 10일에 중공군의 선제공격으로 개시된 이 전투는 쌍방 공히 공격부대를 교대시켜 가며 14일 동안의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중공군은 이 고지를 22회 공격하여 16회를 점령하였고, 국군은 18회 공격하여 끝까지 진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 제2군단 지역에서 시작된 전투가 그 동쪽지역의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75. 화살머리고지 전투(1953. 6. 29.~7. 11.)

화살머리고지(281고지) 전투는 휴전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53년 여름철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2사단이 중공 제23군 예하 제73사단으로부터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공격을 받고 이들을 격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제1차 전투에서, 6월 29일 밤 국군 제2사단 제32연대가 중공 제73사단의 공격을 받고 방어에 실패하여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주저항선을 돌파당하자 제17연대가 이에 대한 역습을 실시하여 진지를 회복하였으며, 제2차 전투에서, 7월 6일 역시 제32연대가 화살머리고지를 피탈당하자 또다시 제17연대가 역습을 실시하여 5일 동안 격전을 치른 끝에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쌍방은 많

은 손실을 입었으며, 전선은 전투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2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고수 의지가 밝혀지자 중공군은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76. 금성 전투(1953. 7. 13.~20.)

금성 전투는 1953년 7월, 휴전이 임박해지고 있을 때, 금성 지역 북방에 위치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서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정치 목적과 중부전선에 돌출되어 있는 한국군 전선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공군 4개 군(제24·제60·제67·제68군) 산하 12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국군 5개 사단(수도·제5·제6·제8·제11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금성 지역의 돌출부에 대한 최후공세를 감행한 전투이다. 이 전투는 일명, 7·13공세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전투에서, 국군 5개 사단은 7월 13일에 대대적인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금성 돌출부의 양전부가 돌파되었으며, 뒤이어 후방의 지휘소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는 등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국군은 금성천 남쪽의 백암산과 주파령, 적근산 부근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6일부터 국군 제2군단이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미 제8군의 공격목표인 아이슬랜드 선(간진현—금성천—462고지)으로 진출하였으며, 원진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이 선에 머물게 되었다.

이 전투의 결과, 중공군은 약 40km 정면에서 평균 4km를 남하하여 금성천 북안의 주요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아이슬랜드 선 전방의 전초선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을 맞게 되었다.

77. 영흥만 소해작전(1950. 10. 10.~25.)

이 작전은 북진 당시 한국 및 유엔 해군이 실시한 소해작전의 하나로, 원산상륙 합동기동부대(제7합동기동부대) 소속 제95기동부대의 상륙에 대비하여 편성된 소해전대(TG-95 6)가 소련 해군 기뢰 전문가에 의해 영흥만에 부설된 2,000~3,000발의 각종 기뢰를 제거한 소해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소해전대는 한국 해군 소해정(YMS-516호)을 비롯한 3정의 소해정을 기뢰폭발로 잃는 등 악조건에 봉착하여 5일간으로 계획하였던 작전을 15일 만에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0월 20일로 계획되었던 미 제1해병사단의 원산 상륙이 6일간 지연되었다.

미 해군은 이 작전에서 두 가지의 새로운 소해전술을 시도한 결과, 함재기에 의한 폭탄 투하로 기뢰를 제거하려던 시도는 실패하였고, 소해작전시 기뢰 제거에 헬리콥터를 이용한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다.

78. 원산항 봉쇄작전(1951. 2. 14.~53. 7. 27.)

이 작전은 유엔 해군이 한국전쟁 전기간을 통하여 실시된 항만 봉쇄작전 가운데 대표적인 작전으로, 1951년 2월 16일부터 휴전시까지 실시되었던 원산항에 대한 항만봉쇄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 제7함대의 해안봉쇄부대(TF-95)는 항공강습부대(TF-77)의 함재기 지원하에 영흥만내에 위치한 전략도서를 점령하고, 대안에 대한 함포사격과 함재기의 항공폭격으로 원산항을 봉쇄하여 소련과 만주로부터 그 곳을 경유하여 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그 후, 유엔 해군은 소해정 4~5척, 구축함 2~3척으로 원산항을 계속 봉쇄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작전을 확대하여 3월 8일에는 성진항을, 4월 26일에는 흥남항을 봉쇄하였다.

이 작전으로, 공산군은 1952년 초 보병 3개 사단과, 포병 2개 여단을 원산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산군은 일선에서 그만큼 병력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

79. 전략도서 확보 작전(1951. 2. 13.~52. 2. 12.)

이 작전은 1951년 2월, 지상군이 중공군의 2월공세를 격퇴한 직후, 유엔 해군의 동해안과 서해안 봉쇄부대가 영흥만과 황해도 연안에 위치한 주요도서를 점령한 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국군과 유엔 해군은 1951년 2월~3월에 유엔 해군 구축함의 함포지원하에 국군 해병 독립제42중대를 동해안 영흥만에 있는 여도·신도·소도·대도·황토도에 상륙시켰다.

뒤이어 4월 초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서는 국군 해병 독립제41중대를 서해안의 교동도·백령도·석도에 상륙시켜 이들 도서를 확보하게 하였다. 그리고 8월 말에는 동해의 성진 앞바다에 있는 양도를, 1952년 1월~2월에는 서해안 진남포 해상의 초도와 호도를 각각 점령하게 하여 해안봉쇄작전의 기지로 활용하였다.

이 작전으로, 유엔 해군은 이들 도서를 해안봉쇄작전의 기지로 활용함으로써 동·서 양해안에서의 북괴 함정의 항해와 기뢰 부설을 저지하고, 국군과 유엔군 유격대의 활동기지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북한 지역에 추락한 항공기 조정사의 구출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80. 체로키 스트라이크 작전(1952. 10. 9.~53. 7. 27.)

이 작전은, 전선이 교착된 이후의 대전기에, 유엔 해군이 지상군 전선에 접근해 있는 목표물을 폭격 파괴하기 위하여 해군 함재기를 출동시켜 실시한 폭격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 제77기동부대(항모강습부대)는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작전능력의 30~50%를 이 작전에 할애하여 동일지역에 며칠간씩 반복 출격함으로써 공산군에게 기대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전투로, 유엔 공군은 기동중인 적 병력을 찾아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들 공격부대의 지원시설인 보급품 집적소·주둔지·포진지·벙커 등의 고정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81. 스트랭글(교살) 작전(1951. 8. 18.~52. 5. 30.)

이 작전은 휴전회담이 개시된 직후 공산군이 휴전회담의 개최로 전선이 소강상태를 이룬 틈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보급품과 장비를 전선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유엔 공군이 전선으로 연결된 북한내의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여 휴전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실시된 후방차단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 제5공군은 그들의 8개 비행단만으로는 공군력이 부족하여 미 극동해군과 미 극동공군폭격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1951년 8월 18일에 작전을 개시하여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파괴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산군측의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북괴군의 대공화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 작전에서 희생되는 미

전투기의 수가 보충되는 수를 상회하게 되자 10개월 만에 이를 중지하였다.

이 작전으로, 유엔군은 어느 정도 공산군의 보급수송을 차단 또는 지연시킬 수 있었으나, 공산측을 휴전협정에 끌어들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82. 사투레이트(차단) 작전(1952. 3. 3.~6. 30.)

이 작전은, 1951년 말에 유엔군의 전폭기들이 실시한 교살(스트랭글)작전을 분석한 결과, 공산군이 대규모작전을 전개하지 못할 정도로 보급물자의 수송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새로운 철도차단에 대한 전술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철로의 짧은 구간을 선정하여 주야간 계속 집중공격을 가하여 수리와 복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이 채택되어 실시하게 된 차단작전이다.

1952년 3월 초에 개시된 이 작전에서 유엔 공군의 폭격기들은 1일 평균 300대가 600개의 폭탄을 선정된 주요철도의 약 3km 구간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속 폭격을 실시하여, 작전 초기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한 북괴군의 대공포화로 많은 유엔군 전폭기의 손실(243대)이 발생하여 6월 말에 이 작전을 종결하였다.

이 작전으로 유엔 공군은 공산군의 각종 대구경화포의 화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그 전년에 비해 포격률이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이러한 차단작전은 별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83. 수력발전소 폭격작전(1952. 6. 23.~27.)

이 작전은 1952년 4월부터 휴전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되자, 6월에 이르러 그때까지 폭격이 금지되었던 목표를 포함한 북한내에 있는 모든 목표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공산군에게 최대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휴전회담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하여 실시된 대표적인 항공압력작전이다.

1952년 6월 미 극동공군은 미 제5공군, 미 해군 및 해병 함재기 등(동원 가능한 항공기) 500대 이상을 총동원하여 수풍·부전·장진·허천 발전소 등 4개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였으며, 그 후 이들 4개 주요 발전지역에 대한 폭격을 더욱 강화하여 15개 발전소 중 13개소를 완파하고 잔여 2개소에 손상을 주었다.

이 작전으로, 북한 지역 발전시설의 90%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북한은 근 2주 동안 전력공급이 완전 중단된 후 10%만이 회복되었고, 만주지역도 전력 공급량의 1/4이 감소되었다.

84. 평양 대공습작전(1952. 7. 11.~8. 29.)

이 작전은 1952년 7월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엔 공군이 실시한 항공압력작전의 일환으로서, 북괴의 수도 평양에 대규모의 폭격을 가한 폭격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 극동공군은 1952년 7월 11일 미 제5공군과 미 해군함재기 등 822대를 동원하여 프레스어 펌프 작전으로 명명된 제1차 평양 대공습을 실시하고, 뒤이어 8월 4일에 284대로 제2차 공습을, 그리고 8월 29일에 1,122대(한국 공군 36대 참가)로 제3차 평양 대공습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폭격 전에 평양 시민에게 군사목표인 평양을 떠나라

는 사전경고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후 실시되어 많은 심리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 작전으로, 폭격목표로 선정된 지휘소·보급품 집적소·생산공장·병사·철도시설·고사포 진지 등 30개 목표 중 93%에 달하는 군사목표가 복구 불능 상태로 파괴되었으며, 유엔 공군은 전투기 3대가 격추되고 27대가 손상을 입었다.

85. 저수지 폭격작전(1953. 5. 13.~29.)

이 작전은, 유엔군이 휴전협상에서 공산군측에게 유엔군측이 제시한 조건의 수락을 강요하기 위하여 실시한 최후 압력수단으로 농업용 관개 저수지에 가한 폭격작전이다.

5월 14일, 59대의 F-84 전투기가 평양 북방에 있는 덕산 저수지를 공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때 일어난 홍수로, 평양—신의주 간의 5개 철교와 국도 3km가 유실되었으며, 다음 2일간에는 F-86 전투기 126대가 덕산 저수지 동측방에 있는 자산 저수지를 공격하여 범람한 홍수로 평양—순천 간의 철로와 도로가 유실되었다.

이 작전에서, 미 극동공군은 보급로 차단작전에서 얻은 성과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후 수주간 신의주와 만포진으로부터 평양에 이르는 양개 주보급로가 차단되었다.

북괴군은 잔여 저수지의 물을 빼고 수위를 낮춤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그 해 북괴는 미곡 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 주요 전투 일람표

- | | |
|--------------|----------------|
| 1. 의정부 전투 | 25. 인천 상륙작전 |
| 2. 문산 전투 | 26. 서울 탈환작전 |
| 3. 춘천·홍천 전투 | 27. 원산 탈환작전 |
| 4. 강릉 전투 | 28. 금천 전투 |
| 5. 용진 전투 | 29. 평양 탈환작전 |
| 6. 미아리 전투 | 30. 숙천·순천 공수작전 |
| 7. 한강 전투 | 31. 회천 전투 |
| 8. 오산 전투 | 32. 초산 전투 |
| 9. 동락리 전투 | 33. 온정리 전투 |
| 10. 단양 전투 | 34. 운산 전투 |
| 11. 진천 전투 | 35. 정주 전투 |
| 12. 이화령 전투 | 36. 비호산 전투 |
| 13. 대전 전투 | 37. 혜산진 전투 |
| 14. 영덕 전투 | 38. 영원 전투 |
| 15. 화령장 전투 | 39. 덕천 전투 |
| 16. 영강 전투 | 40. 와원 전투 |
| 17. 안동 전투 | 41. 장진호 전투 |
| 18. 의성 전투 | 42. 군우리 전투 |
| 19. 다부동 전투 | 43. 홍남 철수작전 |
| 20. 마산 전투 | 44. 원주 전투 |
| 21. 영산 전투 | 45. 수리산 전투 |
| 22. 안강·포항 전투 | 46. 횡성 전투 |
| 23. 신녕 전투 | 47. 지평리 전투 |
| 24. 영천 전투 | 48. 사창리 전투 |

- | | |
|------------------|------------------|
| 49. 적성 전투 | 68. 351고지 전투 |
| 50. 가평 전투 | 69. 고양대 전투 |
| 51. 현리 전투 | 70. 854·812고지 전투 |
| 52. 병커고지 전투 | 71. 백마고지 전투 |
| 53. 용문산 전투 | 72. 저격능선 전투 |
| 54. 대관령 전투 | 73. 네바다 전초 전투 |
| 55. 도솔산 전투 | 74. M-1고지 전투 |
| 56. 향로봉 전투 | 75. 화살머리고지 전투 |
| 57. 피의 능선 전투 | 76. 금성 전투 |
| 58. 펀치볼 전투 | 77. 영흥만 소해 작전 |
| 59. 가철봉 전투 | 78. 원산항 봉쇄작전 |
| 60. 단장의 능선 전투 | 79. 전략도서 확보 작전 |
| 61. 백석산 전투 | 80. 체로키 스트라이크 작전 |
| 62. 월비산 전투 | 81. 스트랭글(교살) 작전 |
| 63. 949고지 전투 | 82. 사튜레이트(차단) 작전 |
| 64.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 83. 수력발전소 폭격작전 |
| 65. 사천강 전투 | 84. 평양 대공습작전 |
| 66. 불모고지 전투 | 85. 저수지 폭격작전 |
| 67.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 | |

주요 전투부대의 작전 및 전투경력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들은 한반도의 지·해·공 전역에서 수많은 작전을 치러 냈으며, 북괴군의 남침을 물리치고 국토를 원상상태로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들 부대 중 어떤 부대는 초전에 해체되었다가 다시 창설되기도 하였으며, 어떤 부대들은 전쟁 중에 창설되기도 하여, 한국군의 전력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전쟁 기간 중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들 부대들의 창설과 전쟁 기간 중 겪은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은 다음과 같다.

1. 육 군

(1) 수도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1949년 6월 20일 기갑연대, 제17연대, 포병대대 및 독립제1대대를 기간으로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었으며, 1950년 7월 5일에 수도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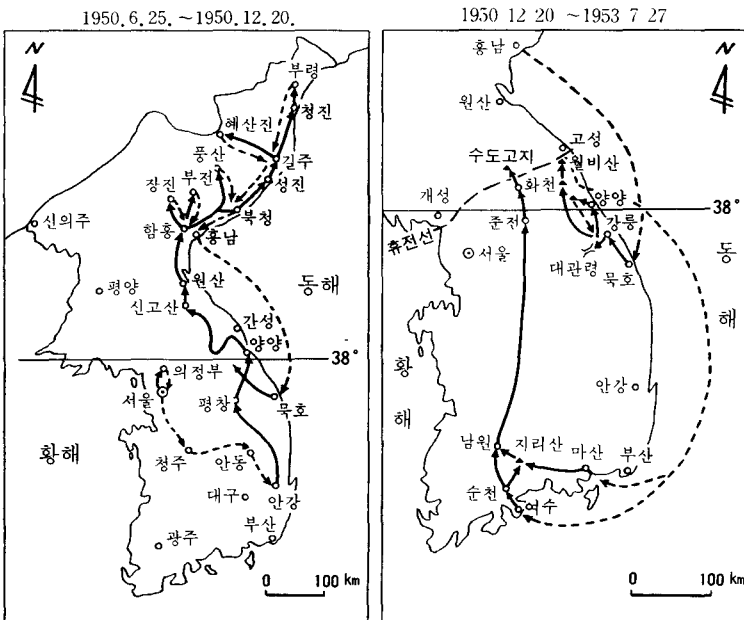
1950.

6. 25 ~ 6 28. ○의정부지구 전투 실시.

6. 29. ~ 7 4 ○한강 및 시흥 지구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
괴 제7사단의 남하를 6일간 지연.
7. 6. ~ 8 1. ○평택—진천—청주—보은—안동으로 철수.
- 8 9. ~ 9. 20. ○안강·기계 전투 실시.
9. 16 ~ 9. 30. ○도평리—영양—춘양—영월—평창—속사리로
반격.
10. 1. ○전군의 최선봉으로 제3사단과 함께 38도선
돌파.
10. 1. ~ 10 10 ○양양—간성—양구—화천—회양—신고산—안
변을 거쳐 10일 원산 점령.
- 10 13. ~ 11. 30. ○영흥—함흥—성진—길주—청진—부령 및 혜
산진까지 북진.
- 12 1 ~ 12. 17. ○중공군 개입으로 혜산진—홍남으로 철수,
17일 홍남항에서 묵호항으로 해상철수.
- 12 18 ~ 12. 20. ○묵호항에 상륙 후 양양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9사단의 양양—서림 방어선 인수.
12. 29. ○제26연대, 사단에 예속.
- 1951
1. 28. ○제18연대, 제3사단으로 예속 변경.
2. 3 ~ 3 24. ○삼척—강릉—하진부리—속사리로 반격.
- 3 26. ~ 4 15 ○제2차로 38도선을 돌파한 후 계속 진격하여
4월 15일에는 캔사스 선의 동단 남가리로
진출.
- 5 7. ~ 5 13 ○설악산 일대를 점령 확보.
- 5 16 ~ 5 25. ○중공군의 춘계공세시, 설악산 지역에서 대
관령 선으로 철수한 후,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
- 6 3. ~ 6. 12. ○향로봉 전투 실시.

- 8. 18. ~ 8. 23 ○미 제8군의 크리와 작전에 참가하여 사단의 목표인 924고지(서화리 동북)를 점령.
- 10. 12. ~10. 15. ○제1기갑연대가 4일간의 격전 끝에 북괴군 제19사단의 월비산 진지를 탈취.
- 11. 19 ○동해안 일대의 책임지역을 제11사단에게 인계하고 속초로 이동.
- 11. 26. ~11. 28. ○속초로부터 해상기동으로 마산과 여수로 이동.
- 12. 2. ~1952. 3. 14. ○호남지구(지리산·운장산·백운산·산청·함양)에서 공비소탕작전 실시.

수도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3. 17.~ 3. 18. ○화천으로 이동, 금성천 북안 미조리 선에 배치
7. 7.~10. 14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 실시.
10. 25.~12. 10. ○제2군단으로부터 미 제1군단으로 배속변경, 경기 양주로 이동, 11월 3일부터 9주간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12. 12.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9군단으로 배속변경, 강원 사창리로 이동, 일선 복귀.
- 1953.
1. 1.~ 7. 27. ○금화 동북지구 미조리 선 방어.
7. 13.~ 7. 27. ○금성지구 전투 실시.

(2) 제1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1여단은 1947년 12월 1일 제1연대(태릉), 제7연대(청주) 및 제8연대(춘천)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제1여단사령부는 서울 남산동에 위치하였다. 그 후 이 여단은 예하연대의 구성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1949년 5월 1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이때의 예하연대는 제11·제12·제13연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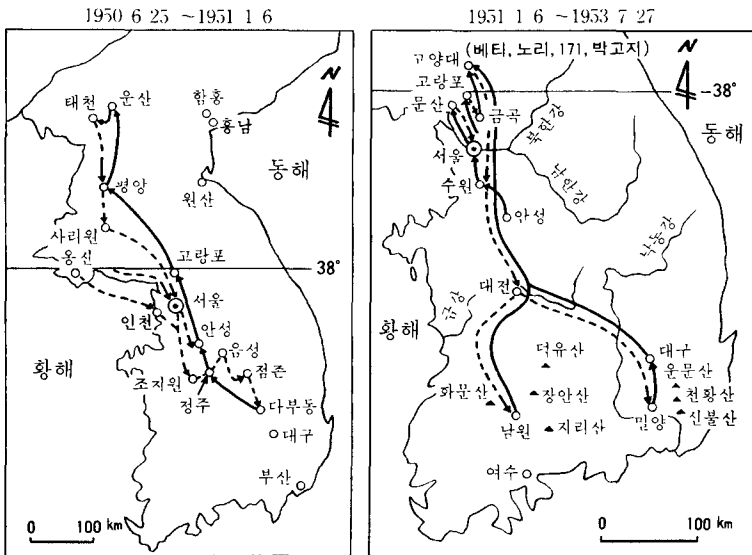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6. 25.~ 6. 30. ○개성·문산 지구 전투 실시.
7. 1.~ 8. 2 ○수원—평택—조치원—청주—음성—무극리—화령장—문경—낙동강으로 철수.
8. 3.~ 8. 29 ○다부동 전투 실시.

- 8. 30 ~ 9. 24 ○낙동강 선 방어.
- 9. 25.~10. 10 ○낙동강—보은—청주—안성—고랑포로 반격.
- 10. 11. ○38도선 돌파.
- 10. 11.~10. 19 ○평양 탈환작전 실시.
- 10. 22.~11. 2 ○평양—순천—개천—용산동—운산으로 북진.
- 11. 2.~11. 23 ○운산—청천강으로 철수 후 재진격.
- 11. 24.~1951
 - 1. 6. ○태천—용산동—안주—평양—사리원—남천점—고랑포—안양—입장(안성)으로 철수.
 - 1 30.~ 4 21. ○안성—안양—서울(탈환)—임진강(채사스 선)으로 반격.
 - 4 20 ~ 4 30. ○봉일천(임진강—서울 서북방)지구 전투 실시.

제1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5. 20 ~ 6. 24 ○임진강 선(켄사스 선)으로 전격.
 6. 25.~1952.
 4. 2. ○임진강 선 방어.
 4 3.~ 4 20. ○경기 파주 금곡리로 이동,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4. 21 ~ 7. 5. ○미 제1군단의 중앙우익지역(고양대 지역)방어.
 7. 13.~ 8. 4. ○전남 남원(지리산—덕유산—화문산 지구)과 경남 밀양(운문산—신불산 지구)지구에서 소탕작전 실시.
 8 12. ○경기 연천으로 이동,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10. 1 ○연천 서북방 임진강 S형 굴곡부 지역을 미 제3사단으로부터 인수.
 10. 6.~12. 10 ○테시·니키·노리 고지 전초전 실시.
 12. 11.~12. 13. ○노리·베티 고지 전초전 실시.
 1953.
 3 6.~ 3. 7. ○317고지 전초 공방전 전개.
 6 20.~ 6. 29. ○박·퀸 고지 전초 공방전 전개.

(3) 제2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2여단은 1947년 2월 1일 충남 대전에서 제2·제3·제4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 6. 26.~ 6. 28. ○26일 새벽, 사단의 예하 제5연대는 대전으로부터 의정부 북방 축석령으로, 제16연대는 청주로부터 축석령 못 미처 금호동으로, 제25연대는 온양에서 의정부 남방 백석천으로 진출하여 의정부 저지선을 구축하고 38도선으로부터 철수중인 제7사단을 엄호한 후, 창동을 경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면서 대부분의 병력이 분산.
- 7. 24. ○사단 해체.
- 11 7.~11. 13. ○제17·제31·제32연대를 기간으로 제2사단을 서울에서 재창설.
- 11. 7.~11. 20. ○포천—평강 지구에서 후방지역 잔적소탕작전 실시.
- 11. 27. ○제1·제2·제3경비대대, 사단에 편입.
- 12. 15. ○육본 직할로부터 제3군단으로 배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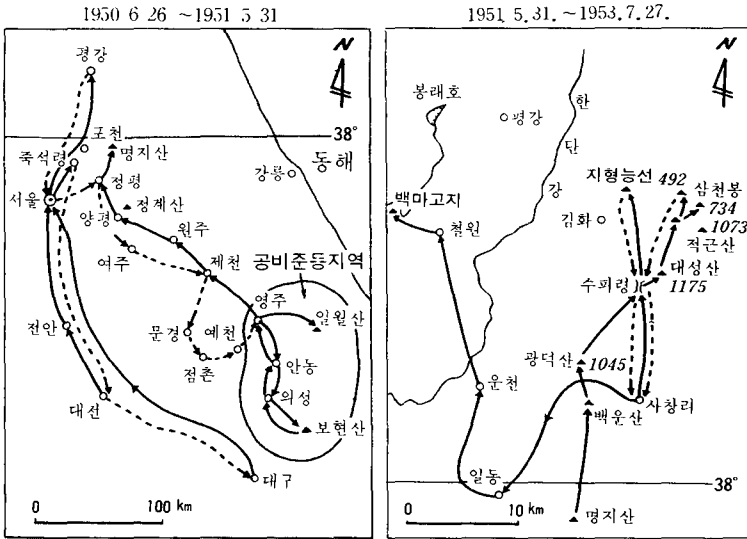
1951.

- 1. 3.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
- 1. 3.~ 1. 19 ○청평—여주—제천—점촌—예천으로 이동.
- 1. 20.~ 2. 3. ○제8사단 제21연대의 2개 대대를 배속 받아 일월산·보현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 실시.
- 2. 13.~ 2. 14.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육본 직할로 배속 변경, 의성으로 이동.
- 2. 28.~ 3. 8. ○제5·제6·제7 경비대대 및 국민방위군 독립제3연대를 배속받아 일월산·보현산 일대에 준동중인 공비소탕작전 실시.
- 3. 21.~ 3. 31. ○경북 영양 오미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 실시.

3. 30 ~ 4. 8. ○ 제17연대, 통고산 북쪽(평전)에서 공비소탕 작전 실시.
4. 6. ○ 안동—여주로 이동.
4. 20. ○ 제9·제10·제209경비대대 사단에 배속.
4. 26. ○ 영주에서 제천으로 이동, 부대집결(공비소탕임무 종료).
4. 28. ○ 제5·제6·제7·제9·제10 경비대대 및 방위군 제3연대를 배속 해제, 육본 직할로부터 미 제9군단으로 배속 변경.
5. 2. ○ 경기 양평으로 이동, 미 제24사단 예하 제21연대 작전지역(노네임 방어선) 인수, 전선 진출.
5. 15 ~ 5. 31. ○ 청계산(양평)—백운산(사창리) 진격전 전개.
6. 7. ~ 6. 13. ○ 광덕산—대성산—삼천봉으로 진격.
8. 2 ~ 9. 3. ○ 제1차 및 제2차 734고지 전투를 전개.
10. 13 ~ 10. 21. ○ 492고지(삼천봉 3.5 km 북쪽) 공격.
- 1952.
3. 30. ○ 작전지역을 미 제40사단에 인계하고 사창리로 이동(예비).
4. 21 ~ 6. 15. ○ 8주간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6. 28. ○ 미 제40사단 작전지역 인수, 전선 복귀.
10. 14. ~ 11. 24. ○ 저격능선 전투 실시.
11. 25. ○ 사창리로 이동(미 제9군단 예비).
12. 1. ~ 12. 20. ○ 3주간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12. 27. ○ 철원지구(백마고지—화살머리고지 지역)로 이동,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
- 1953
1. 10. ○ 제7포병단, 사단에 배속.

- 2. 8. ~ 2. 20. ○철원지구 전초 공방전 전개.
- 6. 29. ~ 7. 11. ○화살머리(281고지)고지 전투 실시.

제2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4) 제3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3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주둔 제5연대, 대구 주둔 제6연대 및 제주 주둔 제9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경남 부산에서 창설되었으며,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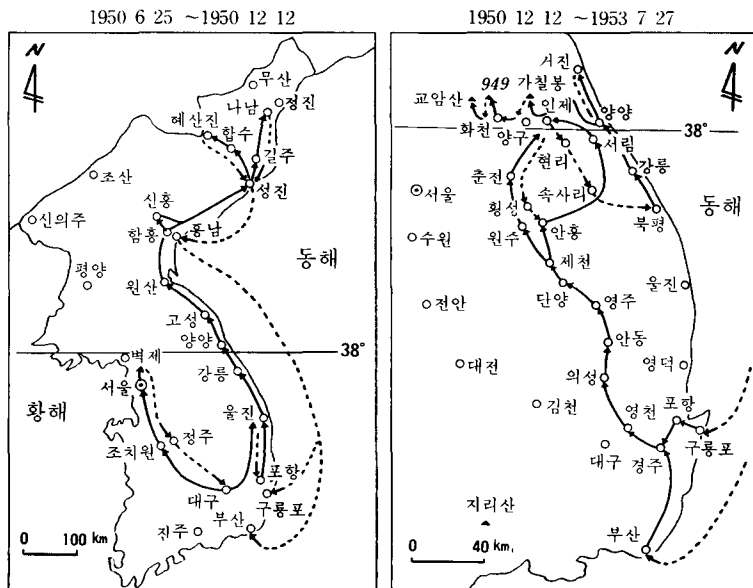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6. 25. ○사단은 제22연대(대구)와 제23연대(진주)의 2개 연대 편성으로써 영남 지방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중, 한국전쟁 발발.
6. 27.~ 6. 29. ○제22연대, 대구에서 열차편으로 서울로 이동하여 제1·제2대대는 서울 서북쪽(신도면)에, 제3대대는 김포의 73고지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지연전을 전개한 후, 제1·제2대대가 행주 쪽으로 한강을 도하하여 김포의 제3대대와 합류, 안양으로 철수.
6. 30.~ 7. 4. ○제22연대, 혼성 제3사단에 편입되어 수원(신갈 북방)을 방어.
7. 4.~ 7. 23. ○제22연대, 수원—천안—조치원—청주—보은—추풍령—대구로 철수.
6. 29.~ 7. 1. ○제23연대, 동해안의 울진(남대천)으로 출동하여 북괴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
7. 2.~ 7. 19. ○제23연대, 기성리—평해—영해—영덕으로 철수.
7. 19.~ 8. 4. ○제23연대, 영덕 공방전 실시.
7. 26. ○제22연대, 영덕으로 이동 제23연대와 합류.
8. 4.~ 8. 7. ○영덕—강구로 철수.
8. 9.~ 9. 22. ○포항지구 전투 실시.
9. 22.~ 9. 30. ○포항—홍해—청하—영덕—울진—삼척—강릉(38도선)으로 진격.
10. 1. ○38도선 돌파.
10. 1.~ 10. 10. ○원산 탈환작전 실시.
10. 16.~ 11. 5. ○원산—함흥 지구 경비임무 수행.
11. 5.~ 11. 16. ○군단예비.

11. 17.~11. 30. ○제22연대가 해산진, 제23연대가 나남으로 진출.

제3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12. 1. ○국군 제1군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 개시.
12. 1.~12. 9. ○백암 및 나남—길주—성진—홍남으로 철수.
12. 10.~12. 12. ○제22연대가 구룡포로, 제23연대가 부산으로 해상철수.
12. 15. ○제18연대가 사단에 예속되고 제26연대는 수도사단으로 예속 변경. 사단은 제1군단으로부터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 원주로 이동.
12. 21.~12. 31. ○홍천 북방 소양강 일대에서 북괴 제10사단과 제2사단의 유격대 소탕전 전개.

1951.

1. 5. ○제2군단으로부터 제3군단으로 배속 변경.
1. 7.~ 1. 10. ○평창—영월—제천—영주—춘양으로 철수.
1. 14.~ 1. 19. ○남대리(소백산맥)에서 북괴군의 진격 저지.
2. 4.~ 2. 10. ○춘양—영월—평창—횡성으로 진격.
2. 11.~ 2. 13. ○중공군(제66·제44군) 및 북괴군(제5군단)의 2월공세로 횡성에서 철수.
2. 14.~ 2. 15. ○제3군단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전환, 제천을 거쳐 주포리로 이동.
2. 23.~ 3. 4. ○강림—안흥—봉화산으로 진격.
3. 6. ○미 제10군단부터 제3군단으로 배속 변경.
3. 10.~ 4. 21. ○평창—하진부리—유천리(아이다호 선)—광천리—서림리(카이로 선)—한계령—인제로 진격.
4. 24.~ 4. 26. ○한석산—경봉 지구 방어(중공군 제1차 춘계 공세).
5. 16.~ 5. 22. ○현리 전투 실시.
5. 22. ○제3군단의 해체로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
5. 23.~ 7. 8. ○북평—강릉—양양—간성—거진으로 이동.
9. 13. ○양양으로 이동, 9월 24일~10월 18일 4주간의 교육훈련 실시.
10. 19. ○양양에서 양구 입당리로 이동,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 제5사단의 작전지역(가칠봉 지역) 인수.
10. 27.~10. 31. ○가칠봉 전방 1052 및 1211고지 공격.
11. 23. ○양구로 이동, 11월 27일~1952년 1월 7일 6주간의 교육훈련 실시.

1952.

- 1. 7.~ 1. 11. ○양구에서 제9군단 지역으로 이동, 제6사단의 금성천 지역 인수.
- 3. 18. ○제9군단으로부터 신편 백 야전사령부로 배속 변경(백 야전사는 4월 5일부로 제2군단으로 승격).
- 4. 9. ○석장리—973고지—949고지—739고지를 연하는 주저항선에 배치.
- 9. 28.~10. 3. ○748고지(피의 고지)와 572고지(독수리고지)에서 전초진지 갱탈전 전개.

1953.

- 1. 1.~ 4. 12. ○필승·텍사스·오봉 능선에서 전초진지 갱탈전 전개.
- 4. 13.~ 4. 19. ○작전지역을 제5사단에 인계하고 화천 상리로 이동, 미 제8군 예비로서 7주간의 부대 정비 개시.
- 6. 3. ○강원 화천(상리)에서 경기 연천(동송)으로 이동.
- 6. 10.~ 6. 15. ○제22연대, 기간 중 제5사단 증원차 동 사단에 배속.
- 6. 15. ○제22연대 원대복귀와 동시 제5사단 작전지역 일부와 제8사단 작전지역 일부(금성천, 등대리 부근) 인수.
- 6. 25.~ 7. 3. ○529고지(관망산) 전투 실시.
- 7. 13.~ 7. 15. ○금성천(여문리) 부근 전투 실시.
- 7. 19. ○화천에서 김화 동막동으로 이동(미 제8군 예비), 부대 정비.

(5) 제5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5여단은 1948년 4월 29일 제3·제4·제9연대를 기간으로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되었으며, 그 후 주둔지를 전남 광주로 옮긴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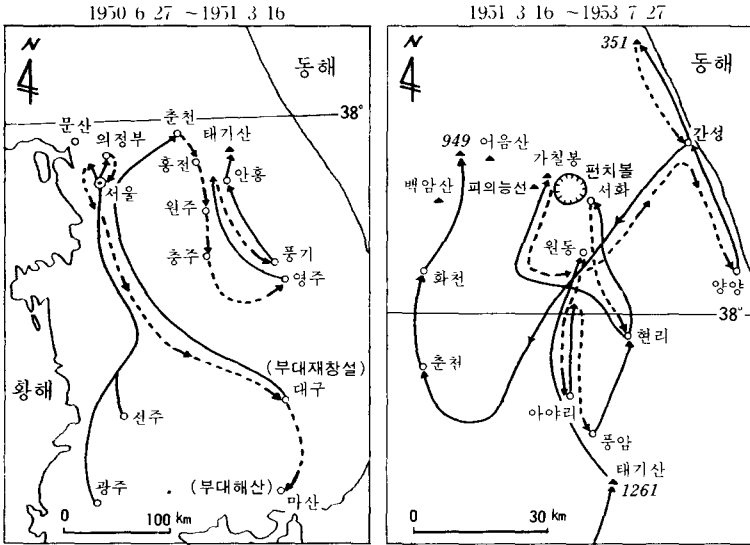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6. 27.~ 7. 4. ○사단은 제15연대를 전주에, 제20연대를 광주에 주둔시켜 공비토벌과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중, 전쟁의 발발로 서울 서북방의 봉일천과 북방의 창동으로 진출하여, 38도선으로부터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전개중이던 제1·제7사단을 증원하여 지연작전을 전개한 다음 28일 한강 이남으로 철수. 7월 1일부터 오류동—시흥으로 철수하면서 계속 지연전을 전개하던 중 대부분의 병력이 분산.
7. 17. ○경남 마산에서 사단 해체.
10. 8. ○대구 주둔 제27연대, 마산 주둔 제35연대, 부산 주둔 제36연대를 근간으로 경북 대구에서 제5사단을 재창설.
10. 16.~11. 17. ○제3군단에 배속되어 포항·지리산·김천·영주 등지에서 공비소탕작전 실시.
11. 22.~11. 23. ○제3군단으로부터 육본으로 배속 변경, 서울로 이동.

11. 24.~12. 3. ○가평·청평·춘천 지구 경비임무 수행
12. 15.~1951.
1. 2. ○춘천—홍천—원주로 철수.
1. 3. ○제3군단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
1. 5.~ 1. 11. ○원주—충주—점촌—영주로 철수.
1. 13.~ 1. 31. ○2주간 부대 정비 실시.
2. 1. ○영주—횡성(학곡리)으로 이동, 전선 복귀.
2. 5.~ 2. 11. ○미 제10군단의 라운드 업 작전의 우일선 사단으로 홍천을 공격.
2. 12.~ 2. 13. ○횡성 우측방 포동리에서 새말로 철수(중공군 2월 공세).
2. 13.~ 2. 14. ○새말—주천으로 이동.
2. 21.~ 2. 28. ○단양으로 이동, 단양—풍기 간의 보급로 경계 및 부대 정비 실시.
3. 3.~ 3. 5. ○단양에서 일선(안홍—운교 선)으로 진출, 미 제2사단과 교대.
3. 6.~ 3. 16. ○안홍—태기산(아이다호 선)으로 진격.
4. 5.~ 4. 19. ○소양강 도하 인제 경유 원통리(캔사스 선)로 진격.
4. 22.~ 4. 27. ○원통리로부터 아야리로 철수(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5. 7.~ 5. 14. ○아야리로부터 소양강 남안 음양리—어론리 선(미조리 선)으로 진격.
5. 16.~ 5. 20. ○어론리로부터 풍암리 선(수정 노네임 선)으로 철수(중공군 제2차 춘계공세), 부대 재편성 실시.
5. 26.~ 6. 4. ○풍암리에서 원통리(캔사스 선)로 재진출, 미

제 5 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2사단 작전지역(군단 우일선)인수.

- 6. 4. ~ 6. 17. ○ 원통리에서 서화리로 진격.
 - 7. 19. ○ 작전지역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현리로 이동.
 - 8. 18. ~ 8. 22. ○ 피의 능선 전투 실시.
 - 8. 26. ○ 현리로부터 양구로 이동.
 - 9. 4. ~ 10. 14. ○ 가칠봉 전투 실시.
 - 10. 21. ○ 작전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하고 양양으로 이동,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개시.
- 1952.
- 1. 11 ~ 7. 9. ○ 교육 종료 후 동해안 거진으로 진출, 제11사단과 교대하여 제1군단의 우익사단으로 케트 선 방어.

7. 10.~11. 10. ○351고지 전투 실시.
- 1953.
1. 29.~ 4. 10. ○작전지역을 제15사단에 인계하고 간성(수동리)으로 이동,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4. 10. ○김화로 이동, 제3사단의 작전지역 인수.
6. 10.~ 6. 14. ○883고지—973고지—949고지 전투실시.
7. 14.~ 7. 18. ○백암산 전투 실시.

(6) 제6사단

사단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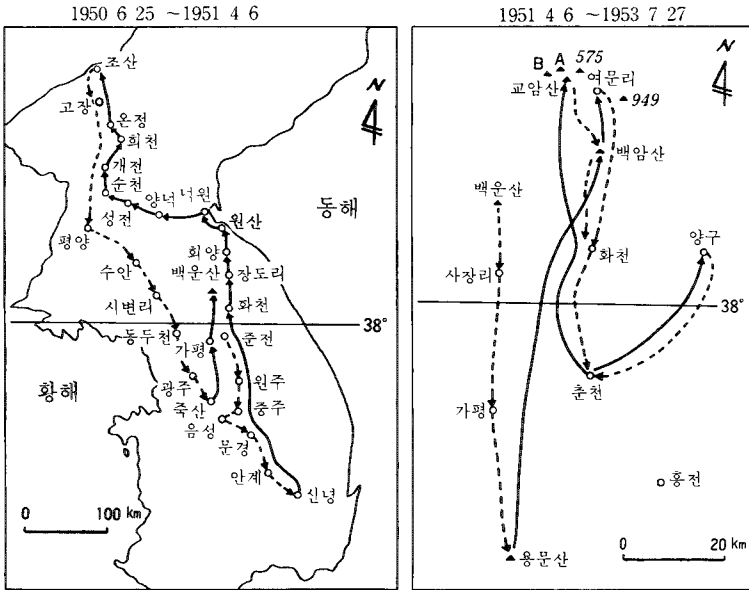
이 사단의 모체인 제4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 주둔하고 있던 제7·제8·제10연대를 기간으로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후 청주로 이동하여 12월 24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으며, 다음해 2월 원주로 이동하여 38도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 1950.
6. 25.~ 6. 30. ○춘천—홍천 지구 전투 실시.
7. 1.~ 7. 4. ○횡성—원주(일부 이천)—충주로 철수.
7. 5.~ 7. 8. ○음성(동락리 및 무극리)지구에서 지연전 전개.
7. 13.~ 7. 15. ○문경(조령, 이화령)지구에서 지연전 전개.
7. 16.~ 8. 12. ○문경—점촌—안계(의성)—옥연동으로 철수.
8. 12.~ 8. 30. ○군위—조림산—신녕으로 철수.
8. 30.~ 9. 15. ○신녕 전투 실시.

9. 15.~10. 3. ○조림산—의흥—함창—충주—원주—횡성—춘천으로 진격.
10. 6. ○38도선상의 모진교 도하.
10. 8.~10. 20. ○화천—김화—금성—회양—신고산—원산—덕원—양덕—성천으로 진격
10. 20. ○성천에서 순천으로 진격, 적진에 낙하한 미제187공수연대와 연결.
10. 21.~10. 26. ○순천—개천—회천—온정—고장—초산으로 진격. 군군 및 유엔군 중 최선봉부대로서 10월 26일 한·만국경선 상의 초산 점령.
10. 24.~10. 29. ○중공군 개입으로 사단의 퇴로 차단, 부대 분산.
10. 29.~12. 12. ○초산—북창—운산—평양—상원—수안—동두천으로 철수.
12. 14.~12. 31. ○동두천 북방에서 38도선 방어.
- 1951.
1. 1.~ 1. 5. ○동두천—창동—광주—안성(죽산)으로 철수.
2. 14.~ 4. 6. ○죽산—여주—마석우리—가평(켄사스 선)으로 진격.
4. 20.~ 4. 25. ○사창리 전투 실시.
5. 17.~ 5. 23. ○용문산 전투 실시.
5. 24.~ 5. 28. ○용문산—가평—춘천—화천(켄사스 선)으로 진격.
6. 7.~ 6. 13. ○화천—백암산(어민 선)으로 진격.
6. 13.~ 8. 30. ○수리봉—재안산에서 어민 선 방어.
8. 30.~11. 18. ○백암산—동대리—여문리(금성천 노메드 선)—949고지(미조리 선)로 진격.
11. 19.~1952.

제 6 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 1. 9 ○ 용호동—949고지에서 미조리 선 방어.
- 1. 9. ○ 미 제9군단에서 육본 직할로 배속 전환, 작전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
- 1. 12. ~ 3. 20 ○ 양구에서 12주간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 3. 23. ~ 3. 29 ○ 교암산—봉화산 지역으로 이동, 미 제40사단과 교대.
- 3. 30. ~ 1953.
- 3. 4. ○ 575고지, A·B고지에서 전초진지 쟁탈전 전개.
- 3. 5. ~ 7. 9 ○ 금성 돌출부 계속 방어.

7. 10.~ 7. 14. ○중공군의 최후공세를 맞아 교암산으로부터 금성천 남안(삼현)으로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철수, 7월 15일 제11사단이 사단진지를 초월하여 반격한 후 군단예비로 전환.

(7) 제7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7여단은 1949년 1월 7일 제1·제9·제17·제19 연대를 기간으로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일에 수도여단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여단은 1949년 5월 12일에 수도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6월 20일에 제7사단으로 개칭되면서 제17 연대를 예속 해제하였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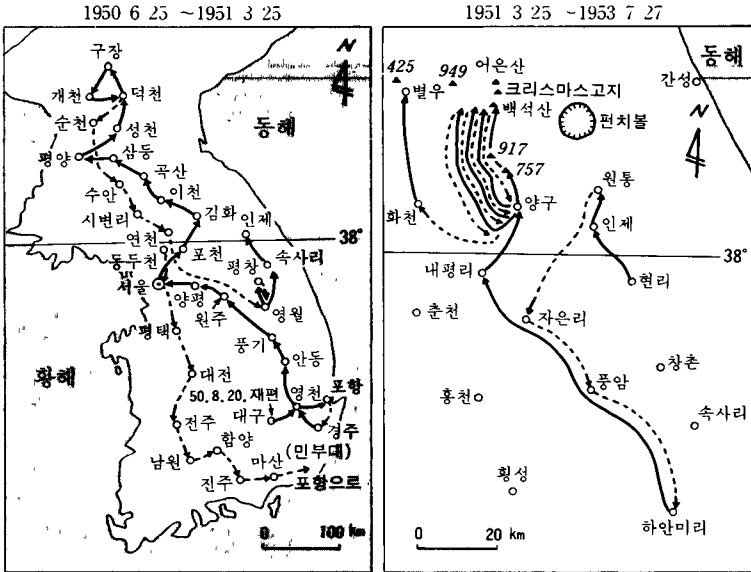
6. 25.~ 6. 28. ○의정부 지구 전투 실시.
 6. 29.~ 7. 4. ○한강·시흥 지구 방어.
 7. 5. ○사단이 해편되어 예하 연대는 각사단에, 사단사령부는 제1군단에 각각 편입.
 7. 6.~ 7. 9. ○사단사령부 대전—이리—전주로 이동.
 7. 10. ○전주에서 학도병 500명을 보충받아 제3·제9 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재편.
 7. 14. ○사단, 민부대로 개칭.
 7. 16.~ 7. 31. ○용안·전주·임실·남원·운봉·함양 등지로 철수하면서 북괴군 제6사단의 호남 우회진출을 지연.

8. 15.~ 8. 19. ○민부대, 포항지구 전투 참가하여 툰넬 고지에서 북괴 제5사단의 진출을 저지한 후 작전지역을 제3사단 제23연대에 인계.
8. 20. ○대구에서 제3·제5·제8연대와 제18야포대대로 재편성.
8. 21.~ 8. 29. ○낙동강 북부지역(의흥지구)에서 방어전 전개.
9. 3. ○제3연대, 경주로 이동 제1군단에 배속, 포항지구 전투 참가.
○제8연대, 신녕으로 이동 제6사단에 배속.
9. 4.~ 9. 13. ○영천 전투 실시.
9. 13. ○제3·제8연대 복귀.
9. 16. ○영천—경주로 이동, 군예비.
10. 1.~10. 9. ○안동—청주—양평—포천—양문리로 이동.
10. 9. ○양문리(포천)에서 38도선 돌파.
10. 9.~10. 16. ○양문리—김화—평강—정봉리로 이동(예비).
10. 18.~10. 20. ○제8연대, 제1사단과 함께 평양의 배후로 우회공격, 김일성 대학을 점령하고 평양시내에서 잔적소탕작전 실시.
10. 20.~10. 22. ○강동—평양—순천—개천—구장동으로 진출.
11. 1.~11. 7. ○중공군 개입으로 신흥에서 개천(비호산)으로 철수.
11. 1.~11. 5. ○비호산 전투 실시.
11. 14.~11. 19. ○개천—덕천으로 재진출.
11. 24.~11. 26. ○중공군 제2차공세로, 덕천—북창—순천으로 철수.
12. 2.~1951.
1. 8. ○승호리—수안—시변리—연천—원주—영월

선으로 철수.

1. 19.~ 2. 4. ○평창—정선 선에서 북괴 제9사단의 공격저지.
2. 12.~ 2. 18. ○방림리(평창)—영월로 철수(중공군의 2월 공세).
2. 21.~ 2. 4. ○영월—평창으로 반격(킬러 작전).
3. 6.~ 3. 12. ○영월—속사리로 진격.
3. 14.~ 3. 26. ○속사리—현리—인제로 진격.
3. 28.~ 4. 22. ○군단예비, 현리 부근 창촌에 집결.
4. 22.~ 4. 30. ○매봉—자은리로 철수(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제3군단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
5. 16.~ 5. 22. ○자은리(소양강)—풍암리—창촌 선으로 철수(중공군 제2차 춘계공세). 하안미리에서 부대 재편.
5. 30.~ 6. 3. ○내평리로 이동, 미 제1해병사단의 화천 저수지 남안 진지 인수.
6. 8.~ 6. 12. ○화천 저수지—917고지(백석산 남방 뱃저 선)로 진격.
8. 6.~ 9. 2. ○618고지—901고지—883고지 공격(미 제8군의 크리퍼 작전)작전 전개.
8. 19.~ 8. 20. ○양갈래고지(732고지) 공격 점령.
9. 16.~ 9. 19. ○883고지 공격.
9. 24.~ 9. 27. ○백석산(1,142고지) 전투 실시.
9. 30.~ 11. 17. ○육본 직할로 배속 변경, 양구로 이동, 8주간의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11. 18.~ 11. 20. ○제8사단의 작전지역(백석산 지역)을 인수, 일선 복귀.

제 7 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 11. 23. ~ 11. 24. ○ 890고지 공격 점령.
- 12. 25. ~ 1952.
- 2. 13. ○ 크리스마스 고지 (1090고지) 쟁탈전 전개.
- 5. 22. ○ 중공군의 890고지 기습공격 격퇴.
- 10. 6. ~ 10. 14. ○ 크리스마스 고지 쟁탈전 전개.
- 11. 15. ~ 1953.
- 1. 30. ○ 미 제25사단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양구로 이동, 군단예비로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 1. 20. ○ 제3야전포병단을 예속받아, 사단 포병단 창설.

2. 1. ○미 제25사단과 임무 교대, 일선 복귀.
- 5 18.~ 6. 16. ○백석산 지역을 제20사단에 인계하고 양구로 이동, 군단예비로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중 중공군 6월 대공세로 교육중단.
6. 17. ○미 제10군단의 좌측방 지역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
6. 25.~ 7. 1. ○선우고지(938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끝에 동 전초에서 철수.
7. 17.~ 7. 19. ○작전지역을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양구로 이동한 후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화천으로 이동, 군단예비.
- 7 20. ○중공군의 최후공세로 북한강 남안으로 철수한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을 증강하기 위하여 군단 좌익 제11사단의 우일선지구와 군단 중앙 제8사단의 좌일선지구를 인수, 전선 복귀.
7. 25.~ 7. 24. ○별우지구의 425고지 및 406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전개.

(8) 제8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강원 강릉에서 창설되었으며, 동년 7월 5일 제21연대(삼척 주둔)가 편입되어 이들 2개 연대로써 6·25전쟁을 맞이하였다. 그 후 1950년 7월 22일,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는 도중, 안동에서 제16연대가 사단에 예속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 6. 25.~ 6. 28. ○강릉지구 전투 실시.
- 6. 28.~ 7. 6. ○강릉—진부리—평창—제천—단양—안동—단양으로 이동.
- 7. 6. ○육본직할로부터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
- 7. 8.~ 7. 12 ○단양 전투에서 북괴군의 진출을 1주일간 지연.
- 7. 14 ~ 7. 23 ○죽령에서 철수, 풍기·영주 지역에서 북괴군의 진출을 10일간 지연.
- 7. 24.~ 7. 28. ○영주—웅천—안동으로 철수.
- 7. 30 ~ 8. 1. ○안동 전투를 전개 후 낙동강을 도하, 의성으로 철수.
- 8. 1.~ 8. 13. ○의성지구 전투를 전개하여 북괴군의 진출을 13일간 지연, 영천으로 철수.
- 9. 5.~ 9. 15. ○영천 전투 실시.
- 9. 20.~10. 7. ○구산동—의성—안동—영주—단양—양평—동두천으로 반격.
- 10. 8. ○38도선 돌파.
- 10. 8.~11. 7. ○연천—철원—이천—곡산—석봉—덕천—구장동으로 진격.
- 11. 23.~11 28. ○영원·맹산 전투 실시, 중공 제42군의 공세로 4일간의 방어전투를 전개한 후 가창으로 철수.
- 11. 28.~1951.
- 1. 1. ○신창—순천—신계—토산—연천—서울(청량리)—춘천—홍천으로 철수.
- 1. 20. ○제3군단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배속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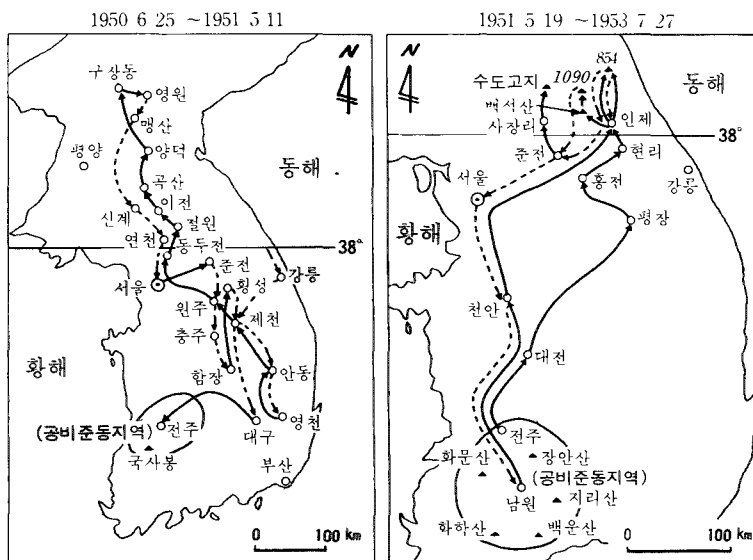
경.

1. 5.~ 2. 4. ○홍천—충주—함창—제천—횡성으로 이동.
2. 5.~ 2. 12. ○횡성 전투 전개, 미 제10군단의 좌익사단으로 횡성으로부터 홍천으로 진격(라운드업 작전)중, 중공군 2월공세로 포위된 후 부대 분산, 전선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주포리로 이동.
2. 12.~ 4. 15. ○제천을 거쳐 대구로 이동, 부대 재편.
4. 16.~ 5. 11. ○금산(국사봉)·부안 지구에서 공비소탕작전 실시.
5. 19.~ 7. 19. ○제천—평창—홍천—현리—인제—원통리로 이동하면서, 미 제10군단 예비로 군단 후방 지역 경계임무 수행.
7. 20. ○원통리 북방 노전평지구의 제5사단 작전지역 인수.
8. 9.~ 8. 14. ○제1차 노전평지구 전투 실시, 노전평—서화리 계곡 우측방의 785고지 점령.
8. 18.~ 8. 24. ○제2차 노전평지구 전투 실시, 사단에 부여된 미 제8군의 작전(크리파 작전)목표인 1031고지와 965고지 점령.
9. 10.~ 9. 18. ○제3차 노전평지구 전투 실시, 서화리 북방의 854고지 점령.
9. 22.~ 9. 23. ○사단의 작전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 양구로 이동.
9. 28. ○제7사단과 교대, 백석산지구 방어책임을 인수.
9. 30.~10. 1. ○백석산 전투 실시, 백석산 점령.
10. 6.~10. 28. ○백석산으로부터 1090고지(크리스마스 고지)

로 진격.

- 11. 20 ~ 11. 29. ○작전지역을 제7사단에 인계,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백야전사로 배속 변경, 춘천—서울—전주—남원으로 이동.
- 12. 2 ~ 1952.
 - 1. 31. ○호남지구에서 공비소탕작전 실시.
 - 2. 6 ~ 2. 7. ○전주—퇴계원—부평리로 이동.
 - 2. 8 ~ 3. 15. ○4주간의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 3. 18. ~ 3. 23. ○미 제10군단에 배속, 강원 서화리로 이동, 미 제1해병사단의 812·854고지 지역을 인수.
 - 9. 21. ~ 9. 22. ○812·854고지 전투 실시.

제8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9. 25. ~ 9. 28. ○미조리 선 방어임무를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원통리를 경유 사창리로 이동,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미 제9사단으로 배속 변경.
10. 4. ~ 10. 17. ○사창리에서 2주간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10. 19. ○미 제9군단으로부터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
10. 25. ○수도사단과 교대, 수도고지·지형능선 방어 임무를 인수.
10. 26. ~ 1953.
5. 26. ○612(수도고지 서측방)고지, 271고지(수도고지 동남방)·수도고지·돌바위고지(수도고지 서측방)·지형능선 등지에서 전초진지 쟁탈전 전개.
5. 27. ~ 6. 4.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 실시.
6. 12. ~ 6. 21. ○중공군의 6월 대공세로, 사단은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으로부터 약 2km를 철수, 아이슬랜드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
7. 13. ~ 7. 18. ○금성지구 전투 실시.

(9) 제9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은 1950년 10월 25일 제28연대(대전), 제29연대(공주) 및 제30연대(청주)를 기간으로 서울(청계 국민학교)에서 창설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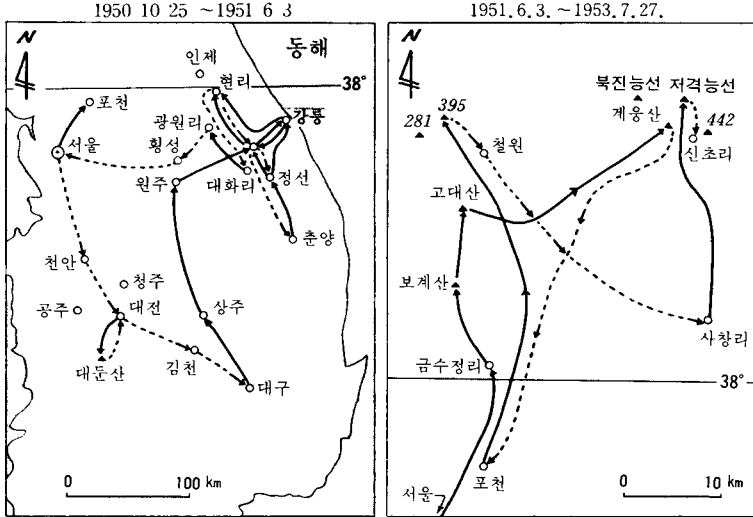
- 10. 25.~11. 20.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 10. 30. ○후방지역 경계임무 수행중인 제3군단에 배속.
- 11. 23.~12 17. ○전북 대둔산·경북 김천지구·상주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 실시.
- 10. 30.~12. 18. ○대전—대구—원주—강릉—진부(평창)로 이동,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
- 12 24.~12 31. ○주력으로서 서림리—현리—부평리 간의 38도선을 방어하고 일부 병력으로 설악산—오대산 지역에서 북괴군 유격부대 소탕전 실시.
- 12. 26.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

1951

- 1 2.~ 1. 6. ○중공군의 공세로 현리—속사리(진부리)—춘양으로 철수.
- 1. 19.~ 2 2. ○제3군단으로 배속 변경, 춘양—장성—하진부리로 진격.
- 2 12 ~ 2. 25 ○중공군 2월공세로 하진부리에서 철수, 정선—창리 서 방어.
- 3. 6.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
- 3. 12.~ 3. 18. ○군단예비, 송계리 지역에 침투한 북괴군 소탕작전 실시,
- 3. 23 ~ 3. 30. ○하진부리—구산동—강릉으로 이동.
- 4. 2.~ 4. 19 ○제1군단 예비, 일부 병력(제29연대)을 수도사단에 배속, 캔사스 선 방어.
- 4 25. ○강릉—진부리—창총리로 이동, 제3군단으로 배속 변경.

5. 1. ○용평리로 이동, 제7사단 제8연대 진지를 인수, 군단 좌익을 담당.
5. 16.~ 5. 21. ○현리 전투 실시.
5. 22~ 5. 29.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 대화에서 부대 수습 후 반격으로 전환하여 대화—하진부—광원리(방대천 선)로 진격.
6. 2.~ 6. 3. ○미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 하진부리—횡성—이천—서울—의정부—포천(금수정리)로 이동.
6. 5.~ 6. 11. ○보개산·고대산을 공격 점령, 철의 삼각지대(와이오밍 선)로 진출.
6. 18.~ 6. 19. ○작전지역을 캐나다 제25여단에 인계하고 음지촌(김화)으로 이동, 미 제25사단의 계응산 지역을 인수.
6. 24.~ 6. 28. ○터키여단 진지를 초월 전진, 계응산 점령.
7. 1.~ 7. 31. ○김화지구 방어.
8. 1.~ 8. 2. ○작전지역을 미 제25사단에 인계, 포천(광현리)으로 이동.
8. 18.~10. 12. ○육본 직할로 배속 변경, 8주간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10. 17.~10. 20. ○철원으로 이동, 미 제1군단의 우익사단(미 제3사단) 방어진역 인수.
- 1952.
11. 3.~ 4. 4. ○281·395·396·500·343(신화산)·252·358 고지 등에서 고지 쟁탈전 전개.
4. 5. ○군단전투지경선 변경으로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9군단으로 배속 변경.
4. 6.~ 9. 19. ○300·278·596·260·323·500·396·395 고지 등에

제9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서 전초 생탈전 및 포로 획득전 전개.

- 10. 6. ~ 10. 15. ○백마고지 전투 실시.
 - 10. 26. ~ 11. 15. ○작전지역을 미 제3사단에 인계하고 사창리로 이동, 군단예비로 3주간의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기간 중 제30연대는 전방의 제2사단에 배속, 저격능선 전투에 참가.
 - 11. 23. ~ 11. 25. ○사창리에서 저격능선지구로 이동, 제2사단 진지를 인수.
 - 12. 1. ~ 12. 30. ○1개월간, 군단 지역에 중공군 114회 출몰, 사단의 저격능선 정면에 104회 출현하여 격전 전개.
- 1953.
- 1. 1. ~ 5. 12. ○저격능선상의 W·B 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 격퇴.

1. 20. ○제1야전포병단이 사단에 편입, 제9사단 포병단 창설.
5. 12. ○좌인접 미 제3사단으로부터 북진능선 지역 인수.
5. 16.~ 5. 19. ○제28연대, 4일간에 걸친 중공군 제72사단의 공격을 격퇴.
6. 11.~ 6. 14 ○북진능선 전투 실시.
7. 13.~ 7. 16. ○중공군의 최후공세로 우측방이 노출되어 저격능선에서 철수, 계용산—442고지 간의 4km 정면을 방어.

(10) 제11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은 1950년 8월 27일 제9연대(대구), 제13연대(진해) 및 제20연대(삼랑진)를 기간으로 경북 영천에서 창설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9. 25. ○사단사령부, 영천—대구로 이동.
10. 14.~1951.
3. 30. ○지리산 지역의 북괴군 패잔병 소탕작전 전개, 기간 중 사단사령부가 남원에 위치하면서 제9연대를 진주로 이동시켜 지리산 지구에서, 제13연대를 전주로 이동시켜 전북지구에서, 그리고 제20연대를 광주로 이동시켜 전남지구에서 각각 지역내의 공비소탕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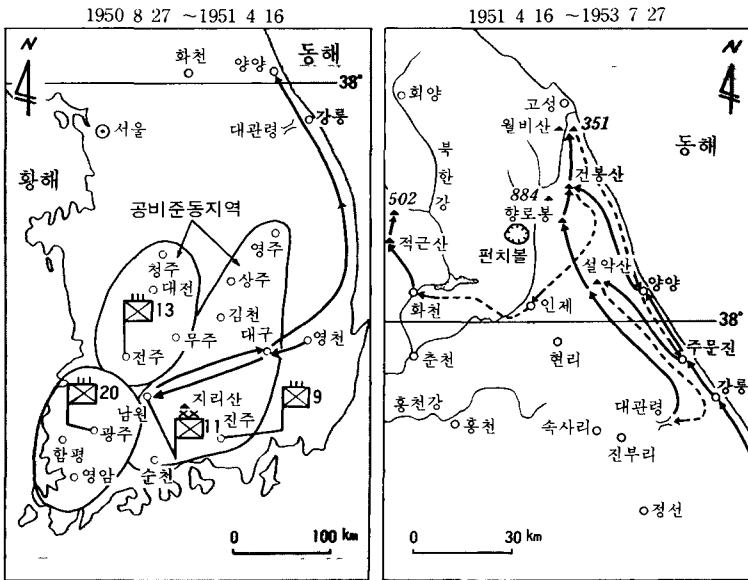
전 실시.

- 4. 6.~ 4. 14. ○사단사령부와 제9·제20연대는 대구로, 제13연대는 경산으로 이동, 일선 출동에 대비한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 4. 16. ○경산·대구로부터 강원 양양으로 이동, 제1군단에 배속.
- 4. 29.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로 양양—주문진으로 철수.
- 5. 7.~ 5. 17.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가 끝난 후 사단이 제1군단의 우일선사단이 되어 설악산(설악동 서북쪽 마등령—미실령 간 능선)지구에서 최초로 복괴군과 격전 전개.
- 5. 19.~ 5. 22.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로 설악산(마등령)—38도선—강릉으로 철수.
- 5. 26.~ 6. 10. ○강릉—강성대(양양)—향로봉(간성)—건봉산으로 진격.
- 6. 11.~ 7. 31. ○건봉산 주저항선 전방에 위치한 소작봉, 남강 북측 굴별우·495고지·449고지·새골 등지에 대한 정찰전 전개.
- 8. 18.~ 8. 27. ○884고지 전투 실시.
- 9. 7.~11. 15. ○군단의 전선 조정계획에 따라 좌인접 수도사단의 제1연대 진지를 인수, 계속 건봉산 지역을 방어.
- 11. 16.~11. 17. ○수도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 동해안의 27km 정면을 전담 방어,
- 11. 18.~11. 24. ○월비산 전투 실시.
- 1952.
- 1. 12.~ 1. 13. ○작전지역을 제5사단에 인계, 육본 직할로

배속 변경, 양양으로 이동,

1. 25.~ 3. 29. ○양양에서 9주간의 부대 정비와 교육훈련 실시.
3. 31. ○육본 직할로부터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 광상리로 이동, 제1군단의 좌익전선(전봉령)을 담당.
4. 15.~ 7. 11. ○제20연대(+) 후방지역 포로 경비. 연대본부 및 제3대대는 영천으로, 제1대대는 광주로, 제2대대 본부 및 제7·제8중대는 제주도로, 제5·중포중대는 마산으로, 제6중대는 부산으로 각각 이동하여 포로 경비임무 수행.

제11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4. 1.~12. 31. ○전봉산 지역 계속 방어·전선 상황 소강상태·남강 북측 584고지 및 350고지 등의 북괴군 전초진지에 대한 중대규모 이하의 탐색전 전개.

1953.

1. 1.~ 6. 9. ○전봉산 지역 계속 방어. 남강 북측 350고지·181고지·629고지 등의 북괴군 전초진지에 대한 중대규모 이하의 탐색전 전개.
6. 10. ○전봉산 지역 방어임무를 제21사단에게 인계. 제1군단으로부터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
6. 12.~ 6. 14. ○간성 지역으로부터 화천으로 이동.
6. 17.~ 7. 12.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7. 13.~ 7. 27. ○적근산 및 삼현 지구 방어선 실시.

(II) 제12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은 1952년 11월 8일 강원 양양 전진리에서 사령부를 창설한 후 12월 8일 경기 포천으로 이동, 12월 10일 제37·제51·제52 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편성하였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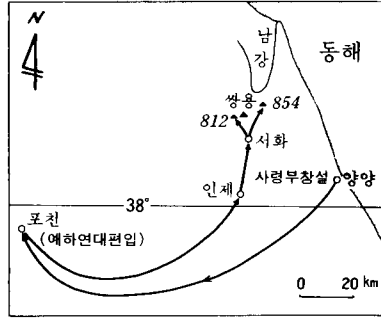
12. 8. ○강원 양양으로부터 경기 포천으로 이동, 미 제9군단에 배속.

12. 28.~12. 30.

○미 제9군단으로 부터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 경기 포천으로부터 강원 인제(서화)

제12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1952 11 8 ~ 1953 7 27



로 이동, 미 제45사단의 책임지역(812·854고지 지역)을 인수, 군단의 우일선으로 미네소타 선 방어임무 수행.

1953.

- 1. 12. ○854고지 전투 실시.
- 2. 2.~ 2. 3. ○북괴군의 812고지 공격을 격퇴.
- 4. 1. ○제8포병단이 사단에 편입, 사단포병단을 편성.
- 6. 1.~ 7. 17. ○812고지·쌍용고지·854고지 전투 실시.

(12) 제15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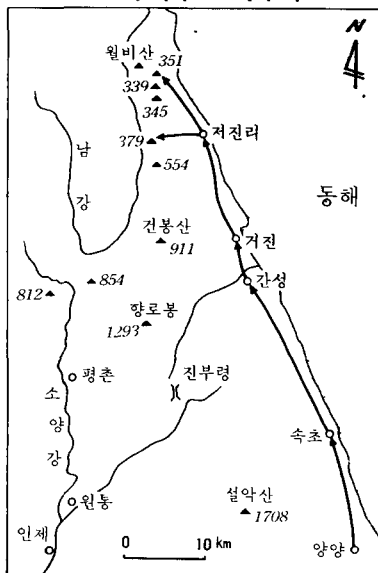
사단창설

이 사단은 1952년 11월 8일 강원 양양 전진리에서 육군본부 직할 독립연대인 제38·제39·제5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제15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1952. 11. 8. ~ 1953. 7. 27.



1952. 1953.

12. 10. ~ 1. 10.

○ 4 주 간의
부대 창
설 교육
실시.

1. 10. ~ 1. 12.

○ 육본 직
할로부터
제 1 군 단
으로 배
속 변경.
양양에서
간성으로
이동.

1. 15. ~ 1. 25

○ 군 단 예 비
로 부 대
정비 및
부대 종합훈련 실시.

1. 28. ~ 2. 1

○ 제 5 사 단의 책 임 지 역 (351 고 지 지 역) 인 수, 군 단의 우 일 선 으 로 주 저 항 선 에 투 입.

2. 22.

○ 제 50 연 대 제 7 중 대, 351 고 지 전 방 의 A 고 지 강 습. 351 고 지 를 공 격 중 인 북 괴 군 1 개 중 대 섬멸.

4. 1.

○ 제 9 포 병 단 이 사 단 에 편 입, 사 단 포 병 단 창 설.

6. 1. ~ 7. 18.

○ 351 고 지 · 339 고 지 전 투 실 시.

(13) 제20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1교육단은 1953년 1월 1일 보병 제60·제61·제62연대를 기반으로 강원 양양 전진리에서 창설되었으며, 그 후 여단은 2월 6일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인제(현리)로 이동한 후 2월 8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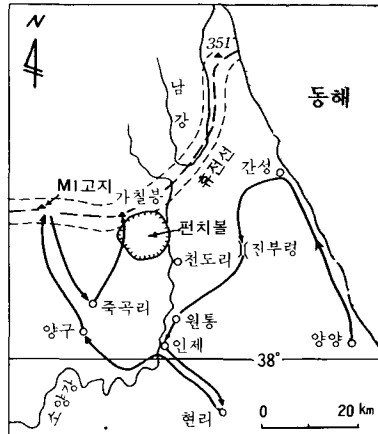
3. 16.~ 4. 27.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부대 정비 및 교육 훈련 실시.

5. 1 ○제10포병단이 사단에 편입.사단포병단 창설.

5. 15. ○강원 양구로 이동. 국군 제7사단의 책임 지역(크리스마스 교지 지역)을 인수, 군단의 좌익사단으로 주

제20사단의 주요 이동상황

1953 1 1 ~ 1953 7 27



저항선 방어임무 수행.

- 6. 10. ~ 6. 23. ○ M-1고지 전투 실시.
- 6. 14. ~ 6. 18. ○ 1090고지(크리스마스 고지)전투를 전개.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격퇴.
- 7. 4. ~ 7. 8. ○ 책임지역을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강원 양구(죽곡리)로 이동하여 부대 정비.
- 7. 9. ~ 7. 15. ○ 양구 북방 미 제40사단의 책임지역(가칠봉지구)을 인수.
- 7. 14. ~ 7. 20. ○ 북괴 제15사단의 가칠봉 침공을 격퇴. 동고지를 확보.

(14) 제21사단

사단창설

이 사단의 모체인 제2교육단은 1953년 1월 15일 보병 제63·제65·제66연대를 기간으로 강원 양양 조산리에서 창설되었으며 2월 9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3.

- 2. 9. ○ 8주간 부대 창설 교육 실시.
- 4. 19. ~ 5. 11. ○ 제1군단에 배속. 동 군단의 예비사단 지역인 강원 간성으로 이동.
- 6. 6. ~ 6. 12. ○ 동부전선 제11사단의 건봉산지구 방어임무인수, 제1군단의 좌일선 주저항선 방어를 담당.
- 6. 12. ~ 7. 26. ○ 건봉산 지구 방어임무 수행.

에서 강원 양구 지역으로 이동. 미 제40사단에 배속. 교육훈련 실시.

2. 해 군

(1) 한국함대

함대창설

이 부대의 모체인 제1특무정대는 1947년 10월 15일 부산에서 창설되었으며, 뒤이어 12월 5일에 제2특무정대가 여수에 증설되었다. 그 후 이들 특무정대는 1949년 2월에 제1·제2·제3정대와 훈련정대로 개편되고, 그 중 제1정대가 1950년 8월 16일 제1함대로 승격되었으며, 다음해 초까지 잔여 정대를 흡수 통합하여 단일 함대로 편성되었으며, 1952년 8월 1일 예하에 7개전대를 가지는 함대로 증편되었다.

한국함대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6. 25.
- 한국전쟁 발발. 제1정대(서해)는 함정 7척으로 38도선—군산, 제2정대(동해)는 함정 7척으로 38도선—진해, 제3정대는 함정 6척으로 군산—여수, 훈련정대는 함정 5척으로 여수—진해 간의 해역에 대한 경비임무 수행.
 - 제2정대의 AMS 509정, 옥계(목호 북방)에 상륙중인 북괴군(제549부대)의 함정을 공격하여 상륙정 1척을 격침하고 발동선 1척을

나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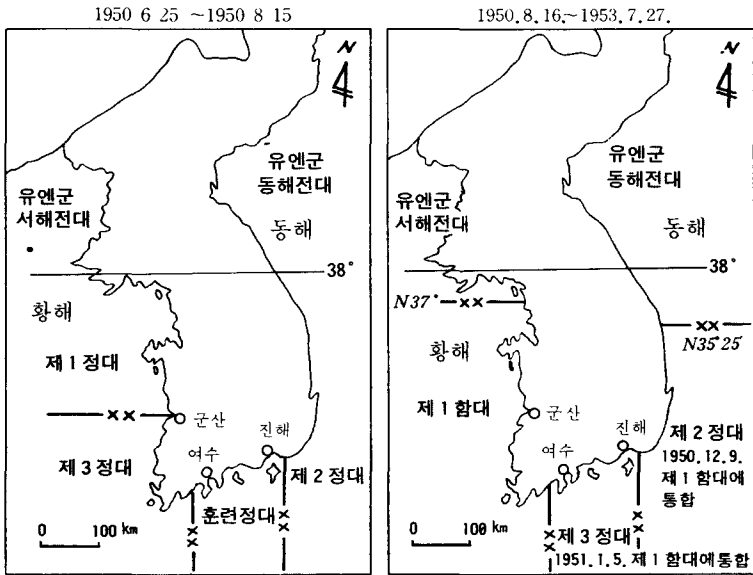
- 6. 25 ~ 6. 26. ○ 701함, 동해에서 남하중인 북괴군 선박 1척 격침.
- 6. 26. ○ 목포 경비부, 목포—포항으로 철수.
- 6. 26.~ 6. 27. ○ 제1정대의 LST 801함과 JMS 302·307정, 웅진반도로부터 인천으로 철수하는 육군 제17연대 수송.
- 6. 30 ○ 제2정대의 JMS 305정, 미 쥬노 함(순양함)의 오인 포격으로 침몰.
- 6. 30. ○ 한·미 해군간에, 북위 37도 이북의 동서해상은 유엔 해군이, 그 이남은 한국 해군이 담당하기로 합의.
- 7. 3. ○ 제1정대의 AMS 501정, 강화수로에서 40톤급 북괴 선박 2척 격침.
- 7. 4. ○ 인천 경비부, 군산으로 철수.
- 7. 5.~ 7. 15. ○ PC 701함을 기함으로 한 함정 9척, 연평도—덕적도—어청도—위도를 잇는 서해안 봉쇄.
- 7. 20. ○ 목포 경비부, 인천·군산 경비부를 통합 지휘.
- 7. 24. ○ 목포 경비부, 목포로부터 해상철수.
- 7. 24.~ 7. 27. ○ LST 3척과 보조선 5척으로 육군 호남지구 전투사령부 소속의 병력과 정부미·군수물자를 여수에서 부산으로 수송.
- 8. 3.~ 8. 15. ○ 서해·남해 해상봉쇄작전 전개, 북괴 소형선박 52척 격침 또는 격파.
- 8. 16. ○ 해군 개편, 제1정대는 제1함대로 증편하여 서해 해상을, 제2정대는 동해 해상을, 제3

정대는 남해 해상을 경비.

- 8 18.~ 8. 24. ○제1함대, 인천 상륙작전에 대비 PC 702함을 기함으로 한 8척과 상륙반 1개 중대로 상륙부대를 편성, 덕적도·영흥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 2개 도서를 탈환.
- 8. 20.~ 8. 31. ○서해·남해 해상봉쇄작전 속개. 복괴 선박 9척 격침, 1척 나포, 9척 격파.
- 9. 12 ○한국 해군, 유엔 해군의 제95기동부대(TF-95)의 제95.7기동전대로 편성되어 종전시까지 작전.
- 9. 15. ○인천 상륙작전, PC 702함을 기함으로한 9척의 함정으로 덕적도를, PC 701함을 기함으로한 6척의 함정으로 어청도 근해를 경비.
- 9. 16 ~ 10. 18. ○제2정대, 육군의 복진을 엄호, 18일 원산에 전진기지 설치.
- 10. 23. ○진남포항 소해작전을 위해 소해정 6척으로 제1소해전대 편성.
- 11. 2.~11. 3. ○제1소해전대, 미 해군 진남포 소해전대(TG-95.96)에 배속되어 기뢰 제거작전 전개.
- 11. 6. ○AMS 503정, 진남포 입항에 성공.
- 12. 9. ○제1함대, 제2정대를 통합 지휘.
- 1951.
 - 1. 5. ○제1함대, 제3정대를 통합 지휘.
 - 1. 5.~ 1. 31. ○제1함대, 서해안 피난민 62,000명 구출, 백령도 등의 서해 도서로 수송.
 - 2. 10. ○PC 701함 등 3척의 함정과 1개 소대 병력, 유엔군 순양함의 지원사격하에 제2차 인천 상륙작전 전개.

- 2. 17.~ 3. 4. ○ LST 801함을 포함한 5척의 함정, 해병독립 제42중대의 영흥만(원산항) 전략도서 상륙전 지원.
- 4 2 ~ 5. 7. ○ LST 801함, 해병 독립제41중대의 교동도·백령도·석도 상륙전을 지원.
- 4 16. ○ PF 61함, 압록강 하구 신미도 부근에서 야크기 4대의 공격을 받아 함포사격으로 승사, 1대 격추.
- 8. 28. ○해병 독립제43중대의 함경 성진 해상에 위치한 양도 상륙작전을 지원.
- 10. 1.~12. 31. ○남해에서 목항작전을 전개하여 일본 어선의 해상방위선 침범을 저지.

한국해군의 작전해역



10 1 ~ 1952.

- 3. 31. ○ 동해에서 28작전을, 서해에서 탁수작전을 전개하여 동·서 해상을 봉쇄.
- 4. 1. ~ 12. 31. ○ 동해에서 42작전을, 서해에서 충무작전을 전개하여 동·서 해상을 계속 봉쇄.
- 4. 1. ~ 12. 31 ○ PT 편대, 해연작전을 전개, 북괴군의 요새·집결지·각종 시설 등 파괴.
- 7. 1. ~ 12. 31. ○ 남해에서 한산작전을 전개.
- 7. 15. ~ 7. 16. ○ 피탈된 서해 창린도 탈환작전을 함포사격으로 지원.

1953.

- 1. 1. ~ 3. 31 ○ 동해에서 묘한작전을, 서해에서 금각작전을, 남해에서 노량작전을 전개하여 동·서·남 해상을 봉쇄.
- 1. 1. ~ 7. 27 ○ PT 편대, 백구작전을 전개하여 북괴군의 요새·집결지·각종 시설 등을 파괴.

(2) 해병대

해병대 창설

한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해군기지 경비를 목적으로 해군에서 차출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경남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되었다. 그 후 1952년 8월 15일에 해병대령의 개정에 의하여 상륙작전을 위주로 한 부대로 개편되었다.

해병대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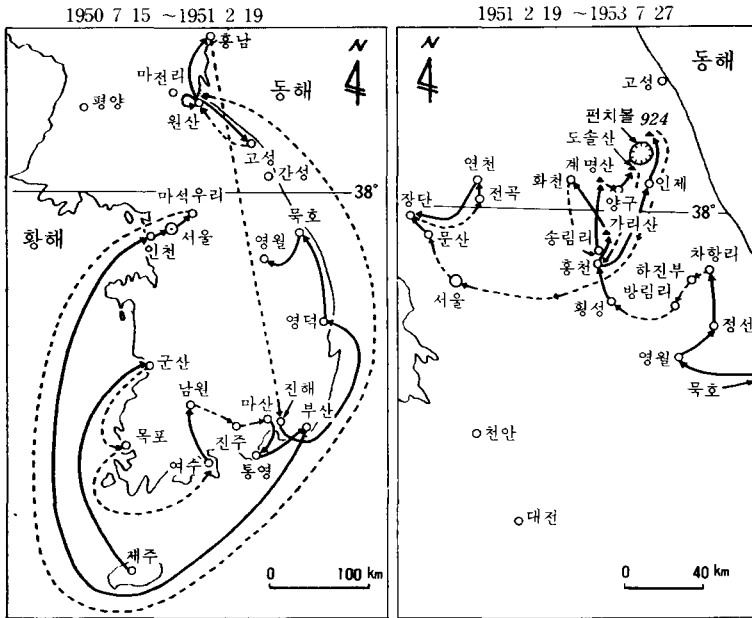
1950.

6. 25. ○제주도에 주둔중 한국전쟁 발발.
7. 15.~ 7. 16. ○제주—군산으로 이동, 출동부대규모 1개 대대(고길훈 부대).
7. 19. ○장항 북방 4km 지점에서 북괴군과 첫 교전.
7. 21.~ 7. 24. ○군산—목포—여수(김성은 부대로 개칭)—남원으로 이동.
7. 25.~ 7. 27. ○운봉·함양 지역에서 지연전 전개.
7. 29. ○함양—산청—진주로 이동, 미 제27연대 배속.
7. 30.~ 7. 31. ○진주에서 지연전을 전개 후, 마산으로 철수. 서부지구 전투사령부로 배속 변경.
8. 3.~ 8. 4. ○진동리 서방 계양리에서 북괴군 공격을 저지 후 함안으로 철수, 미 제25사단에 배속.
8. 5.~ 8. 11. ○진동리로 이동, 미 제25사단의 킨 특수임무 부대의 반격작전에 참가. 진동리 북방 435고지를 공격 점령.
8. 12. ○함안 서방 중암리 지역 방어.
8. 13.~8. 16. ○마산 경유 진해로 이동, 부대 정비.
8. 17.~ 8. 22. ○통영을 침공한 북괴 제7사단 소속 1개 대대를 공격 섬멸하고 인천상륙 때까지 통영 확보.
9. 6. ○제주에서 창설된 연대규모(3,000명)의 한국 해병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산에 도착.
9. 11. ○김성은 부대의 2개 중대, 부산으로 이동. 연대에 합류.
9. 15.~ 9. 28. ○인천 상륙작전 참가.

10. 1.~10. 5. ○서울—마석우리 간 경춘 가도변의 잔적소
탕.
10. 6. ○인천으로 이동.
10. 7. ○해병 제1연대, 인천 출항.
10. 18. ○후방경비를 위해 제1대대는 목호, 제2대대
는 목포로 이동.
10. 27. ○연대주력, 원산에 행정적 상륙.
11. 3 ~ 12. 8. ○원산지구(간성—원산—마전리) 후방경비임무
수행.
12. 9. ○해병 제1·제3대대, 원산 철수.
12. 3.~12. 14. ○해병 주력(제2·제5대대), 홍남 교두보 방어.
12. 15. ○해병 제1·제3대대 연포 비행장—진해로 공
중 철수.
12. 20. ○해병 제1연대와 독립 제5대대로 개편.
- 1951.
1. 24 ~ 2. 12. ○영덕으로 이동,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안동·영주·영덕 일원의 북괴군 패잔병 소
탕.
2. 13 ~ 2. 19. ○목호—삼척—영월로 이동.
2. 19.~ 3. 12. ○육군 제7사단에 배속, 영월지구 공비소탕작
전 실시.
3. 17.~ 3. 19. ○방림리—홍천—한계리로 이동, 미 제1해병
사단에 배속.
3. 24. ○가리산(1051고지) 점령, 뉴카이로 선으로 진
출.
4. 3. ○내평리—물노리(레디 선) 선으로 진격, 미
군에게 진지 인계.
4. 5. ○학곡리로 이동, 부대 정비.

- 4. 9. ○화천 지역의 미 제7기병연대 진지 인수.
- 4. 18. ○화천 점령.
- 4. 22.~ 4. 30.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시, 화천—춘천—홍천강으로 철수.
- 5. 1.~ 5. 22. ○홍천강(노네임 선) 선 방어.
- 5. 26.~ 6. 1. ○홍천강(송정리)—화천 저수지 남안(양구 쪽)으로 진격.
- 6. 4.~ 6. 19. ○도솔산 전투 실시.
- 7. 17.~ 8. 27. ○홍천으로 이동, 부대정비.
- 8. 17. ○미 제1해병사단의 일선복귀에 따라 해안분지(편치불)의 월산령 지역 인수.

해병여단의 주요 이동상황



9. 1.~ 9. 3. ○924(김일성)고지·1026(모택동)고지 공격 점령.
9. 4.~1952.
3. 17. ○924고지—1026고지 지역 방어.
3. 17.~ 3. 18. ○동부로부터 서부전선의 판문점 지역(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이동.
3. 18.~ 9. 5. ○판문점—강화도(장단 지역) 지역 방어.
9. 6.~ 9. 20. ○36전초(혼비 고지) 지역 방어.
10. 1. ○해병 제1전투단으로 개편.
- 10 2.~1953.
5. 4. ○부대 교대에 따라 미 제25사단 제27연대와 교대, 전곡(상대전)으로 이동,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6. 27.~ 7. 7 ○연천지구 정찰전 전개.
7. 8. ○미 제1해병사단이 미 제25사단 지역을 인수함에 따라 장단 지역으로 복귀.
7. 8.~ 7. 27. ○장단 지역 방어임무 수행.

3. 공 군

전투비행단 창설

이 부대의 모체인 국방경비대의 육군 항공사령부는 1948년 9월 13일에 김포에서 창설되었다. 그 후, 부대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의 독립과 더불어 공군 비행단으로 개편되었으며, 1951년 8월 1일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된 후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으로 개칭되었다.

전투비행단의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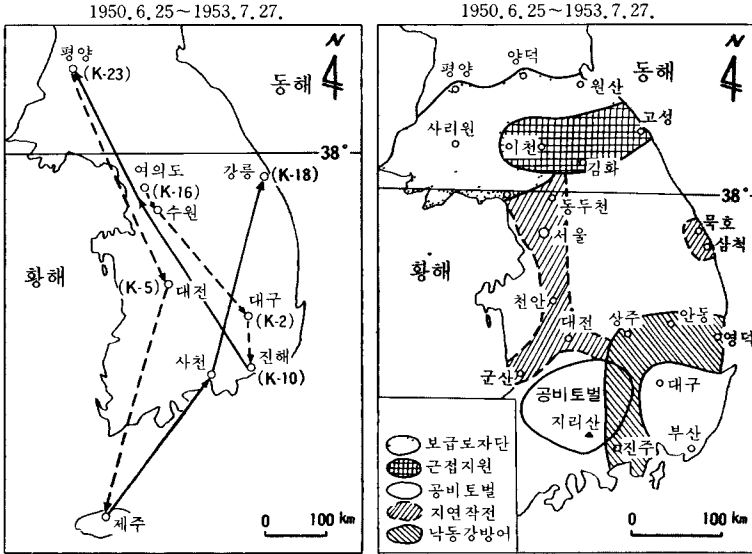
6. 25.~ 6. 27. ○T-6 훈련기(9대)와 L-4 및 L-5 연락기(12대)로 훈련용 국산 15kg 폭탄 274개를 해주·개성·동두천·포천 상공에서 손으로 직접 투하하거나 급조 폭탄장착장치를 이용, 이를 투하하여 남침중인 북괴군에게 공중공격을 실시.
6. 25.~ 7. 6. ○여의도—수원—대구로 이동.
7. 2 ○F-51 전투기 10대,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
7. 3. ○F-51 전투기, 동해안의 묵호·삼척 지구와 노량진 지구로 최초 출격하여 전차 2대, 차량 3대, 보급품 집결지 2개소 파괴.
7. 4.~ 7. 26.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지상군의 지연전을 지원.
7. 30.~ 8. 14. ○대구로부터 진해로 이동, 비행훈련 및 정비 교육 실시.
8. 15 ~ 9. 23. ○낙동강 선 방어 지원차 127회 출격, 북괴군 전차 17대와 차량 36대 등을 파괴. 기간 중 해병대의 통영 상륙작전(9. 5~7.)을 지원.
9. 23.~ 9. 24. ○진해—대구—서울 기지로 이동.
9. 23.~10. 13. ○한반도 서북지역의 북괴군 후방보급로 차단 작전 실시.
10. 24 ○비행단 선발대, 여의도—평양(미림 비행장)으로 이동.
11. 30. ○평양—대전 기지로 철수.
12. 20. ○비행단의 일부 부대(백구부대)는 대전 기지(K-5)에 잔류하여 F-51 전투기 6대로 한·미

공군 혼성부대를 편성 운영하고, 비행단 주력은 제주 기지로 이동하여 훈련 실시.

1951.

- 3. 27. ○백구부대(혼성부대), 대전—여의도 기지로 이동.
- 4. 3.~ 5. 31. ○백구부대, 북한의 이천을 중심으로 서쪽은 양덕, 동쪽은 화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적 후방차단작전을 전개. 차량 155대, 교량 25개, 보급소 51개소 등을 파괴.
- 6. 30. ○비행단, 사천으로 이동, 비행단 확장에 대비한 조종자 양성 훈련 개시.
- 8. 1. ○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제10전투비행전대와 제2정찰비행전대 편성.
- 8. 17.~ 9. 18.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경찰)작전 지원, 황해도 신원리 지구에 대한 폭격 실시.
- 9. 28. ○제1전투비행단의 제10전투비행전대(일명, 강릉 전진부대)의 일부 전투기(F-51 전투기 10대), 사천에서 강릉기지로 이동.
- 10. 11.~11. 28. ○동부전선에서의 북괴군 후방보급로 차단작전 실시.
- 11. 28. ○제10전투 비행전대 백 야전사의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에서 사천 기지로 이동.
- 12. 3.~12. 7.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작전 지원.
- 12. 7.~12. 10. ○사천—강릉 기지로 이동. 북괴군 후방보급로 차단작전 수행.
- 12. 19.~12. 27. ○강릉—진해 기지로 이동. 제2기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작전 지원.

공군 비행단의 주요작전지역 및 이동상황



12. 30. ~ 1952.

3. 6. ○북괴군 후방보급로 차단작전을 재개. 작전 지역을 동부에서 서부 지역까지 확대.
1. 12. ~ 1. 15.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실시.
3. 28. ~ 4. 3. ○겸이포·진남포·해주 등지의 도시공격 실시 (연 75대 출격).
4. 5 ~ 5. 2. ○진남포·해주·겸이포·신원리·재령·평양·연안·사리원·중화·황주·이천·원산·장전 등지에 197대 출격, 보급집적소·군수공장·차량등을 파괴.
5. 5. ~ 5. 15. ○사리원 지구 철도 차단을 위해 집중출격(연 107대).

- 5. 16.~ 5. 24. ○황주·원산·평강·장전 등지의 보급로 차단폭격 실시.
- 5. 26.~ 5. 29. ○경원선의 검불량(평강 북방)에 56회 출격, 철도 차단.
- 5. 31.~ 6. 17. ○연 140대 출격. 경의선·경원선·원평선의 철도 및 차량을 파괴.
- 6. 19.~ 7. 12. ○연 24대 출격. 삼방·검불량·재천리·신고산·원산·고저·석왕사·평양 등지의 철도 차단.
- 7. 13.~10. 27. ○유엔 공군의 특정 주요목표에 대한 공중압력작전(Air Pressure)의 일환으로 원산—신안주 선과 전선 사이의 지역에 위치한 북괴군의 보급집적소들을 집중 공격, 436개소를 파괴.
- 10. 28. ○한국 공군의 단독출격에 이어 이날부터 동부전선 국군 제1군단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임무(CAS)및 무장정찰임무를 수행. 제1전투비행단 전투능력 F-51 전투기 40대.
- 10. 28.~1953.
 - 2. 14. ○국군 제1군단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실시.
 - 2. 15. ○제1전투비행단의 강릉 전진부대인 제10전투비행전대를 기간으로 제10전투비행단을 강릉 기지에 창설하고, 사천 기지의 제1전투비행단을 조종사 양성부대인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
 - 2. 15.~ 7. 27. ○근접항공지원의 증가(3~4월의 출격대수 931대 중 근접항공지원 624회, 후방차단 207회). 제10전투비행단 전투능력 F-51 전투기 8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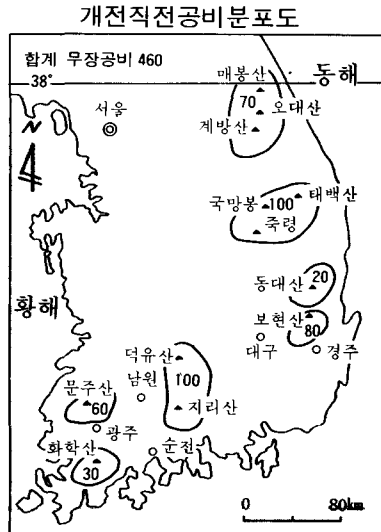
대비정규전

1. 공비의 발생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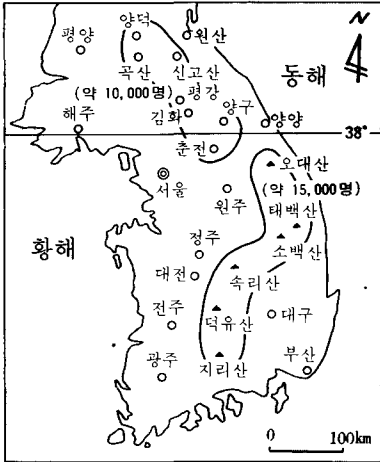
전쟁 기간 중 한국군의 후방지역에서 활동한 공비는 북괴군이 남침한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가 좌절되고 한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이들이 압록강 선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즉, 북괴군의 공세가 1950년 9월을 고비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좌절되고,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단행된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에 의해 전선이 급속하게 북으로 이동됨에 따라, 이때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괴군의 낙오부대와 낙오병들이 내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중 일부는 각 지역의 산악지대로 잠적하여 그 곳에서 현지의 부역자 또는 공비들과 합세하여 새로운 비정규전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군의 후방지역 교란활동을 자행하였다.

한국군이 압록강 선 가까이 진격하고 있던 1950년 10월경, 이들 공비의 규모는 38도선 이북 지역



1950. 10월 말경의 공비분포도



인 양구, 평강, 곡산, 양덕 일대에 약 10,000명, 38도선 이남 지역인 오대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일대에 약 15,000명으로 도합 25,000명 정도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제주도의 한라산 지역에서 46명의 공비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 전 남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약 3,000명의 공비 중 460명 정도가 잔존하고 있었다. 그 후 1950년 11월 말경,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한·만 국경선 가까이 진격중이던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이남까지 철수를 하게 되자,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한국군에 의하여 소탕되지 못한 일부 공비들은 그들의 진출부대와 합류하였으며, 38도선 이남의 영·호남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들은 그들의 조직을 확대하고 무장을 강화하여 군 보급로 차단, 식량 약탈, 관공서 습격, 차량 기습, 통신선 절단, 양민 학살 및 납치 등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2. 공비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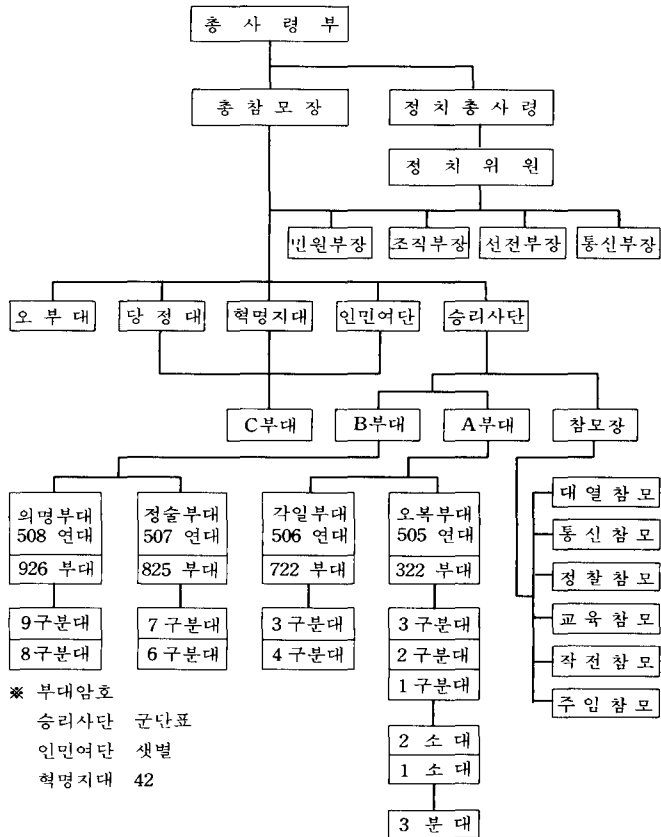
전쟁 기간 중 남한 지역에서 활동한 공비의 조직은 남부군단, 제526군부대, 인민유격대 남부군단 전북도사단, 전남도당 유격대 및 제주도 인민유격대로 대별되며, 이들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남부군단

이 부대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지리산을 거점으로 전남·북 일

대에서 준동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한국전쟁 기간 중 지리산이 북괴의 점령하에 있을 때는 북괴군의 병력보충부대로 큰 역할을 하였으나, 1950년 9월 15일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지리산 일대가 고립되자, 산악지역을 따라 평강 일대로 이동하여 11월 중순경 그 곳에서 재편성을 마친 다음, 북괴의 새로운 지령을 받아 12월 21일 태백산맥을 타고 다시 한국군의 후방지역으로 재침

남부군단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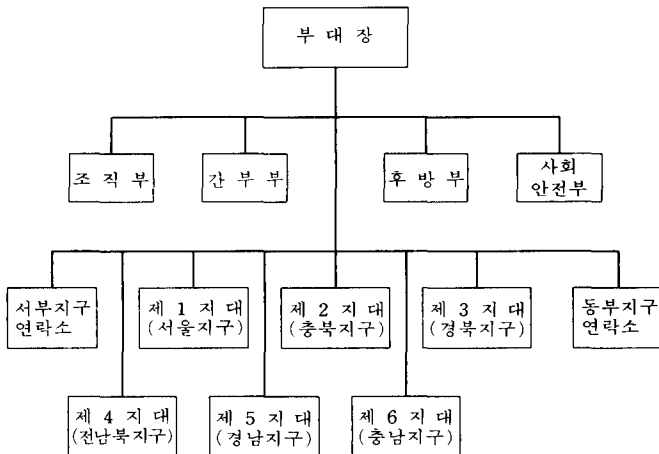
투하여 12월 말경에는 충청북도 단양에 도착하였다.

이 부대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한국군의 토벌작전으로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고 제천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재편성을 실시하고 부대 명칭을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단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이 부대는 1951년 2월 초순경 속리산 일대로 남하하여 유격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이때 역시 한국군의 토벌작전에 의해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고 속리산, 백아산 일대로 분산되었다.

제526군부대

이 부대는 복귀가 1951년 1월 대남 무장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들 지역에서 창설한 부대이며, 이들 공작원은 한국전쟁 이전에 남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월북하였거나 한국전쟁 당시 부역한 좌익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는 한국전쟁으로 와해된 남노당과 그 산하조직의 재건을 위하여 남파되어, 남한 전지역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비정규전 활동을 자행하였다. 이 부대는 그 에

제526군부대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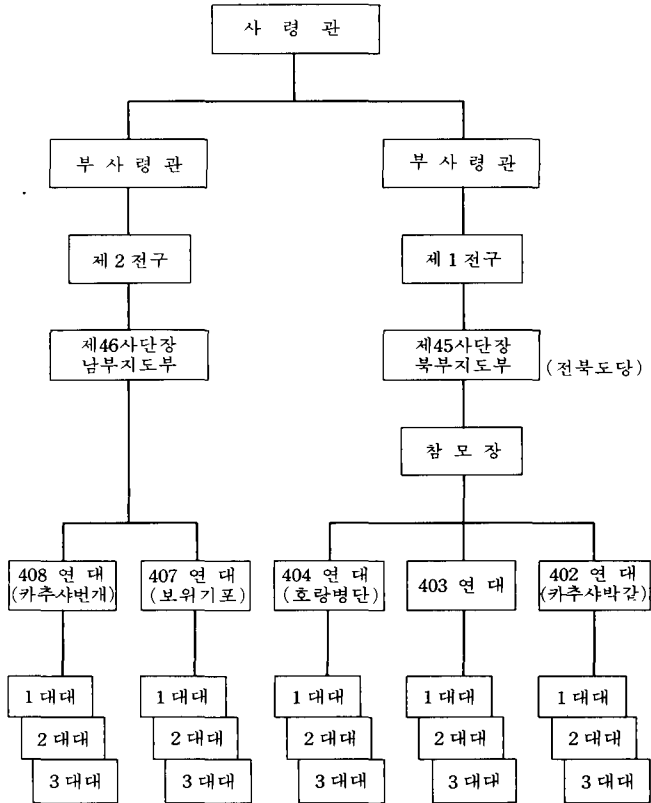


하에 2개의 연락소와 6개의 지대를 두어, 남한 각 지역에 1개 지대씩을 침투시켜 지역별로 유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북괴는 이 6개 지대 이외에도 제911·제921·제931·제941·제951·제1001부대 등을 조직하여 남파시켰다. 이들 유격대의 인원은 각각 50명 정도의 소규모 수준이었다.

인민유격대 남부군단 전북도사단

이 부대는 1951년 8월 그 동안 전라북도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민유격대 남부군단 전북도사단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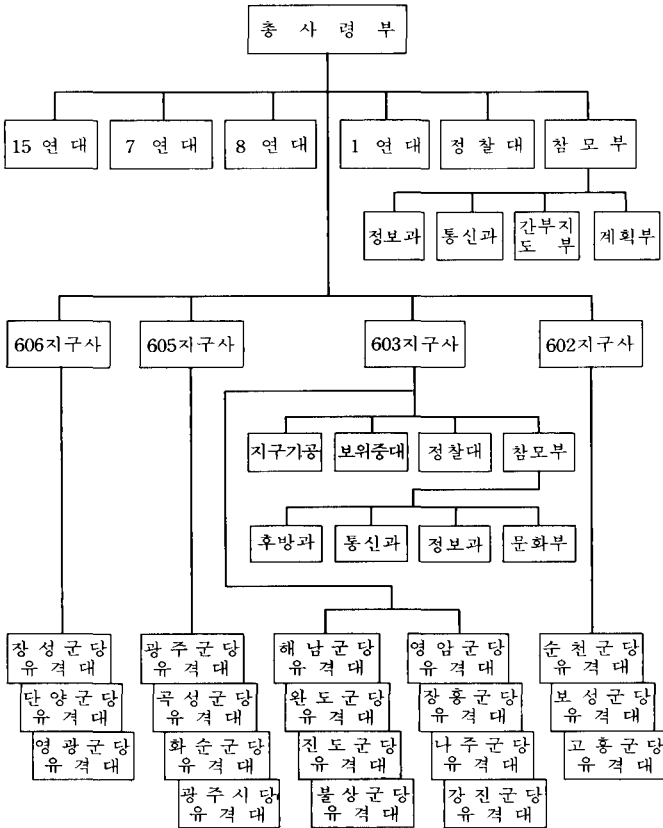


던 종전의 유격대를 사단체제로 개편한 부대이며, 전라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전남도당 유격대

이 부대는 1951년 8월에 그 동안 전라남도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종전의 유격대를 개편한 부대이며, 전라남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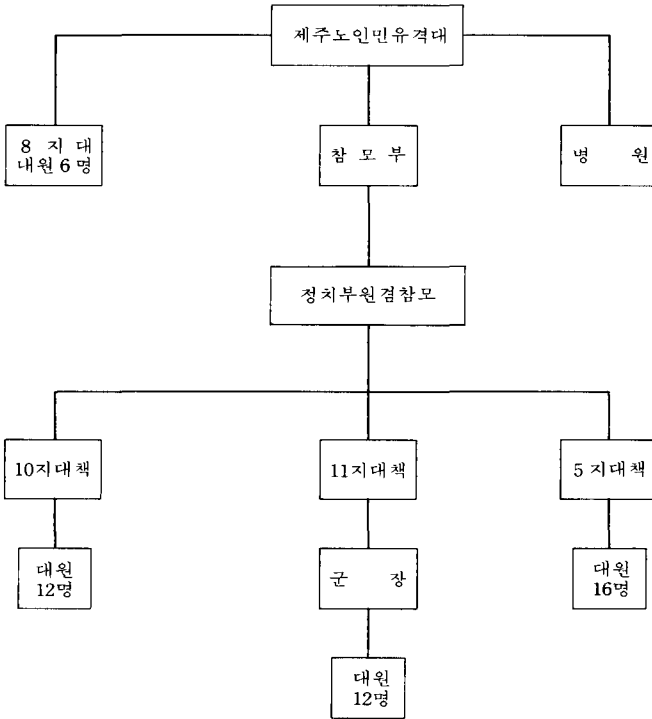
전남도당 유격대 편성표



제주도 인민유격대

이 부대는 1945년 8월에 조직되었으며, 4개 지대로 편성되어 남원면, 논고산악, 성판악, 서귀포 산악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편성표



3. 공비토벌작전

한국군은, 1950년 10월 초에 접어들어 한국군의 전선이 한·만 국경선에 이르고 후방지역이 확대되어 가면서, 공비들의 수가 급

속도로 증가하여 후방 치안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정규 작전부대를 후방지역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군·경 합동으로, 1950년 10월 4일부터 1953년 5월 1일까지 만 31개월간에 걸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 중 동원된 한국군의 병력은 총 9개 사단, 5개 유격대대, 10개 경비대대였으며, 그 밖에도 국민방위군 1개 연대와 경찰 29개 대대가 동원되었다. 이때, 실시된 작전은 주로 중·동부 산악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호남지역과 한라산 지역 일대에서 전개되었으며, 그 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벌작전의 실시 및 결과

작전부대	작전 기간 및 지역	공비규모 및 작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사단 -제 3·제 5·제 6·제 7·제 8경비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0. 4.~1951. 3. 30.(5개월) • 호남지역 일대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회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 10,000명 • 전과 -사살 : 2,000명 -포로 : 250명 -각종 화기 : 226정 (문) • 피해 -전사 : 34명 -부상 :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군단 -제 2·제 5·제 9사단 -유격 5개 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10 15 ~12. 20. (2개월) • 중동부지역 일대 -춘천, 강릉, 원주, 계룡산 • 대둔산 일대 -전북·충남 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귀 패잔병 : 13,700명 • 지대한 성과 달성 -공비소탕 -군 보급로 확보 -복상 도주하는 패잔병 섬멸

작전부대	작전 기간 및 지역	공비규모 및 작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사단 -제6·제7경비대대 -국민방위군 1개 연대병력 -태백산 전투경찰 2개 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 2. 17.~4. 25. (2개월) • 경북 동해안 지역 일대 -보현산, 일월산 -속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 1,700명 • 전과 -사살 : 97명 -포로 : 37명 • 피해 -전사 : 31명 -부상 : 76명 -실종 : 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사단 -제1경비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 -청년방위대 2개 중대 병력 -충남 경찰토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 4. 15.~5. 11.(1개월) • 호남지역 일대 -금산 지역 -국사봉 -부안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 3,051명 • 전과 -사살 : 497명 -포로 : 587명 -각종 화기 : 28정(문) -아지트 파괴 : 361개소 • 피해 -전사 : 2명 -부상 :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 야전전투사령부 -수도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7예비연대 •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 -제8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0예비연대 • 제107예비연대 제2대대 -서부지구 경비사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 11. 30.~1952. 3. 15.(4개월) • 호남지역 일대 -지리산, 덕유산 -회문산, 백아산 -대둔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 8,907명 • 전과 -사살 : 5,009명 -포로 : 3,968명 -귀순 : 45명 -각종 화기 : 682정(문) -아지트 파괴 : 341개소 • 피해 -전사 : 33명 -부상 : 72명

작전부대	작전 기간 및 지역	공비규모 및 작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제2경비대대 • 제107예비연대 • 제3대대 • 14개 전투경찰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사단 -칠보 경찰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 7. 13.~8. 4. (1개월) • 호남지역 일대 -지리산, 덕유산, 회문산, 장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 2,070명 • 전과 -사살 : 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 무지개부대 • 6개 전투경찰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 2. 3.~5. 1. (3개월) • 한라산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 46명 • 전과 -사살 : 7명 -포로 : 2명 -귀순 : 2명

이 작전 기간 중, 한국군과 경찰은 공비 사살 7,667명, 포로 4,920명, 아지트 파괴 702개소, 각종 화기 노획 936정(문)의 전과를 거두었으며, 한국군은 전사 130명, 부상 170명, 실종 26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북괴는 전쟁 전이나 전쟁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비정규전을 감행하여 한국군의 전투력을 분산 고착시키고 민심을 교란시키며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남게 하였다.

휴전협상

1. 휴전협상의 배경

한국전쟁을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종결짓기 위한 노력은, 공산측의 제안으로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및 중립권 국가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즉, 1950년 12월 4일~8일에 개최된 트루만 미국 대통령과 애틀리 영국 수상과의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종결짓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3개국(인도·이란·캐나다) 협상단의 구성안이 통과되었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1951년 5월 하순에는 미국 민주당 존슨 상원의원이 한국전쟁 발발 일주년이 되는 동년 6월 25일을 기하여 38도선에서 휴전을 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공산측의 목살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종결짓기 위한 자유 진영측의 시도는 공산측의 거부로 모두가 무위로 끝이 났다.

그러던 중, 1951년 4월과 5월의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춘계 공세가 좌절되고 전세가 한국군 및 유엔군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공산측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능력을 잃게 되어 유엔군과의 휴전협상을 통한 정치적 흥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1년 6월 23일(뉴욕 시간)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

리크가 유엔 방송의 '평화의 대가' 시간을 이용하여 휴전협상을 제의하였으며, 미국은 소련의 이 제의를 받아들여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공산군측과의 휴전협상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 휴전제의를,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소련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미국도 이를 계기로 한국사태를 6·25 직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선에서 휴전협상을 모색한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전쟁을 통하여 북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을 시도하였던 유엔의 통한결의(統韓決議: 1950. 10. 7.)는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한국전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부터 “일면 전쟁, 일면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유엔군측은 그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기까지만 2년 17일 동안 공산군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하였다.

1951년 6월 30일,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공산군 총사령관에게 유엔군측은 그들의 휴전협상 제의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회담은 원산 앞바다에 있는 네덜란드 병원선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7월 2일, 공산군측은 북경 방송을 통하여 회담을 개최할 것에 동의하고, 회담은 원산 앞바다의 병원선이 아닌 38도 선상의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쌍방의 연락장교회의가 개최되어 쌍방의 정식대표 명단이 교환되고 7월 10일부터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來鳳莊)에서 본회담이 열리게 되었다(회담 장소는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으로 이전하였다.)

2. 휴전협상의 과정

(1) 협상의제 및 토의순서의 결정 문제

1951년 7월 10일에 개최된 첫 회담은 조이 미 해군소장을 수석으로 한 4명(한국측 대표 1명 포함)의 유엔군측 대표와 남일을 수석으로 한 4명(중공군 대표 2명 포함)의 공산군측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날 회담에서는 쌍방이 서로 인사를 교환하는데 그쳤다.

7월 11일부터 양측 대표들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나, 시초부터 쌍방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큰 차이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측이 협상의제의 채택,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 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그리고 전쟁포로에 관한 문제 등 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순 군사적인 문제만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산군측은 쌍방이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한반도로부터의 외국군 철수 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앞세움으로써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중, 협상을 시작한 지 16일 만인 7월 26일에야 쌍방은 다음과 같은 협상의제와 토의순서에 합의하였다.

- 제1항 협상의제의 채택
- 제2항 군사분계선의 설정
- 제3항 휴전 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제4항 포로교환에 관한 협정

제5항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쌍방은 이날 채택된 의제와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제159차 본회담에서 휴전이 정식으로 조인되기까지 쌍방이 각 의제에 합의한 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2항 군사분계선의 설정 문제

1951년 7월 27일에 시작된 의제 제2항에 관한 협상은 벽두부터 쌍방이 현격한 견해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과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공산군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동년 8월 23일에는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그 후 2개월 동안 회담은 교착되었다.

10월 25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회담에서 쌍방은 제2항에 관한 의견의 접근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회담에서, 공산군측은 의제 제2항인 “군사분계선의 설정”에 관한 조항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즉시 휴전을 실시하자고 요구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유엔군측은 11월 17일 의제 제2항에 관한 새로운 타협안을 제의하였다.

이 유엔군측 타협안은 공산군측의 큰 이의 없이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협정문이 기초되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 ②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킬로미터씩 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 ③ 상기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

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

쌍방이 합의한 이 의제 제2항의 내용은 하루라도 빨리 휴전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시 미 행정당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유엔군측은 이 30일간의 휴전 기간 중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설사 이 기간 중에 공격작전을 실시하여 북으로 진격을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휴전이 조인되면 다시 현재의 선으로 철수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공산군측은 30일간의 휴전을 얻은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립된 12월 27일까지의 임시 휴전기간 중, 쌍방은 휴전협정의 조인은 고사하고 아무런 협정도 성립시키지 못함으로써, 조기 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여 30일간의 정전을 시도하였던 미국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첫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반대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공산군측에 대한 유엔군측의 이와 같은 양보는 그 후의 휴전협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공산군측은 30일 동안의 이 휴전기간을 이용하여 1951년 12월 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심깊고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으므로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전투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3) 제5항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문제

의제 제5항에 관한 협상은 1952년 2월 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뜻밖에도 순조로운 합의를 보았다.

2월 7일에 시작된 예비회담에서 북괴 대표 남일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북괴와 중공 그리고 관계 유엔국가 중에서 각각 5명씩의 대표를 선출하여 휴전 후 3개월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평화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괴 대표가 제의한 내용은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 평화에 관한 기타 문제 등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유엔군측 대표는 공산군측 제안 중에서 대한민국 대표를 제외한 5명씩의 대표단 선출 문제를 삭제하고, 외국군의 철수를 한국군 이외의 군대로 할 것과 한국 평화에 관한 기타 문제를 한국 평화에 관한 한국 문제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공산측은 이러한 수정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2월 16일 다음과 같은 또다른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제반문제는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지명된 대표들에 의한 고위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건의하기로 한다.”

다음날, 유엔군측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공산군측이 2월 16일에 제의한 수정안을 수락하였다.

- ① 그러한 건의는, 대한민국과 유엔에 대하여, 유엔군 총사령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 ② 유엔군측 대표는 “외국군”이라는 말은 “비한국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공산군측 자신의 성명에 입각하여 받아들였다는 것.
- ③ ……“등등”이라는 말은 한국 이외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는 것.

이로써, 의제 제5항은 토의가 시작된 지 11일 만인 1952년 2월 17일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타결되었다.

(4) 제3항 휴전 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문제

의제 제3항에 관한 협상은 쌍방이 의제 제2항(군사분계선의 설정)에 합의한 그 다음날인 1951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휴전 후 군사력 증강의 규제.
- ②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

이 중, ①에 관한 문제는 주로 휴전 후 한반도 밖으로부터 병력 및 전투장비(군용비행기, 장갑차량, 탄약 등)의 반출입을 규제하는 문제이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근 3개월에 걸친 열띤 논쟁이 벌어졌으나, 쌍방은 비교적 쉽게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52년 2월 23일에 이르러,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해 휴전 후에도 계속 한반도내에 주둔하게 될 외국군의 병력 교체를 고려하여 월 35,000명의 병력이 한반도에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동년 3월 20일에는 병력 및 전투장비 출입국 규제에 관한 이 협정 내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각각 5개의 감시대상 항구를 지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 공산군측 : 신의주·신안주·만포진·함흥·청진.
- 유엔군측 : 부산·인천·강릉·군산·대구.

또한, ②의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최초부터 쌍방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유엔군측이 중립국의 수를 쌍방이 각각 2개국씩 지명하는 4개국 안을 제안한 데 반하여, 공산군측은 양측이 각각 3개국씩 지명하는 6개국 안을 제안하면서 그 중에 반드시 소련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즉,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스웨덴·스위스·노르웨이와 소련을 포함한 6개국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중립국의 지명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더구나 유엔군측이 한국전쟁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있는 소련을 중립국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렇듯, 공산군측이 소련을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3월 말까지도 굽히지 않음으로써, 공전을 거듭하던 의제 제3항에 대한 휴전협상은 4월초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던 중 이해 5월 초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공산군측이 소련을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요구를 포기하고 유엔군측이 제의한 4개국 안을 수락하였다.

1952년 5월 7일, 쌍방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공산군측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2개국과 유엔군측이 지명한 스웨덴과 스위스 2개국 등 4개 중립국으로써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휴전협상을 개시한 지 만 10개월 만인 1952년 5월 7일에 이르러서는 5개의 의제중 제1·제2·제5·제3항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고 의제 제4항만을 남겨 놓게 되었다.

(5) 제4항 포로교환에 관한 협정 문제

의제 제4항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 전쟁은 그 후로도 15개월이나 더 지속되었다.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의 초점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전쟁포로들을 상호 송환함에 있어서, 유엔군측의 주장대로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군측의 주장대로 포로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원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공산군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으며,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들의 대다수가 반공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1952년 4월 10일 유엔군사령부가 공산군 포로 중 강제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와 이를 거부하는 포로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만 명의 공산군 포로(민간인 억류자 포함) 중 북한 또는 중공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수가 고작 7만 명인 데 반하여 나머지 10만 명의 포로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포로들은 수용소내에서 반공파와 친공파로 양분되어 항상 주도권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으며, 이러한 다툼은 마치 한국전쟁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52년 5월 7일에는 거제도 제76포로수용소에서 친공파 포로들이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인 도드 미 육군준장을 납치하여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거제도 공산군 포로 수용소내의 친공파 포로들은 북괴군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거제도내에는 북괴 보안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보위부가 있었으며, 거제도와 평양 사이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기획부 및 선전부 그리고 공산군 포로 수용소를 지배하고 인민재판을 집행하는 경비부 등으로 구성된 거제도 공산당 총지휘본부가 있었다.

이들은 판문점에서 포로송환에 관한 문제로 휴전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언제나 포로수용소내에서 계획적인 폭동을 일으켜, 휴전협상을 방해하거나 유엔군측 대표에게 그들의 억지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1952년 10월 8일 이후, 포로송환에 관한 원칙문제를 놓고 또 다시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던 휴전회담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한 직후부터였다.

스탈린 시대가 종말을 고한 지 약 1개월 만인 이 해 3월 말에 공산군측이 회담의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이때부터 휴전에 대한 밝은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4월 6일 양측 대표가 다시 판문점에서 회동하여 4월 20일~26일 간에는 상병(傷病)포로가 쌍방간에 교환되고, 6월 8일에는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의제 제4항 포로교환에 관한 문제 중, 본국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처리에 관한 문제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포로 교환 2개월 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는 90일간의 설득기간을 거쳐 그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정치회담에서 30일간 토의한다. 그렇게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환 거부 포로들은 민간인 신분을 가지게 되며, 포로가 원한다면 인도적십자사나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의하여 중립국으로 송환되어 그 곳에서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1953년 6월 8일, 제146차 본회의에서는 포로송환에 관한 의제 제4항의 참고조항에 유엔군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서명을 함으로써 휴전회담은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쌍방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뒤따른 마지막 남은 문제인,

- ①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확정문제.
- ② 비송환 포로의 인도(引渡)지역에 관한 문제.
- ③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될 각종 위원회의 활동개시에 관한 문제.
- ④ 휴전문서의 실제적인 조인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등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담이 계속중이던 6월 18일, 유엔군이 억류중이던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방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공산군측은 이 사건을 구실로 또다시 회담을 중단시켰으나, 7월 19일부터 본격적인 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때, 타결되어야 할 문제는,

- ① 적당한 정전 시기의 선정.
- ② 휴전선의 확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 ③ 휴전협정문의 자구 수정.
- ④ 중립국 감시위원단과 중립국 송환위원단의 도착 문제.

등이었다.

유엔군측은 비밀회담을 통하여 “남아 있는 송환 거부 포로들을 비무장지대의 중립국 송환위원단에 인계하겠다는 것과 한국군이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는 것 그리고 휴전 후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공산계 임원들과 기타 사명을 띠고 주재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공산측에 확약하였다.

7월 20일부터, 쌍방의 참모장교들은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이 안전들을 토의한 끝에 22일에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휴전협정에 대한 행정상의 세부사항까지도 합의하게 되었다.

다음날, 쌍방의 참모장교들은 중공군의 최후공세로 인하여 변경된 전선을 기준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로써 한반도를 분단하는 비극적인 분계선이 또 한 번 그어지게 되었다.

3. 휴전 조인

1951년 7월 10일에 개시된 휴전회담은 1953년 7월 21일에 끝이 났으며 7월 27일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만 3년 1개월 2일 간에 걸쳐 계속된 한국전쟁은 그 전쟁을 일단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만 만 2년 17일 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전 전쟁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었다.

이러한 기나긴 휴전협상 과정을 통하여, 유엔군측은 공산군측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과의 타협은 전세가 유리하거나 그 어떤 저력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7월 27일 10 00에 판문점의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은 모두 18통으로 된 협정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전쟁은 명분없는 휴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협정문서는 문산의 유엔군 전방사령부로 보내졌으며, 이날

13:00에 클라크 대장이 서명을 마쳤다.

그리고, 이 문서는 다시 판문점에 되돌려져 평양으로 보내졌으며, 북괴군을 대표하여 김일성이, 중공 의용군을 대표하여 팽덕회가 각각 휴전협정에 확인 서명한 다음 그 중 영문으로 된 6통의 문서만이 유엔군측에 되돌아왔다.

이날 22 00를 기하여, 전 전선에서는 모든 전투행위가 일제히 정지되고 한국전쟁은 휴전기를 맞게 되었다.

포로의 발생과 처리

1. 포로의 발생

한국전쟁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교전 쌍방간에 수많은 전쟁포로를 발생시켰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총체적인 포로의 수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다만 휴전을 전후하여 교전 쌍방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실제로 처리된 통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쟁 기간 중 처리된 쌍방간의 포로는 공산군 포로가 132,097명(북괴군 110,723명, 중공군 21,374명)이었으며, 유엔군 포로가 13,816명(한국군 8,668명, 유엔군 5,148명)이었다. 이 통계에는 포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종 또는 사망한 포로 수는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공산측에서 자행된 고문·학살·학대·굶기 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포로의 수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북괴가 한국군 포로를 북괴군에 강제 입대시킨 포로 수 또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주로 발생한 시기는 북괴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38도선의 방어선이 붕괴되어 초전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1950. 6.~7.)와 한국군 및 유엔군이 한·만 국경선 가까이 진격한 후 중공군의 침공으로 한강 선까지 후퇴하던 시기(1950. 11.~12.)였다.

반면, 북괴군 포로는, 전쟁 초기에 낙동강 선까지 남침을 계속하던 북괴군이 1950년 9월에 단행된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작

전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채 북으로 패주하던 시기(1950. 9. ~10.)에 대부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포로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1950. 10.)하여 평택—제천 선까지 진출(1950. 1.)한 후, 한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받아 38도선 이북으로 퇴각하던 시기(1950. 2.~5.)에 주로 발생하였다. 공산군은 이 밖에도 전쟁 초기(1950. 8~9.)의 안강·기계 지구 전투와 휴전 직전(1953 7.)의 금성 남방 삼현 지구 전투에서도 다수의 포로를 발생시켰다.

2. 포로의 처리

전쟁 기간 중 교전 쌍방이 관리하고 있던 전 포로는 휴전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처리되었다.

최초로 포로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전쟁중이던 1953년 4월 20일~26일 간에 실시된 상병포로의 교환이었다. 이는 1953년 4월 11일에 조인된 “상병포로 교환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포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휴전이 임박하였던 1953년 6월 18일에 한국 정부 독단으로 단행한 “반공포로의 석방”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가 휴전을 반대하기 위하여 유엔군 관할하에 있던 공산군 포로 중 반공포로를 자유인으로 석방한 것이다.

세 번째로 포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휴전이 성립된 다음달인 1953년 8월~9월 간에 실시된 승환 희망 포로의 상호 교환이었다. 이는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휴전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1953년 11월~1954년 2월 간에 실시된 승환 거부 포로의 승환이었다. 이는 휴전협정에 따라 승환 희망 포로 전원이 귀환할 때, 그들 소속국으

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남아 있던 포로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으며, 이들은 1953년 6월 8일에 조인된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한국전에서 발생한 포로 중 쌍방이 관리하고 있던 모든 포로는 최초의 포로교환이 이루어진 지 만 10개월 만에 전원이 처리되었다.

(1) 반공포로의 석방

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회담이 근 2년간을 끌어오던 중, 1953년 6월에 접어들면서 휴전회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포로교환 문제가 6월 8일 타결되고 양측 대표(유엔군·북괴 및 중공군)가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휴전협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당시, 한국측은 이러한 기회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괴의 불법적인 남침을 응징하여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기어이 달성하여 민족의 염원을 이룩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휴전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사태의 진전은 한국민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한국 전역에 걸쳐 거센 휴전 반대운동을 유발시켰다.

이 무렵(6. 6.),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문제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우리 정부는 유엔군과 공산군이 일시에 한국에서 철퇴하되, 이를 실시하기 전에 한·미 양국간에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 공동방위조약에 다음 조건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1. 한반도를 타국이 침략할 때에는 미국이 한국과 즉각 합동방위에 임할 것이며,
2. 미국은 한국에 병기 및 탄약과 병참물자를 보급하여 미국군의 참

- 전 없이도 한국이 국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3. 미국의 해·공군은 현재의 주둔지에서 적군이 재침략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한국의 국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민족자결주의의 권리를 행사하여 싸움을 계속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휴전회담이 마무리되어 가자, 이에 대한 항거로, 당시에 유엔군이 수용 관리하고 있던 공산군 포로들 중 북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고 있던 반공포로 34,900명 중 27,000명을 이승만 대통령 독단으로 6월 18일 자정을 기하여 일제히 석방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 주었다. 이들 반공포로의 석방은 당시 포로수용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던 한국군 경비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반공포로의 석방은 일시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유엔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항의를 제기하였고, 북괴와 중공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모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고 비난하며 전원을 재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타개되어 가던 휴전회담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의 조속한 휴전 타결 문제가 주요 정치과제로 대두되어 있던만큼, 대통령의 특사를 6월 25일 파한하여 “이 대통령의 독단은 매우 무익한 일이며, 만약 사리에 맞는 태도를 취한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줄 것을 보증한다.”고 확약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휴전 후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확대, 포로의 자유의사 보장,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정치·경제·방위 문제의 협력 증진,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7월 12일 한·미 양국은 휴전 성립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반공포로의 석방은 자유를 갈망하여 공산군 포로 수용소내에서 공산군 포로들과 생명을 건 투쟁에서도 이념을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포로들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휴전 이후의 국가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조치이었다.

(2) 포로교환

한국전쟁 중 포로의 처리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이 경과될 무렵 최초로 개최된 휴전회담에서였다. 이때 제기된 휴전회담의 주요 4개 의제 중의 하나가 “포로교환에 관한 제조치”이었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교환 문제는 벽두부터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 주요 원인은 유엔군측이 최초로 공산군 포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측이 억류중인 포로 총 14만 명 중 그들 지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약 5만 명(북괴군 34,900명, 중공군 14,704명)의 포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데 기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공산군측은 억류된 포로 전원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유엔군측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포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무렵, 공산군측에서는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7만 5천 명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휴전협상은 회담이 개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포로교환 문제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자, 이의 타개책으로 쌍방이 억류중인 부상포로를 우선 교환하자는 제의를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측에 제기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1953년 2월에 제기되었으며, 공산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동년 4월 11일 유엔군 연락장교 수석대표와 북괴 및 중공군 연락장교 수석대표 간에 “상병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년 4월 20일부터 26일 간에 한국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교전 쌍방간에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환된 부상포로 수는, 유엔군측은 한국군이 471명, 미국군이 149명, 기타 유엔군이 64명으로 모두 684명이었으며, 공산군측은 북괴군이 5,640명, 중공군이 1,030명으로 모두 6,670명이었다.

이와 같은 상병포로의 교환을 계기로, 포로교환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공산군측에서도 중국에는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전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장애(阻礙)도 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휴전협정 중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포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는 유엔군측의 제안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가 합의되자, 1953년 6월 8일에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었고,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9월 6일 간에 송환을 희망하는 쌍방의 포로 전원이 판문점에서 교환되었다. 그리고,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그 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져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 교환된 포로 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한 국 군 및 유 엔 군				공 산 군		
	한 국	미 국	기 타	계	북 괴	중 공	계
인 원 수	7,862	3,597	1,314	12,773	70,183	5,640	75,823

(3) 송환 거부 포로의 처리

휴전협정에 따라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교환이 끝난 다음, 송환을 희망하지 않았던 포로들은 별도의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중립국 송환위원회(인도·스위스·스웨덴·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임명된 위원 1명씩으로 구성)에 넘겨졌으며, 그들은 인도군 관리하에 판문점 근처의 비무장지대내에 수용되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각기 소속 국가의 대표들로부터 행선지 결정에 필요한 해설을 받은 다음 자유의사에 따라 각자의 행선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해설이란 포로들을 각기 자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한 포로 설득업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소속국가의 대표들이 포로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돌아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 해설업무는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포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자, 각기 포로 소속국의 대표들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관리 지역내에서 자국 소속의 전 포로를 대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국으로 귀환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포로설득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포로해설업무는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954년 2월에 종료되었다.

그 결과, 한국측에 억류되었던 공산군의 송환 거부 포로는 총 22,604명이었으나 그 중 공산측으로 귀환하기로 뜻을 번복한 자는 피피군과 중공군을 모두 합하여 628명(2.7%)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모두는 자유지역을 선택하였다. 공산측에 억류되었던 한국군과 유엔군의 송환 거부 포로는 총 359명이었으나 이 역시 그들의 의사를 번복한 자는 10명(3.3%)에 불과하였다.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관리한 송환 거부 포로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측에 억류된 송환 미희망 포로 단위 : 명

처 리 결 과	북 괴 군	중 공 군	계
한국, 자유중국으로 귀환	7,604	14,235	21,839
인도로 귀환	74	12	86
공산측으로 귀환	188	440	628
인도군 수용중 사망	23	15	38
탈출 및 행방불명	11	2	13
계	7,900	14,704	22,604

북괴측에 억류된 송환 미희망 포로 단위 : 명

처 리 결 과	한국군	미국군	영국군	계
공산측으로 귀환	325	21	1	347
인도로 귀환	2			2
한국측으로 귀환	8	2		10
계	335	23	1	359

(4) 포로 처리의 결과

한국전에서 발생한 포로에 대한 처리 결과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다른 어떤 전쟁에서보다도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이끌면서 이루어진 포로교환 협상은 휴전 협상 그 자체를 좌우할만큼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며, 이를 타개하는 데 만 2년의 시일이 소요되었고, 포로교환도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회마다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공산군 포로 중에서는 대대적인 송환 거부 포로가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과정도 특이한 것이었다. 특히, 공산군측에서는 그들이 밝힌 전체 포로 중 약 20%에 불과한 인원만을 한국과 유엔군측으로 송환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포로들에 대한 내용은 끝까지 밝히지를 않았다.

휴전을 전후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 처리의 결과는 공산군 포로 중 그들 지역으로의 귀환을 선택한 포로는 전체 포로의 65% (89,791명)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5% (48,507명)는 귀환을 거부하고 자유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전체 포로의 98% (14,153명)가 귀환하였으며, 나머지 2%만이 공산지역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 모든 결과는 포로들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교전 쌍방간 상호협약에 따라 처리된 포로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포로 처리의 결과

구 분	한국군	유엔군	계	북괴군	중공군	계
반공포로 석방				27,000		27,000
상병포로 교환	471	213	684	5,640	1,030	6,670
포로 교환	7,862	4,911	12,773	70,183	5,640	75,823
송환 거부(송환거부자 중 복귀)	335 (8)	24 (2)	359 (10)	7,900 (188)	14,704 (440)	22,604 (628)
계	8,668	5,148	13,816	110,723	21,374	132,097

전쟁 기간 중의 피해

북괴의 남침으로 3년 1개월여에 걸쳐 계속된 한국전쟁은 한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괴군과 중공군에 대하여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태반을 초토화시켰다.

한국전쟁 기간 중 쌍방이 입은 손실 가운데, 공산군측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나, 1953년 8월 7일 유엔군 총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 (S/3079)에 의하면 공산군(북괴군·중공군)측의 인명 총손실은 150만~2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군 및 유엔군이 입은 피해도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피해를 입은 이외에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입었다.

전쟁기간 중, 쌍방이 입은 주요 군사장비의 손실은 한국군 및 유엔군측이 항공기 1,992대와 전차 777대, 공산군측이 항공기 2,186대와 전차 1,178대를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전쟁 중 한국군 및 유엔군이 입은 피해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 및 유엔군 피해

단위 : 명

구 분	전 사	부 상	실종 및 포	합 계
합 계	95,800	294,280	89,262	479,342
한 국 군	58,809	178,632	82,318	319,759
유 엔 군	36,991	115,648	6,944	159,583
1 미 국	33,629	103,284	5,178	142,091

구 분	전 사	부 상	실종 및 포	합 계
2 영 국	766	2,583	1,129	4,478
3 캐 나 다	309	1,202	32	1,543
4 오스트레일리아	304	1,040	72	1,416
5 그 리 스	196	543	2	741
6 터 키	721	2,493	409	3,623
7 프 랑 스	262	1,008	19	1,289
8 폴 롬 비 아	163	448	28	639
9 이 디 오 피 아	121	536		657
10 네 덜 란 드	120	645	3	768
11 필 리 핀	112	299	57	468
12 벨 기 에	103	340	1	444
13 타 이	125	1,139	5	1,269
14 뉴 질 랜드	23	79	1	103
15 남아프리카 공화국	34		8	42
16 룩셈부르크	3	9		12

민간인 피해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수
사 망	244,663
학 살	128,936
부 상	229,625
납 치	84,532
행 방 불 명	303,212

연 표

1950. 6.25. ○북괴군,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 개시.
 ○서부전선의 국군, 용진·개성·동두천·포천 지구에서 철수.
 ○중부전선의 국군, 춘천·홍천 지구에서 북괴군의 공격 격퇴.
 ○동부전선의 국군, 주문진 지구에서 철수. 북괴군 제549·제766부대, 강릉 남방 두 곳에 상륙하여 한국군의 퇴로 차단.
- 6.2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괴군의 즉각적인 공격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권고안 결의.
 ○국군 제17연대, 용진반도에서 인천으로 철수.
 ○북괴군, 의정부·강릉 침공.
 ○중부전선의 국군, 춘천·홍천에서 북괴군의 공격 격퇴.
 ○F-80 전투기와 야크 전투기 간에 첫 공중전, 야크기 3대 격추.
- 6.27 ○정부, 대전으로 이동.
 ○미국, 한국에 해·공군 지원과 미 제7함대의 대만 해협 봉쇄 결정.
 ○국군, 미아리—청량리 선에 수도방어진지 편성.
 ○국군, 전선의 균형을 위하여 춘천지구 방어부대의 철수를 명령.

- 동부전선의 국군, 대관령으로 철수.
 - 맥아더 사령부, 전방사령부(ADCOM)를 수원예 설치.
- 6.2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한 군사지원(참전) 결 의.
 - 서울, 피침. 02·30, 한강 인도교 폭파.
 - 국군,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한강 방어선 형성.
 - 미 해·공군, 38도선 이남 지역 작전활동 개시.
- 6.29.
- 미 공군, 북쪽 개시. B-29 평양 폭격.
 - 미 극동 해군, 38도선 이북지역을 포함한 동· 서해안 함포사격.
 - 국군, 한강 방어선에서 북괴군 공격 격퇴.
 - 중·동부전선의 국군, 홍천—하진부리 선에서 철수.
 - 맥아더 원수, 한국 전선 시찰.
 - 영국 극동함대(항모 등 8척) 참전, 서해안으로 항진.
- 6.30.
- 미국, 미 지상군의 한국전선 투입 결정.
7. 1.
- 미 지상군 선발대, 부산에 도착.
 - 북괴군, 김포 침공.
7. 2.
- 북괴군, 양평·원주 침공.
 - 한국 공군, F-51 전투기 10대 인수.
7. 3.
- 북괴군 전차부대, 한강 도하.
 - 국군,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 개시.
 - 미 지상군 선발대(스미드 특수임무부대), 평택—안성 선에 병력 배치.
 - 육군본부, 수원으로 이동.

7. 4. ○북괴군, 인천—수원—이천—여주—원주—삼척 선으로 진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오산으로 이동.
○육군본부 평택으로 이동.
○맥아더 원수,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 설치. 던 소장을 사령관에 임명.
7. 5. ○미군 스미드 특수임무부대, 오산 죽미령에서 북괴군과 첫 교전.
○국군 재편, 제5·제7사단을 해체하여 수도 제1·제2사단을 보강.
○전선 조정, 서부전선은 유엔군 담당. 중동부전선은 국군 담당.
7. 6. ○미 지상군(제24사단), 평택 부근 37도선에 방어선 구축.
○북괴군, 평택—진천—제천 선 진출.
7.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군사령부 설치안 결의.
○국군 제6사단, 음성군 무극리·동락리에서 북괴군 1개 연대(제15사단) 섬멸.
7. 8 ○정부, 전남·전북을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대한학도의용대 결성.
○북괴군, 천안—충주 선 진출.
7. 9. ○미 제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 7.10 ○북괴군, 전의—진천—음성—충주—단양 선 진출.
○미 제5공군, 한국으로 이동.
○미국, 신형 3.5인치 로켓포 한국으로 급송.

- 7.12. ○국군·유엔군, 금강—소백산맥 방어선 구축.
○국군, 죽령—영덕 선으로 철수.
- 7.13. ○북괴군, 조치원—청주 선 진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작전지휘 개시.
- 7.14. ○이승만 대통령,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
○육군본부, 대구로 이동.
○북괴군, 공주 침공.
○유엔 사무총장, 유엔 가입국에게 지상군부대 파관을 권고.
- 7.15. ○국군 제2군단, 함창에서 창설.
○국군 제8사단, 풍기로 침입한 북괴군 1개 연대 격멸.
○북괴군, 금강 방어선 공격.
- 7.16. ○미 제24사단, 금강 방어선에서 대전으로 후퇴.
○정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
○B-29기, 서울 철도조차장 폭격.
- 7.17. ○국군 제17연대, 화령장 전투에서 북괴군 1개 연대를 격멸.
○북괴군, 강경·논산 침공.
- 7.18. ○미 제1기병사단, 포항에 도착.
○국군, 점촌—풍기 선 방어.
- 7.19. ○북괴군, 이리·예천·영덕 침공.
- 7.20. ○대전 실함·미 제24사단장 던 소장 실종.
○미 제24사단, 최초로 공급된 3.5인치 로켓포로 북괴 전차 7대 파괴.
- 7.21. ○국군·유엔군, 논산—대전—보은—점촌—영주 선에서 격전.

- 정부, 전남·북 지역까지 비상계엄 확대 실시.
- 7.23. ○미 제1기병사단, 포항에서 대전 남쪽 영동으로 이동.
- 북괴군, 광주 침공. 순천으로 진출.
- 7.24. ○북괴 제4사단, 군산·남원·광주 지구로 남하.
- 북괴군 호남 우회사단(제6사단), 여수 진출.
- 7.25. ○국군 제3사단, 영덕 탈환.
- 7.26. ○국군·유엔군, 영동—영주 선에서 철수.
- 7.27. ○북괴군, 하동—함양 선 진출.
- 7.28. ○미 제1기병사단, 황간지구에서 북괴군 공격 저지.
- 7.29. ○워커 중장, 당시의 방어선 사수 언명.
- 북괴군, 영동—거창 선에 9개 사단을 집결시켜 남침 이후 최대공격 준비.
- 북괴군, 영덕 재진출.
- 7.30. ○북괴군, 거창 통과 진주로 진출.
- 국군, 영덕지구 주요거점 재탈환.
- 7.31. ○북괴군, 진주—협천—김천—예천—안동—영덕 선 진출.
- 미군 증원부대(제2사단·제1기병사단·제5연대전투단), 한국에 도착.
- 맥아더 원수, 대만 방문. 장개석 총통과 회담.
- 8. 1. ○국군·유엔군,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 개시.
- 소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귀.
- 8. 2. ○미 해병제5여단, 부산에 상륙. 마산 전선으로 이동.
- 8. 3. ○미 제25사단, 상주에서 마산으로 이동.
- 국군·유엔군, 낙동강 유역 4개 교량 폭파.

- 8. 4. ○국군·유엔군, 낙동강 방어선 구축.
- 8. 5. ○북괴군, 8월공세 개시. 성주·영산 진출.
- 8. 8. ○국군 제1사단, 해평(왜관 북방)에서 북괴군과 격전.
○미 해병대, 낙동강 돌출부(영산)에서 역습, 오봉리 능선 탈환.
- 8. 9. ○국군 수도사단, 안강·기계에서 북괴군과 격전.
- 8.10. ○국군, 포항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미군 증원부대(브래드릭 특수임무부대) 포항—영일 지구로 이동.
- 8.13. ○국군(제1·제6·제8사단), 대구로 지향된 북괴군 주공과 격전 전개.
- 8.15. ○북괴군(제8사단), 의성 침공.
- 8.17. ○국군 제3사단, 독성동에서 구룡포로 해상철수.
- 8.18. ○국군 수도사단, 기계 탈환.
○국군 제1사단·미 제27연대, 다부동에서 반격 개시. 2 km 진출.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 8.19. ○맥아더 원수, 콜린스 대장·서먼 제독과 인천상륙작전·북진 가능성 논의.
- 8.20. ○포항지구 전투사령부 및 브래드릭 특수임무부대 해체.
- 8.22. ○국민병 소집 개시.
- 8.24. ○북괴군(제9사단), 협천에 집결, 낙동강 도하 준비.
- 8.25. ○북괴군(제12사단), 기계·안강 침공.
- 8.26. ○인천상륙부대, 제10군단 창설.
- 8.27. ○국군 제3사단, 포항·경주 지구에서 북괴군과

격전.

- 국군 제1사단, 다부동에서 북괴군 3개 사단과 격전.
- 8.28. ○영 제27여단, 부산에 도착.
- 8.30. ○미 제8군, 낙동강 방어선에 부대 증강배치.
- 8.31. ○북괴군 제1군단, 낙동강 서부 지역을 공격(9월 공세 개시).
- 9. 2. ○북괴군 제2군단, 낙동강 북부 지역을 공격(9월 공세 개시).
- 중공군 대부대, 한·만 국경선으로 이동.
- 9. 3. ○국군, 제1사단은 팔공산, 제6사단은 화산, 제7사단은 영천, 제3사단은 형산강에서 각각 격전.
- 9. 5. ○북괴군(제15사단), 영천지구로 진출.
- 육군본부, 부산으로 이동.
- 9. 6. ○국군 제8사단, 영천 전투 전개.
- 9.10. ○국군 제7·제8사단, 영천지구에서 북괴군 제15사단 공격.
- 국군 제1사단, 팔공산지구에서 북괴군 제1사단 공격.
- 9.15. ○미 제10군단, 인천 상륙작전 단행.
- 9.16. ○미 제8군,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반격 개시.
- 9.17. ○미 제5해병연대, 김포 비행장 탈환.
- 9.18. ○국군 제17연대, 영등포 진격.
- 9.19. ○국군·유엔군, 낙동강 도하 작전 개시.
- 9.21. ○국군 제1사단, 다부동 탈환.
- 9.25. ○국군 수도·제1·제6·제7·제8사단, 북진 계속.
- 9.26. ○낙동강에서 북상한 미 제777특수임무부대, 미

- 제7사단의 선봉부대와 오산에서 연결.
- 국군 제8사단은 안동, 제1사단은 상주, 미 제24사단은 영동, 미 제2사단은 거창 탈환.
 - 9.27. ○서울 탈환.
 - 국군 제3사단은 울진, 수도사단은 춘양, 제6사단은 문경, 제1사단은 보은을 각각 탈환.
 - 9.28. ○국군 제8사단은 영주, 제6사단은 충주, 미 제24사단은 대전, 미 제2사단은 전주를 각각 탈환.
 - 9.28. ○수도 환도식 거행.
 - 9.30. ○국군 제6사단은 원주, 미 제25사단은 군산을 각각 탈환.
 - 10. 1. ○국군 수도·제3사단, 동부전선에서 38도선 돌파. 양양 탈환.
 - 유엔군사령관, 김일성에게 항복 요구.
 - 10. 2. ○중공 외상 주은래, 한국군을 제외한 유엔군이 38도선 돌파시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
 - 유엔군사령부, 북진계획(작전명령 제2호)을 하달.
 - 10. 6. ○국군 제6사단, 춘천에서 38도선 돌파.
 - 원산상륙부대(미 제1해병사단), 인천에서 승선 개시.
 - 10. 7. ○유엔총회, 유엔군의 북한진격과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설치안 의결.
 - 10. 8. ○국군 제8사단, 동두천에서 38도선 돌파.
 - 서울—부산 간 철도 개통.
 - 10. 9. ○유엔군사령관, 북괴군에게 무조건항복을 재차

- 요구. 북괴 거부.
- 미 제1기병사단, 개성에서 38도선 돌파.
 - 국군 제7사단, 포천(양문리)에서 38도선 돌파.
 - 10.10. ○국군 수도·제3사단, 원산 탈환.
 - 10.11. ○국군 제1사단, 고랑포에서 38도선 돌파.
 - 국군 제6·제8사단, 평강 탈환.
 - 10.15. ○중공군, 한·만 국경선을 넘어 한국에 침입.
 - 10.16. ○맥아더 원수, 웨이크 섬 회담에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중공군의 개입이 없을 것임을 천명.
 - 10.17. ○정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증거 발표.
 - 국군 수도사단, 함흥·홍남 탈환.
 - 유엔군사령관, 정주—함흥을 잇는 북진한계선을 성천—성진 선으로 연장(작전명령 제4호).
 - 10.19. ○국군 제1사단·제7사단 제8연대·미 제1기병사단, 평양 탈환.
 - 10.20. ○미 제187공수연대, 숙천—순천에 낙하.
 - 10.21. ○미 제1군단, 평양에 군정 실시.
 - 10.24. ○유엔군사령관, 북진한계선을 철폐하고 전 유엔군에게 국경선으로의 진격을 명령.
 - 10.25. ○국군 제1사단, 운산에서 최초로 중공군을 생포.
 - 중공군, 제1차 공세 개시, 운산·온정·희천·구장동 일대에서 국군·유엔군을 공격.
 - 10.26. ○국군 제6사단, 국경선 초산에 도달.
 - 10.27. ○서해안의 미 제24사단, 중공군의 저항없이 진격 계속.
 - 미 제1해병사단, 원산에 행정적 상륙.
 - 정부행정관서, 서울로 복귀.

- 10 30. ○국군 제6사단, 온정지구에서 중공군과 접전, 후퇴.
○미 제24사단의 선봉 영국군 아길 대대, 정주 공격.
○미 제7사단 선봉연대, 풍산 진격.
11. 1. ○국군 제1사단·미 제1기병사단, 운산에서 중공군과 격전.
○서부전선 미 제8군, 중공군 개입에 대비 청천강 선으로 철수 개시.
○중공군, 구장동에 진출.
11. 2. ○동부전선의 국군(수도사단), 길주로 전진.
○유엔군, 운산에서 후퇴. 정주—태천—구장선에 방어선 구축.
11. 3. ○미 제8군, 영변—영원 선에서 부대 재정비.
○미 제7사단 주력, 이원에 행정적 상륙.
○중공군, 원리 돌파. 군우리로 진격.
11. 4. ○미 제1해병사단, 장진호에서 중공 제124사단과 첫 교전.
11. 5. ○미 제3사단, 원산에 행정적 상륙.
○중공군, 박천에 침입.
11. 6. ○유엔군사령관, 중공군 개입 사실을 시인하는 성명 발표.
○유엔군사령관, 압록강 교량 폭파를 명령.
11. 7. ○정부, 전국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제주·경남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경비계엄 실시.
11. 8. ○미 제5공군의 F-80 전투기, 중공군 MIG-15 전투기와 최초 공중전 전개.
- 11.10. ○유엔 참전국, 공동성명을 통해 중공군의 철퇴

를 요구, 중공의 영토권 존중을 공약.

- 11 11. ○국군·유엔군, 청천강 지역에 집결.
- 11 14. ○미 제1기병사단, 청천강 북안에서 4km 전진.
- 11 16. ○동부전선의 미 제7사단은 부전호, 미 제1해병사단 장진호로 진출.
○서부전선의 국군 제1사단, 청천강 북방 11km 진격. 미 제1기병사단, 영변 북방 2 km 진격. 미 제24사단, 박천 동북 2 km 진격.
- 11 17. ○국군, 원리—덕천—영원 선 확보.
- 11 18. ○미 제7사단, 갑산 3 km 남방 진출.
○중공·북괴군, 서부전선 전역에서 돌연 전면 후퇴.
- 11 21. ○미 제7사단, 해산진에 도달.
- 11 22. ○영국 외상, 중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대 중공 각서 전달.
- 11 24. ○맥아더 사령관, 전쟁 종결을 위한 총진격을 명령.
- 11.25. ○동부전선의 국군 수도사단은 청진, 제3사단은 함수 진격.
○중공군, 서부전선에서 제2차 공세 전개.
○서부전선 미 제8군, 태천—영원 선에서 철수 개시.
- 11.26. ○미 제2사단, 청천강으로 철수.
○국군 제3사단, 나남으로 진격.
- 11.27. ○중공군, 동부전선(장진호)에서 미 제10군단을 포위 공격.
○중공군, 서부전선 미 제8군의 우익(국군 제2군단) 방어선을 집중 공격.

- 11.29. ○미 제1해병사단,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5개 사단과 격전.
○터키군,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덕천에서 철수.
- 11.30.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 해산진 진격.
○트루만 미국 대통령, 한국에서의 원폭사용 가능성을 시사.
- 12 1 ○유엔군사령부 작전회의, 전 유엔군의 전면 후퇴를 결정.
- 12 4 ○맥아더 사령관, 중공군 30만 명이 북한에 집결중이라고 언명.
○국군·유엔군, 평양에서 철수.
- 12 6. ○미 제1해병사단, 장진호에서 홍남으로 철수작전 개시.
- 12 7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 12.10 ○중공군, 해주—사리원—곡산 선으로 진출.
- 12.11 ○장진호 철수부대, 홍남 교두보에 도착.
- 12.13 ○중공군, 사창리·화천·양구 지구로 진출.
- 12.14. ○동부전선의 국군·유엔군, 홍남에서 해상 철수 개시.
- 12.15 ○미 제8군, 38도선에 신 방어선 구축.
- 12.16 ○미국, 전면전쟁에 대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 중공 전면 수출금지령 발표.
○국민방위군법, 국회 통과.
- 12.19 ○유엔 해군, 홍남 교두보 외각에 함포 엄호사격 집중.
- 12.22. ○중공군, 연천—금화—화천 선에 대거 집결.
- 12.24 ○국군·유엔군 병력 12만 명과 피난민 10만 명, 홍남에서 해상 철수 완료.

- 중공군, 38도선을 넘어 남침 개시.
 - 정부, 서울시민에게 대피령.
 - 12.26. ○중공군, 개성·연천·춘천 지구로 계속 남하.
 - 12.27. ○미 제10군단, 미 제8군에 배속.
 - 12.30. ○맥아더 원수, 미 합참에 대 중공 확전을 건의.
 - 12.31. ○중공군 6개 군, 제3차 공세 전개.
- 1951.
- 1. 1. ○유엔 공군, 개전 이래 최대(812회) 출격.
 - 1. 3. ○중공군, 미 제24사단 방어지역 돌파. 서울 북방 11 km 지점 진출.
○정부, 부산으로 이동.
 - 1. 4. ○국군·유엔군, 서울에서 후퇴.
○30만 서울시민, 결빙된 한강 도하 피난.
 - 1. 6. ○중공군, 흥천·원주 진출.
 - 1. 7. ○중공군 선두 정찰부대, 수원 진출.
○국군·유엔군, 평택—삼척 선으로 철수.
 - 1.11. ○미 제2사단, 원주에서 중공군과 격전.
 - 1.14. ○국군·유엔군, 37도선인 평택—삼척 선에 산방어선 구축.
 - 1.15. ○미 제8군, 반격 준비, 오산 일대에 대한 위력수색 실시.
 - 1.21. ○미 제2사단, 원주 탈환.
 - 1.24. ○국군 제7사단, 영월 탈환.
 - 1.25. ○미 제1·제9군단, 한강선 진출을 목표로 반격작전 개시.
 - 1.26. ○미 제1군단, 수원 금량장 탈환.
 - 1.28. ○터키여단, 안양 수리산 공격.
○미 제2사단 선봉, 횡성 진격.

- 2. 1. ○유엔총회, 중공을 침략자로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 2. 5. ○중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미 제10군단, 홍천을 목표로 라운드 업 작전 개시.
- 2. 7. ○중공군, 중부전선에서 총퇴각 개시.
- 2. 9. ○미 제25사단 주력, 한강 남안 진출.
- 2.10. ○유엔군, 영등포·김포 비행장 탈환.
- 2.11. ○중공군, 중부전선 지평리—평창 간에서 2월공세 개시.
○동부전선의 국군, 38도선 돌파. 양양 탈환.
- 2.15. ○미 제2사단 제23연대, 지평리에서 중공군(제39군)의 포위공격을 격파.
- 2.16. ○유엔 해군, 원산항 봉쇄 개시.
- 2.21. ○중부전선의 미 제9·제10군단, 원주—강릉 간 도로 확보를 목표로 킬러 작전 개시.
- 3. 7. ○미 제8군, 춘천 선 진출을 위한 리파 작전 개시.
○미 제25사단, 양수리에서 한강 도하.
- 3.14. ○국군 제1사단·미 제3사단, 서울 탈환.
- 3.19. ○중공군, 38도선 이북으로 철수.
- 3.21. ○미 제1기병사단, 춘천 탈환.
- 3.22. ○미 제8군, 임진강—38도선으로 진격하기 위한 커레이저어즈 작전 개시.
- 3.23. ○미 제187공수연대, 문산 투하(토마호크 작전).
- 3.28. ○미 제25사단은 포천, 미 제3사단은 동두천을 각각 탈환.
- 4. 2. ○국회, 38도선 정지·평화 교섭·완충지대 설치 등에 반대하는 서한을 유엔·미국·맥아더 원수

에게 발송하기로 결의.

- 4 5. ○미 제8군, 임진강—38도선(캔사스 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러기드 작전 개시.
- 한강철교 복구.
- 4. 8 ○국군·유엔군, 캔사스 선에 도달.
- 정부, 일부지역에 비상계엄 해제하고 공비토벌지역에 경비계엄 실시.
- 4.10 ○미 제8군, 캔사스 선에서 철의 삼각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돈틀리스 작전 개시.
- 4 11 ○유엔군사령관 경질, 리지웨이 대장 취임.
- 4.21. ○국군·유엔군, 철의 3각지대 확보.
- 4 22. ○중공군, 화천 이서지역에 주공을 지향시킨 제1차 춘계공세 전개.
- 4 29. ○유엔군, 불광동—상계동—퇴계원—대포리(동해안)를 잇는 골든—노네임 선에서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격퇴.
- 4.30 ○국회, 국민방위군법·향토방위군법 폐지 결의.
- 5 3. ○국군·유엔군, 전 전선에서 경찰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한 공격작전 개시.
- 유엔군 전차부대, 의정부 진격.
- 5 13. ○중공군, 인제지구에 대병력 집결.
- 5.16 ○중공군, 화천 이동 지역에 주공을 지향한 제2차 춘계공세 전개.
-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전을 협상으로 종결시킨다는 방침 확정.
- 5 18 ○국군·유엔군, 홍천—속사리—강릉 북방 선(노네임 선)에서 중공군 공세를 격퇴.
- 유엔 총회, 중공·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 금지를 결의.
- 5.19. ○중공군 제63군, 국군 제6사단의 용문산 방어 진지를 공격.
 - 5.21. ○미 제8군, 캔사스 선으로 재진출하기 위한 총 반격전 개시.
 - 5.24. ○미 제8군, 중간 작전통제선인 토페카 선(문산—포천—화천—한계)으로 진출.
 - 5.30. ○미 제8군, 캔사스 선에 도달.
 - 6. 3. ○미 제1·제9군단, 철의 삼각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파일 드라이브 작전 개시.
 - 6.12. ○미 제1·제9군단, 철의 3각지대 확보.
 - 6.23. ○소련 대표 말리크, 유엔에서 휴전회담 제의.
 - 6.28. ○전 전선, 소강상태 유지 국지전 치열.
 - 7. 3. ○정부, 미 대통령에게 휴전협상 반대 전문 발송.
 - 7.10. ○휴전회담, 개성에서 개막.
 - 7.13. ○한·미 환율, 6,000:1로 결정.
 - 7.30. ○미 제2사단, 해안분지(편치불)의 서쪽 대우산(1179고지) 점령.
 - 8. 1. ○공군, 제1전투비행단 창설.
 - 8. 3. ○휴전반대 군·민 대회, 전국 각지에서 연일 개최.
 - 8.18. ○국군 제1군단·미 제10군단, 중동부전선에서 제한공격작전인 크리퍼 작전 전개.
○국군 제35연대(미 제2사단 배속), 양구 북방 피의 능선 전투 개시.
 - 8.22. ○휴전회담 공산측 대표, 유엔기의 중립지대 침범을 이유로 회담 거부.

- 8 28. ○중동부전선의 국군(제8·수도·제11사단), 크리퍼 작전의 목표인 J능선(1031고지)과 924고지—884고지를 점령.
- 9 5. ○미 제2사단, 피의 능선 점령.
- 9 13. ○미 제2사단, 단장의 능선 전투 개시.
- 9.16. ○미 제1해병사단, 812고지 공격 개시.
- 9.20. ○미 제1해병사단, 812고지 점령.
- 10 3. ○미 제1·제9군단, 철원—연천을 잇는 주보급로의 안전을 위하여 주저항선을 10 km 전방의 제임스 타운 선으로 전진시키는 코맨도 작전 전개.
- 10.12. ○미 제1·제9군단, 제임스 타운 선 확보.
- 10.15. ○미 제2사단, 단장의 능선 점령.
- 10 21 ○중동부전선의 국군·유엔군, 교암산을 연하는 포라 선으로 진출.
- 10.25. ○휴전회담, 2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재개.
○국군 제7사단, 크리스마스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 격퇴.
- 10.28. ○휴전회담, 군사분계선을 휴전 조인시의 접촉선으로 설정하기로 합의.
- 11.12 ○유엔군사령관, 유엔군에게 공격작전을 중지하고 공세적 방어로 전환할 것을 명령.
- 11 30. ○정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공고.
- 12 1 ○정부, 공비토벌을 위해 일부 작전지역에 비상계엄 실시.
- 12. 2 ○국군 수도·제8사단,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작전 개시.
- 12 18. ○휴전회담 쌍방 대표, 포로명단 교환.

1952. 1. 2. ○휴전회담 유엔군측 대표, 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원칙 제의.
○전 전선 교착.
- 1.11. ○국군 제10전투비행전대, 승호리(평양 동쪽) 철교 차단작전 실시.
- 1.18.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인접해양 주권) 선언.
○국회, 정부 개헌안 부결.
- 2.10. ○미 제8군, 공산군을 유인·생포하기 위한 기만작전(크레임 업 작전) 실시.
- 4.17.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안 발의.
- 4.28. ○휴전회담, 공산군측 요구로 무기한 휴회.
○정부, 각 지방 계엄령 해제.
5. 7.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발생. 소장 도드 준장 공산군 포로에게 피납.
- 5.26. ○부산 정치 파동, 대통령 직선제 강행으로 정계 격동.
6. 6. ○미 제45사단, 백마고지에서 불모고지에 이르는 11개 전초진지를 점령하기 위한 21 일간의 카운터 작전 개시.
- 6.23. ○유엔 공군기 500대, 수풍 등 5대 발전소 폭격.
7. 4. ○국회, 발췌개헌안 통과.
- 7.10. ○동해안 351고지, 쟁탈전 개시.
- 7.19. ○미 제2사단, 철원 서측방에서 불모고지 쟁탈전 전개.
8. 5. ○정·부통령 선거(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 실시.
- 8.16. ○미 제1해병사단, 중공군의 7차에 걸친 병커고지(122고지) 공격을 격퇴.

- 9. 6 ○국군 수도사단,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 개시.
- 9 12 ○정부, 송환 거부 포로의 제3국 이송 반대 성명.
- 9 21 ○국군 제8사단, 해안분지 동북방 812·854 고지에서 격전 전개.
- 9.28. ○국군 제3사단, 북한강 부근 피의 고지·독수리 고지 전투 개시.
- 9.29 ○공산군, 개전 이래 최대 포격. 전 전선에 47,000발 포격.
- 10 3 ○국군 해병제1전투단, 공산군의 공격으로 판문점 남방 고지(37전초)에서 철수.
- 10. 6 ○중·동부전선,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재개.
 - 중공군, 철원 서쪽 국군 제1사단의 2개 전초(니카·테시)를 공격.
 - 중공군, 프랑스 대대의 화살머리고지를 공격.
 - 중공군, 국군 제9사단의 백마고지에 93,000발 포격. 동 고지 공격.
- 10.14. ○미 제9군단, 쇼다운 작전 실시.
 - 국군 제2사단, 저격능선에서 격전.
- 10 15 ○국군 제9사단, 12회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백마고지 확보.
- 10 25 ○미 제7사단, 김화지구 삼각고지 탈환전 실패.
- 11.24. ○국군 제2사단, 중공군의 끈질긴 저격능선 공격을 격퇴.
- 12 2 ○아이젠하워 차기 미국 대통령 내한. 3일간 전황 시찰.
- 12 13 ○국군 제1사단, 노리 고지에서 격전 전개.
- 12 18. ○영연방 제1사단, 사미천 지역 후크 전초진지에

서 격전 전개.

- 1953.
- 1. 5. ○ 이승만 대통령 방일.
 - 1 25 ○ 미 제7사단, 역곡천 부근 전초진지 공방전 전개.
 - 2.15. ○ 국군 제10전투비행단 창설.
 - 2 19. ○ 미 공군기 24대, 수풍발전소 재차 폭격.
 - 2 22. ○ 유엔군사령관, 공산측에 상병포로 교환에 관한 서한 전달.
 - 3 23. ○ 중공군, 연천지구 미 제7사단의 불모고지·포크참고지 전초진지 공격.
 - 3.26. ○ 미 해병제1사단, 고랑포 부근 3개 전초진지(칼슨·레노·베가스) 쟁탈전 전개.
 - 3 28 ○ 공산측, 상병포로 교환에 동의. 휴전회담 재개 제의.
 - 4 2. ○ 국군 제3사단, 화천 북방 689고지(텍사스 고지) 전초 쟁탈전 전개.
 - 4.16. ○ 미 제7사단, 포크참 전초진지에서 재차 격전.
 - 4 20 ○ 유엔군·공산군, 상병포로 교환(리틀 스위치 작전) 개시.
 - 4.26. ○ 상병포로 교환 완료.
○ 휴전회담, 6개월 만에 재개.
 - 4 27 ○ 유엔군사령부, MIG기 귀순에 10만 불 현상.
 - 5.25. ○ 터키여단(미 제25사단 배속), 고랑포 부근 네바다 전초진지 쟁탈전 전개.
 - 6. 1. ○ 신편 국군 제12사단, 중동부전선 노전평지구의 2개 전초진지(854·812 고지)에서 쟁탈전 전개.
 - 6. 2. ○ 동해안 국군 제15사단, 351고지에서 격전.

- 6. 7. ○ 정부, 휴전에 대비 전국에 준 비상계엄령 선포
(8월 26일 해제).
- 6. 8. ○ 휴전회담, 포로송환문제 타결로 완전합의.
○ 국무회의, 휴전 거부 결의.
- 6.10 ○ 중공군, 화천 북방 국군 제2군단 방어선 금성
돌출부에 대한 대공세(6월공세) 전개.
○ 국군 제20사단, 중동부 전선 M-1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전개.
- 6.15. ○ 유엔 해·공군, 2,115회 출격. 최고기록 수립.
- 6.18. ○ 반공포로 26,930명 석방.
- 6.25 ○ 국군 제1사단, 연천 서북방 킴·박 고지 쟁탈전
전개.
○ 국군 제7사단, 화천 북방 선우고지(938고지) 쟁
탈전 개시.
○ 국군 제3사단, 화천 북방 관망산(529고지) 쟁탈
전 전개.
○ 로버트슨 미 대통령 특사 내한.
- 6.29 ○ 국군 제2사단, 철원 북방 화살머리고지(281고
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
- 7.12. ○ 이승만 대통령, 로버트슨 특사의 제의 수락(주
요내용: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20개 사단 증
편. 2억 불의 경제원조).
- 7.13 ○ 중공군,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 정면에 최
후공세(7·13공세) 개시.
○ 국군 제2군단,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 개시.
- 7.19 ○ 국군 제2군단, 반격으로 금성천까지 진출.
- 7.20. ○ 국군 제7사단, 화천 북방 별우고지(425고지)에
서 중공군 공격 격퇴.

- 7.22. ○전 전선 상황, 소강상태 돌입.
- 7.27.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
 - 22 00, 전 전선에서 전투 종료.

참 고 문 헌

- 한국전쟁사(1~11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1980.
 한국전쟁사연구(1~2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6
 한국전란지(1~3권), 국방부, 1951-1954
 정훈대계, 국방부, 1956.
 국방사(1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국방조약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한국전사, 합동참모본부, 1984
 6·25사변 육군전사(1~7권), 육군본부, 1952-1957.
 육군발전사(상권), 육군본부, 1970.
 북괴 6·25남침 분석, 육군 정보참모부, 1970
 부대약사, 육군본부, 1955.
 중공군사, 육군본부, 1964
 판문점, 육본 정보참모부, 1972.
 공비연혁, 육본 정보참모부, 1971
 대한민국해군사, 해군본부, 1954, 1961.
 해병발전사, 해병대사령부, 1961.
 공군사(제1집), 공군본부, 1962.
 해방 22년사, 안철규, 서병일, 오소백, 서울문학사, 1966-1967.
 주한미군 30년, 서울신문사, 삼보인쇄사, 1979
 판문점 20년, 김석영, 진명문화사, 1973
 좌익사건실록, 대검찰청수사국, 광명인쇄공사, 1965
 한국전쟁, 메듀 B. 리지웨이(김재관 역), 정우사, 1981.
 한국문제유엔결의문집, 정일형, 국제연합한국협회출판부, 1954
 국제연합군, 최종기,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3
- 다부동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장진호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2
 웅문산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신녕·영천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백마고지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청천강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평양탈환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맹호사, 수도사단사령부, 1980.
전진역사(제1집), 제1사단사령부, 1966
백골사단역사, 제3사단사령부, 1980
부대역사, 제5사단사령부, 1969.
청성전사, 제6사단사령부, 1981
철성역사, 제7사단사령부, 1970
오뚜기역사, 제8사단사령부, 1980
백마부대사, 제9사단사령부, 1982
화랑약사, 제11사단사령부, 1975
울지역사, 제12사단사령부, 1980
사단역사, 제15사단사령부, 1955.
울베미약사(제1집), 제20사단사령부, 1974

Policy and Direction, James F. Schnabel,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0.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Roy E. Applema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lter G. Hermes,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 of Staff,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Historical Div. U. S. J.C.S., 1978.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James A Field Jr.,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Headquarters, U. S. Marine Corps, 1954-1972.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53, Robert F. Futrell,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83
The U. 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971-1982, James P. Finley,

- Headquarters, USFK/EUSA, 1983.
- History of U. N. Forces in Korea* (vol. I~vol. VI), War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MND ROK., 1972-1977.
- The Limited War*, David Rees, ST Martins Press N. Y., 1964.
- Some Causes of the Korean War*(1950), Jin Chull Soh, University of Oklahoma, 1963.
- War in Peace Time*, Lawton J. Collins, Houghton Mifflin, Boston, 1969.
-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R. N. Dupuy & T.N. Dupuy, Harper & Row publisher, N.Y., 1970.
- MacArthur Hearings*, Committee on Armed Servic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 The Kind of War*, T. R. Fehrenbach, Pocket Books, INC. N.Y. 1964.
- Red China's Fighting Hordes*, Robert B. Rigg, The Military Service Publishing Company, Harrisburg, Pennsylvania, 1951.
-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C. N. Barclay, Gale & Polden Ltd. London, 1954
- Australia in Korean War*, Robert O'Neill, Canberra, Australia, 1981.
- The Korean Knot*, Carl Berg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Robert K. Sawyer, U. S. Department of the Army, 1962

韓國戰爭 要約

1986年 11月 1日 印刷

1986年 11月 5日 發行

發行人 尹 錫 宇

發行處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 2洞 山5의 7
國防部 戰史 編纂 委員會

印刷處 서울特別市 九老區 加里峰洞 319-9
株式會社 興 學 社

<非賣品>